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라도삼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 정 연
2004-R-37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Expansion Plan of Seoul's Cultural Facilities

2004

연구진

연구책임자: 라도삼 •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신슬기 • 도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 목적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맞추어, 서울의 균형상태 및 특화 정도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필요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개발방향 마련

2. 연구내용

- 서울시 전반의 문화시설 현황 분석
- 부족한 문화시설 현황 파악
- 뉴타운 대상지별 문화시설 설치계획 마련
- 종합적인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

3. 연구결과

- 기간 꾸준히 공연장 및 전시장, 지역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한 결과 많은 수의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서울시가 발행한 <도시비교통계>를 활용하여 다른 도시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문화시설 수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부족하진 않으나, 인구대비에 있어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시설수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인구과밀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표 1> 서울시 문화시설 전체현황

권역	공연시설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도서관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계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및 전시실	화랑	계	체인형 멀티플렉스	총 개소수	구민회관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계		지방문화원	전수회관	국악원	계
도심권	4	24	54	82	14	27	13	127	181	2	23	3	1	0	4	13	3	0	0	3
동남권	4	12	7	23	7	12	8	79	106	1	19	4	2	1	7	10	3	3	1	16
동북권	3	4	5	12	1	15	3	3	22	1	8	8	5	1	14	13	8	1	0	21
서남권	2	3	2	7	0	5	3	3	11	3	12	7	13	4	24	10	7	0	0	17
서북권	0	1	4	5	0	7	3	11	21	1	6	3	4	0	7	4	3	0	0	7
계	13	44	72	129	22	67	30	223	342	8	68	15	25	6	46	50	24	3	1	28

<표 2> 세계 도시와의 문화시설 개소수 순위 비교

구분	시설수	면적대비 시설수	인구대비 시설수
연극공연장 (33개 도시 중 순위)	2	5	18
미술관 (16개 도시 중 순위)	8	9	12
박물관 (32개 도시 중 순위)	11	15	26
영화관 (35개 도시 중 순위)	18	20	33

※ 순위비교는 자료가 수집된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음

- 보다 심각한 문제는 시설 간 불균형임. 서울시 문화시설의 경우 대부분 공연장과 전시장 등 발표시설로 되어 있어 예술활동의 기반인 창작시설이나 산업관련 시설, 보존 및 전수 시설, 지역문화를 특화한 특성화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향후 확충방향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아니라 예술창작의 기반이 되는 시설, 예술시장과 산업의 창출을 위한 시설, 지역의 특화와 특성화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분야별 / 요소별 문화시설 현황

분야 요소	시설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상/영화	애니메이션	문학	전통문화
창작/제작	창작 스튜디오	-	3	-	-	-	-
	창작지원센터	-	-	2	1	-	-
	창작촌	-	-	-	-	-	-
	공공연습실	-	-	-	-	-	-
발표/전시	공공발표시설	5	1	-	-	-	2
	전문발표시설	18	20	-	-	2	-
	소규모 발표시설	72	223	-	-	-	-
	일반영화관	-	-	59	-	-	-
	체인형 멀티플렉스	-	-	8	-	-	-
	예술영화상영관	-	-	1	-	-	-
보급/전수	지방문화원	-	-	-	-	-	24
	전수회관	-	-	-	-	-	4
	공공박물관	-	-	-	-	-	11
	아카이브	-	-	-	-	-	-

※ 창작 지원센터에 영상미디어센터 포함

※ 공공발표시설인 동시에 전문발표시설일 경우, 공공발표시설로 파악

※ 발표시설은 공연장, 미술관, 화랑, 문학관 등을 포함

※ 애니메이션 전용상영관은 애니메이션센터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4. 확충 방향

■ 문화예술 생태계 구성을 위한 기반시설 중심으로 시설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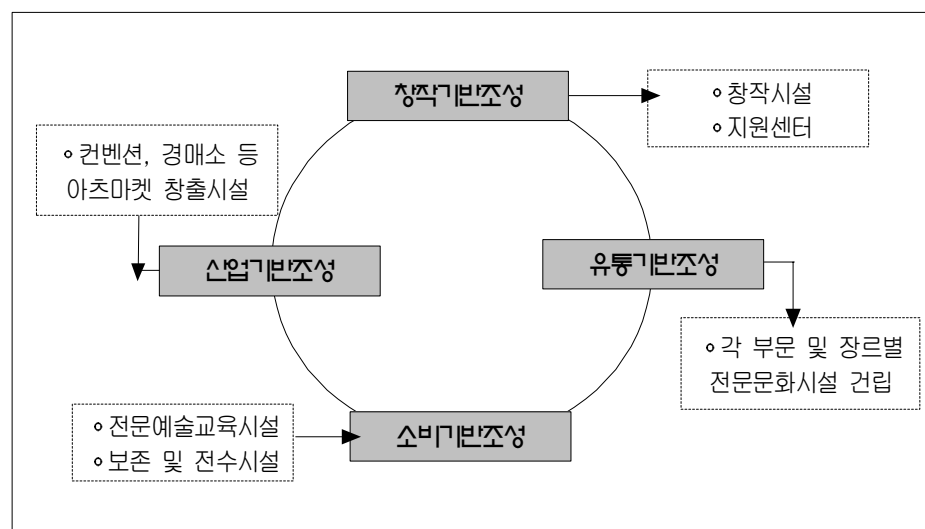
- 문화예술 또한 일반적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과 유통, 소비, 산업 등으로 생태계를 구성. 이를 기초로 하여, 창작에서부터 유통과 소비, 산업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그림 1>)

■ 지역간 균형과 특화

- 문화예술 시설의 생리는 특정 이미지가 형성된 지역이나 자원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 이에 따라 모든 지역에 골고루 문화시설을 배치하기보단 각 지역별 차이와 특화를 고려하여 밀집된 지역에는 특화된 전문문화시설을, 소외된 지역에는 소외를 보정하는 생활권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각 시설의 성격에 적합하게 분산과 밀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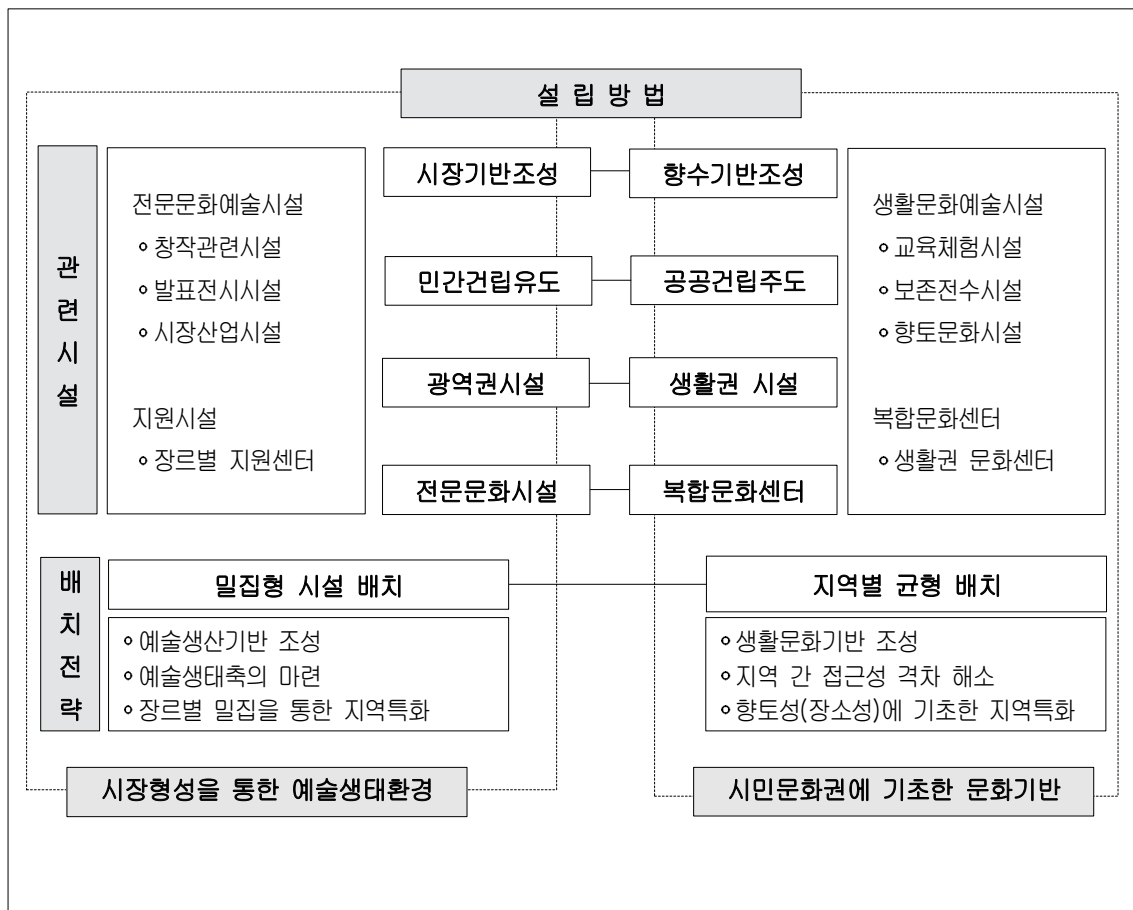
■ 전문문화시설과 생활권 시설의 차별화

- 지금껏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표/전시중심으로 개발되어 온 것이 사실. 이는 생활권 문화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대부분의 생활권 문화시설 또한 공연장 및 전시장 형태로 되어 있음



<그림 1> 예술시장의 선순환구조의 형성에 따른 시설건립방안

- 향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능의 복합과 융합. 즉 창작과 교육을 융합하고, 창작과 발표, 창작과 지역 등을 융합하는 정책이 필요
 - 각 밀집지역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설치될 전문문화시설은 창작과 발표를 융합하는 시설로,
 - 뉴타운 및 생활권에 설치될 생활권문화시설은 창작과 교육, 지역을 융합하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2> 문화기반시설 확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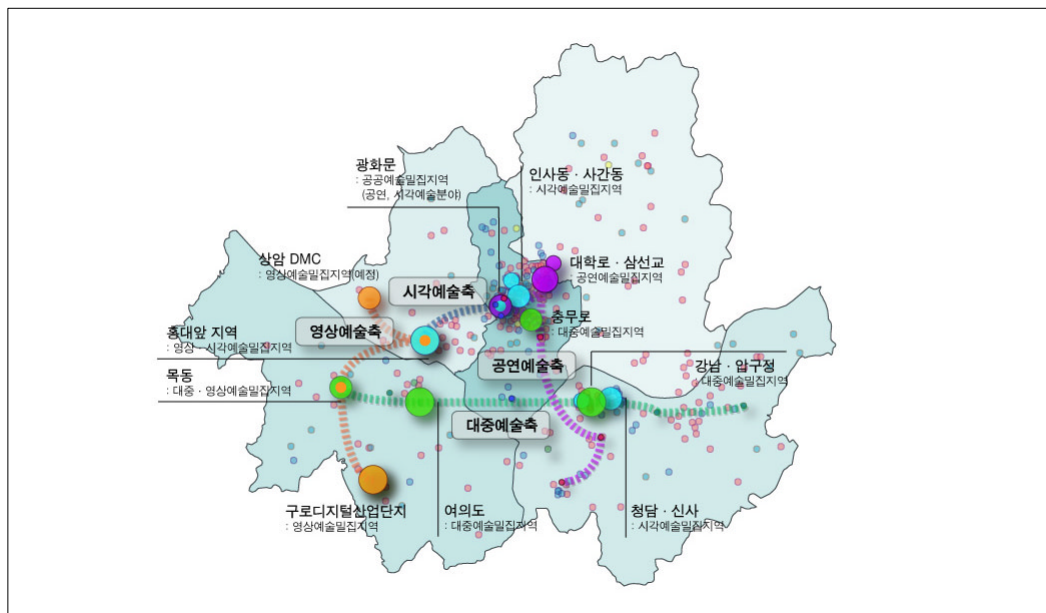
5. 각 타운별 문화시설 설치방안

■ 기본원칙

-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차등화
 - 뉴타운 내에는 생활권문화시설 설치, 균형발전촉진지구에는 전문문화예술시설 설치

<표 4>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대상 차이

구분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성격	생활환경 개선	기성상업지 관리
문화시설	공공 문화시설	민간 상업문화시설
시설성격	생활권문화시설·지역문화시설	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전문문화예술시설
기능형태	생활권 문화서비스를 고려한 문화교육 및 예술체험 시설	예술생태계 및 밀집지역을 고려한 각 장르별·부문별 문화시설
대표시설	생활문화센터(창작자와 예술가가 만나는 창구) 향토사료관·도서관 등 생활문화서비스 시설	각 장르별 전용공연장 지역밀집요소 관련 특화시설(라이브공연장 등)
설치주체	공공	민간
개발방식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용도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식



<그림 3> 서울시 문화축 및 문화시설 분포 지형도

- 지역 간 특화정도 및 차이에 대한 반영
 - 서울을 연결하는 문화예술축(cultural axis)에 대한 고려, 각 축상의 위치에 적합한 형태의 특성화된 시설설치(<그림 3> 참고)

■ 문화시설의 설치

○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의 설치

- 각 지역별 밀집자원 현황 및 예술축을 중심으로 관련요소 및 장르를 포괄하는 전문문화시설 설치

<표 5>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

대상지	주변지역 자원	설치대상 권장시설	시설내용	권장사유	비고
미아	대학로 공연예술자원	공연예술센터	공공연습실 전용공연장 공연지원센터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 및 공연시장 기반 형성	공연연습실 이용료 및 공연장 대관료로 운영
청량리	-	공공영상센터	예술영화전용극장 영상제작지원센터 영상교육센터	청량리를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개발	민간 극장 개발 시 영 상센터를 포함하여 개 발토록 유도
홍제	도심부 공공예술과 서북부 창의예술의 연결축	문화교육센터	창작스튜디오 문화교육센터	통일로를 연결하여 도심과 일산/고양 을 연결하는 창의 예술축 마련	국립보건원 이전 부지 활용 필요
합정	홍대지역 다원예술자원	창의예술센터	창작공장 라이브공연장	홍대지역 창의성과 다원성 기반 마련	당인리 발전소 활용방 안 검토
가리봉	디지털 산업단지 애니메이션 산업	디지털센터	애니메이션센터 디지털문화센터	구로 지역에 밀집 하고 있는 애니메 이션 산업 및 컨텐 츠산업 지원육성	남산애니메이션 센터 의 지원기능 이전

○ 뉴타운 내 문화시설 설치

- 생활권 문화시설로 설치하되, 각 타운별 여건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특화된 문화시설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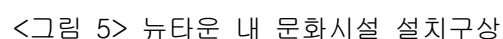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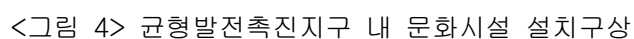
<표 6> 뉴타운 내 생활권문화시설 설치방안 (특성화 전략)

권역	타운명	계획구상(기본구상 자료)	주변지역 밀집자원	권장시설	권장사유
도심권	교남	문화시설 1개소 건립 (특성화계획 없음)	도심 미술관	공공미술관	도심권 시각예술네트워크 연결
	한남	문화시설 1개소 건립 (특성화계획 없음)	- 공연예술축선상에 위치 - 남산예술네트워크 (전통예술)	전통공연센터	공연예술축 연결
동북권	미아	문화시설 4개소 건립	-	지역미디어 센터	동북생활권 미디어교육
	길음	정보도서관, 소극장, 다목적홀, 문화강좌실을 포함한 복합문화 시설	- 대학로 공연예술 -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 과	공연예술센터	주변지역 공연자원활용 및 공연예술기반 지원
	왕십리	문화시설 건립 (특성화계획 없음)	- 골동품 등 전통예술 - 충무아트센터 (중구문화예술회관)	전통미술관 테마박물관	지역 내 향학동 특성화 유도
	전농	고미술박물관	- 학교시설 밀집 - 청량리균형발전축진지구	고미술박물관	계획반영
	한내	전시공연이 가능한 문화시설 1개소	중랑천 주변 (상습침수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관 접근성 해소
동남권	천호	IT도심문화밸리 구축	-	지역미디어 센터	개발계획 특성 수용
서북권	은평	문화시설 4개소 건립	- 경기북부지역 창작시설 - 헤이리예술촌, 고양스튜디오	창작스튜디오 (창작촌)	- 경기북부 창작네트워크 연결 - 자연경관 활용
	가좌	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시설 등	-	공공도서관	서북권 도서관 부족 해소
	아현	생활예술타운 건설	- 홍대/신촌지역 창의예술 - 도심권 시각예술	공공갤러리 (생활공방)	도심과 홍대를 연결하는 시각예술축 연결
서남권	신월	영상문화센터/도서관, 문화센터 건립	목동~강서 영상예술	영상센터	계획반영
	방화	기존학교를 리모델링한 문화센터 건립	강서미디어센터	공공도서관	- 서남권 도서관 부족 해소 - 강서미디어센터 존재 고려
	노량진	영화관, 문화센터, 전시장, 공연 장을 포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	공공공연장	한강예술네트워크 구성
	영등포	아날로지탈 타운 공연장/전시장 건립	- 하자센터 입지 - 청소년인구 밀집지역	디지털문화 센터	아날로지탈 타운 개발 컨셉 반영

※ 각 시설은 권장시설을 중심으로 복합센터형 문화시설로 건립

※ 시설성격은 주민과 예술가가 만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건립

※ 주변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다음의 시설은 기본적으로 설치 : 열람실, 자료실, 강의실, 건강·스포츠센터 등



○ 종합적인 시설설치 방안

<표 7> 지역별 배치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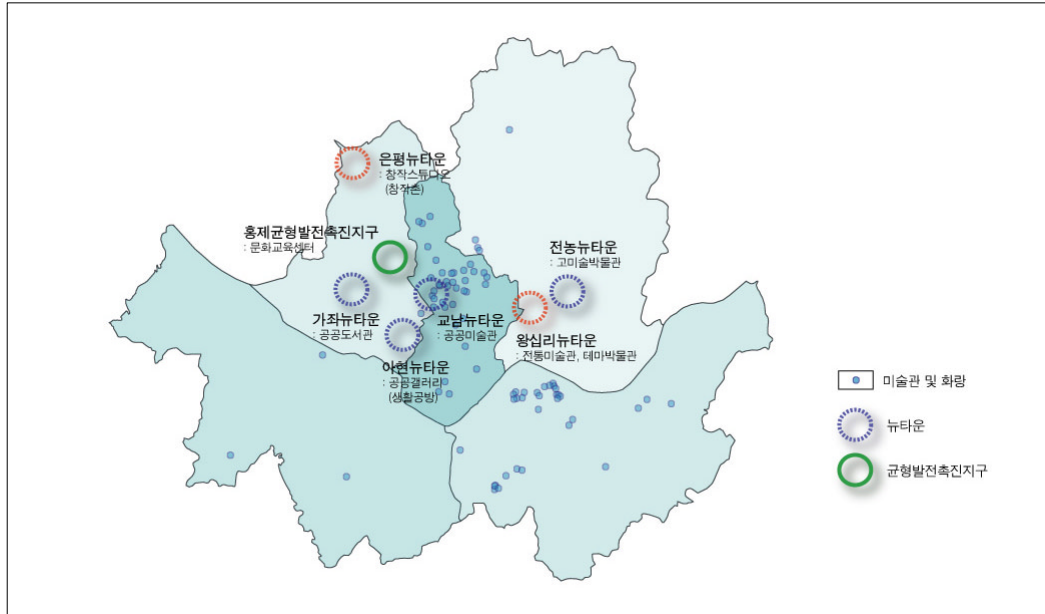
권역	권역현황 및 발전구상	대상지	설치대상시설	설치사유	시설형태 및 규모	비고
도심권	- 공공문화시설 밀집 - 상징/거점문화시설 밀집 ▷ 공공문화공간으로 발전유도	교남	공공미술관	도심 미술관 네트워크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공공미술공간화
		한남	전용공연센터	공연예술축 연결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외국인 대상 전통마케팅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상징성 제고	국가상징시설 대규모	용산 국립박물관 옆 이전 추진
			국립도서관	국가상징성 제고	국가상징시설 대규모	-
		용산 미군 기지	창작스튜디오 개발 고려 필요	이전 후, 새로운 활용방안 수립 이전에 창작스튜디오 로 임시 활용	임시시설	도시창작센터로 활용
동남권	- 영화 및 대중예술의 생산과 소비의 창구 - 국제적인 문화 감각과 선진적인 소비문화의 장 소 ▷ 대중예술산업의 배후 공간으로 조성	천호	지역미디어센터	IT밸리로 개발하는 개발계획 특성 반영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뚝섬	대중문화 전용공연장 (오페라하우스)	동남권 대중문화공연 동북권 영화/영상과 연결 (충무로 및 청량리 지역)	전문문화예술시설 대규모	-
동북권	- 공연문화예술시설 밀집 - 영화관/도서관 등 지역균형시설부족 ▷ 공연문화예술의 배후공간화 유도	미아	지역미디어센터	동북생활권 미디어 교육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왕십리	전통미술관 테마박물관	황학동 특성화 유도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충무아트센터 건립 (공연장 해소)
		길음	공연예술센터	대학로를 활용한 연극기반 문화서비스 제공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공연연습실과 생활 권시설과 복합화
		한내	공공도서관	동북권 내 동남생활권 도 서관 접근성 해소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도서관 중심의 생활 권시설의 복합화
		전농	고미술 박물관	지역 내 고미술 상가 및 황 물시장 특성화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계획반영
		미아 (균형)	공연예술센터 및 전용공연장	동북권 공연예술기반 마련 ◦ 창작실, 공연장 등으로 설립	전문문화예술시설 대규모	민간개발 유도 ◦ 창작실 이용료 및 관람료로 운영
		청량리 (균형)	멀티플렉스 및 공공영상센터	영화/영상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	전문문화예술시설 지역거점시설 대규모	민간개발 및 공공개발

<표 7> 지역별 배치구상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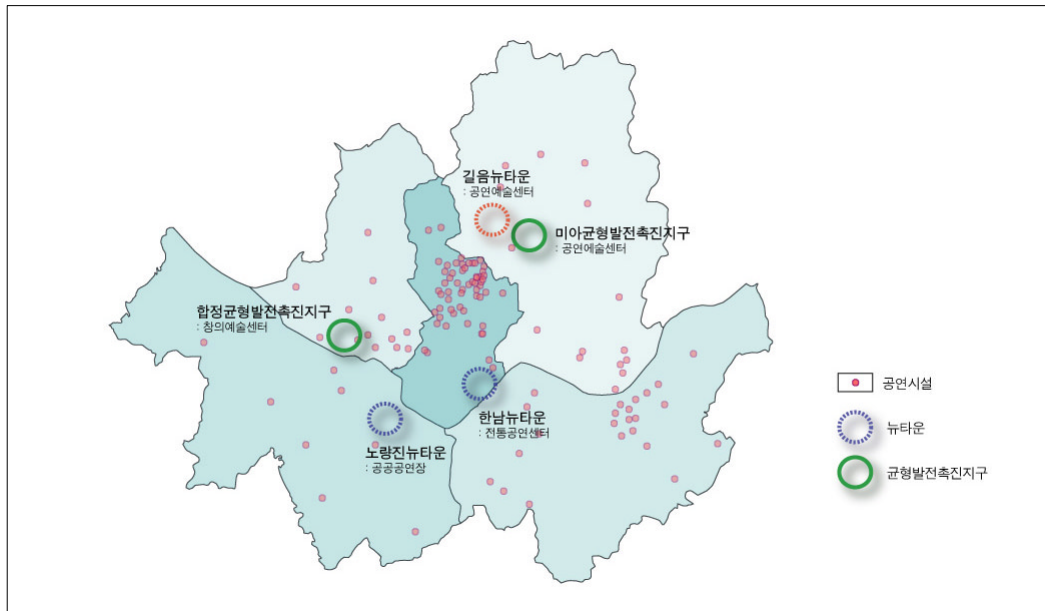
권역	권역현황 및 발전구상	대상지	설치대상시설	설치사유	시설형태 및 규모	비고
서북권	- 시각예술시설 밀집 - 다원예술 및 실험예술 밀집지역 - 도서관 등 지역균형시설 부족 ▷실험과 창작의 배후공간으로 발전유도	은평	창작스튜디오	경기북부 창작네트워크 연결 빼어난 자연경관 활용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가좌	공공도서관	서북권 도서관 해소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예정
		이현	생활예술 창작공방 (공공갤러리)	도심의 시각예술과 홍대 지역의 창조성 연결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홍제 (균형)	문화교육센터	서북권 창의성 제고	전문문화예술시설 창작시설 대규모	공공건립 추진 국립보건원 내 개발가능성 검토 필요
		합정 (균형)	라이브공연장 창의예술센터	홍대지역 공연예술지원 다원·자생예술지원	전문문화예술시설 대규모	민간개발 유도
		당인리 발전소	테마파크	홍대지역의 창의성과 한류 문화의 연결창구 역할	전문문화예술시설 시민오락시설 대규모	현재 문광부 검토 중 마곡지구 내 개발 가능성 검토 필요
서남권	- 영상예술 및 애니메이션 산업 집중 - 디지털 예술분야 발전 - 생활권 문화시설 부족 ▷영상 및 미디어 예술 특화 지역으로 조성	신월	공공미디어센터	목동지역과 강서지역을 연결하는 영상예술의 배후시설로 활용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방화	공공도서관	강서지역 내 도서관 집결성 해소	생활권편의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노량진	전용공연장	한강공연예술네트워크 구성(강변문화공간화)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영등포	디지털문화센터	아날로그탈(analogital)개념의 뉴타운성격 특화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청소년 시설과 연결하여 개발
		가리봉 (균형)	애니메이션 및 멀티미디어센터 (컨벤션센터)	디지털 단지 지원 구로애니메이션 지원 지역이미지개선 및 혁신	전문문화예술시설 지원시설 대규모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이전 추진 필요

※ 시설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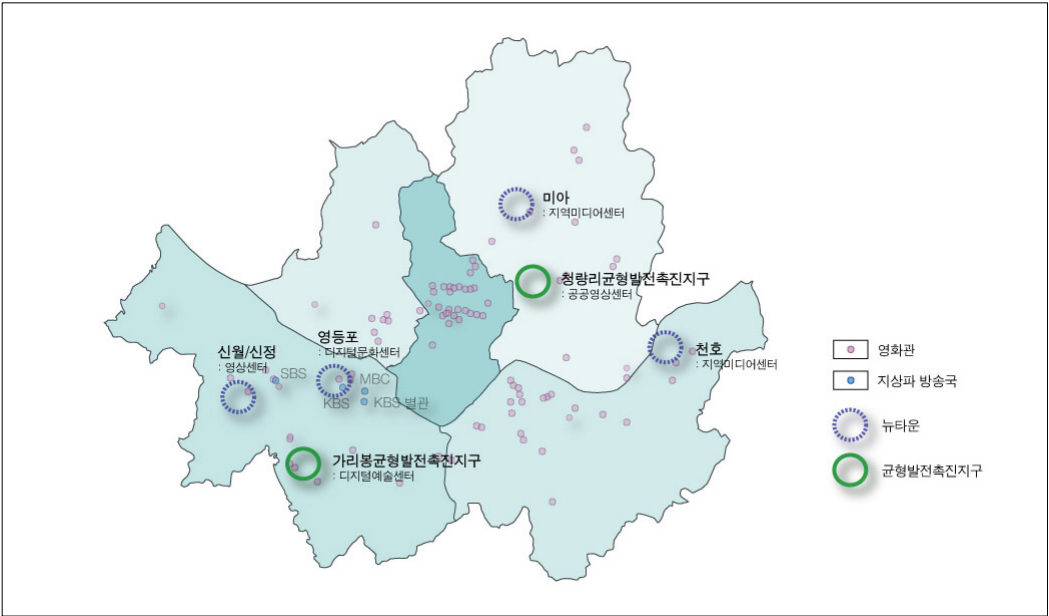
- 지역특화시설 :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한 시설
- 생활권특화/편의시설 : 생활권 문화기반시설
- 전문문화예술시설 : 문화예술장르에 속하는 문화기반시설(예술시설)
- 국가상징시설 : 국가적 상징차원에서 건립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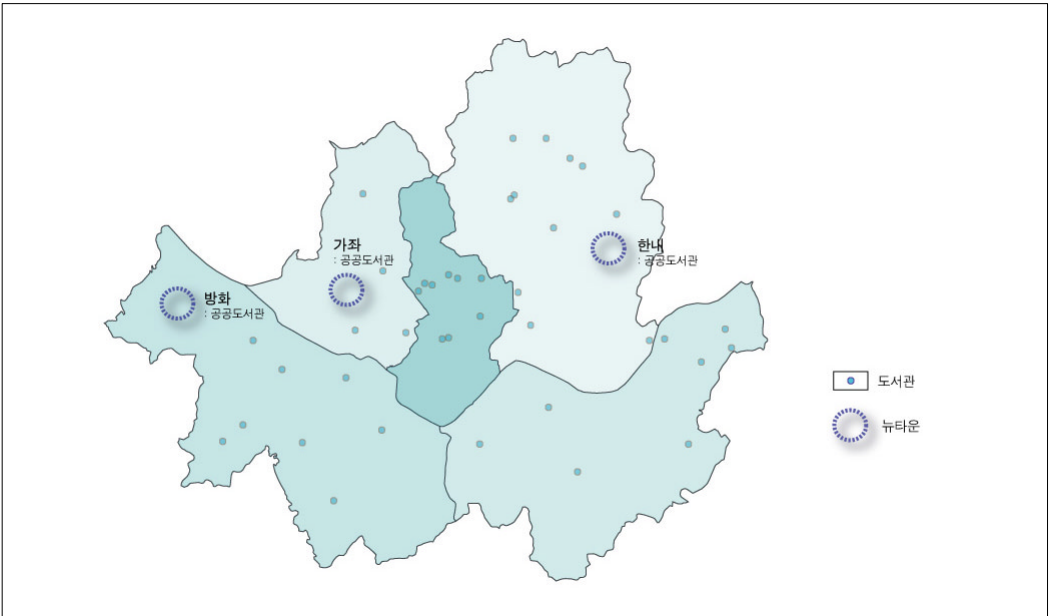
<그림 6>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시각예술



<그림 7>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공연예술



<그림 8>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영상 및 미디어예술



<그림 9>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도서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향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향	4
제3절 연구범위 및 제한	5
1. 연구범위	5
2. 연구의 제한	6
제2장 문화시설 종류와 확충방안	9
제1절 도시문화환경과 문화시설	9
제2절 문화시설의 종류와 분류체계	15
1. 문화시설의 정의와 요건	15
2. 문화시설의 종류와 분류체계의 구성	17
제3절 문화시설 확충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재	27
1. 역사적 전개과정	27
2.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황에 대한 평가	30
제3장 현재의 여건과 문제점	37
제1절 문화시설 설치 및 분포현황	37
1. 서울시 문화시설의 전반적 현황	37
2. 권역별 문화시설 현황	49
3. 분야별 현황	61
4. 요소별 현황	70
5. 문화시설 밀집지역 현황	75
6. 예술문화축 현황	79
제2절 분석의 종합	83

제4장 확충방향의 검토 및 계획구성87

제1절 확충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87

1. 각종 시민문화향수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분석87
2. 문화예술인 실태 및 관련단체·전문가 요구사항에 대한 청취101
3. 소결111

제2절 확충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113

1. 어떤 종류의 시설인가? - 종류의 개발113
2.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 입지형태 검토122
3.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개발방안129
4. 소결 : 관점의 종합과 확충 방향 설정136

제5장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143

제1절 기본방향 구상143

1. 방향설정143
2. 전략구상145

제2절 계획여건 검토148

1. 상위계획 검토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 계획148
2. 선행계획 검토156

제3절 확충계획 수립158

1. 계획목적158
2. 설치대상 시설의 선정161
3. 설치방법175

제6장 종합계획 및 정책사항191

제1절 계획의 종합191

제2절 정책사항196

1. 시설개발관련 정책사항196
2. 시설운영관련 정책사항198

제3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한계201

참고문헌207

부록213

표목차

〈표 1-1〉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2
〈표 1-2〉 뉴타운 문화관련 계획내용	3
〈표 2-1〉 문화권과 문화시설	11
〈표 2-2〉 문화권의 두 가지 개념	12
〈표 2-3〉 각 도시의 거점시설과 밀집된 문화지구	12
〈표 2-4〉 뉴욕화랑가 밀집지역의 시대별 변화	13
〈표 2-5〉 시대별 국내 공연장 밀집지역 이동	13
〈표 2-6〉 문화시설의 기본적 개념과 주요역할	16
〈표 2-7〉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문화시설의 종류 (제1조의 2관련)	18
〈표 2-8〉 각 문화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	20
〈표 2-9〉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23
〈표 2-10〉 기능에 따른 분류	24
〈표 2-11〉 시설규모에 따른 문화시설의 기능과 역할	26
〈표 2-12〉 1980년대 민간 소극장 설립추세	29
〈표 2-13〉 시대별 문화시설 건립유형 및 건립시설	30
〈표 2-14〉 향후 문화시설확충의 기본흐름	31
〈표 3-1〉 세계도시 연극공연장 비교기준별 순위	39
〈표 3-2〉 세계도시 영화상영관 비교기준별 순위	41
〈표 3-3〉 세계도시 박물관 비교기준별 순위	43
〈표 3-4〉 세계도시 미술관 비교기준별 순위	44
〈표 3-5〉 세계도시와 서울의 문화시설 비교 (면적대비)	47
〈표 3-6〉 세계도시와 서울의 문화시설 비교 (인구대비)	48
〈표 3-7〉 서울의 생활권별 지역구분 및 현황	49
〈표 3-8〉 도심권 문화시설 현황	51
〈표 3-9〉 동남권 문화시설 현황	54
〈표 3-10〉 동북권 문화시설 현황	56
〈표 3-11〉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	59
〈표 3-12〉 서북권 문화시설 현황	60
〈표 3-13〉 자치구별 공연예술 관련시설 현황	62
〈표 3-14〉 자치구별 시각예술 관련시설 현황	64
〈표 3-15〉 자치구별 영상·영화 관련시설 현황	66
〈표 3-16〉 문학 관련시설 현황	68

〈표 3-17〉 자치구별 전통문화 관련시설 현황	69
〈표 3-18〉 서울소재 창작스튜디오 현황	70
〈표 3-19〉 서울시 내 장르별 전문공연장 설치현황	71
〈표 3-20〉 권역별 발표·전시시설 현황	72
〈표 3-21〉 권역별 지역·복지·교육시설 현황	73
〈표 3-22〉 문화예술생태를 고려한 문화시설분포현황	75
〈표 3-23〉 광화문 공공문화 밀집지역의 문화시설	76
〈표 3-24〉 신촌지역과 홍대지역의 비교	78
〈표 3-25〉 서울시 문화시설 전체현황	83
〈표 3-26〉 분야별 / 요소별 문화시설 현황	84
〈표 4-1〉 평균여가시간 : 2000년 조사, 1997년 조사와 비교	87
〈표 4-2〉 여가활용실태	88
〈표 4-3〉 여가활동의 걸림돌 : 2000년과 비교	89
〈표 4-4〉 문화예술교육 의향 : 교육경험자와 비경험자 비교	89
〈표 4-5〉 문화예술교육 희망분야 : 교육받은 분야와 비교	89
〈표 4-6〉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의 보완점 : 2000년과 비교	90
〈표 4-7〉 각 장르별 향수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설확충방향	92
〈표 4-8〉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96
〈표 4-9〉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의한 집단 분류	97
〈표 4-10〉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분포에 따른 문화향수실태	97
〈표 4-11〉 가정 내 예술관련 경험 유무별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98
〈표 4-12〉 예술교육 경험별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99
〈표 4-13〉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100
〈표 4-14〉 지역별 연주가능한 악기개수	101
〈표 4-15〉 지역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101
〈표 4-16〉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	102
〈표 4-17〉 예술가 개인의 월평균 수입	102
〈표 4-18〉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지출	103
〈표 4-19〉 예술관점과 시민관점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설설치의 차이	114
〈표 4-20〉 창작 및 제작지원 관련 시설	116
〈표 4-21〉 생태론적 입장과 시민문화권론 입장에서 본 문화시설 설치기준	121
〈표 4-22〉 균형배치론 입장의 문화시설 확충관점	123
〈표 4-23〉 서울시 권역별 민간문화시설 대비 공공문화시설 설치현황	123
〈표 4-24〉 밀집지대론 입장의 문화시설 확충관점	126
〈표 4-25〉 서울시 내 문화예술시설 밀집지역	128
〈표 4-26〉 밀집지구 중심의 국가 문화정책 변화과정	128
〈표 4-27〉 서울의 거점문화시설 및 전문문화예술시설	130

〈표 4-28〉 문화가치론 차원에서 바라본 문화시설에 대한 관점	132
〈표 4-29〉 시설건립주체에 대한 입장차이	133
〈표 4-30〉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 확충사례	136
〈표 4-31〉 주요문화시설물의 설치방법	139
〈표 5-1〉 문화예술행사의 서울집중률	143
〈표 5-2〉 시설건립에 있어 서울시의 위상과 역할체계	144
〈표 5-3〉 권역별 전문문화예술시설 개소수	144
〈표 5-4〉 지역간 균형지표	146
〈표 5-5〉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대상지 현황	149
〈표 5-6〉 뉴타운사업 대상지 현황	149
〈표 5-7〉 뉴타운 계획내용	151
〈표 5-8〉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권역별 분포현황	154
〈표 5-9〉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개발방향	155
〈표 5-10〉 문화시설 확충 시 조사해야 할 항목	155
〈표 5-11〉 2003년도 문화시설 확충 검토대상지(서울시 문화국)	157
〈표 5-12〉 문화도시와 창조도시의 비교	159
〈표 5-13〉 공연예술분야 필요시설 및 설치대상 지역검토	163
〈표 5-14〉 창작스튜디오 운영프로그램 사례	165
〈표 5-15〉 시각예술분야 필요시설 및 설치대상 지역검토	167
〈표 5-16〉 영상·영화관련 문화시설 유형 및 주요현황	168
〈표 5-17〉 영화테마파크	169
〈표 5-18〉 각 시대별 박물관의 발전 (제1세대에서 제3세대로의 발전)	172
〈표 5-19〉 생활권 문화시설개발	174
〈표 5-20〉 분산과 밀집대상 유형별 문화시설의 형태	175
〈표 5-21〉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대상 차이	176
〈표 5-22〉 서울시 지역별 밀집자원 현황	176
〈표 5-23〉 지역별 특화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방안	178
〈표 5-24〉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	184
〈표 5-25〉 뉴타운 내 생활권문화시설 설치방안 (특성화 전략)	185
〈표 5-26〉 미술장식품제도 개선방안	188
〈표 5-27〉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한 민간문화시설 유치	188
〈표 6-1〉 지역별 배치구상	19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계획 및 연구목적	1
〈그림 2-1〉 인프라 도입과 콘텐츠산업의 위치	9
〈그림 2-2〉 도시재생과 서울의 발전전략	10
〈그림 3-1〉 세계도시 인구대비 연극공연장수 상대비교치 (서울=1)	38
〈그림 3-2〉 세계도시 연극공연장 상대비교치 (서울=1)	40
〈그림 3-3〉 세계도시 인구대비 영화상영관수 상대비교치 (서울=1)	42
〈그림 3-4〉 세계도시 영화상영관수 상대비교치 (서울=1)	42
〈그림 3-5〉 세계도시 인구대비 박물관수 상대비교치 (서울=1)	45
〈그림 3-6〉 세계도시 박물관수 상대비교치 (서울=1)	45
〈그림 3-7〉 세계도시 인구대비 미술관수 상대비교치 (서울=1)	46
〈그림 3-8〉 세계도시 미술관수 상대비교치 (서울=1)	46
〈그림 3-9〉 도심권 문화시설 현황	50
〈그림 3-10〉 동남권 문화시설 현황	53
〈그림 3-11〉 동북권 문화시설 현황	55
〈그림 3-12〉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	58
〈그림 3-13〉 서북권 문화시설 현황	60
〈그림 3-14〉 공연예술 관련시설 분포현황	63
〈그림 3-15〉 시각예술 관련시설 분포현황	65
〈그림 3-16〉 영상·영화 관련시설 분포현황	65
〈그림 3-17〉 전통문화 관련시설 분포현황	68
〈그림 3-18〉 요소별 문화시설 현황	74
〈그림 3-19〉 대학로 공연장 현황	77
〈그림 3-20〉 문화시설 밀집지역 현황	79
〈그림 3-21〉 공연예술축	80
〈그림 3-22〉 시각예술축	81
〈그림 3-23〉 영상 및 미디어예술축	81
〈그림 3-24〉 대중예술축	82
〈그림 4-1〉 평균관람횟수 (1년간)	93
〈그림 4-2〉 평균관람횟수 (1년간)	93
〈그림 4-3〉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이용률과 평균이용횟수	93
〈그림 4-4〉 생활문화기반시설의 이용률과 평균이용횟수	94

〈그림 4-5〉 자치구별	95
〈그림 4-6〉 지역별 주로하는 여가활동 (주중)	99
〈그림 4-7〉 지역별 주로하는 여가활동 (주말)	100
〈그림 4-8〉 예술시장의 선순환구조 형성에 따른 시설건립방안	115
〈그림 4-9〉 공립 전시시설 개관 현황	119
〈그림 4-10〉 공립 전시시설 종류별 분포 지역(2004년)	120
〈그림 4-11〉 문화밀집지역 형성과 정책과정	127
〈그림 4-12〉 문화기반시설 확충전략 (각 입장 종합)	137
〈그림 5-1〉 기존 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150
〈그림 5-2〉 서울시 문화시설확충계획의 기본목표 구상	160
〈그림 5-3〉 문화시설 확충의 계획과 목표체계의 구성	160
〈그림 5-4〉 지역별 특화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계획	177
〈그림 5-5〉 공연예술네트워크 구성	179
〈그림 5-6〉 시각예술네트워크 구성	179
〈그림 5-7〉 창의예술네트워크 구성	180
〈그림 5-8〉 영상예술네트워크 구성	181
〈그림 5-9〉 대중예술네트워크 구성	181
〈그림 5-10〉 한강예술네트워크 구성	182
〈그림 5-11〉 도심공공예술네트워크 구성	183
〈그림 5-12〉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구상	184
〈그림 5-13〉 뉴타운 내 문화시설 설치구상	186
〈그림 6-1〉 지역별 배치구상의 종합	194
〈그림 6-2〉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시각예술	194
〈그림 6-3〉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공연예술	195
〈그림 6-4〉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영상 및 미디어예술	195
〈그림 6-5〉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도서관	196
〈그림 6-6〉 AIR 프로그램	200

제1장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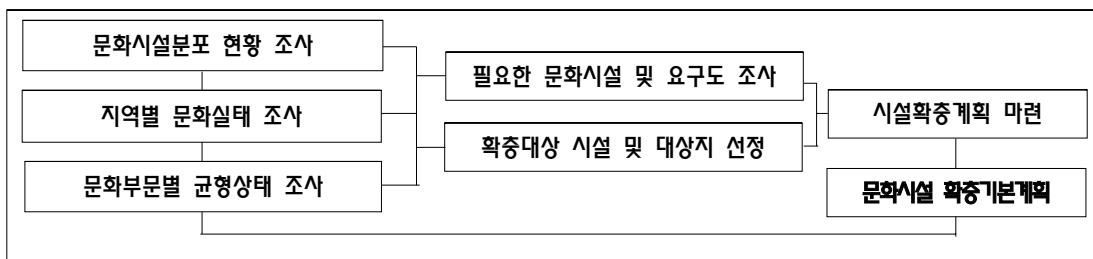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1. 연구목적

■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의 기본방향 및 관점 제시

-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 전반의 문화시설 실태 및 여건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서울시가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 취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즉 현재의 시설분포현황 및 각 지역별·문화부문별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 어떤 시설을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그림 1-1〉 연구계획 및 연구목적

2. 연구배경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조성

- 도심재생 및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 각 해당 지역에 새롭게 문화시설을 설치할 예정
 - 뉴타운 15곳,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 등 총 20곳
 - 향후 총 10개의 뉴타운 지역이 2차 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 서울시에는 총 30개의 새로운 개발지구가 조성될 예정임

〈표 1-1〉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구분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지	시범	1차	2차	미아지역중심 등 5곳
	길음 등 3곳	평동 등 12곳	추가 10곳	
사업시행	기본계획 수립완료	기본구상수립 중 12월 기본계획	지정추진	기본구상수립 중 12월 기본계획
대상지 특징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주거중심 지역 지역구분 : 일반주거 2종~3종 지역			도시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부도심 지역 지역구분 : 상업지역
개발 목표	21세기형 고품격 주거환경			도심공간구조의 다핵화

- 각 대상지별로 문화시설 설치에 예정되어 있으나, 문화시설의 종류나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
 - 만약 이 상태로 진행될 경우, 대부분의 개발대상지에는 공연장과 전시장이라는 보편적 형태의 문화시설만 설치될 예정이며, 이 경우 문화예술시설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와 같이 특성 없는 시설로 건립되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많은 문화예술시설과 같이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만 낳을 것으로 예상됨 (〈표 1-2〉 참고)
 - 이에 따라 현재의 서울시 내 문화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종류의 문화시설이 서로의 연관관계를 맺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시설 설치계획이 필요
 - 본 계획은 이와 같은 계획에 맞춰, 각 권역별로 필요한 문화시설을 개발하고 이를 배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종합적인 서울시 전반의 문화시설 설치계획 마련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새로운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시설 확충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문화시설의 종합적인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확충이 필요한 시설을 추출하여 종합적인 체계 내에서 배치하는 계획 필요
 - 다양한 유형의 문화시설 개발 -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족시설 개발
 - 종합적인 배치계획 마련 - 지역의 문화생태와 예술축을 고려한 시설확충계획 수립
- 문화부문간 격차와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해보자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
 - 각 부문간 문화시설의 유형과 형태
 - 지역간 격차의 해소방안 마련

〈표 1-2〉 뉴타운 문화관련 계획내용

뉴타운	문화관련계획	뉴타운	문화관련계획
길음	- 생활권 단위별로 필요한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배치 - 정보도서관, 소극장, 다목적홀, 문화강좌실 등 신설계획	미아	- 문화시설(4개소) ◦ 광역거점 공공도서관 설치 ◦ 자립형 사립고 및 송천초교 복합화(체육관) - 커뮤니티센터 내 복합화 설치(문화센터) 2개소
은평	- 기존의 은평노인복지회관과 인덕원 종합복지관 존치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4개소 계획 - 복합화를 통한 자족적 도시편의성 제공	영등포	- 문화광장 : 정보문화센터, 전시장 - 문화시설(1개소) : 문화광장과 연계한 공연·전시시설 복합화
왕십리	-	천호	- IT도심문화밸리 구축 - 천호근린공원 사업화(주차장+ 문화복지시설)
한남	- 국제적인 축제의 거리 조성 - 다양한 국제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 연계 강화 - 사이버 문화공간의 제공 - 걷고싶은거리 조성으로 문화상징공간 제공	한내	- 문화시설 1개소 - 사회복지시설 1개소(학교와 복합화) - 생활가로와 행정문화여가축의 결절점에 문화시설 계획 - 전사·공연기능과 생활가로의 커뮤니티기능 연계
전농·답십리	- 고미술 상가 및 화물시장의 특성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eastco valley) - 교육문화·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 교육문화센터 : 국제교육원 + 공연문화원(공연, 전시장, 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교육방송 등) + 야외공연장	가좌	- 교육문화·공공시설 축(e-belt) 조성 ◦ 문화공원 : 문화시설이 위치, 예술공원(조각정원, 분수 정원, 야외공연장) ◦ 문화시설(1개소) : 문화센터, 공연시설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 - e-business(small DMC) : 소규모 문화컨텐츠 생산
노량진	- 문화교류기능 : 영화관, 문화센터, 전시장, 공연장, 회의 시설,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 유지 - 대방생활권 : 문화체육센터 - 노량진1생활권 : 독서실 - 노량진2생활권 :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연전시시설	방화	- 생활권 따라 배분된 공공문화시설의 복합화 ◦ 공원 내 문화시설(1개소) :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문화체험시설, 커뮤니티 공간(건강마당) ◦ 광장주변 문화시설(1개소) : 도서관, 중앙광장과 연계된 공연·전시 공간
신월·신정	- 영상문화 집적단지 조성 (신정네거리역) ◦ 영상문화센터 : 콘텐츠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및 연구개발, 교육, 관람전시시설 유지 ◦ 영상테크노센터 : 방송 및 영상관련 제품 생산시설 유지 ◦ 영상문화센터와 영상테크노센터를 연결하는 media-street 조성 - 신정네거리역 주변은 영상문화관련 전사·공연·집회시설 및 판매시설 도입 - 열녀문을 인근 공원으로 이전하여 복원 - 생활권별로 학교 및 기존시설과 신규도입시설을 복합화하여 문화센터 설치 ◦ 해누리 문화센터 : 청소년 문화센터 + 종합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 전사·공연·관람시설 ◦ 신월 문화센터 : 동사무소 + 경로당 + 보육시설 + 주민자치센터 ◦ 신남 문화센터 : 동사무소 + 전사·관람시설 + 청소년 도서관 - 해누리 문화의 거리 : 멋의 거리, 향기의 거리, 미디어의 거리, 놀이의 거리, 맛의 거리(이벤트무대, 조각전시장, 야외공연장, 전시벽, 문화센터 등)	아현	- 문화생활과 함께하는 ‘문화친화적’ 타운 ◦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 ◦ 생활권 체계를 고려한 복합문화시설 계획 ◦ 공공,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복합화 추진 - 기존 문화센터 수용, 중앙부 하늘마당 내부에 문화시설(정보도서관 등) 계획 - 역사성(아소정터) 활용 검토 : 동도중고교 내 아소정터 복원 검토 - 생활예술 개념 : 활발한 생활예술이 벌어지는 공간으로서의 newtown 공간계획 - 생활예술과 관련하여 활동 및 공간 특화(공원 및 community 공간, 각종 문화 및 생활편의시설 등)
		교남	- 서울성곽복원 - 서대문(돈의문)복원 - 정동문화벨트 - 역사문화축과 주거 및 상업의 연계 - 문화광장 : 경희궁, 정동문화벨트와 성곽북원의 결절점으로서 기존 문화시설과 교류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향

1. 연구내용

■ 현재 서울시 문화시설 설치실태와 현황 조사

- 서울시 전반의 문화시설 설치실태와 현황 파악. 분포상의 문제점 발굴
- 주요 연구내용
 - 종합적인 문화시설 분포상태
 - 지역별·권역별 문화시설 분포상태
 - 문화부문별 문화시설 분포상태
 - 분포현황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의 유형 및 형태 개발

- 문화생태계 및 문화인프라 구성차원에서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의 유형과 형태 개발
 - 이를 통한 종합적인 시설확충계획 마련
- 주요 연구내용
 - 장르 간 필요한 문화시설의 유형과 형태 조사
 - 지역별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의 유형과 형태 조사

■ 종합적인 확충계획 마련 및 계획구상

- 서울의 문화적 실태와 여건, 문화시설의 분포상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확충계획 마련
 - 각 문화예술부문별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
 - 각 지역별(생활권별)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
 -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의 마련

2. 연구방향

■ 실태에 대한 고려

○ 본 연구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균형성에 대한 문제

- 문화부문간, 지역간 균형상태를 조사·분석하여 불균형성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시설 확충 방안 마련
- 특히 예술장르 간 부조화와 불균형성, 시설규모와 형태의 부조화와 불균형성, 지역간 차이와 불균등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각 지역에서 형성될 수 있음은 물론 각 지역의 주민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 막연한 균등보다는 차이와 특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 모색

- 지역간 균형은 모든 시설이 모든 지역에 설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성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
-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각 지역의 현재적 특성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특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하에 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간 특화를 통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

■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에 대한 고려

- 각종 조사 결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시설분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확충해야 할 시설에 대해 고민한 다음, 종합적인 확충계획을 마련
- 워크숍 개최
 - 제1차 워크숍 (11월 18일) : 각 예술단체 및 협회 대상 워크숍
 - 제2차 워크숍 (11월 19일) : 각 분야별 전문가 대상 워크숍

제3절 연구범위 및 제한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공간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전체를 포괄해야 하지만, 계획 대상지가 행정구역상 서울인 만큼, 조사는 경기도 지역을 포괄하되¹⁾ 계획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정

1) 조사대상 범위에는 경기도지역 전반이 아니라, 수도권지역 중 서울의 문화활동 및 문화분포 실태에 맞게 살펴보아야 할 지역

- 설치 대상지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하되, 기타 선행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 대상지를 포괄하여 연구
 - 종합적인 차원에서 각 권역별로 문화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

■ 내용적 범위

- 문화시설에 한정. 문화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음
 - ① 건축물로서 한정. 이에 따라 문화공간 -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 등 - 과 생활공간 차원에서 설치되는 문화공간 - 공원 등 - 은 연구대상에서 제외
 - ② 문화를 위한 시설(facilities for culture)로 한정. 그 자체로 문화화되는 ‘문화적 시설’(ex: 광장, 공원, 특별한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건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
 - ③ 공공문화시설과 민간문화시설을 포괄. 다만 그 확충에 있어서는 공공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문화시설의 확충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

2. 연구의 제한

■ 포괄적 계획으로 한정

- 본 연구는 각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가 아닌, 서울시의 종합적인 문화시설 배치현황 속에 문화시설 설치방향을 계획하는 연구
 - 전형적인 ‘위로부터의(top-down)’ 연구방식으로,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내포
 - 다만 본 연구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을 계획하고 확충하는 기본방향을 마련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것임

■ 다양한 문화시설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한정

- 본 연구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을 찾는 것은 불가능. 다만 향후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 가능한 시설유형을 추출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의가 있음
 - 이에 따라 각 대상지별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각 대상지별로 지역조사와 향후 개발방향에 맞춰 별도의 시설개발계획 수립이 필요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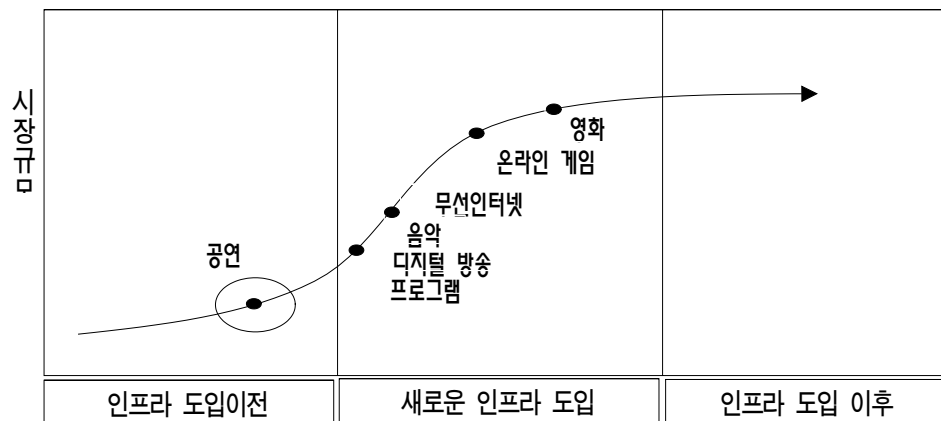
문화시설 종류와 확충방안

제2장 문화시설 종류와 확충방안

제1절 도시문화환경과 문화시설

■ 문화의 세계에서 문화시설은 문화적인 환경조성의 첫 번째 관건

- 문화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도시의 경쟁력이자 문화생산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
-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연구원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성장추세를 살펴보면, 인프라의 확산이 문화산업의 성장을 만들었다고 주장
 - 영화산업의 성장에는 멀티플렉스가 있으며, 온라인 게임의 성장에는 초고속통신망의 확산이 있었다는 것
 - 때문에 공연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공연장을 비롯한 등 인프라의 확충(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²⁾
- 각 도시는 21세기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문화도시 혹은 문화중심도시를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 내세우고, 문화시설 확충에 주력
- 부산국제영화제로 성공한 부산은 영상문화도시를 선언하고, 영화산업과 관련된 시설확충에 주력



〈그림 2-1〉 인프라 도입과 콘텐츠산업의 위치

자료 : 고정민, “산업화로 들어선 공연예술”,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고정민, “산업화로 들어선 공연예술”, 삼성경제연구소,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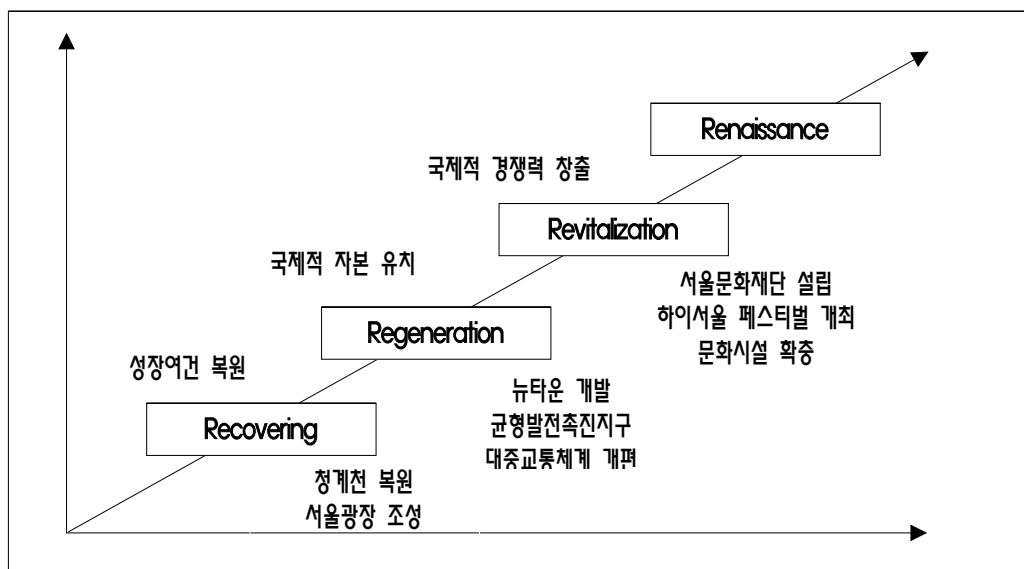
- 광주는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겠다는 계획하에 <아시아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 경주와 전주는 각각 전통문화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의 기반을 문화로 변화시키는 계획 수립에 착수

■ 서울 또한 문화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 시작

- 청계천 복원,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등 다양한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한 서울은 서울의 중점 사업으로 서울문화육성을 강조
 - 서울문화재단 설립,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창동에 천막극장 (Big-Top)을 설치하였으며,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
 -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도시 전환 프로젝트 시작(서울문화성과 창조성 확대에 주력)

■ 도시문화환경에서 문화시설이 갖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나, 다음의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문화활동 기반으로서의 가치
 - 문화시설은 문화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가치 부여



〈그림 2-2〉 도시재생과 서울의 발전전략

- 창작과 생산, 발표와 전시, 보전과 전수, 교육과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가치 창출
- 때문에 문화시설의 설치여부는 각 도시 혹은 국가가 지니는 문화적 생산력의 좌표
 - 일찍부터 각국 혹은 각 도시별 문화적 상태를 측정하는 데 있어 문화지표로 활용³⁾
- 시민문화복지의 창출과 문화권 창출의 기반으로서의 가치
 - 문화시설은 다양한 문화적·예술적 활동을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권을 신장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여건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 시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권 창출에 기여
 - 각국은 시민 문화권 차원에서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 독일의 경우 기초적인 문화시설로서 <사회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모두를 위한 모두로부터의 문화’이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지역별 <아트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충을 위해 현대예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센느내셔널>이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공민관> 건립을 통해 문화교육과 전수에 주력하고 있음⁴⁾
 -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문화복지가 강조되는 90년대 초반부터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도서관>,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
 - 문화권은 누구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접근의 균등원칙인 ‘문화의 민주화’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성 원칙인 ‘문화민주주의’로 구분

〈표 2-1〉 문화권과 문화시설

권리	내용	비고
참여/향수권	-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즐길 수 있는 권리 - 공연 및 전시의 관람 등	- 다양성 지수 - 다양한 유형의 문화시설 설치
접근권	- 문화에 대한 접근권리 - 문화시설과의 물리적 거리, 경제적 거리 등	- 지역 간 차이 - 지역 내 문화시설 설치
발현권	- 각종 문화의 발현 및 문화적 다양성 추구	- 다양한 문화발전 - 지역문화육성 및 보급/전수시설

3) 대부분 문화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 문화시설은 1차적인 평가지표로 활용됨. 각종 기관에서 제출한 문화지표에 대해서는 라 도삼, “서울시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pp.16-23 참고

4) 최근 일본의 공민관은 <생애학습센터>, 우리나라로 보면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

〈표 2-2〉 문화권의 두 가지 개념

구분	문화의 민주화	문화민주주의
원리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
대상	전문인	아미추어
목표	문화의 확산	문화의 개발
전략	문화 향수권	문화적 다양성

자료 :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9, pp.74-77 정리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문화의 민주화는 이루어 왔으나, 장르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아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
 - 형식적인 문화의 민주화를 내실화시키는 과제와 장르별 다양성 및 소수문화·하위문화 등을 고려하는 형태의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접근과 배려 필요
- 지역 클러스터 형성의 기반으로서의 가치
- 문화자원은 특정한 시설이나 공간, 이벤트를 계기로 밀집하는 특성을 보여
 - 예컨대 우리나라 공연예술분야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경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자원이 밀집한 경향을 보임
 - 뉴욕의 미술분야 또한 거점 문화시설과 지역 개발여건을 중심으로 이동(〈표 2-4〉 참조)
 - 달라스의 경우, 달라스예술박물관(Dallas Museum of Art)과 달라스심포니센터(the

〈표 2-3〉 각 도시의 거점시설과 밀집된 문화지구

도시명	사업명	예술시설명	시설유형
New York	South Street Seaport	South Street Seaport Museum	문화역사 박물관
Dallas	Dallas Arts District	Dallas Museum of Art Morton H. Meyerson Symphony Center Dallas Theater Center	예술박물관 음악당 공연장
Cleveland	Playhouse	State Theatre Palace Theatre Ohio Theatre	공연예술공간 공연예술공간 공연장
Pittsburgh	Pittsburgh Heinz Hall Cultural District	-	공연예술공간

〈표 2-4〉 뉴욕화랑가 밀집지역의 시대별 변화

구분	1950년대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주요 입지 지역	맨하튼 50번가에서 70번가에 이르는 업타운 지역	소호지역으로 이전 시작	소호의 전성시대	소호의 위기와 첼시로의 이전시작	첼시시대의 개막
주요 특징 및 밀집 사유	파리에 이어 세계예술의 중심지로 부상	- 공업지대로서 낙후지대로 변화 - 값싼 임대료와 높은 층고 건물 존재	- 다수의 작가들 활동 - 대형 그래피티가 유행할 정도로 예술거리화 진행	- 예술과 관계없는 관광객의 급증 -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	- 소호지역 갤러리들이 대부분 이전 - 높은 층고의 건물과 값싼 임대료가 특징
거점 시설	카스텔리, 시드니 채니스 등의 갤러리 위치	폴라 쿠퍼, 카스텔리, 이반 카프 등 대부분 딜러들의 갤러리가 입주	로프트 빌딩(일반아파트에 비해 넓고 임대료가 저렴한 빌딩)	- 패션기업들의 입주 - 폴라 쿠퍼의 갤러리가 첼시로 이전(1996)	이전 공장 등 산업주의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갤러리들
지역 생태계 구성		궁핍한 작가들과 갤러리가 융합하여 생태네트워크 구성	작가들만 소호에서 살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정책적 지원	예술지구에서 패션·영상·벤처단지로 변화	- 명실상부한 뉴욕예술의 중심부로 부상 - 세계적 작가의 밀집

Dallas Symphony's Morton H. Meyerson Symphony Center) 등을 중심으로 예술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 리버티(Liberty)의 경우 하인즈 홀(Howard Heinz Hall)과 광장, 베니돔공연예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클리브랜드의 경우 극장광장(Playhouse Square)과 유클리드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예술지구 형성
- 이처럼 문화시설은 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가치 외에 문화시설 및 자원, 행사 등을 밀집시키는 효과를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이 밀집되지 않은 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국립극장,

〈표 2-5〉 시대별 국내 공연장 밀집지역 이동

구분	1950년대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지역	명동지역	세종로 지역	신촌·홍대지역	대학로 지역
거점 시설	국립극장, 드라마센터	- 국립극장의 장충단 이전 - 세종문화회관의 건립	각 대학	문예진흥원
주요 특징	변안국을 중심으로 한 극단과 공연장 입지	다수의 극단 및 공연관련 시설 설립	- 다수의 공연장 입지 - 실험·창작연극의 출발	총 56개의 소공연장 운영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 향후에 있어서는 관련 요소를 밀집할 수 있는 시설개발과 주변 여건에 대한 관련시설 입지 정책이 필요

○ 도시재생과 도시활력 효과 혹은 수단으로서의 가치

-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욱 연구원은 문화란 지역의 이미지를 고급화시키는 최고의 매체라고 주장하며, 하나의 문화시설이 입주할 경우, 지역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⁵⁾
 - 그 예로 스페인 빌바오(Bilbao)의 ‘구겐하임 미술관’ 제시
 - 별다른 성장동력이나 문화적 매력이 없던 빌바오가 미술관으로 인해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⁶⁾
- 1970년대 후반 이래 추진된 각국의 주요도시 재생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시설 입주가 지역재생의 동기이자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등장
 - 로테르담의 경우, 구도심에 <현대예술박물관>과 <예술전시관>, <국립건축원>을 건립하여 세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 - <문화의 트라이앵글>(Cultural Triangle) - 추진
 - 버밍햄의 경우, 구 공장지대에 <국제컨벤션센터>(ICC: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와 <버밍햄 심포니 오케스트라>(CBSO: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를 설립한 다음, 지역을 미디어 지대(Media Zone)로 개발
 - 셰필드의 경우, 1980년대 <리드밀예술센터>가 설치되고, <레드테이프스튜디오>가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시작. 구 공장 건물을 <문화작업센터>(The Workstation Cultural Business Center)로 개발하여 70여 개 문화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공장지대를 문화산업 지대(CIQ: Cultural Industries Quarter)로 발전
- 대부분 도시는 <지역예술위원회>의 기획 하에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
 - 버밍햄의 경우, 시의회와 <중앙 TV>가 협력하여 <미디어개발위원회> (Media Development Agency)를 구성하고 공장지대 개발
 - 셰필드의 경우, 시의회와 <지역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구 공업단지를 ‘문화 및 미디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
 - 뉴욕의 실리곤 앨리의 경우, 뉴욕주 정부와 민간협회 공동으로 ‘로우 맨해튼 재활성화 계획’을 구성하고, 지역개발 및 미디어기업 유치를 위해 집중 노력
 - 빌바오의 경우,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을 도시회생계획에 참여시켜, 박물관을 건립하는

5) 전영욱,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pp.29-31

6) 빌바오는 198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43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2001년에는 35만으로 감소. 이에 바스크 정부는 빌바오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회생계획을 발표하고, 구겐하임 박물관 유치

동시에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

-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 및 도시계획이 선행하고 문화계획이 부문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 문제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 건축가를 중심으로 MA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안 구성
 - 문화부문 전문가 없이 추진한 결과, 지역의 문화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하는 구상을 마련하지 못한 채 거의 모두 주상복합형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처럼 문화시설은 도시문화환경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관과 어메니티, 삶의 질 등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녀

- 도시에 적합한 형태의 문화시설 개발과 도시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필요
 - 설치 시에는 도시의 여건과 문화적 양태, 특징, 삶의 질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

제2절 문화시설의 종류와 분류체계

1. 문화시설의 정의와 요건

■ 문화시설이란 문화활동의 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 창조의 공간(working and producing space)
 - 문화시설은 문화적 생산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콘텐츠의 생산에서부터 향수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행위(발표/전시, 교육/체험 등)가 이루어짐
 -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며, 다양한 발표와 전시, 교육과 체험의 활동을 통해 문화 - 창작적이든 소비적이든 - 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
- 교류의 공간(Exchanging and Interacting space)
 - 문화시설은 다양한 요소가 접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
 - 예술가와 예술가의 만남, 예술가와 향수자의 만남, 향수자와 향수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
 - 다양한 교류의 활동을 얼마나 끊임없이 창출하며,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창출할

〈표 2-6〉 문화시설의 기본적 개념과 주요역할

기본기능	개념	주요역할
창조의 공간	- 예술적 창조활동과 감상·교류·체험활동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창작과 생산활동 - 감상과 교육활동
교류의 공간	-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장소로서의 가치	- 예술적 가치의 교류와 상호작용
집적의 공간	- 다양한 예술적 생산물 및 자원을 밀집시키는 공간	- 흡입과 발산의 창구
전달의 공간	-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	-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전수활동

수 있는가가 관건

○ 집적의 공간(Inhaling and Exhaling space)

- 문화시설은 수많은 종류의 예술적 생산품과 예술인, 향수자, 체험자들이 교류하는 공간
 - 발표/전시, 교육/체험, 예술품의 보존과 전수가 이루어지는 공간
- 이와 같은 다양한 집적이 이루어졌을 때, 문화시설로서의 가치 보유

○ 전달의 공간(Educating and Communicating Space)

- 문화시설은 다양한 유형의 예술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
 - 경험과 감상을 공유하며, 그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공간
-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전수공간으로서 역할

■ 이와 같은 기능은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것. 각각의 기능을 별도의 시설로 보는 것은 문제

○ 문화시설은 이와 같은 창조와 교류, 집적과 전달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 발표공간이 발표공간으로서만 역할하고, 창작공간이 창작공간으로서만 역할 할 경우, 공간이 분리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공연장/전시장/교육장으로 설계되어 있어, 창조와 교류, 집적과 전달의 통합적인 역할 수행이 어려움
 - 따라서 기능요소를 복합한 형태의 시설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필요

○ 또한 이와 같은 기능은 문화시설을 설립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 목표

- 대부분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은 설치만 목적으로 했을 뿐,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문화시설은 건립보다 운영이 중요. 시설의 건립은 문화적 활동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적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운영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을 설립하는 정책 필요

2. 문화시설의 종류와 분류체계의 구성

2-1. 법적 분류체계

■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분류체계

- <문화예술진흥법> 별표 1은 우리나라 문화시설을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기타 등으로 총 6개로 분류(표 2-7) 참고
- 각 시설별로 관련법상에 세부사항 규정
- 관련법상에 나타난 세부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문화예술회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연주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을 말함
- ② 도서관 및 문고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추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함
 - 도서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국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분류되며,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됨
 - 다른 한편 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일반적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함

〈표 2-7〉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문화시설의 종류 (제1조의 2관련)

유형	문화시설 종류
공연시설	가. 공연장 :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영화상영관을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2) 영화진흥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 연주연구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외의 시설
전시시설	가. 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나. 미술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 다.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도서관	가. 도서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나. 문고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 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기타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③ 공연장

- 공연장은 <공연법>에 의해 규정된 시설로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때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됨(공연법 제2조)
-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①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과 ②객석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100석 이하, 객석구분이 없을 시 바닥 연면적 기준 100㎡이하)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④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의해 규정된 시설로서,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미술관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예·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함
- 동법은 또한 그 적용범위에 대해 “자료관·역사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예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예술관·문화의 집·야외전시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시설” 등을 포함시켜 박물관·미술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조)

⑤ 영화관

-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에 의해 규정된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비상설 상영장)은 제외됨
- 영화관은 일반영화관과 전용상영관, 제한상영관으로 분류
 - 가. 전용상영관 - 전용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
 - a. 한국영화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 b.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또는 단편영화
 - c. 청소년영화(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 나. 제한상영관 - 영화상영관 중 제21조제3항제5호(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상영관

⑥ 구민회관

-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설치조항과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시설로서 “구민의 종합복지 및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의 향상”과 “지역 종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함

⑦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표 2-8〉 각 문화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

시설	근거법	규정	비고
문화예술 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등의 용도로 건축된 건 축물	다목적 시설 지역시설
공연장	공연법 제2조	공연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및 시설 - 야외공연장 및 객석 100석 이하(바닥면적 100㎡ 이하) 등록 제외	공연시설
영화관	영화진흥법 제2조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 - 전용상영관과 제한상영관으로 분류	공연시설
박물관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 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를 조사, 연구하는 시설	전시시설
미술관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	박물관으로서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 집, 보존, 전시하고 이를 조사, 연구하는 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및 문고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제2조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 설립주체 : 공공도서관, 국립도서관, 사립도서관 - 설립목적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도서관
구민회관	지방자치법 제135조	구민의 종합복지 및 편의시설의 제공, 문화의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다목적 시설 지역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역시설

○ 이러한 분류체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의 3에 따른 것으로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일 뿐, 장르(수평적 횡단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로, 점차 전문화·다각화되는 예술적 장르 분화 추세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는 상태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규정

○ 이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따라 문화시설을 분류한 규정으로, 오늘날 강조 되는 복합화·다원화·전문화되는 시설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함

-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문화시설로서 공연장 및 전시장만 고려하고, 대부분 시설설치는 공연장과 전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의 경우, 제96조 규정에 의해 문화시설을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

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도시계획가들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시설만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각종 시설로서 전시장·공연장만을 제시하고 있음(도시개발 시 설치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 이에 따라 대부분 시설은 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건립되는 상태
-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문화시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시설 분류체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2. 분류체계의 개편 및 재구성

- 현실적 여건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을 창출하기 위해 시설형태를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 예술활동을 위한 시설

- 예술활동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 최근 창의적인 문화환경 조성차원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시설. 시설유형으로는 ▷예술창작을 위한 시설과 ▷발표 및 전시를 위한 시설 등이 있음

▷ 예술창작을 위한 시설

- 창작촌과 창작스튜디오 등 창작관련시설
- 작품보관소 및 무대보관소, 지원센터 등과 같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재단 등과 같은 문화예술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관련기관과 시설

▷ 발표/전시를 위한 시설

- 공연장 및 전시장, 발표장 등과 같이 예술활동의 발표와 전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지역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 지역 내 문화환경 조성 및 지역민의 문화향수 및 문화체험, 참여와 교육을 위해 설치한 시설

-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문화복지와 지역문화가 강조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된 시설
- 지역문화의 보존뿐만 아니라, 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시설
- 시설유형 :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각 지역별 도서관 등
- 설치대상 : 생활권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주민 및 지역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치

○ 문화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시설

- 다양한 문화적 장르와 역사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아카이브
 - 각 예술적 장르의 성과를 보존하고 다양한 시민이 이용함으로써 예술적 성과를 확산하고자 설치한 시설
 - 영상자료원, 미디어아카이브, 공연예술박물관, 기타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 및 전시관
 - ▷ 보급전수시설
 - 전통의 예술장르를 보존하고, 이를 전수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 문화의 시장화와 산업화를 위한 시설

-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시장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시설
 - ▷ 지원시설 : 창업지원센터 등(애니메이션센터, 벤처지원센터, 콘텐츠진흥원 등)
 - ▷ 시장시설 : 컨벤션 센터, 아츠 마켓, 필름 마켓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시장적 교류를 위해 설치한 시설

○ 특수 계층의 문화적 이해를 위한 시설

- 청소년 및 노약자, 장애인 등 특수한 계층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와 문화적 이해를 돕고자 설치한 시설
 - 우리나라에 있어선 청소년관련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노인관련시설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있어선 대부분 복지시설로 대체하고 있음

○ 생활여가 창출을 위한 시설

- 건강과 스포츠 등 여가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시설로

〈표 2-9〉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분류	설치목적	시설형태	비고
예술활동의 창출	예술창작	창작스튜디오, 공연연습실 등 창작기반시설 무대보관소, 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시설	법적분류 없음
	발표/전시	공연장·전시장·발표장 등	문화예술시설로 분류
지역문화서비스	문화서비스 제공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도서관 등 생활권 문화시설	
문화보존 및 전수	아카이브	박물관, 자료원, 사료관 등	
	전수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문화시장화	지원시설	벤처지원센터 등	문화산업시설로 분류
	시장시설	컨벤션 센터, 경매소 등 아즈마켓 관련시설	분류
특수계층 시설	청소년 시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로 분류
	노인·장애인 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로 분류
생활·여가시설	여가시설	구민체육센터, 운동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
	전문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전용경기장 등	

분류됨

- 여가시설 : 구민체육센터, 운동장 등
- 전문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및 전용경기장 등

■ 기능에 따른 분류

○ 공연시설

- 실연을 위한 시설로, 음악·무용·연극·뮤지컬·국악 등을 공연할 수 있는 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 공연장, 기타 공연이 가능한 시설 등)

○ 전시시설

- 예술적 성과나 문화유산 등을 전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화랑, 조각공원, 과학관, 기타 전시시설)

○ 정보시설

- 문화적 정보 및 유산정보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도서관, 정보센터 등)

〈표 2-10〉 기능에 따른 분류

분류	개념	시설 예
공연시설	실연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공연장, 영화관, 야외공연장
전시시설	예술적 성과나 문화유산 등을 전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화랑 등
정보시설	문화적 정보 및 유산 정보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도서관, 정보센터 등
교육시설	문화교육 및 보급, 전수를 위한 시설	지방문화원 등 전수시설 구민회관 등 교육시설
작업시설	예술적 작업과 성과의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창작시설, 향토사료관 등 연구시설

○ 교육시설

- 문화교육 및 보급, 전수를 위한 시설

▷ 전통문화의 보급 및 전수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 주민대상 문화서비스의 제공 : 구민회관 등 지역문화시설 및 청소년관련시설 등

○ 작업시설

- 예술적 작업과 성과의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창작시설, 연구시설 등)

■ 시설형태에 따른 분류

○ 복합시설

- 하나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수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시설

▷ 장르복합시설 : 종합예술센터 -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지역별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 기능복합시설 : 창작시설 + 교육시설, 창작시설 + 발표/전시시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로 설치한 시설

○ 전용시설

- 전용공연장, 테마박물관, 영화관, 문학관 등과 같이 특정 분야 혹은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 최근 들어 문화예술 장르가 분화되면서 장르면에서는 시설분화가, 기능면에서는 통합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 운영방식에 따른 분류

○ 소유주체에 의한 분류

- 국립시설, 공립시설, 민간비영리시설, 민간시설 등으로 분류
 - ▷ 국립시설 :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시설로서,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 ▷ 공립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시설로서, 지방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도서관 등 지방자치시설
 - ▷ 민간비영리시설 : 별도의 법적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 등에 의해 소유·운영되는 시설(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등)
 - ▷ 민간시설 :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시설

○ 운영형태에 의한 분류

- 기획전문시설 : 자체 기획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 대관전문시설 : 전체 운영일 수의 2/3이상을 자체 기획이 아닌 대관에 의해 의존하는 시설
- 전용시설 : 특정한 테마나 콘텐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시설
 - 테마박물관, 난타극장 등 특정한 콘텐츠의 발표 및 전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시설규모에 따른 분류

○ 대규모 문화시설

- 거점문화시설로서, 전문적인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발표 및 전시활동을 통해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 상징적인 의미와 랜드마크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주변에 문화자원을 끌어 모으는 클러스터 조성의 거점으로서 역할
- 생활권보다는 광역권 시설로서, 중심지나 밀집지역, 도시 및 국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

〈표 2-11〉 시설규모에 따른 문화시설의 기능과 역할

시설규모	대규모 문화시설	중소규모 문화시설	생활권 시설
시설단위	거점시설	예술시설	생활문화시설
설치단위	국가·도시	민간	공공
설립주체	국가·광역자치단체	민간기업·재단	기초지자체·지역개발사업자
시설입지	거점지역(상징지역) 도심이나 밀집지역	밀집지역 도심	생활권 (기초지자체별)
주요역할	주요장르의 발표/전시 세계와의 교류	예술품의 발표/전시 소비자와의 교류	문화교육 및 체험 시민과의 교류
주요기능	국가적인 문화력 상징	예술의 시장적 가치 창출	시민문화권 형성

◦ 대규모 문화시설은 모든 문화를 집적하고 이를 발표/전시하는 공간으로서 문화 콤플렉스 역할을 하는 문화터미널 기능 수행⁷⁾

○ 중소규모 문화시설

- 대규모 문화시설과는 달리, 하나의 장르의 발표와 전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 대부분 거점문화시설이 있는 지역이나 중심지(도심) 등에 위치하며, 밀집지역을 바탕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최근 들어 각 장르별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중·소규모의 민간시설 설치가 폭넓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정지역에 중·소규모의 문화시설이 집중됨에 따라 집중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지역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생활권 문화시설

- 생활권 단위로 소규모로 설치된 시설. 대부분 비영리로 공공에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전문적인 예술의 발표/전시보다는 문화교육과 전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 하나의 기능보다는 다양한 기능이 융합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와 같은 기능융합을 통해 예술적 생산능력과 교육·체험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

7) 전영옥은 지역문화개발의 개념으로서, 문화콘텐츠, 문화전달플랫폼, 문화터미널, 문화클러스터 등을 제시. 이 개념을 문화시설에 적용하면, 문화콘텐츠는 창작 및 제작시설, 교육 및 전시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문화전달플랫폼은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 발표/전시시설을, 문화터미널은 거점문화시설인 대규모 시설을, 문화클러스터는 소규모 예술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음(전영옥, 앞의 글, p.5)

제3절 문화시설 확충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재

1. 역사적 전개과정

■ 해방이후 ~ 1970년대까지 : 대규모 행사시설 확충기

- 다양한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해 온 시기. 대부분 대형시설로서, 문화예술목적 보다는 행사목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
- 1961년 서울시민회관의 개관, 1969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신인 국립미술관 경복궁 소전 시관 개관,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 1973년 장충동 국립극장의 건립, 1975년 세종문화회관의 건립 등
-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문화활동보다는 행사용 시설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변 지역에 클러스터를 구성하지 못한 채 고립된 시설로 운영한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민간자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문화자원이 밀집한 것은 사실. 특히 명동국립극장과 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각종 공연장이 밀집한 사례(<표 2-5> 참고)는 있으나, 명동국립극장은 남산으로 이전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은 주변 문화자원을 관리하지 못한 채 행사장으로서 시설 성격이 고착화되면서 클러스터 형성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함

■ 1980년대 ~ 1990년대까지 : 문화예술기반 형성을 위한 거점시설 확충기

- 1970년대까지와는 달리, 행사용 시설이 아닌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대규모 시설이 건립된 시기
- 1981년 문예회관 대극장 개관,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 신축 이전, 1988년 예술의 전당 건립 등
- 이 시기의 특징은 도심에서 주변으로 문화시설이 전문성을 갖추며 이동한 특징을 보여줌
 - 명동국립극장 → 남산국립극장으로 이동, 문예회관 → 동숭동 설치, 현대미술관 → 과천으로 이동하여 설치, 예술의 전당 → 서초동에 설치
- 이에 따라 민간소극장 등 클러스터 자원과 떨어져 고립된 시설로 거점시설이 성격화된 시기
 - 민간소극장의 경우, 거점시설을 상실한 채 주로 신촌지역으로 이동. 1990년대 들어 문예회관으로 재결집함

- 이 시기의 또다른 특징은 민간에 의해 공공적 목적으로 다수의 문화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점
- 1981년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을 시작으로, 1985년 호암아트홀, 1986년도에는 금강 르느와르 아트홀 등 민간문화시설이 활발히 건립
-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소극장 운동’의 성격이 강한 민간공연장이 꾸준히 확장됨

소극장 운동

- 소극장 운동이란 대규모 공연장에서 낭만적인 연극을 행하던 18세기까지의 연극에 대항한 사실주의 형태의 연극운동
- 1887년 앙드레 앙뜨완느가 세운 자유극장에서 출발
- 낭만주의 사조가 유행하던 당시, 앙뜨완느는 극의 사실주의를 강조하고자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음향효과 등 제작의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연기양식 개발에 주력
- 관객과 호흡을 중시하는 새로운 연기양식으로 인해 그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거대 공연장을 거부하는 한편, 실험성과 실천이 가능한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을 중시
- 이후 이러한 운동은 유럽 전역에 보급되어, 베를린의 ‘자유무대’ (1889), 런던의 ‘독립극장’ (1891), 모스크바의 ‘모스크바 예술극장’ (1898), 아일랜드 더블린의 ‘애비극장’ (1899) 등으로 이어짐
- 오늘날에 있어서도 소극장 운동은 공연의 종다양성과 연극의 실험성 차원에서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
- 소극장의 중요성은 제작비용의 저렴화로 다양한 종류의 실험적인 연극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
- 수많은 신진작가 창출의 출구가 되며, 새로운 연극이 실험되는 장
- 또한 관객과의 호흡이 강해, 마니아적 연극시장을 형성하며, 강한 생산력의 뿌리를 창출함
- 오늘날 대학로의 연극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소극장 운동의 거점으로서 역할하기 때문
 - 문화적 종다양성 공간으로서 대학로 연극 보존 필요

(정호순, 한국의 소극장운동과 연극운동, 연극과 인간, 2002, pp.14~17 정리)

■ 1990년대 : 문화복지와 지역문화 시설확충기

- 1990년대 초반부터 문화복지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점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의 제공 및 문화권 창출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간 시기
-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생활권 중심의 문화시설을 건립해 온 시기로, ‘지방문화원’ 및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등이 건립되기 시작했고, IMF를 기점으로 행정체계의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동사무소 등 행정시설을 변경하거나 통합하여 ‘문화의

〈표 2-12〉 1980년대 민간 소극장 설립추세

연도	설립시설(민간 소극장)
1980 이전	세종로 국제극장(1957), 실험극장(1973), 3.1로 창고극장(1975), 한국일보 연주홀(1976), 공간사랑(1977), 엘칸토 예술극장(1978), 민예소극장(1979)
1980	건넌방소극장, 살롱 데아뜨르 추
1981	한국의 집 민속극장, 마당세실극장, 꿈나무 소극장, 건넌방 소극장
1982	말뚝이소극장, 설파소극장
1983	-
1984	샘터 파랑새 극장, 시민소극장, 파고다 연극관, 라인소극장
1985	산울림 소극장, 현대예술극장, 연우소극장, 왕과시소극장, 올림픽예술극장, 신선극장, 민중소극장, 크리스탈문화센터, 창무춤터, 3&5
1986	는개소극장, 바탕골소극장, 하나방소극장, 양상블소극장, 미리내소극장, 썬프라자아트홀
1987	홍익소극장, 대학로극장, 청파소극장, 챔프예술마당, 아카데미소극장, 마로니에극장
1988	영아트홀, 한마당소극장, 예당소극장, 예음홀, 탑거리소극장, 연가소극장, 두레박소극장
1989	코메디아아트홀, 현대토아트홀, 동숭아트센터소극장, 품바소극장, 메르나니소극장, 삼풍아트홀, 롯데월드인형극장, 충돌소극장, 성좌소극장, 구룡소극장, 동방예술극장
1990	인켈아트홀, 목화충돌극장, 온누리예술관

집’, ‘주민자치센터’, ‘정보센터’, ‘도서관’ 등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온 시기

- 시민생활권 개념의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시설의 설치와 사업목적 이해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으로 지나치게 큰 규모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시기

■ 2000년에서 지금까지 : 문화산업과 기반시설 조성시기

-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 1999년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건립, 2000년 서울패션디자인센터 건립, 2001년 문화콘텐츠진흥원 건립 등 산업적 차원에서 문화를 육성하고, 콘텐츠 자원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지원센터 및 기관들을 설립한 시기
- 또한 공연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민간공연장이 집중적으로 건립된 시기
 - 공연이 산업화되면서 점차 민간을 중심으로 전용공연장이 건립된 시기

〈표 2-13〉 시대별 문화시설 건립유형 및 건립시설

시기	주요현상	건립시설
1970년대 이전	- 대규모 시설 건립정책 - 상징 및 행사목적 시설로서 건립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1980년대	-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한 대규모 시설 건립 - 민간시설 건립 활성화	예술의 전당 리틀엔젤스 회관
1990년대	- 지역문화복지에 기초한 생활권 문화시설 건립	구민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예술회관
2000년에서 현재까지	- 문화산업관련시설 및 지원센터 건립 - 민간전용공연장 건립 - 창작기반시설 건립 - 문화지구 등 문화시설 밀집화 및 클러스터링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문화콘텐츠진흥원 LG아트센터, 한전아트센터, 난타극장 등 창동스튜디오, 고양시창작스튜디오 대학로 및 홍대지역 문화지구 추진

- LG아트센터, 한전아트센터, 난타극장, 팝콘하우스 등 다양한 종류의 민간 전용공연장 건립
- 이처럼 민간문화시설이 발전하고, 특정 지역에 문화시설이 밀집되면서 예술자원을 중심으로 문화 지구가 도입된 시기
 - 대학로 문화지구지정(2004), 홍대 앞 문화지구 지정논의
 - 기타 청담동, 인사동 등 각 지역별로 특정 장르의 자원이 밀집되는 현상 출현
- 다른 한편 창작기반 조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창작기반시설이 확충된 시기
 - 공공창작스튜디오 : 창동스튜디오(2003), 고양스튜디오(2004), 미디어팩트(2003) 등
 - 민간스튜디오 : 쌤지스튜디오(2000), 경안스튜디오(2000) 등
 - 창작촌 : 헤이리예술촌(경기도 파주시 : 2004년 현재 조성 중. 2006년 1차 조성 완료 예정)

2.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황에 대한 평가

■ 전반적 흐름과 개요

- 지금까지의 확충정책을 살펴보면, 시설의 형태면에서는 종합형 대규모 시설에서 전문시설로, 시설의 기능면에서는 발표/전시시설에서 창작/제작관련시설로, 설치단위에 있어서는 거점시설에서 생활권 문화시설로 설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표 2-14〉 향후 문화시설확충의 기본흐름

분류	기본흐름	흐름내용 및 방향
시설형태	전문화	전용공연장 등 전문문화예술시설
	특성화	테마박물관, 콘텐츠 공연장 등
	기반화	창작기반시설, 지원센터 등
시설규모	중규모	전문문화시설
	소규모	생활권 문화시설
설치목적	시장성	시장창출형 문화시설
	문화권	시민의 문화복지권 강조
설치장소	밀집지역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
	생활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강조점	지역특화와 이미지	각 지역별로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
	밀집유도	지역별로 어떤 종류의 시설을 어떻게 밀집시킬 것인가?

-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향후 시설의 형태는 ▷전문시설, ▷지역시설, ▷창작시설과 교육시설, ▷특화/테마시설(난타극장 등 콘텐츠형 공연장 및 특화박물관) 등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시설의 규모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규모의 시설, ▷생활권 시설을 지향하여 ▷밀집지대에 위치하거나 ▷생활권에 위치한 시설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방향성에 맞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문화시설은 그간 확충해 온 역사적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 현황에 대한 평가 : 반성과 문제점

- 문화예술 시설이 아닌 행사용 시설 전문문화시설의 부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시설은 대부분 대규모로 건축한 행사용 시설로 건립
 - 규모는 크지만 무대나 전시공간은 작은 편이어서, 전문적인 예술행사의 유치·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
 - 또한 복합관 형태를 띠고 있어, 전문적인 문화예술 장르의 연출이 어려운 편
- 1990년대 말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문화예술회관> 또한 비슷한 형태로, 대부분 공연장과 전시장을 복합화한 형태로 건립
 - 전문적인 예술공간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행사용 공간 - 민방위 교육이나 지역 행사

등 - 으로 활용되는 실정

- 전문적인 장르의 예술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설계에서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 필요

○ 발표/전시용 시설 중심의 시설확충 생활권과 예술생태계에 대한 고려 필요

- 지금껏 건립된 대부분의 시설은 발표/전시용 시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 규정 및 여건 상 우리나라 문화예술시설은 공연장과 전시장이 거의 대부분
- 그 결과, 예술창작의 기반이 되는 창작기반시설과 예술교육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권 시설은 거의 없는 형편
 - 창작기반시설은 2000년대 들어 설치되기 시작했고, 생활권 문화시설 또한 예술교육과 감상보다는 공연과 전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문제
- 이에 따라 예술생산의 기반과 예술수용의 인프라가 무척 허약한 것이 우리나라 예술경제의 특징
 - 향후에 있어서는 예술생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생산여건 및 시장여건의 개선을 통해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시설확충 및 문예정책이 필요

○ 계획없는 시설의 배치 클러스터와 거점시설의 분리

- 남산의 국립극장,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등 각종 거점시설은 전체적인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치, ‘나홀로 시설’이 대부분
 - 대부분의 시설은 클러스터를 구성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는 것이 문제(제3장 참조)
- 경희대학교 박신의 교수는 ‘계획적인 문화시설 배치’가 중요하며, 에반스(G. Evans)의 문화계획⁸⁾을 기초하여 소도시 계획(Town Planning),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 예술계획(Arts Planning), 문화계획(Cultural Planning)에 기초한 시설의 설립을 강조
 - 소도시계획의 경우, 도시적 삶의 쾌적성을 계획의 내용으로, 여가와 보존, 경제개발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 전략적계획의 경우,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면서, 지역의 공간을 연구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결합하여 최대한 개발효과를 얻는 방식의 공공개발과 인프라 계획으로 추진하며,
 - 예술계획은 일종의 예술형식을 창출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서 다양한 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 문화계획은 도시디자인과 공공미술, 대중교통수단, 도시안전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결합한 도시계획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

8) Graeme Evans, “Cultural Planning : An urban renaissance?” , Routledge, 2001

- 이런 관점에서 박교수는 입지분석에 기초하여 시설을 건립하고, 문화시설 설립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 benefit)를 고려한 지역재생 및 밀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⁹⁾
- 운영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건립 균등배치의 부작용
 - 1990년대 초반 이래 문화복지와 지역문화 관점에서 지역별로 건립된 시설의 경우, 공급자의 공급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지역균등성의 관점에서 건립되어 문제
 - 빠른 시일 안에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는 창출하였으나, 그만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이 뒤따르지 않아 대부분의 시설이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
 - 전문적인 시설운영 기획자 및 관련 시설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마켓 2004 (APM 2004)

- 그간 민방위 교육 등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제기된 상태. 그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복권위원회 후원 하에 2004년 8월 27일과 28일 아츠마켓(APM 2004) 행사 개최
- APM 2004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창작자와 기획자를 연결시켜주는 의도에서 개최된 프로그램
-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아츠마켓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 및 운영실태 개선에 나설 계획

9) 박신의, '문화도시를 위한 제안', "문화도시의 가능성과 실현방향",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문화정책 포럼 자료집, 2004, p.42

제 3장

현재의 여건과 문제점

제3장 현재의 여건과 문제점

제1절 문화시설 설치 및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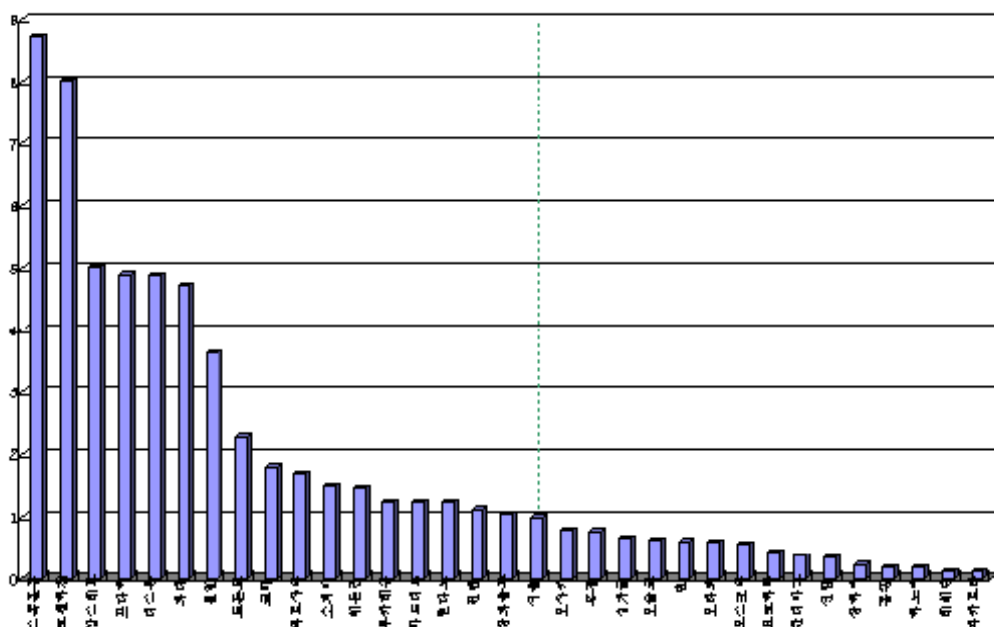
- 본 연구는 향후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과 소외되어 있는 지역, 밀집된 분야와 부족한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살펴봄
- 문화시설의 수와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설치주체는 구별하지 않음
 - 국립이든 공립이든, 민간이든 시설 자체가 중요
 - ② 시설의 운영형태는 고려하지 않음
 - 세부적 항목에 접근하여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가 중요
 - 포괄적인 범주에서 분류유형만 명시
 - ③ 분석대상은 문화시설에 한함
 - 관광관련시설, 청소년관련시설, 여가관련시설 등 유사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④ ‘시설’은 건축물로 고정화되어 설치된 시설영역에 한함
 - 지하철 등에 ‘지하철문화공간 조성’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시설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⑤ 대부분 시설은 내부적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숫자로 처리하되, 분포상 고려할만한 대규모 시설이나 향후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분석·정리할 것임

1. 서울시 문화시설의 전반적 현황

- 서울시 문화시설의 전반적 현황은 문화시설의 개소수를 먼저 파악하고, 파악된 수치를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봄
 - 서울시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파악
 - 세계 도시와 비교가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
 - 세계 도시의 문화시설 개소수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2002년과 2003년에 발간한 도시비교통계자료를 이용
- 단순히 개소수를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도시의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문화시설의 수

- 서울을 1로 보았을 때 다른 도시들은 얼마만큼의 상대비교치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

- 서울시에 현재 분포되어 있는 총 공연장 수는 129개소, 총 좌석수는 58,157석
 - 종합공연장은 서울시 내에 총 13개소가 있으며, 일반공연장은 총 44개소, 소공연장은 72개소가 있음
- 공연시설은 세계도시의 '연극공연장의 수'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공연시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수용하는 보편적 용도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단순 개소수는 해외 유명도시들보다도 많은 편
 - 면적대비 시설수도 상위권에 위치
 - 인구대비 시설수는 중위권 정도이며, 상위권 도시들과의 편차도 큰 편
 - 서울과 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단순 개소수나 면적대비 시설수에 비해 인구대비 시설수가 높음
 - 파리의 인구대비 시설수는 서울의 약 5배
- 세계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서울의 공연장 수는 단순 개소수나 면적대비 개소수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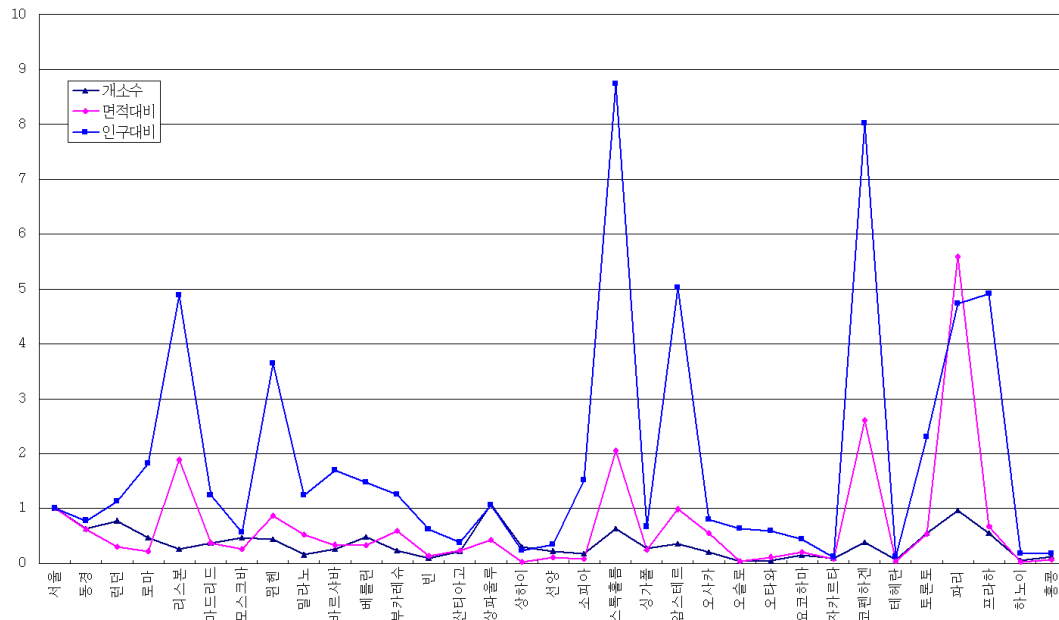
<그림 3-1> 세계도시 인구대비 연극공연장수 상대비교치 (서울=1)

교에 있어서는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인구대비 개소수의 비교에 있어서는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한정된 토지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의 토지이용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 반면 프랑스의 파리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이 된 모든 문화시설의 면적대비 개소수가 인구대비 개소수보다 높은 사례

<표 3-1> 세계도시 연극공연장 비교기준별 순위

순위	개소수		면적대비 상대비교치		인구대비 상대비교치	
1	상파울루	138	파리	5.59	스톡홀름	8.73
2	서울	129	코펜하겐	2.61	코펜하겐	8.02
3	파리	125	스톡홀름	2.06	암스테르담	5.03
4	런던	100	리스본	1.89	프라하	4.91
5	동경	82	서울	1.00	리스본	4.89
6	스톡홀름	82	암스테르담	0.99	파리	4.73
7	토론토	71	뮌헨	0.86	뮌헨	3.64
8	프라하	71	프라하	0.67	토론토	2.30
9	베를린	62	동경	0.62	로마	1.82
10	모스크바	60	부카레슈티	0.59	바르샤바	1.70
11	로마	60	오사카	0.55	소피아	1.51
12	뮌헨	57	토론토	0.53	베를린	1.47
13	코펜하겐	50	밀라노	0.52	부카레슈티	1.25
14	마드리드	47	상파울루	0.43	마드리드	1.24
15	암스테르담	46	마드리드	0.36	밀라노	1.24
16	상하이	39	바르샤바	0.33	런던	1.13
17	싱가폴	35	베를린	0.33	상파울루	1.05
18	바르샤바	34	런던	0.30	서울	1.00
19	리스본	34	모스크바	0.26	오사카	0.80
20	부카레슈티	30	싱가폴	0.24	동경	0.78
21	선양	29	산티아고	0.23	싱가폴	0.66
22	산티아고	29	로마	0.22	오슬로	0.63
23	오사카	26	요코하마	0.21	빈	0.62
24	소피아	23	빈	0.14	오타와	0.60
25	밀라노	20	오타와	0.11	모스크바	0.56
26	요코하마	19	선양	0.10	요코하마	0.43
27	홍콩	15	자카르타	0.09	산티아고	0.38
28	자카르타	12	소피아	0.08	선양	0.34
29	빈	12	홍콩	0.06	상하이	0.24
30	테헤란	9	오슬로	0.04	홍콩	0.18
31	하노이	6	테헤란	0.04	하노이	0.17
32	오타와	6	하노이	0.03	테헤란	0.12
33	오슬로	4	상하이	0.03	자카르타	0.12



<그림 3-2> 세계도시 연극공연장 상대비교치 (서울=1)

- 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인구대비 문화시설 개소수가 면적대비 개소수보다 높다는 것으로 볼 때, 이것 역시 파리의 토지이용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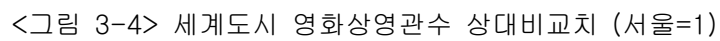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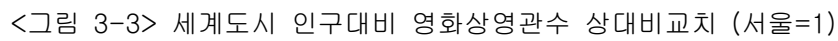
■ 영화상영관

- 서울시 내의 영화상영관은 총 68개소
 - 이 중 체인형 멀티플렉스는 8개소, 5개관 이상을 갖춘 영화상영관은 18개소
- 세계도시와 비교해 볼 때, 영화상영관의 단순 개소수와 면적대비 영화상영관수는 중위권에 위치
 - 영화상영관의 절대수는 적은 편이 아님
 - 인구대비 영화상영관수는 최하위권
 - 대부분의 해외도시의 단순 개소수나 면적대비 시설수에 비해 인구대비 시설수가 높음
 - 프랑스 파리의 경우 인구대비 시설수가 서울의 36배에 달하는 등 상위권 도시들과의 편차가 매우 큰 편
- 서울시민 대부분의 주된 문화활동이 영화관람이라는 점¹⁰⁾에서 볼 때, 영화상영관의 접근성 및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등을 상영하는 전문영화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

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및 의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0%가 영화관람 경험이 있으며, 지난 1년간 평균 영화 관람횟수가 4.3회로 타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의 8배 이상임. 또한 향후 가장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를 묻는 질문에서 역시 영화를 선택한 사람이 25.3%로 가장 많았음

<표 3-2> 세계도시 영화상영관 비교기준별 순위

순위	개소수		면적대비 상대비교치		인구대비 상대비교치	
1	파리	505	파리	42.83	파리	36.24
2	모스크바	368	밀라노	5.88	스톡홀름	17.78
3	상하이	242	스톡홀름	4.18	밀라노	14.09
4	상파울루	237	브뤼셀	3.26	로마	13.21
5	로마	230	모스크바	3.03	브뤼셀	9.33
6	동경	205	동경	2.94	뮌헨	9.20
7	런던	197	자카르타	2.57	모스크바	6.57
8	자카르타	191	리스본	2.53	리스본	6.54
9	뉴욕	165	뮌헨	2.18	베를린	5.98
10	싱가폴	139	산티아고	2.00	싱가폴	5.01
11	산티아고	135	오사카	1.97	프라하	4.33
12	베를린	133	싱가폴	1.81	런던	4.22
13	밀라노	120	뉴욕	1.76	빈	3.94
14	스톡홀름	88	로마	1.59	마드리드	3.91
15	테헤란	82	상파울루	1.40	소피아	3.87
16	마드리드	78	베를린	1.33	동경	3.68
17	뮌헨	76	코펜하겐	1.19	코펜하겐	3.65
18	서울	68	마드리드	1.14	자카르타	3.48
19	홍콩	60	런던	1.10	상파울루	3.43
20	브뤼셀	59	서울	1.00	산티아고	3.33
21	오사카	49	빈	0.86	바르샤바	3.32
22	요코하마	41	요코하마	0.84	오슬로	3.27
23	빈	40	부카레슈타	0.71	뉴욕	3.19
24	토론토	38	바르샤바	0.65	오사카	2.85
25	바르샤바	35	테헤란	0.61	상하이	2.78
26	프라하	33	프라하	0.59	암스테르담	2.49
27	소피아	31	토론토	0.54	오타와	2.45
28	선양	29	암스테르담	0.49	토론토	2.34
29	리스본	24	홍콩	0.48	테헤란	2.04
30	부카레슈타	19	오타와	0.47	요코하마	1.78
31	오타와	13	상하이	0.34	부카레슈타	1.50
32	암스테르담	12	오슬로	0.22	홍콩	1.35
33	코펜하겐	12	소피아	0.21	서울	1.00
34	오슬로	11	선양	0.20	선양	0.64
35	하노이	10	하노이	0.10	하노이	0.55



■ 전시시설

- 서울시 내 전시시설은 총 342개소로, 화랑 223개소, 기념관 및 전시실 30개소, 박물관 67개소, 미술관 22개소가 분포
- 세계도시와의 비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함
- 박물관의 경우, 단순 개소수와 면적대비 박물관수는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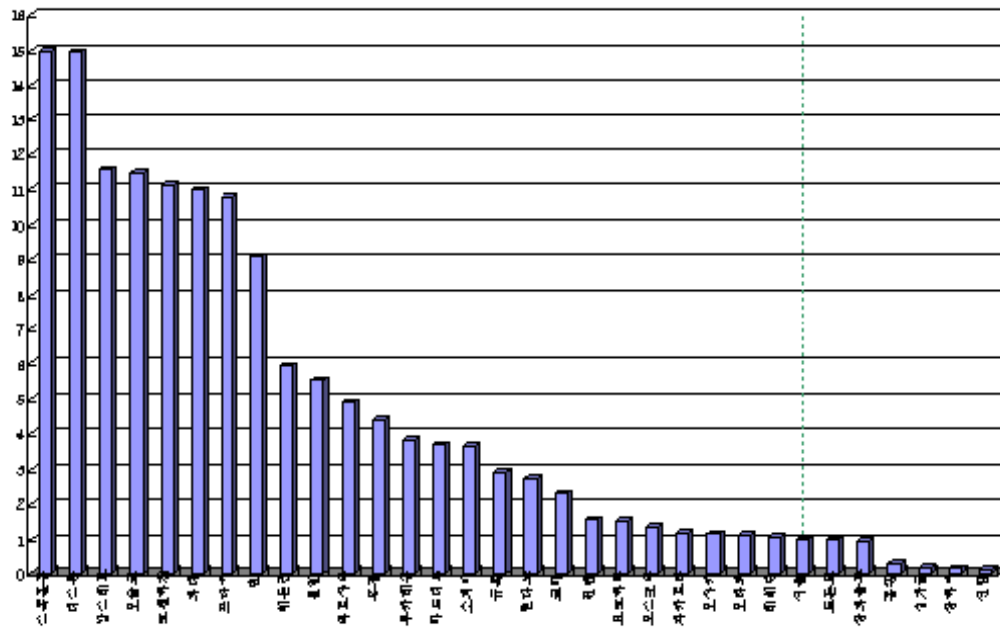
<표 3-3> 세계도시 박물관 비교기준별 순위

순위	개소수		면적대비 상대비교치		인구대비 상대비교치	
1	동경	243	파리	13.00	스톡홀름	14.97
2	파리	151	리스본	5.77	리스본	14.94
3	뉴욕	150	코펜하겐	3.62	암스테르담	11.57
4	베를린	130	동경	3.53	오슬로	11.48
5	빈	91	스톡홀름	3.52	코펜하겐	11.12
6	프라하	81	암스테르담	2.27	파리	11.00
7	모스크바	76	빈	1.98	프라하	10.78
8	런던	73	부카레슈티	1.82	빈	9.09
9	마드리드	73	뉴욕	1.63	베를린	5.93
10	스톡홀름	73	프라하	1.48	뮌헨	5.53
11	서울	67	베를린	1.32	바르샤바	4.90
12	자카르타	66	뮌헨	1.31	동경	4.43
13	상파울루	66	밀라노	1.14	부카레슈티	3.86
14	암스테르담	55	마드리드	1.09	마드리드	3.71
15	리스본	54	서울	1.00	소피아	3.67
16	바르샤바	51	바르샤바	0.96	뉴욕	2.94
17	부카레슈티	48	자카르타	0.90	밀라노	2.74
18	뮌헨	45	오사카	0.81	로마	2.33
19	테헤란	43	오슬로	0.76	런던	1.59
20	로마	40	요코하마	0.73	요코하마	1.54
21	오슬로	38	모스크바	0.64	모스크바	1.38
22	코펜하겐	36	런던	0.41	자카르타	1.22
23	요코하마	35	상파울루	0.40	오사카	1.18
24	소피아	29	테헤란	0.32	오타와	1.15
25	밀라노	23	로마	0.28	테헤란	1.09
26	오사카	20	토론토	0.23	서울	1.00
27	토론토	16	오타와	0.22	토론토	1.00
28	홍콩	13	소피아	0.20	상파울루	0.97
29	상하이	11	홍콩	0.11	홍콩	0.30
30	오타와	6	싱가폴	0.07	싱가폴	0.18
31	선양	5	선양	0.03	상하이	0.13
32	싱가폴	5	상하이	0.02	선양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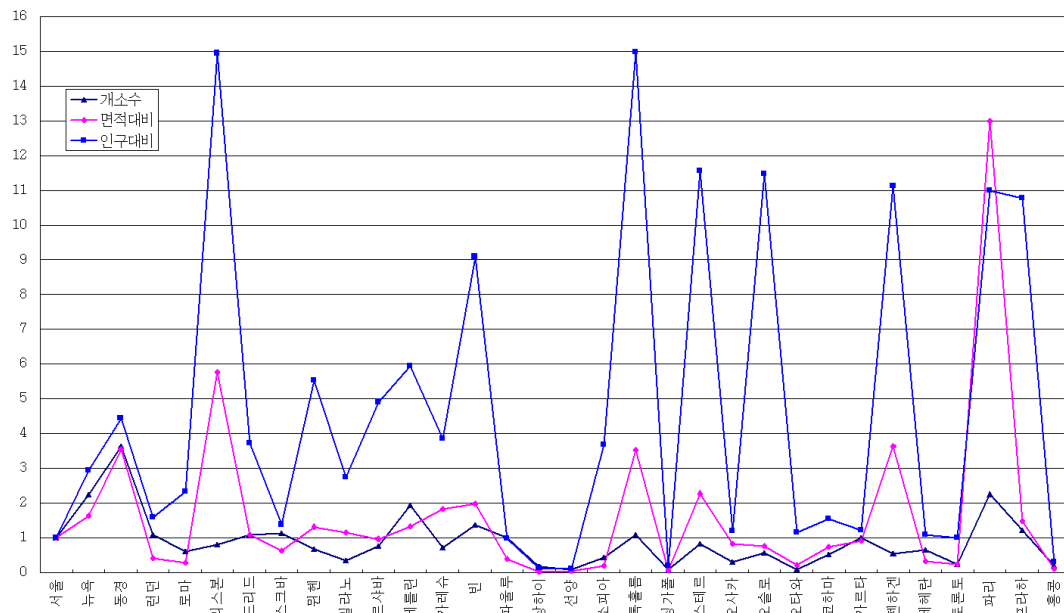
- 대비 박물관수는 하위권에 위치
 - 상위권 도시들과의 편차가 큰 편
 - 상대비교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도시가 스톡홀름, 리스본, 암스테르담, 오슬로, 코펜하겐, 파리, 프라하 등 7곳
- 미술관의 경우, 단순 개소수와 면적대비 수는 중위권에 위치
 - 다른 시설들에 비해 미술관은 전반적으로 수가 적어 파리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과의 상대비교치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음
 - 그러나 인구대비 미술관수를 살펴보면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비교치의 편차 또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미술관의 개소수는 파악되지 않은 도시가 많아 다른 시설보다 비교된 도시의 수가 적으나, 나타나는 양상은 다른 시설의 경우와 비슷함
-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된 서울의 특성상, 세계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특히 인구대비 시설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계량적 비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문화시설의 양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효율적 수단임
 - 그러나 문화시설의 분류기준에 민감하며 시설의 규모 및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표 3-4> 세계도시 미술관 비교기준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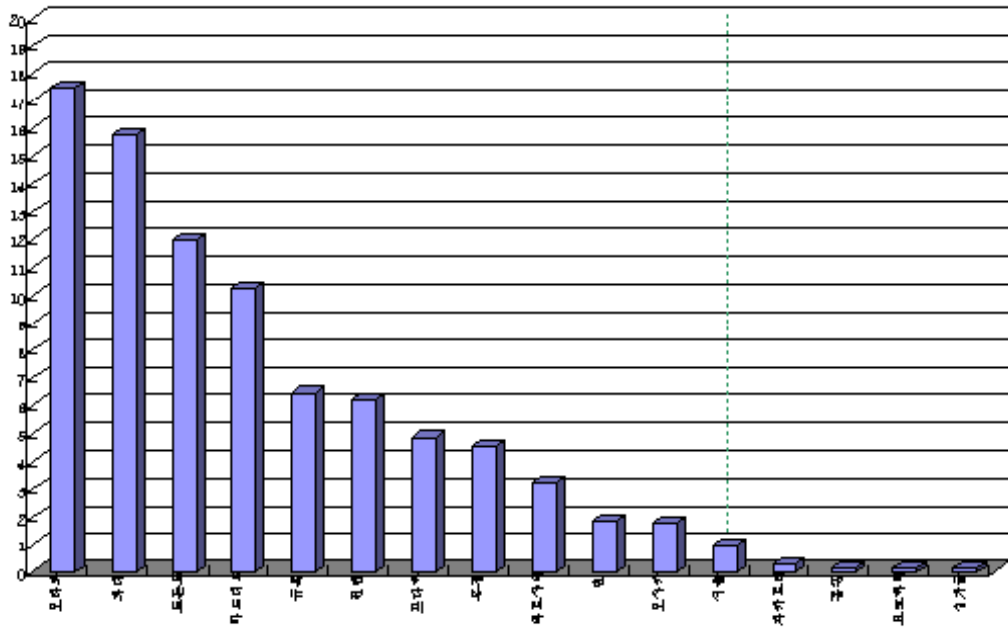
순위	개소수		면적대비 상대비교치		인구대비 상대비교치	
1	뉴욕	108	파리	18.61	오타와	17.46
2	런던	94	동경	3.59	파리	15.75
3	동경	81	뉴욕	3.56	토론토	11.97
4	파리	71	오타와	3.33	마드리드	10.22
5	마드리드	66	마드리드	2.99	뉴욕	6.44
6	토론토	63	토론토	2.75	런던	6.22
7	오타와	30	런던	1.63	프라하	4.86
8	서울	22	오사카	1.24	동경	4.50
9	프라하	12	서울	1.00	바르샤바	3.22
10	바르샤바	11	프라하	0.67	빈	1.83
11	오사카	10	바르샤바	0.63	오사카	1.80
12	빈	6	빈	0.40	서울	1.00
13	자카르타	5	자카르타	0.21	자카르타	0.28
14	홍콩	2	요코하마	0.06	홍콩	0.14
15	요코하마	1	홍콩	0.05	요코하마	0.13
16	싱가폴	1	싱가폴	0.04	싱가폴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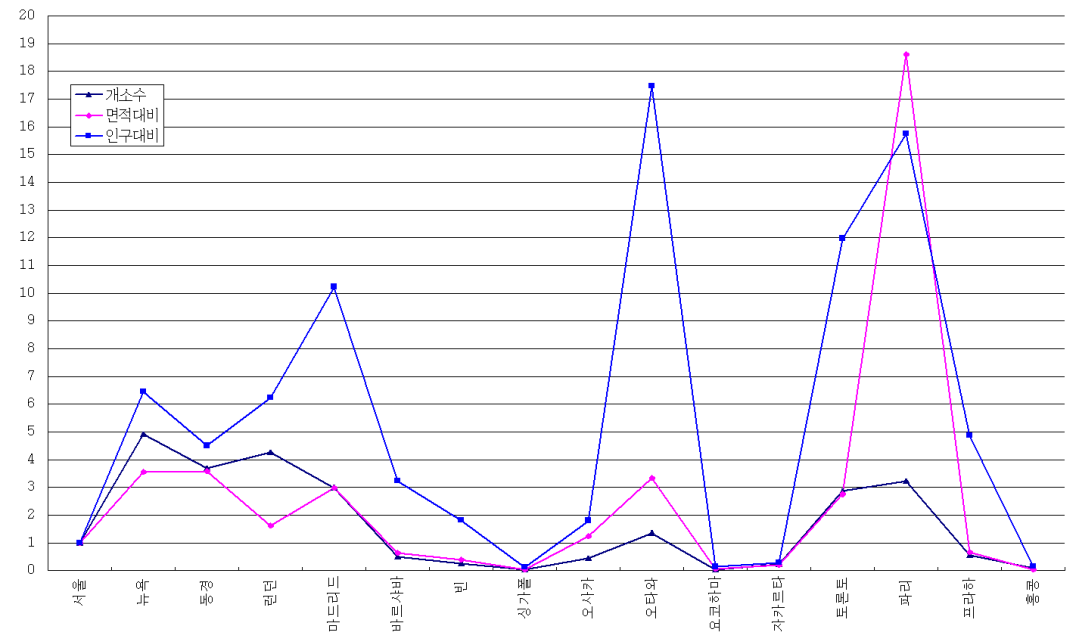
<그림 3-5> 세계도시 인구대비 박물관수 상대비교치 (서울=1)



<그림 3-6> 세계도시 박물관수 상대비교치 (서울=1)



<그림 3-7> 세계도시 인구대비 미술관수 상대비교치 (서울=1)



<그림 3-8> 세계도시 미술관수 상대비교치 (서울=1)

<표 3-5> 세계도시와 서울의 문화시설 비교 (면적대비)

면적대비 문화시설 비교		도시	박물관			미술관			연극공연장			영화관		
			시설 수	시설밀 도	상대 비교치	시설 수	시설밀도	상대 비교치	시설 수	시설밀 도	상대 비교치	시설 수	시설밀도	상대 비교치
수도	아메리카	오타와	6	0.024	0.22	30	0.121	3.33	6	0.024	0.11	13	0.052	0.47
	아시아	동경	243	0.391	3.53	81	0.130	3.59	82	0.132	0.62	205	0.330	2.94
		자카르타	66	0.100	0.90	5	0.008	0.21	12	0.018	0.09	191	0.289	2.57
		테헤란	43	0.036	0.32	-	-	-	9	0.008	0.04	82	0.068	0.61
		싱가폴	5	0.007	0.07	1	0.001	0.04	35	0.051	0.24	139	0.203	1.81
		하노이	-	-	-	-	-	-	6	0.007	0.03	10	0.011	0.10
		파리	151	1.438	13.00	71	0.676	18.61	125	1.190	5.59	505	4.810	42.83
	유럽	런던	73	0.046	0.41	94	0.059	1.63	100	0.063	0.30	197	0.124	1.10
		베를린	130	0.146	1.32	-	-	-	62	0.070	0.33	133	0.149	1.33
		마드리드	73	0.120	1.09	66	0.109	2.99	47	0.077	0.36	78	0.128	1.14
		암스테르담	55	0.251	2.27	-	-	-	46	0.210	0.99	12	0.055	0.49
		브뤼셀	-	-	-	-	-	-	-	-	-	59	0.366	3.26
		모스크바	76	0.070	0.64	-	-	-	60	0.056	0.26	368	0.341	3.03
		로마	40	0.031	0.28	-	-	-	60	0.047	0.22	230	0.179	1.59
		빈	91	0.219	1.98	6	0.014	0.40	12	0.029	0.14	40	0.096	0.86
		스톡홀름	73	0.390	3.52	-	-	-	82	0.438	2.06	88	0.470	4.18
		코펜하겐	36	0.401	3.62	-	-	-	50	0.557	2.61	12	0.134	1.19
		바르샤바	51	0.107	0.96	11	0.023	0.63	34	0.071	0.33	35	0.073	0.65
		오슬로	38	0.084	0.76	-	-	-	4	0.009	0.04	11	0.024	0.22
		리스본	54	0.638	5.77	-	-	-	34	0.402	1.89	24	0.284	2.53
		부카레슈티	48	0.202	1.82	-	-	-	30	0.126	0.59	19	0.080	0.71
		소피아	29	0.022	0.20	-	-	-	23	0.018	0.08	31	0.024	0.21
		프라하	81	0.163	1.48	12	0.024	0.67	71	0.143	0.67	33	0.067	0.59
		한국	서울	67	0.111	1.00	22	0.036	1.00	129	0.213	1.00	68	0.112
기타 도시	아시아	오사카	20	0.090	0.81	10	0.045	1.24	26	0.117	0.55	49	0.221	1.97
		요코하마	35	0.081	0.73	1	0.002	0.06	19	0.044	0.21	41	0.094	0.84
		상하이	11	0.002	0.02	-	-	-	39	0.006	0.03	242	0.038	0.34
		선양	5	0.004	0.03	-	-	-	29	0.022	0.10	29	0.022	0.20
		홍콩	13	0.012	0.11	2	0.002	0.05	15	0.014	0.06	60	0.054	0.48
	아메리카	뉴욕	150	0.180	1.63	108	0.129	3.56	38	0.046	0.21	165	0.198	1.76
		토론토	16	0.025	0.23	63	0.100	2.75	71	0.113	0.53	38	0.060	0.54
		상파울루	66	0.044	0.40	-	-	-	138	0.091	0.43	237	0.157	1.40
		산티아고	-	-	-	-	-	-	29	0.048	0.23	135	0.225	2.00
	유럽	뮌헨	45	0.145	1.31	-	-	-	57	0.184	0.86	76	0.245	2.18
		밀라노	23	0.126	1.14	-	-	-	20	0.110	0.52	120	0.660	5.88
	한국	부산	11	0.014	0.13	4	0.005	0.14	22	0.029	0.14	35	0.046	0.41
		대구	4	0.005	0.04	0	0.000	0.00	22	0.025	0.12	37	0.042	0.37
		인천	1	0.001	0.01	4	0.004	0.11	12	0.012	0.06	34	0.034	0.31
		광주	2	0.004	0.04	5	0.010	0.27	19	0.038	0.18	35	0.070	0.62
		대전	11	0.020	0.18	3	0.006	0.15	31	0.057	0.27	15	0.028	0.25
		울산	0	0.000	0.00	7	0.007	0.18	13	0.012	0.06	10	0.009	0.08

<표 3-6> 세계도시와 서울의 문화시설 비교 (인구대비)

인구대비 문화시설 비교		도시	박물관			미술관			연극공연장			영화관		
			시설 수	십만명 당 박물관 수	상대 비교치	시설 수	십만명당 미술관수	상대 비교치	시설 수	십만명 당 공연장 수	상대 비교치	시설 수	십만명당 영화관수	상대 비교치
수도	아메리카	오타와	6	0.74	1.15	30	3.70	17.46	6	0.74	0.60	13	1.60	2.45
	아시아	동경	243	2.86	4.43	81	0.95	4.50	82	0.97	0.78	205	2.42	3.68
		자카르타	66	0.79	1.22	5	0.06	0.28	12	0.14	0.12	191	2.28	3.48
		테헤란	43	0.70	1.09	-	-	-	9	0.15	0.12	82	1.34	2.04
		상가폴	5	0.12	0.18	1	0.02	0.11	35	0.83	0.66	139	3.28	5.01
		하노이	-	-	-	-	-	-	6	0.22	0.17	10	0.36	0.55
	유럽	파리	151	7.10	11.00	71	3.34	15.75	125	5.88	4.73	505	2.38	36.24
		런던	73	1.02	1.59	94	1.32	6.22	100	1.40	1.13	197	2.77	4.22
		베를린	130	3.83	5.93	-	-	-	62	1.83	1.47	133	3.92	5.98
		마드리드	73	2.40	3.71	66	2.17	10.22	47	1.54	1.24	78	2.56	3.91
		암스테르담	55	7.47	11.57	-	-	-	46	6.25	5.03	12	1.63	2.49
		브뤼셀	-	-	-	-	-	-	-	-	-	59	6.12	9.33
		모스크바	76	0.89	1.38	-	-	-	60	0.70	0.56	368	4.31	6.57
		로마	40	1.51	2.33	-	-	-	60	2.26	1.82	230	8.66	13.21
		빈	91	5.87	9.09	6	0.39	1.83	12	0.77	0.62	40	2.58	3.94
		스톡홀름	73	9.67	14.97	-	-	-	82	10.86	8.73	88	11.66	17.78
		코펜하겐	36	7.18	11.12	-	-	-	50	9.97	8.02	12	2.39	3.65
		바르샤바	51	3.16	4.90	11	0.68	3.22	34	2.11	1.70	35	2.17	3.32
		오슬로	38	7.41	11.48	-	-	-	4	0.78	0.63	11	2.14	3.27
		리스본	54	9.65	14.94	-	-	-	34	6.08	4.89	24	4.29	6.54
		부카레슈티	48	2.49	3.86	-	-	-	30	1.56	1.25	19	0.99	1.50
		소피아	29	2.37	3.67	-	-	-	23	1.88	1.51	31	2.54	3.87
		프라하	81	6.96	10.78	12	1.03	4.86	71	6.10	4.91	33	2.84	4.33
	한국	서울	67	0.65	1.00	22	0.21	1.00	129	1.24	1.00	68	0.66	1.00
비수 도	아시아	오사카	20	0.76	1.18	10	0.38	1.80	26	0.10	0.80	49	1.87	2.85
		요코하마	35	0.99	1.54	1	0.03	0.13	19	0.54	0.43	41	1.16	1.78
		상하이	11	0.08	0.13	-	-	-	39	0.29	0.24	242	1.82	2.78
		선양	5	0.07	0.11	-	-	-	29	0.42	0.34	29	0.42	0.64
		홍콩	13	0.19	0.30	2	0.03	0.14	15	0.22	0.18	60	0.88	1.35
	아메리카	뉴욕	150	0.19	2.94	108	1.37	6.44	38	0.48	0.39	165	2.09	3.19
		토론토	16	0.65	1.00	63	2.54	11.97	71	2.86	2.30	38	1.53	2.34
		상파울루	66	0.63	0.97	-	-	-	138	1.31	1.05	237	2.25	3.43
		산티아고	-	-	-	-	-	-	29	0.47	0.38	135	2.18	3.33
	유럽	뮌헨	45	3.57	5.53	-	-	-	57	4.52	3.64	76	6.03	9.20
		밀라노	23	1.77	2.74	-	-	-	20	1.54	1.24	120	9.24	14.09
	한국	부산	11	0.30	0.47	4	0.11	0.52	22	0.60	0.48	35	0.96	1.46
		대구	4	0.16	0.25	0	0.00	0.00	22	0.89	0.72	37	1.50	2.28
		인천	1	0.04	0.06	4	0.16	0.76	12	0.49	0.39	34	1.38	2.10
		광주	2	0.15	0.23	5	0.37	1.74	19	1.40	1.13	35	2.59	3.95
		대전	11	0.81	1.25	3	0.22	1.04	31	2.27	1.82	15	1.10	1.68
		울산	0	0.00	0.00	7	0.69	3.26	13	1.28	1.03	10	9.88	1.51

2. 권역별 문화시설 현황

- 문화시설의 분류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분류를 따랐으며, 영화상영관은 서울시 전체현황 분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형으로 분리
- 서울시를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문화시설의 분포를 파악. 각 권역의 구분은 <표 3-7> 과 같음
 - 도심권에는 4대문 안 주요도심지역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 동남권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에는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에는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에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속해있음
- 각 권역의 인구현황 및 권역의 면적을 살펴보면
 - 동북권은 3,399,200명, 서남권은 3,037,519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
 - 도심권에는 581,814명만이 거주하고 있어 동북권・서남권의 인구가 약 5배 가량 많음
- 이러한 권역의 인구밀집 특성은 각 권역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균형배치가 중요한 생활권문화시설의 설치 및 문화공간 조성시에 반영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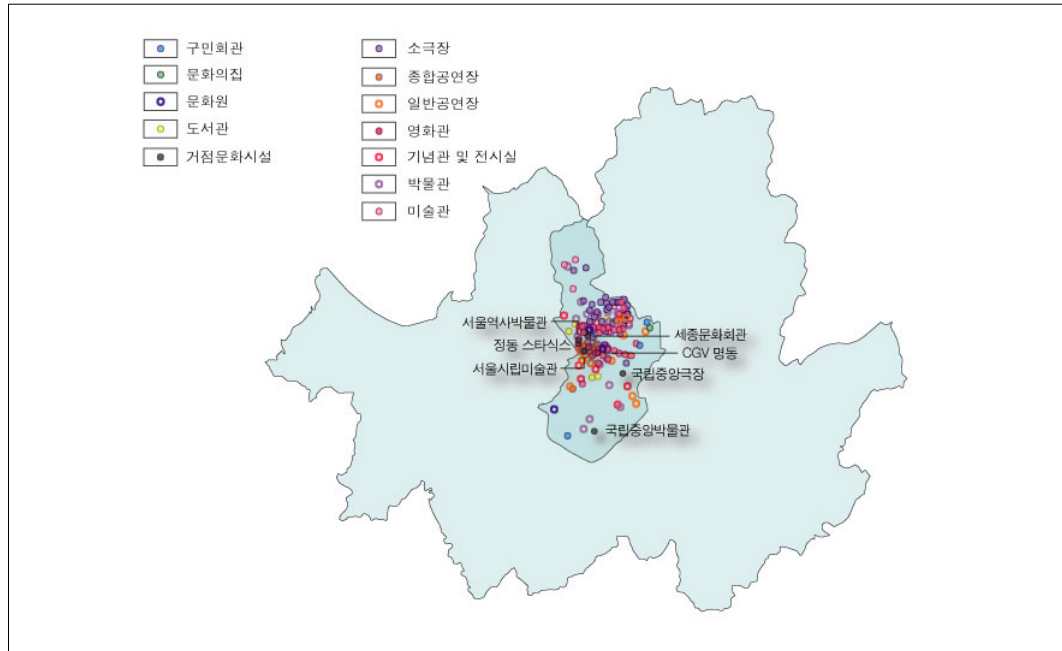
2-1. 도심 권

■ 공연시설

- 공연시설 82개소, 영화관 23개소, 전시시설 181개소 등 문화예술시설이 총 287개소 위치
- 공연시설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권역으로, 공연시설의 절반 이상이 도심권에 집중
 - 종합공연장이 4개소이며 그 중 두 곳이 거점문화시설인 세종문화회관과 국립중앙극장

<표 3-7> 서울의 생활권별 지역구분 및 현황

구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인구	581,814	2,120,748	3,399,200	3,037,519	1,233,953
면적(km ²)	55.74	145.14	171.03	162.39	71.2



<그림 3-9> 도심권 문화시설 현황

- 특히 일반공연장 및 소극장의 집중도가 높아 도심권이 공연예술 측면에서 문화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종로구와 중구에 다수의 일반공연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문예진흥원이 있음
- 종로구의 대학로 주변과 중구의 명동 및 충무로 인근에 100~200석 규모의 소극장이 다수 입지
- 전반적으로 공연시설은 도심권, 특히 중구와 종로구에 압도적으로 밀집되어있는 모습을 보임
- 연극, 오페라, 뮤지컬, 연주회 등 다양한 규모 및 장르의 공연이 가능

■ 영화상영관

- 영화상영관은 23개소로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보다 약 2배 이상
 -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의 약 30%는 상영관이 한 개 뿐인 단관극장
 - 영화상영관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종로구에 역사가 오랜 극장이 많기 때문
 - 영화상영관 개소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래된 단관극장이 재건축이나 리노베이션을 통해 관수를 늘려 재개관하는 사례가 많아 4개관 이상의 영화상영관도 다른 권역보다 많음

- 중구의 충무로 및 명동 인근에 5개관 이상의 대형 영화상영관이 밀집
 - 캣츠21, 명동CGV는 상업시설과 결합된 멀티플렉스 개념의 영화상영관으로, 관수가 많은 대신 한개 관 당 수용인원이 적은 편임
- 용산구는 도심권에 포함되지만 대형공연장은 대학 내 공연장이고 소공연장은 없으며, 영화관이 2개소에 불과하는 등 공연시설 및 영화상영관 개소수 전반에 걸쳐 도심권 내 다른 구들에 비해 현격히 다른 모습을 보임

■ 전시시설

- 가장 많은 전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권역
 - 서울시 전체 박물관 66개소 중 27개소, 기념관 및 전시실 30개소 중 13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화랑 또한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집중
 - 도심권에 입지한 전시시설들은 대부분 인사동과 사간동 등지에 밀집
- 대학교 박물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박물관이 도심권(22개소)과 동남권(11개소)에 입지
 - 도심권 내 박물관 중 8개소가 국공립 박물관
 - 기업관련, 생활/민속관련, 학문/예술관련 등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들이 입지
 - 중구에는 주로 기업관련 박물관들이 입지하고 있음
- 박물관 외에도 국공립 전시관(궁중유물전시관), 민간전시관, 문학관 등의 전시시설이 입지
- 미술관의 대부분이 도심권에 입지
 - 중구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음
 - 실험작품, 회화, 판화, 도자기, 목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함
- 전시시설에 있어 다른 권역에 비해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 내에도 전시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등 공공전시시설이 다수 입지

<표 3-8> 도심권 문화시설 현황

구	공연시설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종합 공연 장	일반 공연 장	소 공연 장	계	미술 관	박물관	기념관 및 전시실	화랑	계	체인형 멀티 플렉스	총 개소수	구민 회관	문화 의집	문화 예술 회관	계	도서 관	지방 문화 원	전수 회관	국악 원	계
종로	1	8	50	59	12	14	4	113	143	0	11	1	1	0	2	7	1	0	0	8
중구	3	11	4	18	2	8	6	12	28	2	10	1	0	0	1	4	1	0	0	5
용산	0	5	0	5	0	5	3	2	10	0	2	1	0	0	1	2	1	0	0	3
계	4	24	55	82	14	27	13	127	181	2	23	3	1	0	4	13	3	0	0	16

■ 지역문화복지시설

- 생활권문화시설의 개소수 자체는 적으나 인구 만명당 개소수를 보았을 때 서남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각 구마다 구민회관이 있고 추가적으로 종로구 문화의 집, 중구 종합복지센터가 있음
- 전수시설인 지방문화원 또한 인구만명당 개소수에 있어서 높은 수치를 보임
- 상대적으로 용산구가 약간 소외된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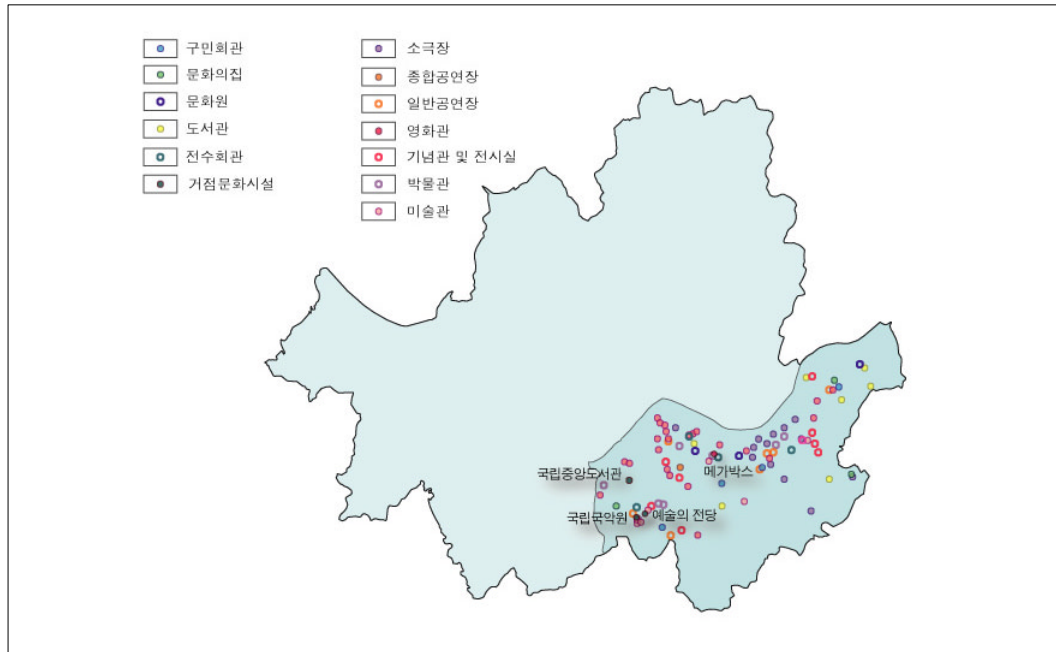
■ 도서관

- 도서관은 인구 만명당 개소수에 있어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교육청에서 운영하거나(공립도서관) 공공에 등록된 사립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이 대부분임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는 것은 인구에 대비하여 도서관수가 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임

2-2. 동남권

■ 공연시설

- 도심권과 같은 수의 종합공연장을 보유
 - 다양한 공연을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는 민간시설인 LG아트센터 및 한전아트센터,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대규모 거점문화시설인 예술의 전당이 입지
 - 예술의 전당은 다양한 규모의 공연시설 외에도 전시시설, 자료관 등을 갖추고 있는 복합문화시설
- 일반공연장과 소극장은 도심권에 비해 시설수가 월등히 적긴 하지만, 인접한 지역에 밀집하고 있어 다른 권역보다는 공연예술에의 접근성이 좋은 편
 - 일반공연장은 대부분 규모가 큰 편
 - 소공연장은 대부분 지역문화복지시설에 부속된 시설들임
-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특징있는 문화관련 시설들이 입지
-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대규모 시설들의 입지가 점적이고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송파구에 있는 공연시설은 대부분 롯데월드 또는 롯데호텔에 부속된 시설임
- 강동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음



<그림 3-10> 동남권 문화시설 현황

■ 영화상영관

- 영화상영관은 19개소로 도심권과 비슷한 개소가 입지
 - 도심권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영화관이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3개관 이상의 영화상영관들이 주를 이룸
 - 특히 강남구에 위치한 체인형 멀티플렉스인 메가박스(16개관)는 국내 최대 객석수를 보유하여 강남권의 인구당 영화상영관 좌석수의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초구의 센트럴6시네마(6개관)도 상업시설과 결합된 대형 영화상영관임
- 대부분의 영화상영관이 강남구의 논현·신사, 강남역 인근에 밀집해 있으며, 최근 영화관련 제작사, 홍보사 등이 강남지역에 증가하는 추세
- 5개관 이상의 대형극장은 각 구에 골고루 분포
- 강동구에 있는 영화관들은 대부분 송파구에 입지한 성내동에 입지하여 강동구 남단의 접근성이 낮음

■ 전시시설

- 박물관 12개소가 입지
 - 개소수만을 본다면 도심권 다음으로 박물관이 많은 권역은 동북권이지만, 일반인의 접근

근이 어려운 대학박물관을 제외하고 본다면 동남권이 두 번째로 많은 박물관을 가진 권역

- 국공립박물관이 강남구에 1개소, 서초구에 2개소 총 3개소 있음
- 롯데월드 내에 있는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포함
- 농업박물관이 강남구와 강동구에 각 1개소씩 있음
- 미술관이 많지는 않지만 예술의 전당에 서예관, 디자인관, 미술관이 있음
- 청담동, 신사동 등지에 다수의 화랑이 밀집해있음
- 올림픽 경기장이 입지한 송파구에는 올림픽과 관련된 전시시설이 2개소 있음

■ 지역문화복지시설

- 인구대비 생활권문화시설의 수가 가장 적은 권역으로, 문화예술시설에 비해 생활권문화시설 기반이 취약
- 각 구마다 구민회관이 있으며,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는 문화의 집이 1개소씩 있음
- 송파구에 문예회관이 있음
- 서초구를 제외한 동남권의 모든 구에 문화원이 있음
- 동남권에는 지방문화원 외에도 전수회관과 국악원이 입지하여 시설의 다양성이 풍부

■ 도서관

- 도서관은 인구 만명당 개소수에 있어서 도심권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동남권에 거점시설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9> 동남권 문화시설 현황

구	공연시설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도서관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종합 공연 장	일반 공연 장	소 공연 장	계	미술 관	박물관	기념관 및 전시실	화랑	계	체인형 멀티 플렉스	총 개소수	구민 회관	문화 의집	문화 예술 회관		계	지방 문화 원	전수 회관	국악 원	계
강남	1	3	5	9	2	5	2	69	78	1	10	1	0	0	1	3	1	2	0	6
서초	3	7	0	10	4	4	2	7	17	0	3	1	1	0	2	1	0	0	1	2
송파	0	2	2	4	1	2	3	3	9	0	2	1	1	1	3	2	1	1	0	3
강동	0	0	0	0	0	1	1	0	2	0	4	1	0	0	1	4	1	0	0	5
계	4	12	7	23	7	12	8	79	106	1	19	4	2	1	7	10	3	3	1	16

- 서초구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입지하고 있으나, 시설의 접근성은 낮은 편
- 송파구 및 강동구 등지에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도서관 4개소 입지
- 교육청에서 운영하거나(공립도서관) 공공에 등록된 사립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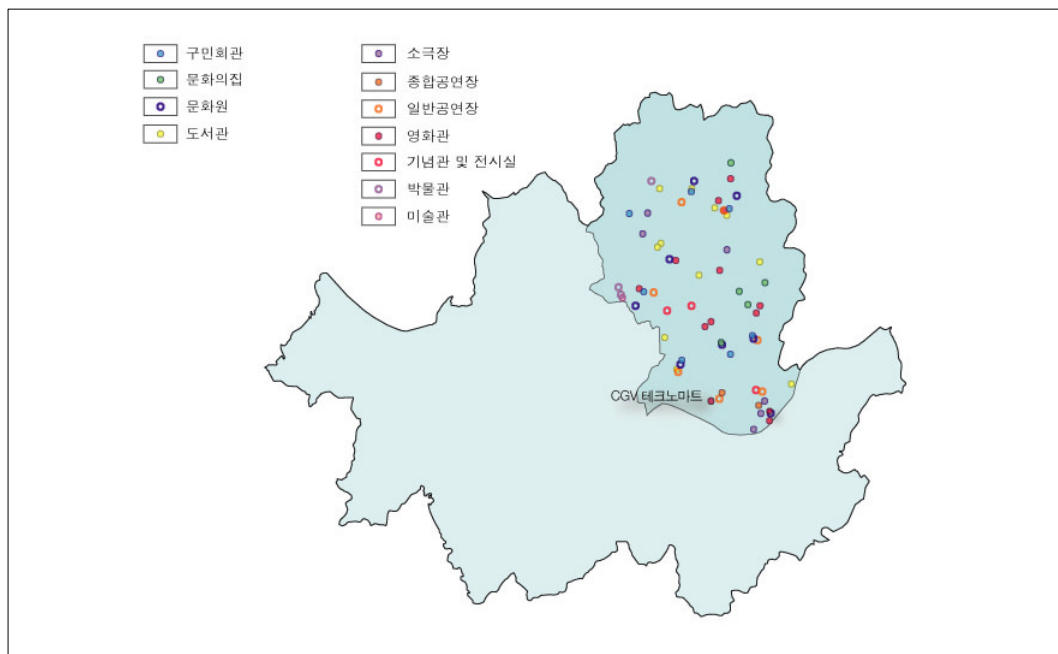
2-3. 동북권

■ 공연시설

- 공연시설의 수가 적으며, 각각의 시설이 밀집되지 못한 채 분산되어있는 편
 - 종합공연장이 여러 곳 있으나 대부분이 대학 내 공연장임
 - 일반공연장, 소공연장은 대부분 구민회관 등 지역문화복지시설 부속시설임
 - 시설 자체는 분산되어 있으나 구별로는 광진구, 노원구 등 몇 개의 구에 편중되어 있음

■ 영화상영관

- 영화상영관은 8개소로 영화상영관의 개소수 자체가 적은편
 - 권역의 넓이와 인구 수를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더욱 상영관의 수가 부족



<그림 3-11> 동북권 문화시설 현황

- 4개관 이하의 영화관들이 각 구에 산재되어 있음
- 강변에 있는 테크노마트CGV가 멀티플렉스로서 영화상영관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세로로 긴 형태인 동북권의 맨 아래쪽에 해당하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부족

■ 전시시설

- 도심권 다음으로 박물관이 많은 권역
 - 대학교 박물관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동북권에 입지한 대부분의 박물관이 대학박물관임
 - 생활/민속관련 박물관 3개소, 육군박물관, 기타 유물관 및 전시관 등의 전시시설이 입지
 - 도심권, 동남권보다는 적으나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은 편
- 화랑은 도심권과 비교해볼 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적은 수가 위치하고 있음

■ 지역문화복지시설

- 동북권과 서북권은 구민회관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생활권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북권의 인구가 월등히 많아 사실상 동북권의 생활권문화시설의 수가 더 적음

<표 3-10> 동북권 문화시설 현황

구	공연시설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도서관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계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및 전시실	화랑	계	체인형 멀티플렉스	총개소수	구민회관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계	지방문화원	전수회관	국악원	계
동대문	0	0	0	0	0	2	1	0	3	0	1	1	1	0	2	1	1	0	2
성동	0	1	0	1	0	1	0	0	1	0	1	1	0	0	1	1	0	0	2
중랑	0	0	0	0	0	0	0	0	0	0	2	1	3	0	4	1	1	0	3
광진	2	2	1	5	0	2	1	0	3	1	1	1	0	0	1	1	0	0	2
성북	0	0	2	2	1	7	1	3	12	0	0	1	0	0	1	2	1	0	3
강북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	3	1	0	4
도봉	0	0	0	0	0	2	0	0	2	0	0	1	0	0	1	2	1	0	3
노원	1	1	2	4	0	1	0	0	1	0	2	1	1	1	3	2	1	0	3
계	3	4	5	12	1	15	3	3	22	1	8	8	5	1	14	13	8	1	21

- 각 구에 모두 구민회관이 있음

- 노원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음
-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성동구, 광진구는 문화의 집이 없는데 비해 중랑구는 문화의 집이 3개소 있음
- 지방문화원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인구 만명당 개소수에서는 도심권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 지방문화원 외에도 전수회관이 입지하고 있어 시설의 다양성이 다른 권역보다 높은 편

■ 도서관

- 다른 권역과는 달리 도서관의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임
 - 공립도서관 2개소, 사립공공도서관 1개소
 - 공립 및 사립 도서관이 부족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 노원구에서는 마을문고도 24개소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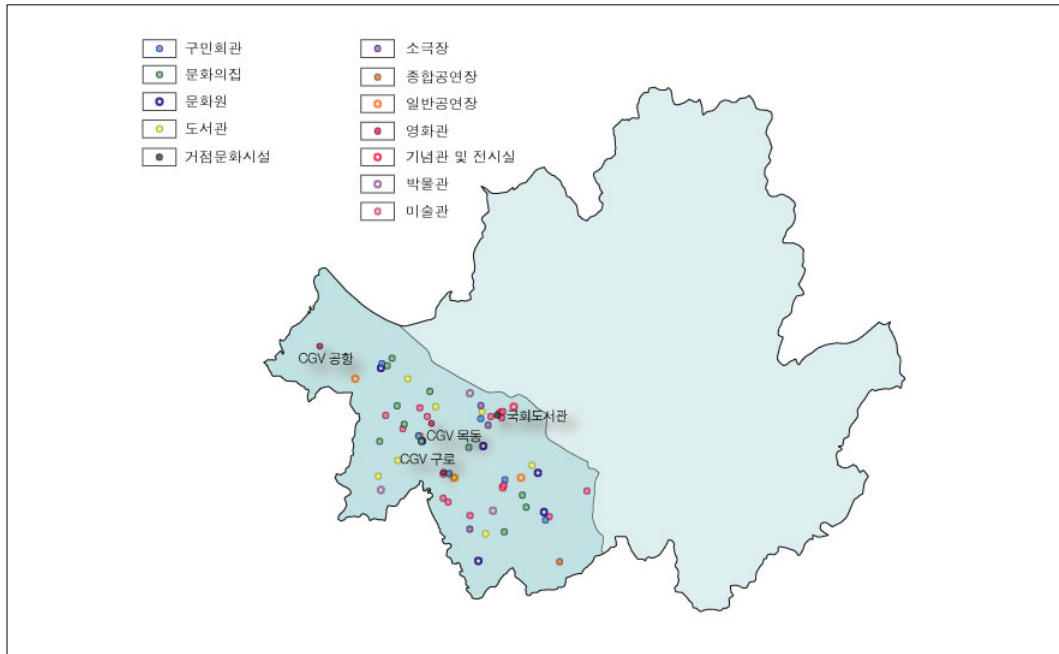
2-4. 서남권

■ 공연시설

- 총 6개소로 권역의 면적과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편
 - 동북권과 마찬가지로 밀집되지 못한 채 분산되어있음
- 대형공연장은 서울대학교 문화관, KBS홀 2곳으로 프로그램 및 접근성 면에서 제약이 있음
- 일반공연장은 지역문화복지시설 부속시설과 방송관련시설로 양분됨
 - 일반공연장이 양천구에 1개소, 관악구에 1개소가 있으며, 소공연장은 영등포구에 2개소 있음
 - 다른 권역에 비해 방송관련시설이 많음

■ 영화상영관

- 체인형 멀티플렉스가 가장 많은 권역
 - 구로, 양천, 강서의 3개 지역에 CGV가 입지하고 있음
 - 관악구 신림동, 금천구 독산동에 프리머스 씨네마에서 10개관 이상의 멀티플렉스 영화



<그림 3-12>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

상영관을 개관할 예정이므로, 서남권의 체인형 멀티플렉스는 5개소로 증가하여 서울시 전체 체인형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50%가 입지하게 됨

- 그 외의 영화상영관은 3개관 이하가 대부분
- 영등포구의 영화관은 영등포시장 인근에 입지하고 있음

■ 전시시설

- 미술관 0개소, 박물관 5개소, 기념관 및 전시실 3개소, 화랑 3개소로 전시와 관련된 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
- 박물관이 가장 적은 권역임
 - 대학교 박물관 2개소 외에 3개소의 사립박물관이 있음
- 미술관, 화랑은 없음

■ 지역문화복지시설

- 가장 많은 생활권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권역
 - 각 구마다 구민회관이 있음
 - 강서구와 영등포구에 문화예술회관 각 1개소, 관악구에 문화회관 1개소가 추가적으로

<표 3-11>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

구	공연시설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도서관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종합 공연 장	일반 공연 장	소 공연 장	계	미술 관	박물관	기념 관 및 전시 실	화랑	계	체인형 멀티 플렉스	총 개소수	구민 회관	문화 의집	문화 예술 회관	계	지방 문화 원	전수 회관	국악 원	계
강서	0	0	0	0	0	0	0	0	0	1	2	1	5	1	7	1	0	0	2
양천	0	2	0	2	0	0	0	1	1	1	2	1	4	1	6	2	0	0	3
영등포	1	0	2	3	0	0	2	2	4	0	3	1	1	1	3	1	0	0	2
구로	0	0	0	0	0	2	0	0	2	1	1	1	0	0	1	0	0	0	3
금천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	1	0	0	2
동작	0	0	0	0	0	1	1	0	2	0	2	1	0	0	1	1	0	0	2
관악	1	1	0	1	0	2	0	0	2	0	1	1	3	1	5	1	0	0	3
계	2	3	2	7	0	5	3	3	11	3	12	7	13	4	24	10	7	0	17

있음

- 문화의 집이 강서구에 5개소, 관악구에 3개소, 양천구에 4개소, 영등포구에 1개소 등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은 편임
- 구로구, 동작구, 금천구는 문화의 집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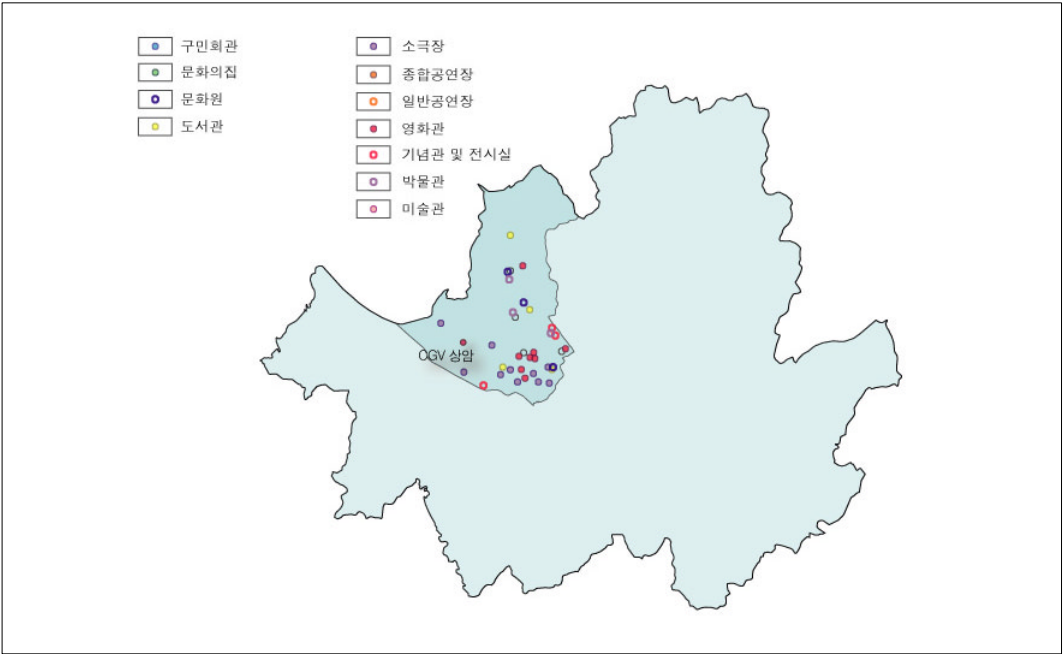
■ 도서관

- 도서관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임

2-5. 서북권

■ 공연시설

- 모든 권역 중 공연시설의 수가 가장 적고, 각각의 시설이 분산되어 있음
- 종합공연장이 없고 일반공연장도 지역문화복지시설, 대학내 공연장 외에 민간공연장이 없음
- 소공연장은 모두 마포구에 입지하고 있으며, 홍대 등 신촌지역에 밀집
- 마포구 홍대, 신촌, 이대입구 이외의 지역은 공연관련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으로,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소외되어 있음



<그림 3-13> 서북권 문화시설 현황

■ 영화상영관

- 영화상영관의 개소수 자체가 적은 편
 - 3개관 이하의 소규모 극장이 많으며, 관수가 많은 극장도 한개 관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음
- 최근 신촌의 신영극장이 9개의 상영관과 갤러리를 가진 아트레온으로 재개관하였고, 상암 지역에 CGV가 입지하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극장들은 대부분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어 북쪽의 은평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

<표 3-12> 서북권 문화시설 현황

구	공연시설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도서 관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종합 공연 장	일반 공연 장	소 공연 장	계	미술 관	박물관	기념 관 및 전시 실	화랑	계	체인형 멀티 플렉스	총 개소수	구민 회관	문화 의집	문화 예술 회관	계		지방 문화 원	전수 회관	국악 원	계
마포	0	0	4	4	0	2	1	6	9	1	2	1	0	0	1	2	1	0	0	3
서대문	0	1	0	1	0	5	2	5	12	0	3	1	3	0	4	1	1	0	0	2
은평	0	0	0	0	0	0	0	0	0	0	1	1	1	0	2	1	1	0	0	2
계	0	1	4	5	0	7	3	11	21	1	6	3	4	0	7	4	3	0	0	7

■ 전시시설

- 서북권 박물관의 대부분이 대학박물관으로, 대학교가 밀집된 마포구 주변에 밀집되어 있음
- 최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개장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하여 서대문구에만 자연사박물관이 2개소임
- 미술관, 화랑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은평구가 소외되어있는 모습을 보임

■ 지역문화복지시설

- 서대문구, 은평구에는 구민회관이 없음
- 문화의 집은 서대문구에 3개소, 은평구에 1개소이며 마포구에는 없음
- 은평구가 권역 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편임

3. 분야별 현황

- 분야별 현황은 공연예술 관련시설, 시각예술 관련시설, 영상·영화 관련시설, 애니메이션 관련시설, 문학 관련시설, 전통문화 관련시설로 나누어 살펴봄
 - 공연예술 관련시설에는 연극, 뮤지컬 등 순수예술 공연을 위한 공연장 및 연습실 등이 포함
 - 시각예술 관련시설에는 미술분야, 조형 예술분야 등을 위한 미술관, 갤러리, 창작스튜디오 등이 포함
 - 영상·영화 관련시설에는 미디어센터, 영화관, 방송국 등이 포함
 - 애니메이션 관련시설에는 애니메이션센터, 기타 지원시설 등이 포함
 - 문학 관련시설에는 문학관, 창작실 등이 포함
 - 전통문화 관련시설에는 전수회관 및 한옥마을 등이 포함됨

3-1. 공연예술 관련시설

- <표 3-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석 이상 규모의 종합공연장은 서울 내에 총 13개소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노원구, 영등포구, 관악구에 분포
 - 이 중 관악구와 노원구는 대학공연장을 제외하면 종합공연장이 없음
- 세종문화회관,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은 지역의 거점문화시설인 동시에, 종합공연장

수준의 대극장 외에도 소극장이나 야외극장 등 다양한 규모의 공연시설들이 함께 입지하고 있는 복합공연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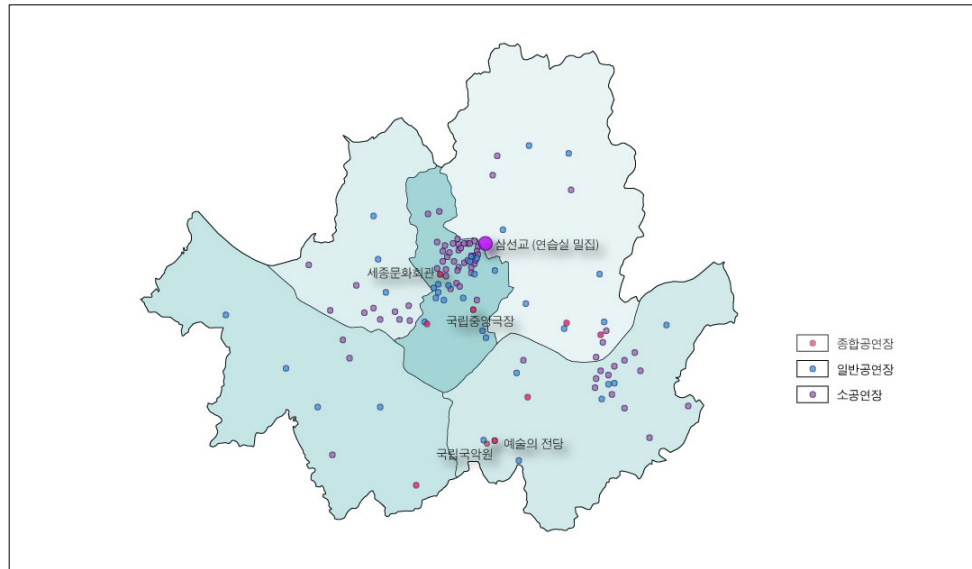
- 이들 시설은 복합공연장인 동시에 전시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기도 함

- 일반공연장은 300석 이상, 1000석 미만의 규모로, 총 44개소

- 중구와 종로구, 서초구에 밀집
- 일반공연장 중 난타전용극장과 뮤지컬 전용극장인 핑키하우스(구 코리아극장), 씨아트(구 KMTV홀), 우림청담씨어터(구 키네마극장), 동영아트홀(구 계몽아트홀)은 종합공연장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인 팝콘하우스와 함께 도심권과 강남권에 뮤지컬 전용극장이 특화되어 클러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3-13> 자치구별 공연예술 관련시설 현황

권역	구	공연시설 개소수				공연시설 객석수			
		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 공연장	계	종합 공연장 객석수	일반 공연장 객석수	소 공연장 객석수	계
도심권	종로	1	8	50	59	3,075	3,436	8,163	14,674
	중구	3	11	4	18	4,712	5,300	729	10,741
	용산	0	5	0	5	0	3,423	0	3,423
동남권	강남	1	3	5	9	1,103	1,608	1,178	3,889
	서초	3	7	0	10	6,440	4,713	0	11,153
	송파	0	2	2	4	0	1,098	169	1,267
	강동	0	0	0	0	0	0	0	0
동북권	동대문	0	0	0	0	0	0	0	0
	성동	0	1	0	1	0	805	0	805
	종랑	0	0	0	0	0	0	0	0
	광진	2	2	1	5	3,952	1,072	180	5,204
	성북	0	0	2	2	0	0	356	356
	강북	0	0	0	0	0	0	0	0
	도봉	0	0	0	0	0	0	0	0
	노원	1	1	2	4	2,100	600	462	3,162
서남권	강서	0	0	0	0	0	0	0	0
	양천	0	2	0	2	0	800	0	800
	영등포	1	0	2	3	1,714	0	470	2,184
	구로	0	0	0	0	0	0	0	0
	금천	0	0	0	0	0	0	0	0
	동작	0	0	0	0	0	0	0	0
서북권	관악	1	1	0	2	1,800	450	0	2,250
	마포	0	0	4	4	0	0	720	720
	서대문	0	1	0	1	0	900	0	900
	은평	0	0	0	0	0	0	0	0
계		13	44	72	129	22,296	23,434	12,427	58,157



<그림 3-14> 공연예술 관련시설 분포현황

- 그러나 이런 극장들은 대부분 라이브홀이나 영화관 등을 개조했기 때문에 뮤지컬 극장으로서 한계점도 가짐
- 소공연장은 지역문화시설에 부속된 공연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종로구, 특히 동숭동 일대에 밀집
 - 대학로라는 지역이 연극부문에 이미 집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
- 대학로 인근 삼성교에 연극연습실이 다수 밀집되어 있으나, 공연시설에 비해 그 수가 적고 영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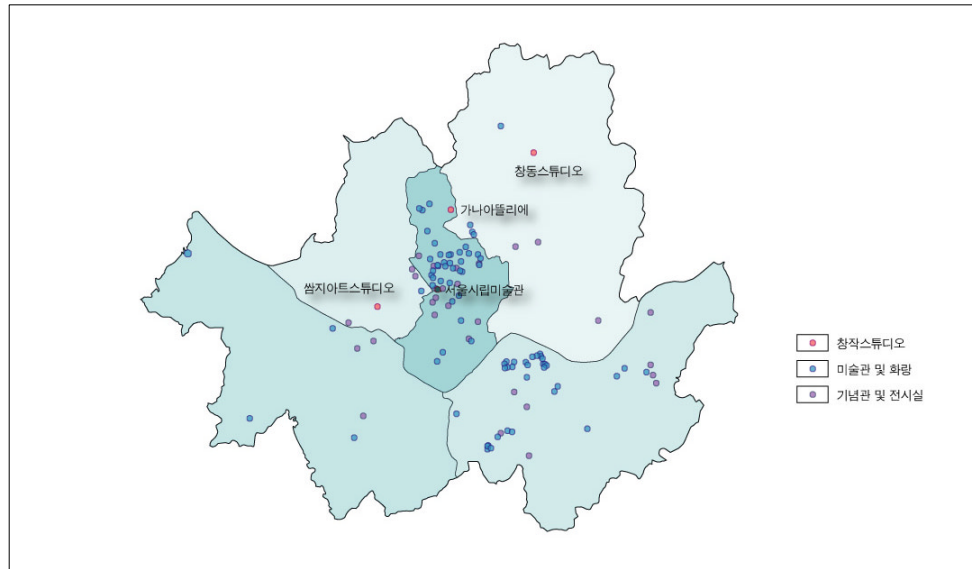
3-2. 시각예술 관련시설

- 서울시 내 전시시설은 총 342개소
 - 화랑 223개소, 기념관 및 전시실 30개소, 미술관 22개소가 분포
- 미술관 및 화랑은 종로구의 사간동과 인사동 인근에 밀집
 - 강남구에도 다수의 화랑이 입지하고 있으나 강남구의 화랑들은 판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도심권의 화랑들과 다름
- 전시시설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는 종로구로, 총 143개의 전시시설을 보유
 - 기념관 및 전시실은 종로구와 중구에 약간 더 많은 수가 입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술관이나 화랑에 비해 각 구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

- 종로구를 비롯한 도심권에는 세종문화회관 부속 전시시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공공거점 전시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일주아트하우스, 아트센터 나비 등 특색 있는 민간전시시설 또한 다수 입지
- 서초구에 입지한 예술의 전당은 공연시설과 함께 서예관, 미술관, 디자인미술관 등의 시각예술관련 전시시설도 갖추고 있음
- 창작스튜디오는 창동스튜디오, 썸지아트스튜디오, 가나아뜰리에의 3곳뿐으로 모두 시각예술분야를 지원하며, 다른 분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없음
 - 창동스튜디오는 공공시설로, 스튜디오, 전시실, 옥외작업장 및 기타편의시설을 갖춘
 - 썸지아트스튜디오는 민간시설로, 스튜디오와 전시실을 갖춘
 - 가나아뜰리에에는 민간시설로, 스튜디오를 갖춘

<표 3-14> 자치구별 시각예술 관련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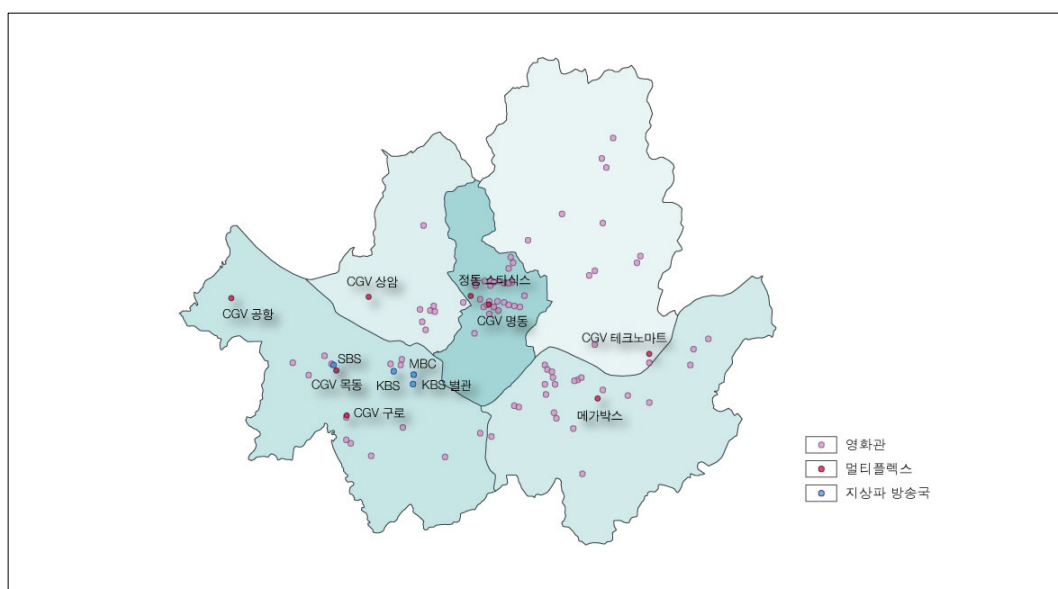
권역	구	미술관	기념관 및 전시실	화랑	창작 스튜디오	계
도심권	종로	12	4	113	1	144
	중구	2	6	12	0	28
	용산	0	3	2	0	10
동남권	강남	2	2	69	0	78
	서초	4	2	7	0	17
	송파	1	3	3	0	9
	강동	0	1	0	0	2
동북권	동대문	0	1	0	0	3
	성동	0	0	0	0	1
	중랑	0	0	0	0	0
	광진	0	1	0	0	3
	성북	1	1	3	0	12
	강북	0	0	0	0	0
	도봉	0	0	0	1	3
	노원	0	0	0	0	1
서남권	강서	0	0	0	0	0
	양천	0	0	1	0	1
	영등포	0	2	2	0	4
	구로	0	0	0	0	2
	금천	0	0	0	0	0
	동작	0	1	0	0	2
	관악	0	0	0	0	2
서북권	마포	0	1	6	1	10
	서대문	0	2	5	0	12
	은평	0	0	0	0	0
계		22	30	223	3	345



<그림 3-15> 시각예술 관련시설 분포현황

3-3. 영상·영화 관련시설

- 영화상영관은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에 다수 입지
 - 종로구의 영화상영관은 오래된 곳이 많아 단관이나 2개관 등 상영관수가 적은 곳



<그림 3-16> 영상·영화 관련시설 분포현황

많음

- 중구는 영화제작의 상징적인 지역인 충무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수의 영화상영관이 입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수가 많은 상영관이 많고 2종류의 체인형 멀티플렉스도 위치
- 강남구는 새롭게 떠오르는 영화시설 밀집지역으로, 영화상영관 외에도 기획사나 영화사 등이 다수 입지
- CGV, 메가박스 등 대규모의 체인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상업시설 등과 결합하여 개발됨으로써 지역의 문화·상업 거점이 되기 쉬우며, 일반적으로 다른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입지하려는 성향이 강함
- CGV는 체인형 멀티플렉스로 서울에 가장 많은 상영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광진구(강변), 중구(명동), 구로구(구로), 양천구(목동), 마포구(상암), 강서구(공항) 등 총 6개의 상영관이 있음

<표 3-15> 자치구별 영상·영화 관련시설 현황

구역	영화상영관									영상 미디어 센터	지상파 방송국
	구	단관	2개관	3개관	4개관	5개관 이상	체인형 멀티플렉스	총 개소수	총 좌석수		
도심권	종로	5	3	1	0	2	0	11	10,491	1	0
	중구	3	0	0	0	5	2	10	10,960	0	0
동남권	용산	0	1	0	0	1	0	2	2,377	0	0
	강남	0	2	4	2	1	1	10	12,334	0	0
	서초	0	0	2	0	1	0	3	2,989	0	0
	송파	0	0	0	0	2	0	2	2,426	0	0
	강동	2	0	0	0	2	0	4	3,836	0	0
동북권	동대문	1	0	0	0	0	0	1	215	0	0
	성동	1	0	0	0	0	0	1	297	0	0
	중랑	0	0	1	0	1	0	2	1,652	0	0
	광진	0	0	0	0	0	1	1	1,917	0	0
	성북	0	0	0	0	0	0	0	0	0	0
	강북	0	1	0	0	0	0	1	718	0	0
	도봉	0	0	0	0	0	0	0	0	0	0
	노원	0	0	0	2	0	0	2	2,641	0	0
서남권	강서	0	0	1	0	0	1	2	2,492	1	0
	양천	0	0	1	0	0	1	2	1,703	0	2
	영등포	1	1	1	0	0	0	3	2,353	0	1
	구로	0	0	0	0	0	1	1	2,289	0	0
	금천	1	0	0	0	0	0	1	272	0	0
	동작	1	0	0	0	1	0	2	1,159	0	0
	관악	0	1	0	0	0	0	1	520	0	0
서북권	마포	0	0	0	0	1	1	2	4,463	0	0
	서대문	1	1	0	0	1	0	3	2,555	0	0
	은평	1	0	0	0	0	0	1	418	0	0
계		17	10	11	4	18	8	68	-	2	3

- 또한 관악구 신림동, 금천구 독산동에 투자배급사인 씨네마서비스가 참여한 프리머스

씨네마의 10개관 이상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문을 열 예정

- 미디어센터는 일종의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독립영화 시네마테크, 영상제작물의 제작시설 제공, 영상교육 프로그램 실시, 영상자료의 조사, 연구, 수집, 관리 및 보존 등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센터
 - 종로구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MediACT)와 강서구의 강서영상미디어센터가 있음
 - 미디어액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하고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운영하며, 편집시설, 녹음 시설, 교육시설, 대강의실을 갖추고 영상·영화 관련 각종 장비를 대여함
 - 강서영상미디어센터는 최초의 지역미디어센터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강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 스튜디오, 편집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영상물 제작을 위한 각종 기자재를 대여함
- 방송국은 대부분 영등포구와 양천구에 입지
 - 공중과 방송 3사 중 KBS와 MBC가 여의도에, SBS가 양천구에 입지하고 있음

3-4. 애니메이션 관련시설

- 애니메이션 관련시설로는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애니메이션센터 1개소가 유일함
- 애니메이션센터는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조성하였으며, 정보실, 전산실, 아카데미, 영상관, 만화의 집, 창작지원시설 운영
- 상암DMC에서 애니메이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애니메이션 관련산업이 입지하고 있음
 - 지원센터와 산업 밀집지역이 유리되어있는 상황

3-5. 문학 관련시설

- 서울시의 문학과 관련된 시설로는 문학관과 문학창작실이 있음
- 문학관은 영인문학관과 한국현대문학관의 2개소가 있음
 - 영인문학관은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실과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음
 - 한국현대문학관은 구 동서문학관으로,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전시관, 중앙전시관, 주요 시인 전시관과 영상자료관을 갖추고 있음
- 문학창작실은 남산 기슭에 문학의 집 1개소가 있으며, 세미나실과 전시장, 사랑방, 회의실 집필실 등을 갖추고 있음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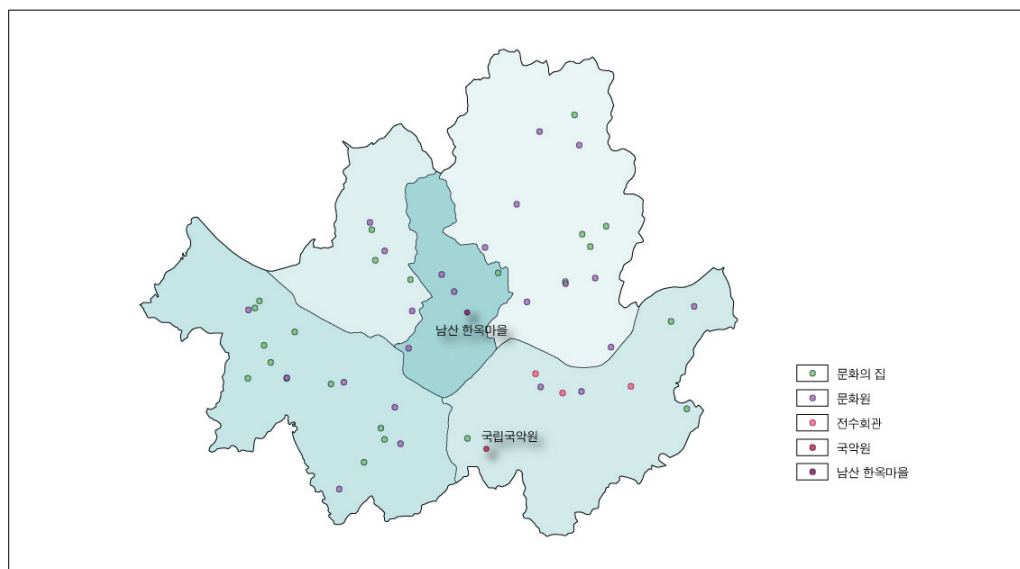
11) 문학의 집은 문학인들의 커뮤니티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요소별 현황 분석시 창작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음

<표 3-16> 문학 관련시설 현황

구분	문학관		문학창작실
	영인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문학의 집 · 서울
설립년도	2001년 1월 26일	1997년 11월(구 동서문학관)	2001년 10월 26일
위치	종로구 평창동	중구 장충동	중구 예장동
규모	전시실 60평 등 총 120평	전시관 3곳, 영상자료관	세미나실, 전시장, 사랑방, 회의실, 전시장 등
소장품 및 프로그램	문인초상화, 문인서화 등 5700여 점 전시	작품집, 사진 자료, 전후문학, 북한문학, 잡지 사료 등 전시	수요문학특강, 금요문학마당, 문인 자화상전 등 개최

3-6. 전통문화 관련시설

- 지방문화원은 ①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②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③지역행사문화의 개최, ④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⑤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⑥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⑦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⑧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 현재 서울시에는 총 24개의 지방문화원이 있으며, 향후 12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



<그림 3-17> 전통문화 관련시설 분포현황

- 문화보급을 위한 전수회관은 지방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 전수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설립

- 현재 서울시에 총 4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강남구에 2개소, 서초구 1개소, 중랑구 1개소로 주로 동남권에 입지
- 국악원은 전통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이며, 서울시에는 현재 서초구에 국립국악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중구 필동2가 일대에 남산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음
 - 정자와 전통정원을 조성하고 사대부집에서부터 일반 평민의 집까지 다섯 채를 옮겨놓았으며, 옛 용기를 전시하는 전통공예 전시관을 운영

<표 3-17> 자치구별 전통문화 관련시설 현황

권역	구	지방문화원	전수회관	국악원	한옥마을	계
도심권	종로	1	0	0	0	1
	중구	1	0	0	1	2
	용산	1	0	0	0	1
동남권	강남	1	2	0	0	3
	서초	0	0	1	0	1
	송파	1	1	0	0	2
	강동	1	0	0	0	1
동북권	동대문	1	0	0	0	1
	성동	1	0	0	0	1
	중랑	1	1	0	0	2
	광진	1	0	0	0	1
	성북	1	0	0	0	1
	강북	1	0	0	0	1
	도봉	1	0	0	0	1
	노원	1	0	0	0	1
서남권	강서	1	0	0	0	1
	양천	2	0	0	0	2
	영등포	1	0	0	0	1
	구로	0	0	0	0	0
	금천	1	0	0	0	1
	동작	1	0	0	0	1
	관악	1	0	0	0	1
서북권	마포	1	0	0	0	1
	서대문	1	0	0	0	1
	은평	1	0	0	0	1
계		24	4	1	1	30

4. 요소별 현황

- 문화생태계의 구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문화시설을 창작·제작시설, 발표·전시시설, 지역·복지·교육시설, 보급·전수시설로 분류하여 살펴봄
 - 창작·제작시설에는 창작스튜디오 및 창작지원센터, 창작촌, 연습실 등이 포함
 - 발표·전시시설에는 공연장, 미술관, 화랑, 영화관 등이 포함
 - 지역·복지·교육시설에는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문화의 집 등이 포함
 - 보급·전수시설에는 지방문화원, 전수회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이 포함됨

4-1. 창작·제작시설

- 서울시의 창작스튜디오로는 창동스튜디오, 씬지아트스튜디오, 가나아뜰리에 등이 있으며, 시각예술분야를 지원함

<표 3-18> 서울소재 창작스튜디오 현황

구분	창동스튜디오	쌈지아트스튜디오	가나아뜰리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분야	시각예술	시각예술	시각예술	만화·애니메이션	독립영상
성격	창작지원/스튜디오	창작지원/스튜디오	창작지원/스튜디오	벤처지원/업체지원	제작지원
위치	도봉구 창동	마포구 창천동	종로구 평창동	중구 예장동	종로구 세종로
설립연도	2002	1998	2002	1999	2002
조성주체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주)쌈지	하나은행 (주)가나아트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사)한국독립영화 협회
시설현황	스튜디오(14) 전시실(1) 옥외작업장(1) 기타편의시설	스튜디오 전시실	스튜디오	정보실, 전산실 아카데미, 영상관 만화의 집 창작지원시설	편집실, 녹음실 기자재실 입출력실 교육실, 회의실
입주조건	월5만원	작품기증	작품기증	-	-
입주작가	30-50대 국내미술가	20-30대 국내외 미술가	30-40대 국내미술가	15개 업체 입주	공간대여 장비지원
인원	18명 내외	8-9명	8명	-	-
입주기간	1년	1년	1년	-	-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해외전, 전시회, 아트북, 아트광고 프로그램	기업연계 오픈스튜디오 문화체험프로그램	해외와의 교류 창작 및 제작지원	영상제작교육 제작지원

- 스튜디오 기능은 아니지만 창작지원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설로는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하자센터가 있음
 - 하자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시설로, 청소년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 서울시의 창작관련시설 중 문화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창동스튜디오 이외의 5개소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
- 공연분야와 관련하여 삼선교에 사설연습실이 밀집되어 있음
- 창작 및 제작 지원과 관련된 시설은 발표 및 전시시설에 비해 극소수이며, 특히 작가나 예술가가 거주하는 공간인 거주시설(창작촌)은 전무함

4-2. 발표 · 전시시설

- 대학 내 시설을 제외한 공연시설 120개소, 전시시설 342개소, 영화상영관 71개소 등 서울시 문화시설의 대부분이 발표 및 전시시설임
- 발표 · 전시시설의 대부분이 다목적 용도로 개발된 시설로, 다양한 분야의 공연 및 전시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전문화 또는 특성화된 시설은 부족하며, 문학인들이 작품을 발표하는 공간이나 독립예술 등을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함

<표 3-19> 서울시 내 장르별 전문공연장 설치현황

장르	설립주체	시설
연극 및 뮤지컬	국공영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문예회관 대극장·소극장,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정동극장
	민간	LG아트센터, 한전아트센터, 연강홀, 폴리미디어씨어터, 창조극장 등 팝콘하우스, 난타전용극장, 핑키하우스, 씨아트, 우림청담씨어터, 동영아트홀
오페라	국공영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국악 등 전통공연	국공영	국립극장, 삼청각
무용	-	-
문학	-	-
예술영화 상영관	민간	동숭아트센터
애니메이션	공영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 300석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제외함

※ 한 복합시설에 다른 범주의 시설이 여러 개 포함되었을 경우 개별 시설로 파악

- 문화산업 시장의 형성이나 이벤트 개최를 위한 시설인 컨벤션센터는 현재 삼성동 무역센터 내 한 곳에 운영
 - 대부분의 행사가 무역센터로 집중되며, 행사에 적합한 장소가 부족한 상황임

- 많은 수의 발표·전시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음
 -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공연시설을 이용해보지 않은 비율이 대형공연장은 83.5%, 일반공연장은 84.8%, 대학로 소극장 82.9%에 달함
 - 소규모 미술관 및 화랑 등 전시관련시설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응답자의 87.4%임
 - 서울시 문화시설의 대부분이 발표·전시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시설의 이용률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표 3-20> 권역별 발표·전시시설 현황

권역	구	공연시설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 공연장	계	미술관	기념관 및 전시실	화랑	계	체인형 멀티플렉스	총 개소수
도심권	종로	1	8	50	59	12	4	113	143	0	11
	중구	2	11	4	17	2	6	12	28	2	10
	용산	0	3	0	3	0	3	2	10	0	2
동남권	강남	1	3	5	9	2	2	69	78	1	10
	서초	3	6	0	9	4	2	7	17	0	3
	송파	0	2	2	4	1	3	3	9	0	2
	강동	0	0	0	0	0	1	0	2	0	4
동북권	동대문	0	0	0	0	0	1	0	3	0	1
	성동	0	0	0	0	0	0	0	1	0	1
	중랑	0	0	0	0	0	0	0	0	0	2
	광진	1	2	1	4	0	1	0	3	1	1
	성북	0	0	2	2	1	1	3	12	0	0
	강북	0	0	0	0	0	0	0	0	0	1
	도봉	0	0	0	0	0	0	0	2	0	0
	노원	0	1	2	3	0	0	0	1	0	2
서남권	강서	0	0	0	0	0	0	0	0	1	2
	양천	0	2	0	2	0	0	1	1	1	2
	영등포	1	0	2	3	0	2	2	4	0	3
	구로	0	0	0	0	0	0	0	2	1	1
	금천	0	0	0	0	0	0	0	0	0	1
	동작	0	0	0	0	0	1	0	2	0	2
서북권	관악	0	1	0	1	0	0	0	2	0	1
	마포	0	0	4	4	0	1	6	9	1	2
	서대문	0	0	0	0	0	2	5	12	0	3
	은평	0	0	0	0	0	0	0	0	0	1
계		9	39	72	120	22	30	223	342	8	68

※ 대학공연장은 제외함

4-3. 지역·복지·교육시설

- 대부분의 자치구에 구민회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문화의 집 및 문화예술회관이 설

치되어있는 구도 있음

- 각 구마다 최소 1개소 이상의 생활권문화시설 및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음
- 시설의 규모나 물리적 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소수 면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임
-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110~215평 정도의 소규모 생활문화공간으로, 1996년부터 지방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여성회관 등과 연계하여 설립됨
- 현재 총 25개의 문화의 집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랑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서대문구에는 3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표 3-21> 권역별 지역·복지·교육시설 현황

권역	구	구민회관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계
도심권	종로	1	1	0	7	9
	중구	1	0	0	4	5
	용산	1	0	0	2	3
동남권	강남	1	0	0	3	4
	서초	1	1	0	1	3
	송파	1	1	1	2	5
	강동	1	0	0	4	5
동북권	동대문	1	1	0	1	3
	성동	1	0	0	1	2
	중랑	1	3	0	1	5
	광진	1	0	0	1	2
	성북	1	0	0	2	3
	강북	1	0	0	3	4
	도봉	1	0	0	2	3
	노원	1	1	1	2	5
서남권	강서	1	5	1	1	8
	양천	1	4	1	1	7
	영등포	1	1	1	1	4
	구로	1	0	0	3	4
	금천	1	0	0	1	2
	동작	1	0	0	1	2
	관악	1	3	1	2	7
서북권	마포	1	0	0	2	3
	서대문	1	3	0	1	5
	은평	1	1	0	1	3
계		15	25	6	50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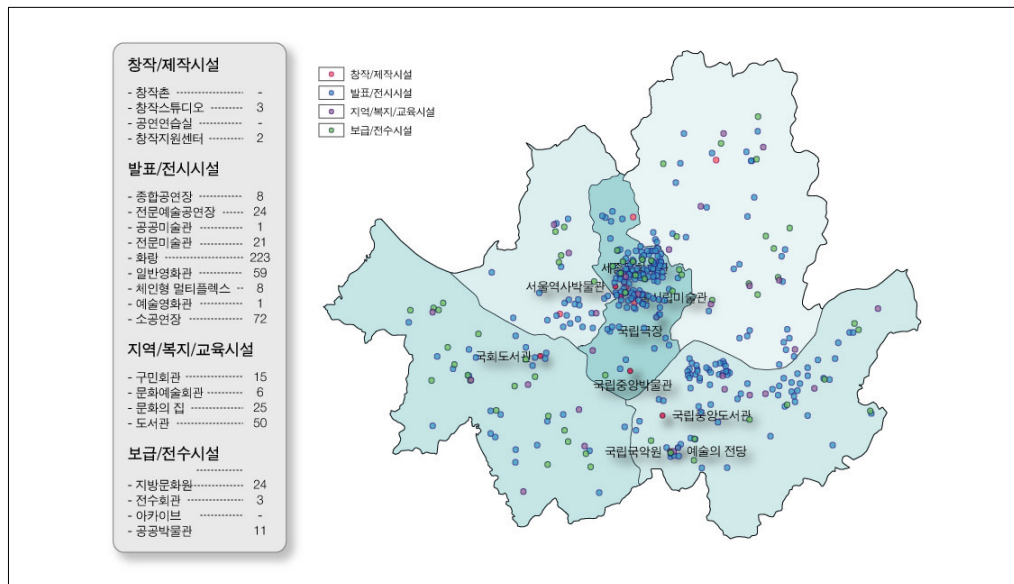
- 지역문화시설의 이용도는 낮은 편

-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예회관 7.0%, 구민회관 22.3%, 문화의 집 9.2%, 공공도서관은 19.1%의 응답자가 거주지역 내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지역문화시설의 미이용 원인으로서는 시간부족이 가장 크며, 관심부족과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도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시간부족 51.0%, 관심부족 23.8%, 시설 및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가 10.1%임
 - 따라서 시설의 수적 측면보다는, 시설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

4-4. 보급 · 전수시설

- 지역고유문화를 위한 지방문화원은 서초구와 구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음
- 지방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 전수하고 보존하기 위한 전수회관은 총 4개소, 전통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국악원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문화의 보존 및 보관, 전수 등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아카이브는 현재 없음
 - 아카이브는 다양한 유형의 예술자료를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설



<그림 3-18> 요소별 문화시설 현황

<표 3-22> 문화예술생태를 고려한 문화시설분포현황

시설		계
창작/제작시설	창작촌	-
	창작스튜디오	3
	공연연습실	-
	창작지원센터	2
발표/전시시설	종합공연장	9
	전문공연장	24
	소공연장	72
	공공미술관	1
	전문미술관	21
	화랑	223
	일반영화관	59
	체인형 멀티플렉스	8
	예술영화관	1
지역/복지/교육시설	구민회관	15
	문화예술회관	6
	문화의 집	25
	도서관	50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24
	전수회관	3
	아카이브	-
	공공박물관	11

※ 대학공연장은 제외함

- 현대 예술에 대한 기록의 장이며, 도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문화를 밀집시키는 공간

5. 문화시설 밀집지역 현황

5-1. 광화문 공공문화 밀집지역

- 광화문 일대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거점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다수의 민간 문화시설이 입지
 - 종합공연장 규모의 뮤지컬전용극장 팝콘하우스, 일반공연장 규모의 정동극장, 난타전용극장, 정동문화예술회관, 금호아트홀, 문화일보홀 등의 공연시설
 - 일민미술관, 성곡미술관, 일주아트하우스, 아트센터 나비 등의 전시시설이 위치
- 2002년 월드컵이 계기가 되어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이 조성되어 각종 모임과 집회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세종로 광화문광장, 승례문 앞 광장 조성이 예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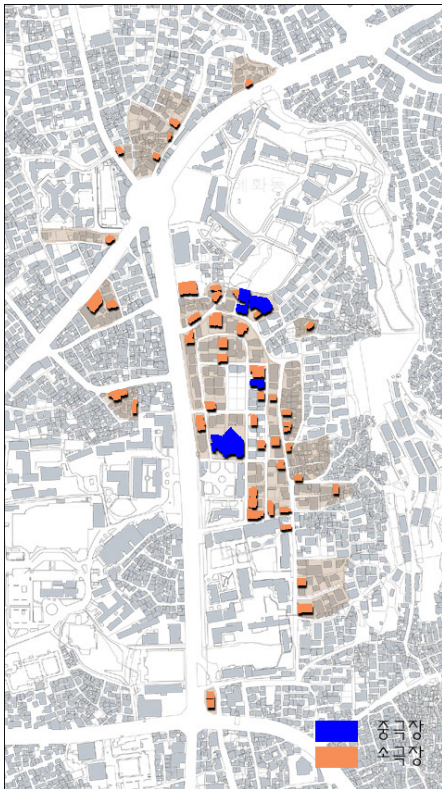
<표 3-23> 광화문 공공문화 밀집지역의 문화시설

시설명	시설유형	위치	규모
세종문화회관	공연시설	종로구 세종로 81-3	대극장 3075석, 소극장 442석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시설	종로구 신문로2가 2-1	대지면적 7434㎡ 건축연면적 20,130㎡ 소장품 총 2만여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시설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	건축연면적 13,488.3㎡ 소장품 1,222점
팝콘하우스	공연시설 (뮤지컬 전용극장)	중구 정동 22	1,200석
정동극장	공연시설	중구 정동 8-11	400석
정동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	중구 정동 15-5	487석
문화일보홀	공연시설	중구 충정로1가 68	302석
금호아트홀	공연시설	종로구 신문로1가 57	305석
일민미술관	전시시설	종로구 세종로 139	유화, 도자기 등 109점
성곡미술관	전시시설	종로구 신문로2가 1-101	현대미술 등 112점
아트센터 나비	전시시설	종로구 서린동 99 SK서린빌딩 4층	회화류 150점
일주아트하우스	전시시설	종로구 신문로1가 226	-

5-2. 인사동/사간동 미술관 밀집지역

- 인사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미술거리
 -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서점인 통문관을 비롯하여 서울시 내 골동품 상점의 41.5%, 화랑의 38.8%, 필방의 91.8%가 밀집
 - 다양한 규모의 미술관련 업소 약 200여 개소 밀집
- 인사동에 음식점, 노점상 등이 들어서는 등 관광거리의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인사동에 바로 인접한 사간동이 새로운 화랑거리로 부각
 - 사간동에는 현대화랑, 금호미술관, 금산갤러리, 국제화랑, 인화랑, 사간화랑, 아트선재센터 등 13여 개의 화랑이 밀집
 - 인근 경복궁 내에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박물관이 있어 전통과 현대미술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가능
 - 아트스페이스 서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통가옥에 마련된 전시장이 있음
 - 국제화랑은 국내외 거장의 전시를 진행해 온 사간동의 대표적 화랑중 하나

5-3. 대학로 공연예술 밀집지역



<그림 3-19> 대학로 공연장 현황

- 대학로에는 총 56개의 공연장이 위치
 - 이 중 학교가 운영하는 4개소와 공공이 운영하는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49개소가 민간공연장
 - 민간공연장의 공연 장르는 연극이 71.4%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뮤지컬 및 콘서트, 개그 등의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짐
- 대학로에서도 주로 동숭동 일대에 밀집해있으며, 79.1%가 임대이고 89.8%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음
- 소극장의 규모는 50석 미만부터 300석 미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
- 대학로 지역의 소극장 입지 요인은 장소의 상징성이 39%, 수요자 접근성이 27%, 적당한 지가 및 임대료는 14%, 기타 23%의 순으로, 공연예술 밀집지역이라는 대학로의 상징적 이미지가 공연예술 시설이 더욱 밀집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¹²⁾

5-4. 홍대/신촌 독립예술 밀집지역

- 홍대지역에는 미술관련공간, 언더그라운드 클럽문화공간, 문화전문직종 사무공간, 테마카페·대안공간 등의 이색공간 등이 주로 입지하고 있음

- 다양한 장르의 작가 작업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약 200여 개의 작업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이 중 작업실 겸 공방은 50여 개¹³⁾
- 클럽문화공간으로는 라이브클럽과 댄스클럽이 있으며, 클럽이라는 상호를 내건 것은 많으나, 이미 기존에 인정을 받은 시설들은 라이브클럽 9개소, 댄스클럽 11개소 정도
- 250여 개 문화산업직종들이 입지
 - 200여 개의 출판사를 비롯하여 디자인스튜디오, 광고, 영화, 방송, 사진, 만화, 패션, 연극, 인터넷콘텐츠 등과 관련된 회사들이 입지

12) 강재훈, '민간 공연시설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연극 소극장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p.75-77

13) 이선미, '홍익대 주변지역 특징적기능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42

<표 3-24> 신촌지역과 홍대지역의 비교

구분	신촌지역	홍대지역
이미지	젊은층 소비문화의 용광로	언더그라운드 복합문화공간
입지	부도심	부도심 주변 주택가
소비층	10, 20, 30대의 연령층이 공존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이 많음	20, 30대 연령층 중심 대학생, 전문직, 예술인이 많음
주요업종	술집, 카페, 노래방, 오락실, 게임방, 여관, 나이트클럽, 극장	라이브클럽, 댄스클럽, 미술학원, 작업실, 소극장
문화	소비문화, 먹거리문화	고급문화, 볼거리문화
거리	분주, 현란, 부딪힘이 많음, 취객, 빠끼	여유, 고즈넉, 특이한 패션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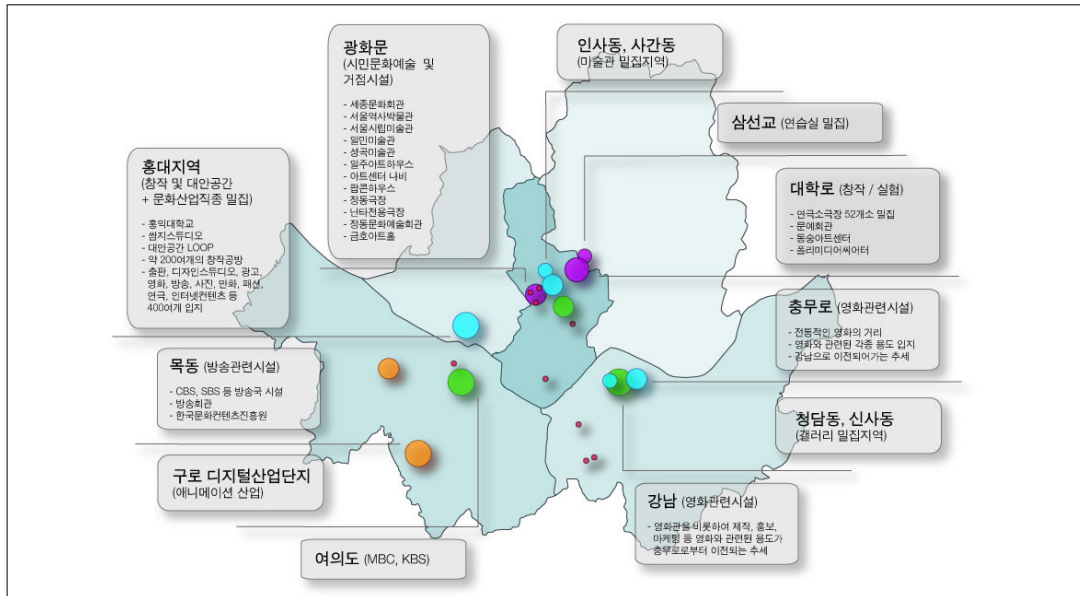
자료 : “월드컵 전략지역 장소마케팅 - 홍대지역 문화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지원연구단, 2000, p.41

- 홍대지역의 소극장은 순수 연극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예술 장르를 경험하게 하는 공간
 - 현대적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연극과 무용을 선보이는 씨어터 제로, 영상과 퍼포먼스, 음악, 미술이 공존하는 쌈지스페이스, 시각예술전시장인 대안공간 루프 등
- 홍대지역 주요 업종의 입지요인으로¹⁴⁾
 - 소공연장은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
 - 작업실은 문화정보 획득의 용이성과 문화예술공간의 집적,
 - 클럽은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지역의 상징성)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홍대지역은 인근의 신촌지역과 매우 다른 분위기를 형성
 - 홍대지역과 신촌지역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 <표 3-24>

5-5. 청담동 화랑밀집지역

- 청담동에 위치한 화랑들은 미술시장을 겨냥한 고급 상업화랑
- 90년대 초반부터 집중되기 시작하여 강남의 신흥 문화벨트로 급성장
 - 가산화랑, 갤러리 퓨전, 카이스 갤러리, 갤러리 마담포라, 원화랑, 이목화랑, 조선화랑 등 4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화랑들이 밀집
- 다양한 현대미술의 유통과 소비의 장소
 - 청담동의 주 소비층은 부유한 중년층

14) 이선미, '홍익대 주변지역 특징적기능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75-76



<그림 3-20> 문화시설 밀집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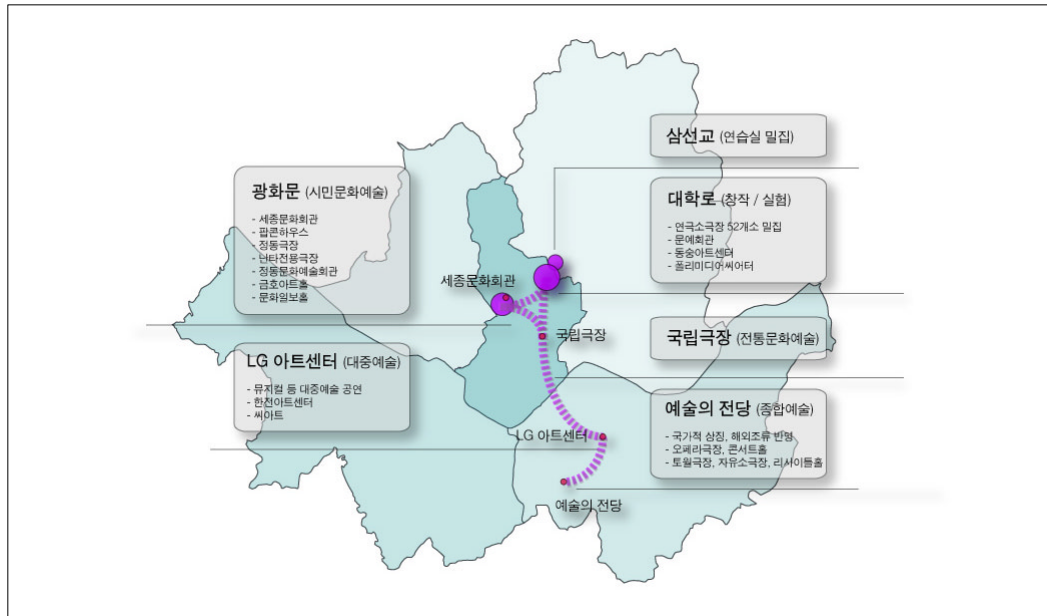
- 화랑들의 개성이 강하며, 한국의 현대미술에서 해외의 미술까지, 젊은 신진작가에서 원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선택을 하고 있음
- 해외미술시장을 개척하고 신진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6. 예술문화축 현황

- 지금까지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4개의 예술문화축을 설정
- 거점문화시설과 함께 관련 문화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함
 - 현재 이루어지는 활동에 따라 공연예술축, 시각예술축, 영상 및 미디어예술축, 대중예술축을 찾아냄
 - 각기 다른 예술문화축상에서 중첩되는 지역들도 다수 존재하여 예술문화네트워크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

6-1. 공연 예술 축

- 공연예술축은 거점문화시설인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LG아트센터, 예술의 전당과, 시민문화예술 밀집지역인 광화문, 연극소극장 밀집지역인 대학로, 공연예술관련 연습실 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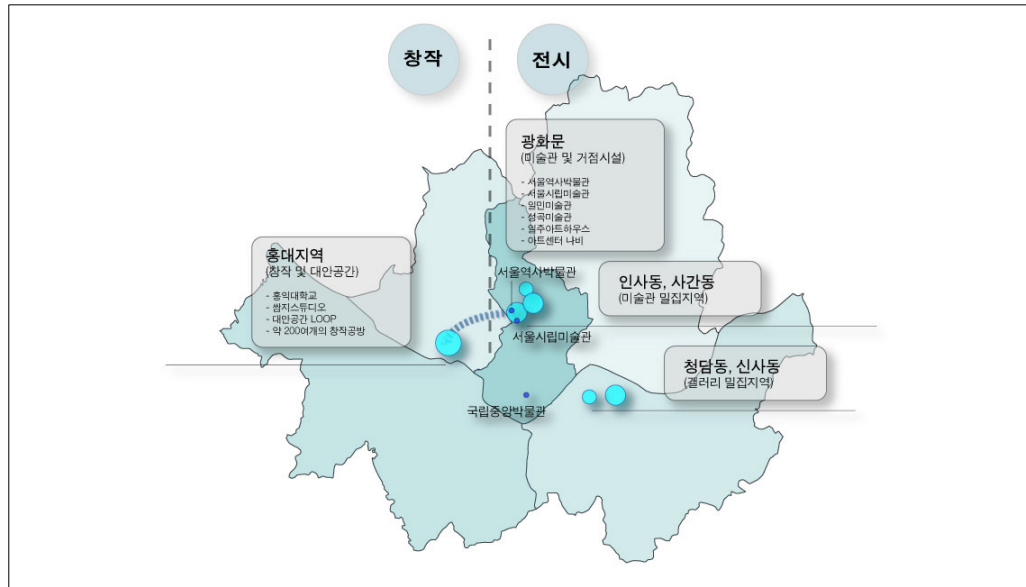
<그림 3-21> 공연예술축

지역인 삼선교를 잇는 축선으로 구성

- 동북권에서 동남권으로 남북으로 길게 연결됨
 - 동북권의 창작관련시설 밀집지역으로부터 동남권의 예술시장으로 연결되는 구성
- 창작기반 및 지원센터가 취약하며 전용극장이 없음

6-2. 시각 예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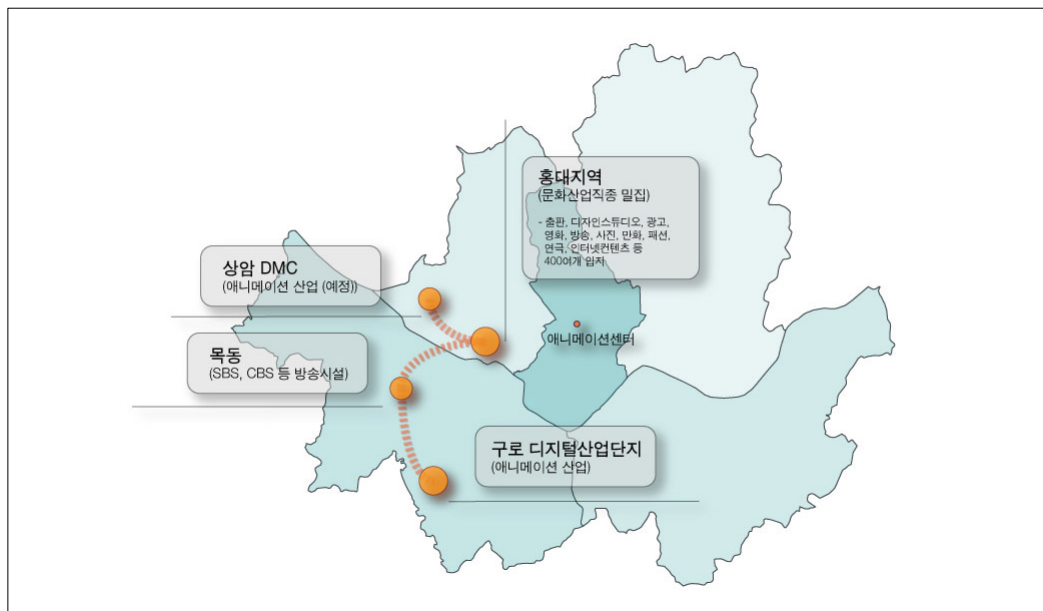
- 시각예술축은 거점문화시설인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과 미술관 및 거점시설이 밀집되어있는 광화문 지역, 사립미술관이 밀집되어있는 인사동·사간동 지역, 갤러리가 밀집되어있는 청담동·신사동 지역, 창작 및 대안공간이 밀집되어있는 홍대 지역으로 구성
- 공공시설 외에도 일민미술관, 성곡미술관, 일주아트하우스, 아트센터 나비 등 사립 거점 미술관들이 도심권 내에 집중적으로 분포
- 청담지역에는 예술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업적 갤러리들이 밀집
- 홍대지역에는 홍익대학교, 쌈지스튜디오, 다양한 대안공간, 200여 개의 창작공방 등 시각 예술의 창작기반이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부족한 실정



<그림 3-22> 시각예술축

6-3. 영상 및 미디어예술축

- 영상 및 미디어예술축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인 상암DMC, 문화산업직종이 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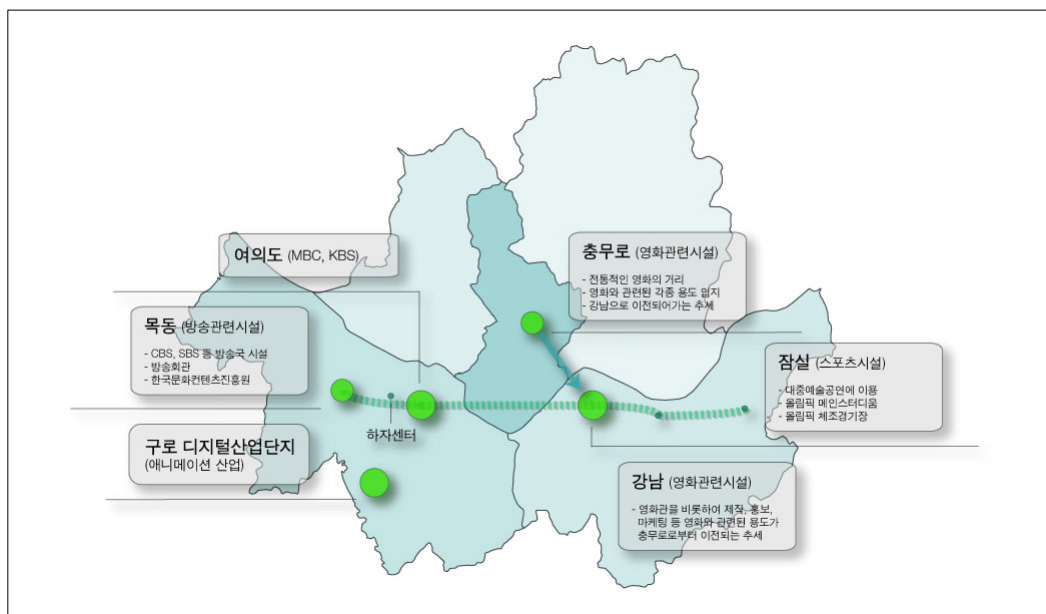
<그림 3-23> 영상 및 미디어예술축

집되어 있는 홍대지역, 방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목동지역,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루어지는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로 구성

- 서울시의 서남권과 서북권에 밀집
- 애니메이션지원센터가 도심권인 남산에 위치하여 밀집지역과 지원센터의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교정이 요구됨

6-4. 대중예술축

- 대중예술축은 방송관련시설 밀집지역인 목동지역, 애니메이션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 방송국 밀집지역인 여의도, 영화관련시설 밀집지역인 강남지역과 영상 창작 지원센터인 하자센터, 잠실의 대규모 스포츠 시설로 구성
 - 충무로의 영화관련시설이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임
 - 잠실의 대규모 스포츠 시설은 스포츠 경기 외에 대형 대중예술공연장으로 쓰이고 있음
- 서울의 서남권과 동남권을 축으로 발전
- 전용공연장이 없어 스포츠 시설을 공연에 이용하는 실정
- 컨벤션센터 등 예술마켓이 없음



<그림 3-24> 대중예술축

제2절 분석의 종합

- 서울시 문화시설의 절대수는 부족한 편이 아님
 - 예술 장르와 무관하게 이용되는 보편적 형태의 시설이 대부분
 - 장르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시설 부족
 - 시설의 다수가 일정 장르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임
 -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 대부분의 시설은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대규모 시설들이 도심권에 집중
 - 개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이나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들은 동남권에 집중

<표 3-25> 서울시 문화시설 전체현황

권역	구	공연시설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도서관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종합 공연 장	일반 공연 장	소 공연 장	계	미술 관	박물관	기념관 및 전시실	화랑	계	체인형 멀티 플렉스	총 개소수	구민 회관	문화 의집	문화 예술 회관	계		지방 문화 원	전수 회관	국악 원	계
도 심 권	종로	1	8	50	59	12	14	4	113	143	0	11	1	1	0	2	7	1	0	0	1
	중구	3	11	4	18	2	8	6	12	28	2	10	1	0	0	1	4	1	0	0	1
	용산	0	5	0	5	0	5	3	2	10	0	2	1	0	0	1	2	1	0	0	1
동 남 권	강남	1	3	5	9	2	5	2	69	78	1	10	1	0	0	1	3	1	2	0	3
	서초	3	7	0	10	4	4	2	7	17	0	3	1	1	0	2	1	0	0	1	1
	송파	0	2	2	4	1	2	3	3	9	0	2	1	1	1	3	2	1	1	0	2
	강동	0	0	0	0	0	1	1	0	2	0	4	1	0	0	1	4	1	0	0	1
서 북 권	동대문	0	0	0	0	0	2	1	0	3	0	1	1	1	0	2	1	1	0	0	1
	성동	0	1	0	1	0	1	0	0	1	0	1	1	0	0	1	1	1	0	0	1
	종로	0	0	0	0	0	0	0	0	0	0	2	1	3	0	4	1	1	1	0	2
	광진	2	2	1	5	0	2	1	0	3	1	1	1	0	0	1	1	1	0	0	1
	성북	0	0	2	2	1	7	1	3	12	0	0	1	0	0	1	2	1	0	0	1
	강북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	3	1	0	0	1
	도봉	0	0	0	0	0	2	0	0	2	0	0	1	0	0	1	2	1	0	0	1
	노원	1	1	2	4	0	1	0	0	1	0	2	1	1	1	3	2	1	0	0	1
서 남 권	강서	0	0	0	0	0	0	0	0	0	1	2	1	5	1	7	1	1	0	0	1
	양천	0	2	0	2	0	0	0	1	1	1	2	1	4	1	6	1	2	0	0	2
	영등포	1	0	2	3	0	0	2	2	4	0	3	1	1	1	3	1	1	0	0	1
	구로	0	0	0	0	0	2	0	0	2	1	1	1	0	0	1	3	0	0	0	0
	금천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	1	1	0	0	1
	동작	0	0	0	0	0	1	1	0	2	0	2	1	0	0	1	1	1	0	0	1
	관악	1	1	0	2	0	2	0	0	2	0	1	1	3	1	5	2	1	0	0	1
서 북 권	마포	0	0	4	4	0	2	1	6	9	1	2	1	0	0	1	2	1	0	0	1
	서대문	0	1	0	1	0	5	2	5	12	0	3	1	3	0	4	1	1	0	0	1
	은평	0	0	0	0	0	0	0	0	0	0	1	1	1	0	2	1	1	0	0	1
계		13	44	72	129	22	67	30	223	342	8	68	15	25	6	46	50	24	3	1	28

- 권역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은 없음
- 거점시설과 문화시설 집중지역이 일치하지 않음
 - 공공에서 설치한 대규모 거점시설일수록 접근성이 떨어지며 자생적인 문화시설 밀집지역과 유리되어 있음
 - 거점시설의 입지가 선발이점이 되어 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
- 교육 및 창작지원시설이 부족함
 - 서울시 시설의 대부분이 발표시설로, 창작촌, 창작스튜디오, 연습실, 지원센터 등 창작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 부족함
 -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및 아마추어들의 활동을 끌어내고 지원해줄 수 있는 교육·지원 시설이 필요
-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함
 - 박람회 등 예술시장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
 - 개인의 창작활동이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활권 개념의 아츠마켓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

<표 3-26> 분야별 / 요소별 문화시설 현황

분야 요소	시설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상/영화	애니메이션	문학	전통문화
창작/제작	창작 스튜디오	-	3	-	-	-	-
	창작지원센터	-	-	2	1	-	-
	창작촌	-	-	-	-	-	-
	공공연습실	-	-	-	-	-	-
발표/전시	공공발표시설	5	1	-	-	-	2
	전문발표시설	18	20	-	-	2	-
	소규모 발표시설	72	223	-	-	-	-
	일반영화관	-	-	59	-	-	-
	체인형 멀티플렉스	-	-	8	-	-	-
	예술영화상영관	-	-	1	-	-	-
보급/전수	지방문화원	-	-	-	-	-	24
	전수회관	-	-	-	-	-	4
	공공박물관	-	-	-	-	-	11
	아카이브	-	-	-	-	-	-

※ 창작 지원센터에 영상미디어센터 포함

※ 공공발표시설인 동시에 전문발표시설일 경우, 공공발표시설로 파악

※ 발표시설은 공연장, 미술관, 화랑, 문학관 등을 포함

※ 애니메이션 전용상영관은 애니메이션센터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제4장

확충방향의 검토 및 계획구성

제4장 확충방향의 검토 및 계획구성

제1절 확충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

1. 각종 시민문화향수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분석

1-1.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해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영역 : 1) 여가생활, 2) 예술향유, 3) 문화예술교육, 4) 문화시설 이용, 5) 문화활동, 6)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7) 지역축제 관람, 8) 사이버 문화활동의 여덟 개로 크게 구분하고, 총 29개(하위문항 포함 157개)의 설문항을 구성
 - 조사대상 : 15세 이상의 전국민(제주도 제외)을 모집단으로 삼고, 다단계층화무작위표집법에 의해 추출된 2,000명을 대상으로 함
 - 조사기간 : 2003년 8월 11일 ~ 9월 5일
- 조사결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큼 서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나, 보편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서울시도 포함되어 있는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음

■ 문화욕구실태

- 평일여가시간은 평균 3시간 5분, 주말여가시간은 5시간 44분이나, 예술활동으로 여가를 활용한다는 답변은 평일 1.3%, 주말 및 휴일은 3.3%에 불과

<표 4-1> 평균여가시간 : 2000년 조사, 1997년 조사와 비교

구분	2003년 조사	2000년 조사	1997년 조사
평일의 여가시간	3시간 5분	3시간 27분	3시간 22분
주말 및 휴일의 여가시간	5시간 44분	6시간 6분	-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7

<표 4-2> 여가활용실태

(단위 :

%)

평일 여가활용 (중복응답)		주말·휴일 여가활용 (중복응답)	
텔레비전 보기	22.9	텔레비전 보기	14.2
집에서 쉼다/낮잠	16.0	집에서 쉼다/낮잠	12.2
인터넷/게임	9.5	가족과 대화/외식	10.7
신문/잡지 보기	7.9	친구만나기/모임참가	8.8
산책/스포츠	7.4	산책/스포츠	7.6
가족과 대화/외식	5.4	등산/낚시	6.2
친구만나기/모임참가	4.9	인터넷/게임	5.9
독서	4.5	쇼핑	5.5
음악감상	4.1	여행	5.3
음주	2.5	종교활동	4.4
라디오 듣기	2.4	예술감상	3.3
비디오/DVD 보기	2.0	비디오/DVD 보기	2.5
오락/잡기	1.6	음주	2.3
쇼핑	1.4	독서	2.2
등산/낚시	1.3	음악감상	2.1
예술감상	1.3	신문/잡지 보기	1.8
종교활동	1.3	노래방/게임방/전자오락실	1.6
노래방/게임방/전자오락실	1.1	오락/잡기	1.0
학습	0.9	스포츠 관람	0.9
스포츠관람	0.6	라디오 듣기	0.6
여행	0.3	예술창작	0.4
예술창작	0.3	학습	0.4
기타	0.3	기타	0.2
계	100.0	계	100.0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14

- 대부분의 국민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 상태
- 관련 요인으로는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조사되었으나, 예술이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욕구를 창출할 수 있는 경험재(experience goods)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추정됨
 - 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관람시설보다는 교육관련 시설이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예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11.6%에 불과. 그러나 배우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해, 40.1%가 문화예술교육을 받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는 실정

<표 4-3> 여가활동의 걸림돌 : 2000년과 비교

(단위

: %)

여가활동의 걸림돌	평일		주말·휴일	
	2003년	2000년	2003년	2000년
시간부족	56.4	50.9	23.7	28.1
경제적 부담	31.4	33.3	49.5	41.0
관련시설/프로그램 부족	7.8	5.2	17.1	10.6
피곤하다	-	4.8	-	9.5
정보부족	2.2	2.7	6.5	5.7
함께 할 사람 없음	2.1	2.3	3.0	3.8
기타	0.2	1.0	0.3	1.4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22

<표 4-4> 문화예술교육 의향 : 교육경험자와 비경험자 비교

구분	표본 수	교육의향
전체	2,000명	40.1%
교육 경험자	231명	80.5%
교육 비경험자	1,769명	34.8%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83

<표 4-5> 문화예술교육 희망분야 : 교육받은 분야와 비교

순위	예술교육 경험	백분율	예술교육 희망분야	백분율
1순위	미술	4.5%	미술	13.2%
2순위	전통예술	2.2%	영화	9.2%
3순위	서양음악	1.9%	역사문화유산	9.1%
4순위	가요/연예	1.7%	가요/연예	8.9%
5순위	문학	1.5%	전통예술	7.5%
6순위	무용	1.4%	문학	4.8%
7순위	역사문화유산	1.0%	연극	4.8%
8순위	영화	0.7%	만화	3.9%
9순위	연극	0.7%	무용	3.2%
10순위	만화	0.4%	서양음악	2.5%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87

- 교육받은 분야로는 미술분야(4.5%)가 가장 많은 상태. 교육을 받고 싶은 분야 또한 미술 분야(13.2%)가 가장 앞서고 있어, 미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다른 한편, 교육받은 분야와 교육을 받고 싶은 분야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화와 역사 문화교육이 가장 심각한 차이를 보이는 상태
 - 영화에 대한 교육경험률은 8위이지만, 희망률은 2위로 나타나 있으며,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은 경험률이 7위이지만, 희망률은 3위에 이름
 - 이에 따라 영화/영상에 대한 교육시설과 지역 및 역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이 필요한 상태

○ 다른 한편 많은 사람들은 예술교육의 보완점으로 교육 내용을 문제삼고 있어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상태

- 예술교육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내용이 알차져야 한다’(24.7%), ‘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20.3%), ‘체험/실기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8.2%) 등 프로그램 내적 요인에 대한 지적이 많아,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책이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프로그램 외적 요인 및 운영요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수강료 인하(19.9%),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11.7%), 프로그램 다양화(11.7%) 등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요구보다는 낮은 상태
- 이에 따라 예술가를 끌어들여 예술가로 하여금 직접 강의하도록 함으로써 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

<표 4-6>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의 보완점 : 2000년과 비교
(단위 : %)

문화예술교육 보완점	2003년 조사	2000년 조사
충실한 내용	24.7	30.1
강사들의 전문성 향상	20.3	13.3
수강료가 저렴해져야 한다	19.9	19.3
교육시설과 환경개선	11.7	8.0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비	11.7	10.8
체험/실기위주의 교육	8.2	13.9
수강생 수가 적어져야 한다	2.6	3.6
기타	0.9	1.0
계	100.0	100.0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79

■ 예술향수실태

○ 예술행사 관람비율은 62.4%로 높게 나타나나, 대부분 영화에 대한 관람률로 순수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

- 예술행사에 대한 관람 욕구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나, 대부분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과 접촉기회 확대가 필요한 상태

○ 각 장르별로 관람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지적한 것을 보면, 생활권 예술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 열려야 한다는 점’을, 고급-순수예술에 대해서는 ‘비용인하’와 ‘행사의 확충’, ‘정보의 제공’ 등을 제시. 각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확충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학 : ‘더욱 자주 열려야’(24.1%)와 ‘가까운 곳에 열려야’(24.1%)가 동등하게 높은 답변 차지

◦ 기본적 시설확충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생활권별 시설확충 필요

- 미술 : ‘가까운 곳에 열려야’(26.0%)와 ‘더욱 자주 열려야’(18.3%)가 차지

◦ 기본적으로 생활권별 시설로 확충 필요

- 클래식음악·오페라 공연 : ‘관람비용 낮추어야’(28.8%)와 ‘더욱 자주 열려야’(28.0%)가 1~2위로 나타남

◦ 생활권별 시설보다는 더욱 자주 열릴 수 있도록 거점시설 확충 필요

- 전통예술공연 : ‘더욱 자주 열려야’(31.1%), ‘관련 정보가 많아야’(16.5%)가 차지

◦ 더욱 자주 열릴 수 있도록 특성화·전문화된 거점시설 확충 필요

- 연극 : ‘관람비용을 낮춰야’(35.1%), ‘가까운 곳에 열려야’(18.9%)가 차지

◦ 생활권 내에 근접할 수 있는 시설확충 필요

- 무용 : ‘관람비용을 낮춰야’(28.6%), ‘더욱 자주 열려야’(23.8%) 차지

◦ 더욱 자주 열릴 수 있는 특성화·전문화된 거점시설 확충 필요

- 영화 : ‘관람비용 낮춰야’(47.6%), ‘작품의 질 높여야’(23.0%)가 차지

◦ 시설확충보다는 비용절감에 대한 노력 필요

- 대중가요콘서트 : ‘관람비용 낮춰야’(43.7%), ‘가까운 곳에 열려야’(18.4%)가 차지

◦ 조사대상이 전국인 만큼 아마도 지방에 대한 대중가요 콘서트 접근기회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임

<표 4-7> 각 장르별 향수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설확충방향

장르	관람 경험율 (%)	관람 희망율 (%)	관람 보완점	토론 (시설확충방향)
문학	4.0	2.4	1. 더욱 자주 열려야 (24.1%) 2. 가까운 곳에 열려야 (24.1%)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확충
미술	10.4	6.8	1. 가까운 곳에 열려야 (26.0%) 2. 더욱 자주 열려야 (18.3%)	생활권 접근성 확충
클래식	6.3	6.8	1. 관람비용 낮추어야 (28.8%) 2. 더욱 자주 열려야 (28.0%)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확충
전통예술	5.2	6.8	1. 더욱 자주 열려야 (31.1%) 2. 관련 정보가 많아야 (16.5%)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확충
연극	11.1	18.6	1. 관람비용을 낮춰야 (35.1%) 2. 가까운 곳에 열려야 (18.9%)	생활권 접근성 확충
무용	1.1	0.5	1. 관람비용을 낮춰야 (28.6%) 2. 더욱 자주 열려야 (23.8%)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확충
영화	53.3	37.7	1. 관람비용 낮춰야 (47.6%) 2. 작품의 질 높여야 (23.0%)	시설확충보다는 비용절감 노력
대중가요 연예	10.3	18.8	1. 관람비용 낮춰야 (43.7%) 2. 가까운 곳에 열려야 (18.4%)	지방에 대한 배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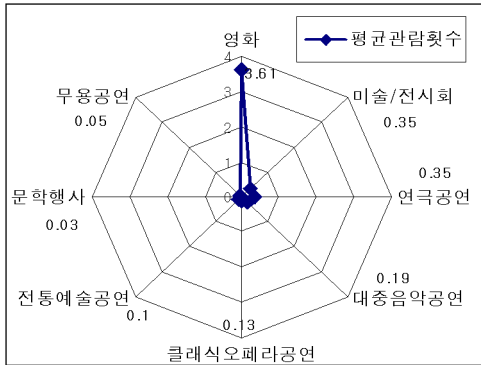
1-2. <서울시민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조사> 결과

-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서울거주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녀 600명
 - 조사방법 : 25개 구당 24표본을 임의 할당하여 조사
 - 조사기간 : 2002년 1월 19일~2002년 1월 28일(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욕구실태

-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시간 6분, 주말 5시간 57분으로 국민문화향수실태와 비슷
- 여가활동형태를 살펴보면, 텔레비전 시청(주중 71.8%, 주말 42.8%)과 집에서 휴식(주중 37.2%, 주말 40.4%) 등이 높게 나타나 비교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3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문화예술감상이 10.3%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

으나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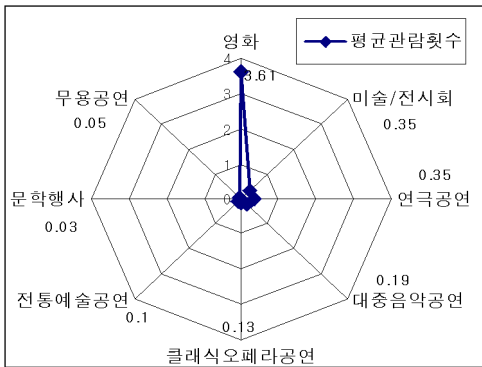


○ 문화예술행사 경험에 있어서도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영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다른 장르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영화(64.2%), 미술전시회(15.9%), 연극공연(15.2%), 대중음악(10.6%), 기타(10% 미만)

○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점과 비용의 문제. '집근처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11.9%(4위)로 비교적 낮은 상태

- 예술에 대한 접근성 문제보다는 예술에 대한 관심부족이 예술행사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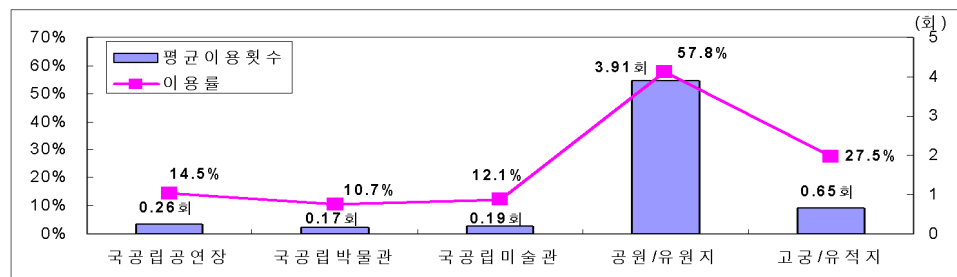
○ 향후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이 또한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처럼 영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동호회 참여실태'와 '참여의사'를 살펴볼 경우, 운동관련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중문화와 건강·스포츠·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동호회 참여의지 : 운동 32.1%, 등산 29.1%, 여행 27.6%, 영화/비디오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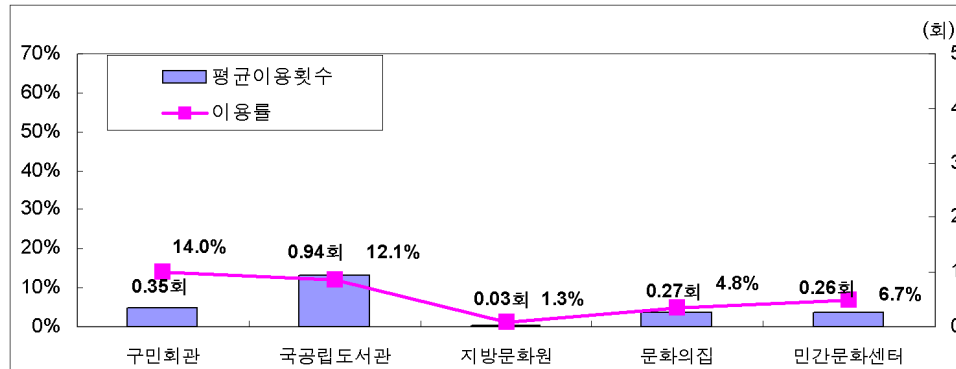
<그림 4-2> 평균관람횟수 (1년간)

■ 문화참여 장애요인

○ 문화예술시설과 생활문화기반시설(지역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참여율은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게 나타났음



<그림 4-3>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이용률과 평균이용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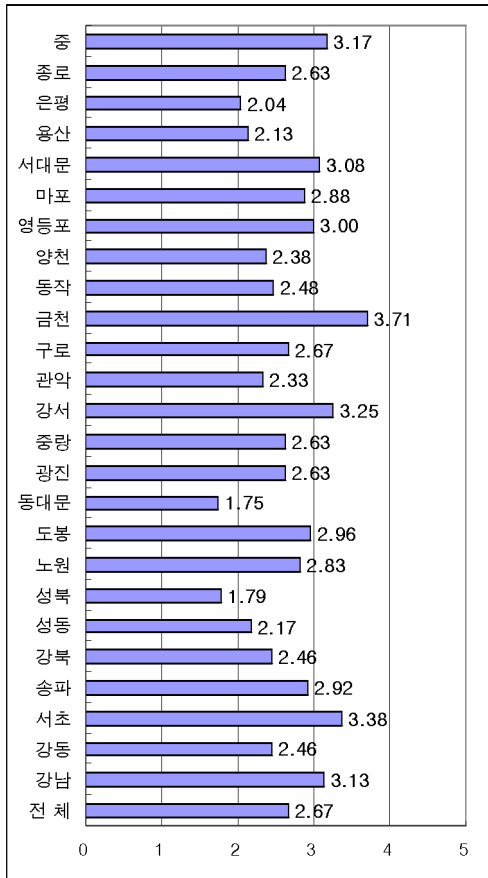


<그림 4-4> 생활문화기반시설의 이용률과 평균이용횟수

- 이러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은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점과 시간이 없다는 점, 정보가 없다는 점 등으로 지적됨
 - 지역문화복지시설 미참여 이유 : 구민회관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68.7%)가 높은 답을 차지한 반면, 나머지 시설들(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은 '특별히 갈 일이 없어서'가 가장 높은 답변을 차지하여,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문화예술시설 미참여 이유 : 문화예술시설의 경우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67.6%), '정보가 없어서'(52.9%)를 지적하여, 접근성을 말하는 '교통이 불편해서'(9.2%)보다 압도적인 응답을 차지

■ 향후 문화시설 확충방향

-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각 자치구별로 문화향유시설 및 공간을 평가한 결과 중구와 서대문, 금천, 강서, 서초 등이 비교적 높은 평점을 받은 반면, 동대문, 성북, 은평, 용산, 양천, 관악, 성동, 강북, 강동 등은 5점 만점 중 2.5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냄
 -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과 서남권이 각각 2.97, 2.87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동북권은 2.40, 서북권은 2.65로 낮은 상태를 나타냄. 이에 따라 동북권 및 서북권, 특히 도심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구에 문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문화시설 설치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전통문화공간 및 소비공간 등에 문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여, 밀집된 지역 내에 문화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문화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간



<그림 4-5> 자치구별
문화향유시설 및 공간평가

- 거주지 생활공간 63.0%, 전통문화공간 47.3%, 소비공간 45.3%
- 반면 문화욕구가 강한 20대의 경우, 소비공간 내 설치가 51.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생활권 주변 내 소규모 시설’(58.8%)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기존시설의 내실화’가 30.0%, ‘대형종합문화예술시설 확충’이 11.2%로 낮은 비중을 보임

- 생활권 내 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며,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확충이 필요한 대상시설로는 중규모의 전용공연장이 29.7%로 가장 높았고, 문화교육시설이 21.6%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공공도서관이 14.0%, 영화관 12.3%, 중소규모의 전시시설이 11.6%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시설의 전문화와 교육공간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조사됨

- 각 권역별로 데이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북권 : 1위 중소규모의 공연장(31.4%), 2위 문화교육시설(24.8%), 3위 공공도서관(20.9%)

◦ 서남권 : 1위 중소규모의 공연장(25.1%), 2위 문화교육시설(22.3%), 3위 중소규모 전시시설(11.7%)

◦ 동북권 : 1위 중소규모의 공연장(27.3%), 2위 문화교육시설(24.7%), 3위 공공도서관(17.6%)

◦ 동남권 : 1위 중소규모의 공연장(39.0%), 2위 중소규모 전시시설(20.2%), 3위 문화교육시설(14.9%)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불리한 서북권의 경우 공연장 확충이,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남권의 경우 전시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동북권의 경우 문화교육시설 확충이, 예술의 시장화 및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는 동남권의 경우 예술전문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8>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단위 : %)

응답		사례수	공공 도서관	중소규모 공연장	대규모 공연장	중소규모 전시시설	대규모 전시시설	문화교육 시설	영화관	기타	계
전체		(600)	14.0	29.7	5.7	11.6	4.8	21.6	12.3	0.2	100.0
성별	남성	(300)	13.1	32.6	8.4	9.8	5.4	17.1	13.2	0.5	100.0
	여성	(300)	14.9	26.9	3.0	13.4	4.2	26.1	11.5	-	100.0
연령별	20대	(192)	12.2	31.0	6.0	10.8	4.5	19.6	15.9	-	100.0
	30대	(166)	14.6	26.8	5.7	13.3	3.9	21.0	14.3	0.5	100.0
	40대	(144)	14.8	33.6	5.4	10.3	5.9	19.8	9.6	0.5	100.0
	50대	(98)	15.3	26.5	5.6	12.2	5.1	29.1	6.1	-	100.0
권역별	동남권	(124)	11.0	39.0	5.6	20.2	0.8	14.9	8.6	-	100.0
	동북권	(197)	17.6	27.3	5.7	7.4	4.1	24.7	12.4	0.7	100.0
	서남권	(178)	8.1	25.1	8.1	11.7	6.6	22.3	18.1	-	100.0
	서북권	(101)	20.9	31.4	1.8	9.1	7.8	22.4	6.7	-	100.0
월평균 가구 소득별	150만원 이하	(84)	15.1	32.5	4.6	9.0	3.7	24.8	9.5	0.8	100.0
	151-200만원 이하	(145)	17.0	24.4	5.7	13.9	6.1	18.5	14.4	-	100.0
	201-250만원 이하	(112)	10.6	40	3.2	7.0	4.0	22.9	12.2	-	100.0
	251-300만원 이하	(120)	9.1	29.4	4.7	15.3	0.4	23.6	16.8	0.6	100.0
	301만원 이상	(135)	17.8	26.1	9.6	10.6	8.0	20.0	8.0	-	100.0

성별 $\chi^2=19.22265$ sig.=.00752 연령별 $\chi^2=14.73923$ sig.=.83581 n.s.
 권역별 χ^2 54.12870 sig.=.00009 가구소득별 $\chi^2=39.51854$ sig.=.07294 n.s.

1-3.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조사결과

- 200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시민의 문화상태 및 시민 간 격차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 : 서울거주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녀 1,300명
 - 조사방법 : 25개구에 표본을 할당하여 조사
 - 조사기간 : 2004년 5월 25일~2004년 6월 13일(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 앞의 조사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결과 중 유의미한 점을 찾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낮은 문화향수 실태의 근본원인

○ 각종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낮은 문화향수 실태의 근본원인은 경제적 자본보다는 문화적 자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됨

- <표 4-9>의 집단 분류를 바탕으로 문화향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상위집단보다 문화적 상위집단이 더욱 열심히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9>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의한 집단 분류

구분		경제자본	
		소득 300만원 이상	소득 300만원 이하
문화자본	대재이상	경제적·문화적 상위집단	문화적 상위집단
	고졸이하	경제적 상위집단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

<표 4-10>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분포에 따른 문화향수실태
(단 위 : %)

구분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	경제적 상위집단	문화적 상위집단	경제적·문화적 상위집단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	본인교육	3.7	1.6	10.6	9.9
	자녀교육	43.0	48.7	32.2	36.5
	외식	11.2	9.3	15.6	11.6
	문화예술활동	2.1	1.9	3.3	6.9
	건강	30.0	25.6	17.2	11.3
	스포츠 레저/여행	4.2	5.8	10.0	12.2
	외모 가꾸기	5.3	7.1	11.1	11.0
선호하는 음악장르	클래식/오페라	4.0	3.9	8.3	8.0
	가요(댄스, 락, 발라드)	37.0	31.6	63.3	56.5
	가요(트롯)	44.2	52.1	8.9	17.5
	국악	0.5	1.6	0.6	0.3
	영화음악	2.6	1.0	4.4	5.3
	팝송	2.8	3.5	10.0	10.0
	기타	0.9	1.6	0.6	0.6
	없음	8.1	5.8	3.9	1.9
영화 관람횟수		1.27	1.72	2.62	3.00
영화관람 방식	영화관	12.6	18.9	33.9	40.6
	비디오/DVD	19.3	24.4	29.4	30.7
	인터넷/컴퓨터	1.4	2.6	3.9	4.1
	TV	66.7	54.2	32.8	24.6

〈표 4-10〉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분포에 따른 문화향수실태 (계속)

(단

위 : %)

구분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	경제적 우위집단	문화적 우위집단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
독서권수		0.68	0.84	1.16	1.26
예술행사 관람횟수	전통예술	0.14	0.20	0.26	0.24
	연극	0.26	0.28	0.58	0.64
	대중음악	0.21	0.27	0.43	0.48
	무용	0.05	0.04	0.03	0.08
	클래식/오페라	0.03	0.06	0.16	0.21
	미술전시	0.21	0.32	0.53	0.68
	뮤지컬	0.09	0.12	0.19	0.30
연주가능한 악기 갯수		0.26	0.35	0.94	0.97
클래식	대화시 불편함을 느낌	68.1	66.3	48.9	44.2
음악친숙도	대화시 편안함을 느낌	31.9	33.7	51.1	55.8
뮤지컬	다른 데 쓰고 싶다	50.5	44.6	34.4	28.7
감상선호도	뮤지컬을 보고 싶다	49.3	55.4	65.5	71.3

○ 다른 한편, 가정 내 예술관련 경험이 문화예술향수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18세 이전 교육경험과 지난 1년간 교육경험이 모두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가정 내 예술활동 경험이 공연 및 전시예술행사 관람과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11> 가정 내 예술관련 경험 유무별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 : 회, 명)

구분		사례수	관람횟수	t값
클래식 청취	없음	1062	1.55	-5.270***
	있음	238	3.79	
공연 및 전시회 동행	없음	1099	1.42	-6.388***
	있음	201	4.91	
여행중 문화유적 답사	없음	731	1.19	-7.004***
	있음	569	2.96	
서점에서의 도서선물	없음	789	1.45	-5.079***
	있음	511	2.75	
화가 진품그림 소유	없음	1189	1.70	-3.845***
	있음	111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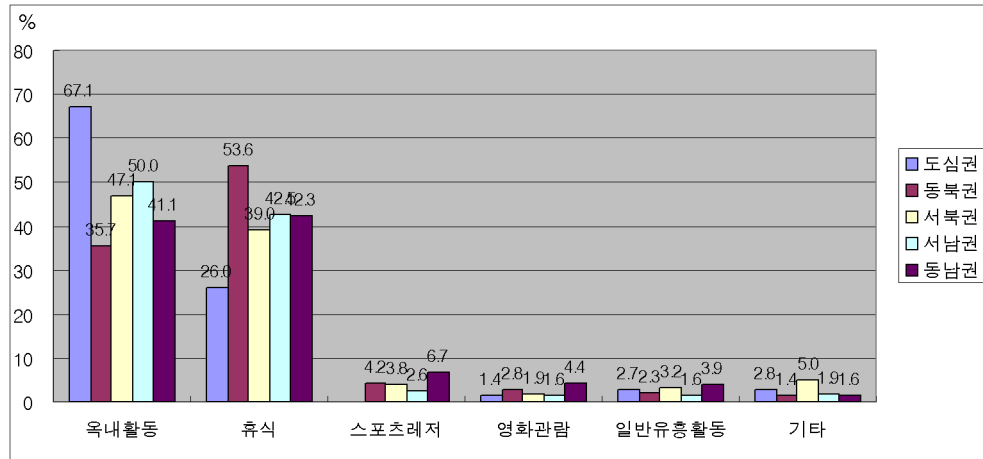
<표 4-12> 예술교육 경험별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 : 회, 명)

구분		사례수	관람횟수	t값
18세이전 교육경험	없음	1114	1.57	-7.973***
	있음	186	4.33	
지난1년 교육경험	없음	1255	1.70	-11.495***
	있음	45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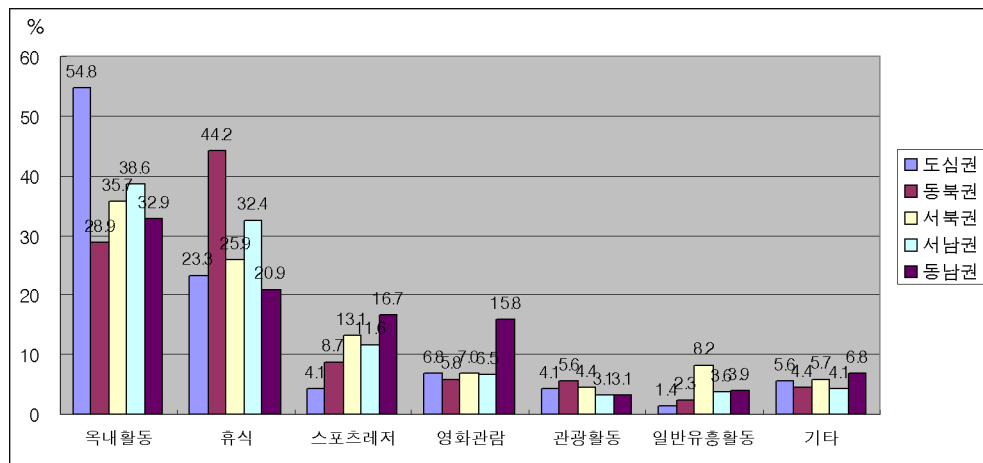
■ 문화향수 실태의 지역간 격차

○ 지역간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역이 TV 시청 등 옥내활동과 휴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동남권 거주자들이 옥내활동과 휴식은 적게 하는 반면 스포츠레저활동이나 영화관람 등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 서북권의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적극적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차이는 주중($\chi^2=85.863***$)에 비해서 주말($\chi^2=113.905***$)에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6> 지역별 주로하는 여가활동 (주중)



<그림 4-7> 지역별 주로하는 여가활동 (주말)

<표 4-13>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 : 회)

구분	전통 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 공연	무용 공연	클래식 오페라 공연	미술 전시회	유지컬	영화
도심권	0.16	0.33	0.26	0.03	0.04	0.41	0.04	3.36
동북권	0.22	0.53	0.44	0.04	0.09	0.42	0.18	3.74
서북권	0.13	0.69	0.17	0.07	0.07	0.34	0.24	3.77
서남권	0.17	0.40	0.30	0.14	0.12	0.42	0.14	5.22
동남권	0.36	0.45	0.88	0.07	0.19	0.64	0.21	4.28
전체	0.22	0.48	0.44	0.08	0.11	0.45	0.17	4.26
F값	2.848*	1.592	3.314**	0.441	2.521*	2.561*	1.965	3.074*

○ 문화예술활동의 지역간 차이를 살펴보면, 도심권 거주자들의 경우 관람횟수가 적은 반면, 동남권 거주자들의 관람횟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나타남.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어서, 지역간 차이 없이 거의 모든 지역이 낮은 체험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적 자본의 형성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교육의 실태와 여건을 살펴보면 각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 연주가능한 악기수를 살펴보면 동남권 거주자들이 0.84개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18세 이전에 예술장르에 대한 교육경험 또한 동남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4> 지역별 연주가능한 악기개수

구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F값
악기 개수	0.45	0.51	0.46	0.55	0.84	6.060***

<표 4-15> 지역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구분	클래식 청취		공연·전시회 동행		여행 중 문화유적 답사		서점에서의 도서선물		화가의 진품그림 소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도심권	93.2	6.8	93.2	6.8	72.6	27.4	69.9	30.1	91.8	8.2
동북권	80.4	19.6	86.0	14.0	57.5	42.5	59.1	40.9	93.0	7.0
서북권	88.0	12.0	88.6	11.4	60.1	39.9	51.9	48.1	96.8	3.2
서남권	81.4	18.6	85.3	14.7	53.5	46.5	64.1	35.9	89.1	10.9
동남권	76.8	23.2	76.0	24.0	50.8	49.2	61.0	39.0	89.0	11.0
χ^2	15.156**		21.204***		13.427**		10.019*		11.797*	

○ 이상의 결과를 보았을 때, 동남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설치 필요한 상태

- 특히 문화적 자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유년시설 예술교육을 위해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시설 설치 필요

2. 문화예술인 실태 및 관련단체·전문가 요구사항에 대한 청취

2-1. <문화예술인실태조사>결과에 대한 토론

○ 매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예술창작의 여건 등을 조사·발표하고 있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은 매우 저급한 상태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창작활동 여건

○ 창작활동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예술가들이 매우 낮은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제적 보상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0.9%에 불과했으며, 87.6%가 낮다고 대답, 만족도 평균은 1.58로 조사됨

- 이는 예술인 평균 수입액이 매우 낮은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예술창작관련 수입을 살펴

<표 4-16>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

(단위 : %)

분야	사례수	없다	10만원 이하	11~20만원	2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만원 이상	계
전체	1747	31.2	12.2	4.1	8.6	12.3	15.4	16.2	100.0
문학	200	52.0	28.5	9.0	5.0	3.5	1.0	1.0	100.0
미술	200	4.0	37.0	4.5	8.5	15.0	11.5	19.5	100.0
사진	200	56.5	8.0	5.5	12.5	8.0	4.0	5.5	100.0
국악	200	6.0	5.5	2.0	9.5	18.5	34.0	24.5	100.0
음악	200	31.0	2.5	3.5	9.5	22.5	17.0	14.0	100.0
연극	190	31.1	14.2	3.7	13.7	7.9	19.5	10.0	100.0
무용	184	43.5	0.5	3.3	7.1	10.3	24.5	10.9	100.0
영화	193	47.2	2.1	1.6	2.6	7.8	8.3	30.6	100.0
대중예술	180	9.4	11.7	3.9	8.9	17.8	18.3	30.0	100.0

자료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33 <표 II-1-29> 정리

※ 건축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표 4-17> 예술가 개인의 월평균 수입

(단위 :

%)

분야	사례수	없다	100만원 이하	101~ 150만원	151~ 200만원	201~ 300만원	301만원 이상	계
전체	1747	7.1	21.4	10.8	15.6	20.2	24.9	100.0
문학	200	10.5	29.0	10.0	16.0	19.0	15.5	100.0
미술	200	0.5	26.5	11.0	10.5	22.0	29.5	100.0
사진	200	4.5	13.5	7.5	11.0	20.5	43.0	100.0
국악	200	1.0	23.0	10.5	26.0	23.5	16.0	100.0
음악	200	1.0	12.5	9.0	15.0	24.0	38.5	100.0
연극	190	5.8	23.7	14.7	22.1	21.1	12.6	100.0
무용	184	12.0	15.8	20.7	17.4	17.4	16.8	100.0
영화	193	24.9	16.6	3.6	11.4	19.2	24.4	100.0
대중예술	180	3.3	31.7	10.0	11.1	15.6	28.3	100.0

자료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35 <표 II-1-30> 정리

※ 건축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표 4-18> 예술활동관련 월평균 지출

(단위 :

%)

분야	사례수	없다	10만원 이하	11~20만 원	21~50만 원	51~100만 원	101~200 만원	201만원 이상	계
전체	1747	7.2	18.3	12.0	27.1	18.8	10.3	6.3	100.0
문학	200	9.0	43.5	26.0	16.5	3.5	1.5	0.0	100.0
미술	200	1.0	2.5	7.0	28.5	34.0	16.5	10.5	100.0
사진	200	1.0	6.0	6.5	41.5	25.0	11.0	9.0	100.0
국악	200	6.0	11.0	5.5	36.0	20.5	14.5	6.5	100.0
음악	200	5.5	22.5	21.5	26.5	15.5	6.5	2.0	100.0
연극	190	13.2	19.5	8.4	31.1	17.9	6.3	3.7	100.0
무용	184	15.2	15.2	12.0	22.3	16.3	13.0	6.0	100.0
영화	193	12.4	25.4	9.3	21.2	15.0	10.9	5.7	100.0
대중예술	180	1.7	18.9	12.2	20.0	21.7	12.8	12.8	100.0

자료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p.39 <표 II-1-32> 정리

※ 건축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보면, ‘수입 없음’이 31.2%로 가장 높고, 201만원 이상이 16.2%, 101~200만원이 15.4%, 51~100만원이 12.3%, 10만원 이하 12.2%, 21~50만원이 8.6%, 11~20만원이 4.1%로 대부분 50만원 이하의 낮은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됨

- 예술활동 외의 수입을 포함한 개인 월평균 수입 또한 매우 낮아 301만원 이상이 24.9%에 불과한 반면, 201~300만원이 20.2%, 151~200만원이 15.6%, 101~150만원이

10.8%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하도 무려 2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수입없음'은 100만원 이하에 포함)

○ 이처럼 수입이 낮은 결과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예술활동 이외의 시간에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관련활동에는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예술활동에 대한 주간 투자시간은 평균 29.4시간으로 주 40시간 노동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매우 낮은 상태임

- 예술활동 관련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월평균 지출액은 대부분 50만원 이하로 지출하고 있고, 50만원 이상이 지출한 경우는 35.4%에 불과함

◦ 또한 지출이 없는 경우도 7.2%로 조사됨

- 그 결과 대부분의 예술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한계를 느낀다고 응답(70.9%)하고 있으며,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한 실정

○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할 경우, 예술인의 창작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발표/전시여건

○ 예술인 중 15.6%만이 창작발표 기회가 주어진다고 응답함

- 61.3%에 달하는 예술인은 창작발표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만족율은 2.37에 불과한 형편임

◦ 발표기회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문학 2.51, 사진 2.51, 영화 2.51로 공동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중예술 2.42, 미술 2.41, 음악 2.41, 무용 2.35, 국악 2.28, 연극 1.72 등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용극장설립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던 음악과 무용, 국악, 연극 등이 발표기회가 낮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시설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미술 또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2-2.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워크숍 토론결과

■ 워크숍 개요

○ 개최목적

-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문화시설의 분포현황의 문제점 및 향후 확충해야 할 시설과 관련 시설의 입지에 대한 의견 청취

- 질문사항

- 현재 서울시 문화시설 분포현황 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관련 분야의 예술발전 및 문화발전을 위해 설치해야 할 시설은 무엇인가?
- 해당 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어떤 형태로 건립되어야 하는가?

○ 개최내용

- 1차 토론회 : 관련협회 워크숍(한국민족극운동협회, 민족음악인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국악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2차 토론회 : 박신의(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이용관(안양문화예술회관),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김경욱(서울문화재단)

■ 토론내용

① 시설분포현황상의 문제점

○ 시설 수에 대한 문제 - '절대 수' 중심의 확충보다는 시설의 질을 고려

- 절대 수에서는 서울의 시설 수가 그다지 부족하지 않음. 운영여건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시설은 과부하 상태. 이에 시설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등 내실화를 기해야 할 때임
 - 그러나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있고 서울 시내에는 <서울시립미술관>과 대학로의 <마로니에 미술관>, 예술의 전당 내 <한가람 미술관> 외에는 공공 미술관이 없는 실정. 이에 따라 공공적 차원에서 미술관 설치가 필요한 상태
- 시설 간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있는 시설의 활용력 제고 필요
 - 시각예술차원에서 동북권과 서남권, 서북권 등 도심과 강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취약하지만, 전시활동이 가능한 여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부족한 시설의 보완과 함께 시설의 활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을 계산할 경우,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또, 현재 있는 시설 외에 또 다른 시설이 생길 경우, 시설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 지역간 균형성의 문제 - 특화된 유형의 문화시설 설치 필요

- 대부분 문화시설은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타 지역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유형의 시설건립 필요
 - 예컨대 종로구민회관은 국악전용행사장으로, 영화의 거리가 있는 성북구민회관은 예술영화전용상영관으로, 서초문화예술회관은 클래식연주전용관으로, 양천구민회관은 뮤지컬 전용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시설설치 방안 연구 필요

○ 시설형태의 문제 - 보편적인 예술시설은 충분, 전용시설의 건립이 필요

- 보편적 형태의 공연장 및 전시장은 많으나, 각 장르별 전용시설은 부족한 상태
 - 각 장르별 특성으로 보면 같은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무대, 음향, 조명, 장치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각 장르별로 그에 적합한 공연시설 건립이 필요
- 문화예술 장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을 담아 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 전문미술관, 전문공연장, 테마박물관 등 전문예술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창작과 발표, 교육, 보존 등을 결합한 형태의 문화시설 설치 필요

○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시설분포 현황

- 현재 문화시설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표준화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이에 따라 새로운 장르의 예술유형이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

○ 고립화된 거점시설들

- 고급예술기반의 문화예술시설과 대중문화예술시설 등이 입지한 지역적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독립된 시설로 존재. 주요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이 어려운 상태임

② 시설설치방향

○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과 특성강화

- 대학로, 홍대 등과 같은 문화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단위의 근린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

- 또한 장르에 따라 각 장르별로 밀집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여, 각 지역이 특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전문시설과 교육시설 중심의 시설설치

- 밀집지역의 경우 전문화된 예술시설의 설치가, 소외지역 및 생활권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시설설치가 필요
 -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처럼 공연장/전시장 기능을 갖춘 형태의 시설설치보다는 문화예술 교육 중심의 시설설치가 바람직
 - 또한 각 지역별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테마화한 소규모 테마박물관을 설치하여, 지역활성화 및 예술공간 확충에 대한 노력 필요

○ 시설의 규모는 가능한 한 작게

- 지나치게 큰 규모의 시설은 운영상의 문제점만 도출. 분명한 목적성을 지닌 형태의 ‘작지만 강한 시설’ 건립필요
 - 서울시의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문화예술 전문자료관이나 특수목적의 전문교육시설 등 소규모 아트센터가 적합함
 - 또한 지역문화시설의 경우, 현재의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형태보다는 예술교육과 아마추어 창작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바람직

○ 아마추어 활동에 대한 배려

- 전문문화예술시설의 부족도 이해되지만, 서울시가 공공정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비시장영역(non-market) 영역에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끌어낼 수 있는 시설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함
 - 아마추어 문화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 <daum>만 계산할 경우에도 300만개의 카페가 존재
 - 이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시설의 설치 및 운영필요

○ 장르의 횡단성과 요소를 복합한 형태의 시설개발

- 현대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퓨전화하는 시대. 장르를 통합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화·가변화된 형태의 시설설치가 필요하며, 창작에서 교육, 관람, 체험 등이 결합된 형태의 시설 개발 필요
 - 예컨대 공연의 경우, 대학로의 공연장과 각 지역의 공연장이 다를 텐데, 거의 모두 프로서니엄 형태로 설치되어 있음. 향후에 있어선 다양한 유형의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록 가변적인 형태의 공연장(BlackBox형) 건립 필요¹⁵⁾

③ 설치요청 문화시설

○ 지역별 시설 - 요구시설 : 미디어센터, 복합문화센터

- 21세기는 미디어 시대이니 만큼, 영상시대에 걸맞게 영상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미디어교육 및 제작관련 시설 설치 필요
 - 특히 영상과 애니메이션, 디지털 문화를 교육하고 이를 제작할 수 있는 형태의 지역 미디어센터 건립이 필요(아카이브 기능과 제작센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사람이 영상을 즐기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 필요)
- 지역별로 전시, 공연, 도서관 기능 등 지역문화수요 여건을 포괄하는 형태의 멀티형 복합 문화공간의 설치
 - 문화시설 단독형보다는 대형빌딩의 일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방안 마련 필요

일본의 사례 (이명복, 민족미술인협회)

- 일본의 경우, 상업적인 빌딩이나 업무시설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많음

○ 일본의 나고야시

- 아이치현 문화예술센터는 중심가 빌딩 맨 위층에 설치되어 있고, 나고야보스톤미술관 또한 지하철 역사 앞 대형빌딩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시민이 찾을 뿐만 아니라, 빌딩 자체가 생동감이 있음
- 또한 나고야시는 시라카와 공원 내에 시립미술관, 나고야시 과학관 등을 설치,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내야구장인 나고야 돔 옆에 히가시 도서관 및 스포츠센터, 시민갤러리 야다 등을 입주시켜, 시민접근성 및 돔구장의 예술공간화에 기여하고 있음

○ 동경시

○ 전용시설의 설치 - 요구시설 : 라이브공연장, 무용전용극장, 예술영화상영관 등

- 현재 라이브공연을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은 홍대지역에 있는 9개소에 불과

15) 대부분의 공연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지역에 설치한 공연장이 시설 면에서 너무 좋은 소재를 선택하여 변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 있어서는 가변적인 공간만 주어진 Black Box형 공연장을 설립할 것을 주장. 언제든 훼손이 가능한 형태의 시설건립 필요

- 홍대지역 내 라이브 클럽을 밀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라이브공연장을 설립하여 그 기반을 형성해주었으면 좋겠음
- 현재 종로에 있는 예술영화전용관(단편영화 및 독립영화 상영)인 <씨네마 테크>는 2005년 2월 계약종료와 더불어 폐관될 예정임. 이에 따라 새로운 장소에 예술영화상영전용관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음
- 타장르에 비해 무용전용공연장이 없는 점을 고려, 중극장 형태의 무용전용극장 설립이 필요
- 대학로 지역 내 (구)한화 주차장에 건립중인 건물을 문예진흥원이 구입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바, 당해 건물 내에 건립 필요

라이브공연장 설치의 필요성
(박준흠, 대중음악 비평웹진*가슴 편집장)

- 민족음악인협회를 대표하여 본 워크숍에 참석한 박준흠씨는 다음과 같이 라이브클럽의 중요성과 공연장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

- 뮤지션들이 공연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공간
 - 인디레이블 뮤지션들에게 있어 200~300석(스탠딩 기준) 규모의 공연장은 유일하게 상시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
- 향수자들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창구
 - 인디레이블뮤지션들은 상업적인 음반을 발표하지 않기에, 유일하게 라이브클럽 및 공연장을 통해 팬들과 만날 수 있음
- 유일한 수입원
 - 라이브클럽은 공연을 통해 인디레이블뮤지션들이 유일하게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곳
-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공간
 - 인디레이블뮤지션들은 상업적인 활동없이 오로지 공연을 통해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라이브클럽은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공간
- 다수의 뮤지션이 활동하며 교류하는 공간
 - 라이브클럽은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다수의 다양한 뮤지션들이 활동하는 공간. 음반산

○ 창작기반 시설 - 요구시설 : 공연연습실 및 창작스튜디오, 전문공연장, 제작지원센터의 설치

- 공연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공연장과 공연연습실, 공연제작지원센터, 공연박물관

등입

- 공연의 경우, 공연장이 연습실이자 관객들과 만나는 지점이므로, 전문공연장 건립이 중요 (특히 뮤지컬과 무용부문의 전문공연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
- 제작지원센터 및 공연박물관은 통합된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

○ 특수계층 시설

- 어린이와 소외계층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공연장 건립 필요

④ 시설입지

○ 과도한 균형성보다는 입지의 현재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강남권과 도심권에는 국제성을 살릴 수 있는 엘리트 예술시설 설치 필요
 -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위상과 예술성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대학로와 광화문 등과 같이 클러스터 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청계천에 대한 고려

- 청계천은 서울의 근대문화와 하위문화, 노동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공간이자 향후 서울을 알리는 상징지역으로서 중심이 될 지역. 이에 따라 서울의 문화적 활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자원이 밀집할 수 있는 형태는 문화시설 개발 필요

○ 유희공간의 활용

- 서대문 <드림씨어터> : 현재 극장을 활용하여 라이브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추진 필요
- 목동 <예술인회관> : 현재 건물을 활용하여 작가들의 작업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예술프로그램 운영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서남권에 대한 기획

- 구로/금천 지역은 한계점을 지닌 지역이자 개발만 하면 매우 가치있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 지역
- 현재적 특성

- 다른 지역에 비해 불편한 도심접근성으로 인해 개발 필요
- 젊은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 분포로 인해 시장개발가능성이 있는 한편, 소외계층 배려차원에서 지역개발 필요(가족이 해체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적 접근이 더 필요한 지역)
- 대규모 공장부지로 되어 있어 잘 개발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재생효과가 뛰어난 지역

⑤ 기타의견

- 문화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위해 뉴타운 등 지역개발사업 시 MA와 같은 문화관련 총괄기획자가 참여하여 공동기획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각 사업대상지별로 장소성에 기반한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대상지에 대한 문화적 특성 및 여건을 검토하고, 기본적 확충 방향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총괄적 기획자 필요
- 서울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AIR(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 운영
 - 각 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시설운영 필요
 -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AIR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시설에 필요한 예술가와 프로그램을 배치해주는 정책 필요
- 시민참여형 문화시설 건립 필요
 -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시민참여를 적극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역할 조정
 - 중앙정부 또한 다양한 문화시설 설치계획 추진
 - 국립현대미술관 용산 이전 추진, 당인리 발전소 개발 추진, 용산미군기지 활용방안 추진 등
 -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시설을 개발하고 지역적으로 배치하는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

3. 소결

■ 시설형태

○ 전문문화시설과 소규모 생활권단위 시설 중심의 설치

- 대부분 사람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기회 및 교육기회 미비로, 예술에 대한 향수욕구 및 교육받을 욕구를 상실한 상태. 이에 따라 향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시설 설치 필요
- 이러한 형태의 문화시설은 규모가 큰 시설이라기보다는 전문적 특성과 테마를 갖춘 시설로, 예술가들이 상주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지만 강한' 시설
-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향후 문화시설 확충 시에는 시설의 전문성과 요소의 복합성을 최대한 추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함

○ 예술생산기반을 육성할 수 있는 창작기반시설의 설치

- 대부분의 시민은 교통에 의한 접근성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
 - 각 권역별 시설의 설치보다는 시민의 수준에 적합한 유형의 예술생산품이 창출될 수 있는 형태의 기반조성이 우선 필요
- 예술가의 상태를 보았을 때도, 창작기반 여건 조성은 대단히 중요
 - 대부분의 예술가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시설 개발 필요

○ 문화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건. 생활권 문화시설은 문화교육시설로 설치

-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문화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보다 문화예술 향수에 있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 설치가 필요
- 시설의 설치에 현재와 같이 강의식 시설이 아닌 체험과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18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시설은 현재와 같이 일반적 강사가 강의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적인 예술교육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인 AIR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 시설 내에 예술가 입주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 필요

■ 시설입지

○ 특화/밀집지역의 강화

- 권역별 균형성보다는 특정자원이 밀집된 지역의 밀집요소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함으로써, 밀집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밀집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의 지역혁신체계상의 시설설치 필요
 - 특히 대학로와 홍대지역 뿐만 아니라, 각 장르별 특화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바탕을 둔 시설개발 필요

○ 권역별 시설설치에 있어서는 균형성보다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시설설치를

- 서울시 문화시설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시설이 일반적인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 공연 및 전시, 대중문화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이와 같은 보편적 형태의 공연장 및 전시장 설치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에 접근가능 한 서울의 경우 지방과는 달리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상태를 고려한 시설개발이 필요
 - 특히 서울주민의 경우,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역사문화 및 지역향토사에 대한 교육의 지가 매우 강한 상태로, 막연한 유형의 문화시설보다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형태의 문화시설 설치 필요

○ 거점 지역의 새로운 개발

- 현재 도심권과 대학로,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이 집중 설치되어 있는 바, 여타의 권역 중 개발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거점을 개발하여, 집중적인 문화육성공간으로 조성 필요
- 특히 서남권의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역 내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시설을 집중 배치, 문화공간으로서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 효과 및 지역간 균형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제2절 확충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

1. 어떤 종류의 시설인가? - 종류의 개발

■ 예술생태론 입장과 시민문화론 입장

- 문화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나, 우선 생산자적 입장과 소비자적 입장에서 볼 경우, 각각이 요구하는 시설은 다를 수밖에 없음
- 생산자적 입장, 즉 예술가 입장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적 입장에서는 시민문화권의 입장에서 지역에 기초한 문화복지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

<표 4-19> 예술관점과 시민관점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설설치의 차이

구분	문화예술생태론적 관점	시민향수 및 문화권 관점
기본철학	문화민주주의	문화의 민주화
시설설치 목적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 생태계 구성, 자생력 확보(선순환구조)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 문화향수권 및 문화참여권
시설설치 기준	전문화·특성화·분야별 특성 고려 예술적 특성과 여건 반영	복합화·융합화·시민접근권 우선 시민들이 실제 즐기는 문화영역 집중

- 이에 따라 양자의 입장에서 나타난 차이에 대한 검토 필요

1-1. 예술생태론 입장

■ 기본입장

- 다양한 예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예술생산과 유통, 소비의 생태계를 형성하자는 입장
- 시민들이 보다 많고, 보다 다양하고, 보다 질 좋은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질 좋은 예술이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
- 따라서 시설확충은 예술가의 제반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 기반조건의 형성 및 시장여건 조성

■ 시설형태의 개발

- 생산의 기본요건을 형성하는 창작시설과 전문화된 발표시설, 이를 시장화하는 시장/산업 시설과, 보존/전수시설, 교육/체험시설을 연결하는 형태의 시설건립

○ 각 요소별 장르에 적합한 형태의 전문화된 시설 건립

- 우선, 장르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진흥법>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예술분야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으로 분류

- 각 장르별로 유사한 형태를 통합하여 ▷실연(공연)부문, ▷전시부문, ▷상영부문, ▷문학부문 등으로 분류

- ▷ 실연부문 : 음악, 무용, 연극 등 현장에서 실연(實演)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 ▷ 전시부문 : 미술, 사진 등 생산된 예술품을 전시하여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 ▷ 상영부문 : 영화, 영상, 연예 등 제작된 콘텐츠를 상영하여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 ▷ 문학부문 : 어문, 출판 등 인쇄된 형태로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 ※ 각 분야는 물론, 통합된 형태의 장르 복합 가능 (예컨대, 미술의 경우 현장 퍼포먼스(實演)를 통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으며, 문학 또한 낭송회 등과 같은 실연을 통해 공연분야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이상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이어 각 분야별로 예술이 생산될 수 있는 생태네트워크 구성

- 예술생산의 창작, 유통, 소비에 따라 각각의 시설 건립

- ▷ 창작시설 :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시설(ex : 창작스튜디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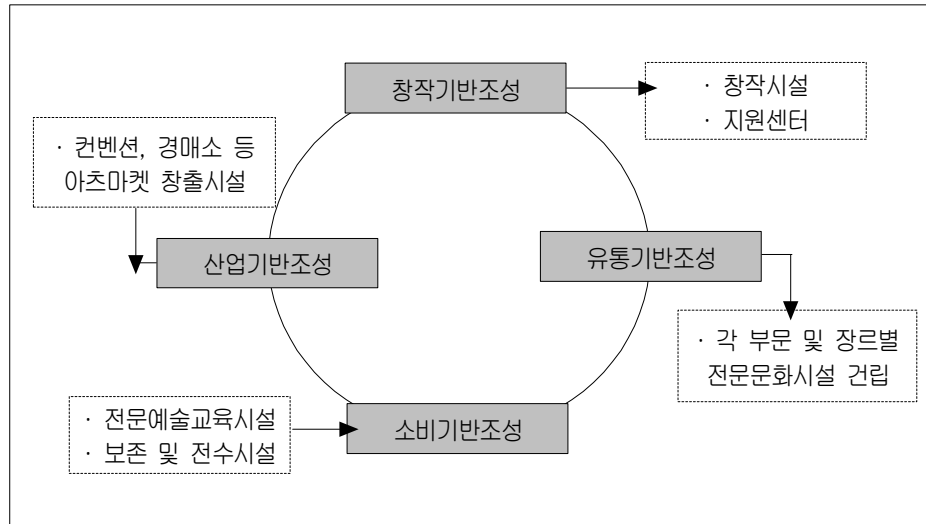
- ▷ 발표시설 : 예술발표활동과 관련된 시설(ex : 공연장, 전시장 등)

- ▷ 교육시설 : 예술교육과 관련된 시설(ex : 문화교실, 지역문화센터 등)

- ▷ 보존시설 : 예술적 생산물의 보존과 전시(ex : 아카이브 등)

- ▷ 산업시설 : 예술품의 시장적 가치창출과 관련된 시설(ex : 컨벤션 센터, 경매소 등)

- 이를 연결하는 형태의 시설건립을 통해 자연스런 생태네트워크 구축



<그림 4-8> 예술시장의 선순환구조 형성에 따른 시설건립방안

■ 유형별 시설실태 및 개발방향

① 창작기반을 형성하는 창작/제작관련 시설

○ 창작기반시설은 크게 ▷거주시설과 ▷작업시설, ▷지원시설로 분류

- 거주시설은 작가나 예술가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창작촌’을 말하며, 작업시설은 예술창작을 목적으로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창작스튜디오’나 ‘공연연습실’, ‘집필실’ 등을 말함. 지원시설은 ▷창작 및 제작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대여·임대해주는 지원센터(무대보관소, 공동장비실 등)와 ▷창작 및 제작관련 예술인과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지원시설로 분류

○ 현재 서울에 있는 창작기반시설은 창동스튜디오와 쌈지아트스페이스, 가나아뜰리에 뿐¹⁶⁾

- 창동스튜디오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 <쌈지스페이스>와 <가나아뜰리에>는 민간이 운영
- 그 외에도 스튜디오 기능은 아니지만, 창작지원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설로서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가 존재. 그러나 창작시설이기 보다는 전시실에 가까운 상태

16) 본 보고서 <표 3-14> 참고

<표 4-20> 창작 및 제작지원 관련 시설

구분	창작시설		지원시설	
	창작촌	창작스튜디오 (공연연습실 포함)	지원센터	창업센터
의미	작가들의 공동생활 장소	창작물 생산 공간	장비관리 및 대여	기업설립 지원
목적	생활안정/국제교류	창작몰입/작품산출	장비지원/비용절감	예술의 시장화 유도
운영	작가들이 자유롭게 거주	프로그램으로 운영	필요한 장비 및 공간활 용 요구에 대응	장비,자금 등 지원
형태	개인의 생활 중심	3개월-3년 입주 실험과 연구 몰두	제작공간으로 활용	공공지원센터
지원	공간 조성	운영프로그램 필요	공간 및 장소제공	융자 등 자금지원 인큐베이팅
사례	국내 없음	창동스튜디오 쌈지스튜디오 가나아뜰리에	영상미디어센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벤처타운 벤처창업지원센터 문화콘텐츠진흥원

- 대부분 창작스튜디오는 시각예술(미술)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공연예술분야의 창작기반인 공연연습실은 문예진흥원이 운영하던 ‘예일연습실’¹⁷⁾이 폐쇄되면서 사라진 상태

○ 최근 창작기반시설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 서북부와 남부 지역에 밀집되는 상태

-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를 중심으로 창작자원 밀집
 -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와 인쇄단지, 헤이리예술촌 형성
 - 고양창작스튜디오 운영(국립현대미술관)
- 경기도 광주시·용인시를 중심으로 미술관 건립과 창작기반 시설 운영
 - 경기도 광주시 내 영인미술관 경안스튜디오 운영

17) 문예진흥원이 운영하던 시설로, 대학로에 인접한 종로구 예지동 예일빌딩 내 위치했던 연습실. 총 5개의 연습실이 있었으나, 2002년 계약만료로 폐관된 상태

헤이리예술촌 조성사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주변 15만평 부지에 조성
 - 토지개발공사 소유 땅을 구입하여 조성
 - 조성계기
 - 파주 출판단지가 조성되면서 개발주체였던 김언호 한길사 사장이 출판단지와 연계한 책마을을 구성하면서 출발
 - 이후 각종 예술인들이 참여하면서 조합을 결성, 현재 370명의 문화예술인사가 참여한 예술인 집성촌으로 개발
 - 개발특성
 - 예술인 중심의 마을 설계
 - 마을 내에 예술적 장르 외에 다른 업종이나 분야는 진출할 수 없도록 조치
 - 미학적인 도시설계
 - 예술가의 기호에 적합하도록 미관적 기준에 의한 도시시설물의 설치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
 - 건물에는 페인트 등을 칠할 수 없으며, 각 건축물별로 50% 이상의 문화공간 설치 의무
 - 예술시설입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홀, 기념관, 연극관, 시네마, 문학학숙, 식물원, 갤러리 및 공방 (100여개), 서점, 작가 스튜디오(300여개)를 입지시켜, 창작에 몰두하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그 결과 많은 창의적 인구가 서울을 이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창작여건 개선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창작기반 시설설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상태

② 다양한 실험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문화예술시설

- 시장창출을 위한 시설로는 발표시설과 다양한 예술품이 유통될 수 있는 유통시설 설치가 필요
 - 발표시설 : 전용공연장, 미술관, 갤러리, 테마박물관 등 전문문화예술시설
 - 유통시설 : 아즈마켓 관련시설(필름마켓, 공연박람회장, 예술품경매소 등), 컨벤션 등 국제적 행사가 가능한 시설
- 현재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족한 것은 예술전문시설

- 2003년 <문화관광부>가 작성한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은 “현재 한국의 공연예술은 공연장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 빈곤함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부족, 공연장을 활용해야 할 공연예술 콘텐츠의 일상적인 생산 부재, 획일화된 공연장 형식 및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이용의 한계’ 등이 오히려 문제점”이라고 지적. “상당수의 공공재원을 통해 건립,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들이 실질적인 공간 활용은 없고 오히려 시설 보수, 유지를 위해 또 다시 공공재원을 필요로 하는 역설에 빠져 있다”고 주장¹⁸⁾
- 즉 시설의 전문화·특성화가 안 돼 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
- 현재 서울에 있는 전용시설은 소수에 불과. 다수의 공연장은 소공연장이거나 지나치게 큰 다목적 행사공간으로 전문적인 예술창출에 어려움¹⁹⁾
- 이에 따라 전용시설 건립이 요구되며, 특히 각 장르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형태의 시설 개발이 요구됨

○ 마켓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설 필요

- 서울의 가장 부족한 시설은 또한 예술시장관련 기반시설임. 컨벤션 센터, 예술품 경매소 등 대규모 예술전시장은 각각 1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설은 전무한 상태
 - 이에 따라 예술전용 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예술마켓 설치 필요
- 생활권 중심의 예술시장 또한 건립 필요
 -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마켓은 홍대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프리마켓’이 전부
 - 각각의 참여자가 생활예술품을 제작하여 서로 거래하는 ‘프리마켓’은 별도의 공간 없이 홍대 앞 놀이터에서 열리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생활권을 중심으로 예술적 생산물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생활형 예술마켓시설’ 설치 필요

③ 보존 및 보관, 전수를 위한 시설

○ 문화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아카이브 필요

- 현재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아카이브, 즉 예술품 보존시설은 박물관이 전부. 그나마 지방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
 -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각 지방별로 박물관 및 미술관 등 국공립 시설설치가 활성화되

18) 문화관광부, “2003년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부록”, 2003, 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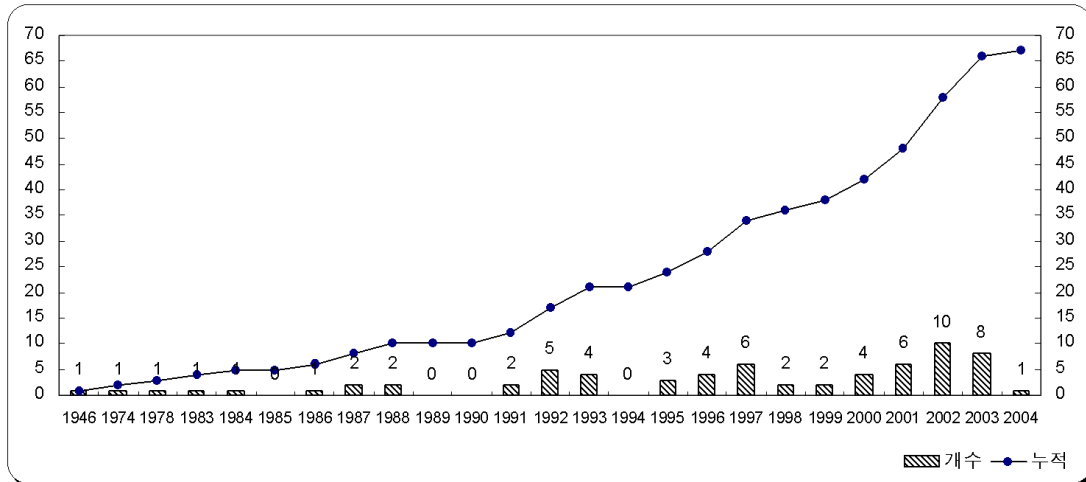
19) 본 보고서 <표 3-15> 참고

먼저 서울보다는 지방에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이 건립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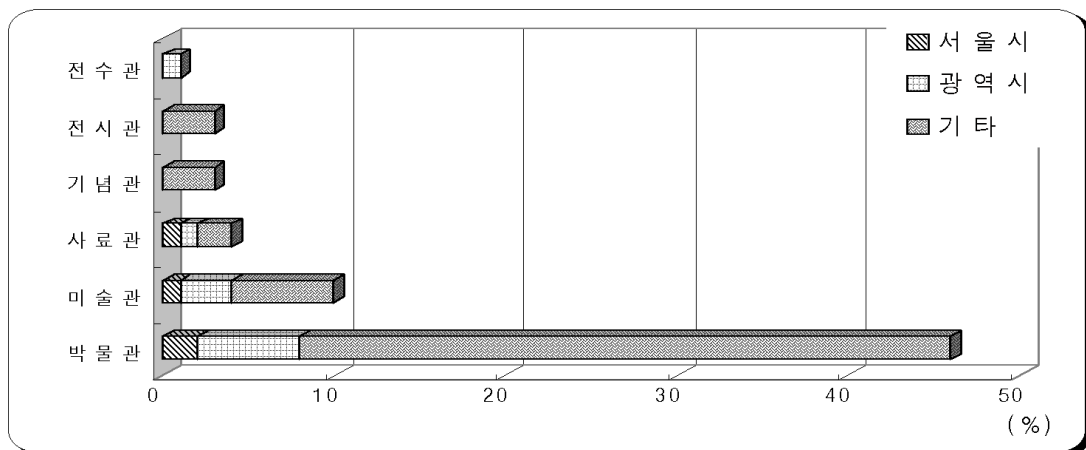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서울예술문화 보존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 및 아카이브 설립이 필요

○ 아카이브는 유물형 박물관형태가 아닌 자료관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

- 각 장르별로 예술적 성과를 집적하는 한편, 이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건립 필요



<그림 4-9> 공립 전시시설 개관 현황



<그림 4-10> 공립 전시시설 종류별 분포 지역(2004년)

■ 확충방향

○ 예술생태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대부분 발표/전시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로²⁰⁾, 창작을 위한 시설과 시장을 위한 시설, 보존과 전수를 위한 시설이 태부족한 상태. 이에 따라 예술생태계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시설 확충 필요

-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창작여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창작스튜디오 및 창작촌, 지원센터 등 건립
- ② 전문적인 예술창출을 위한 전문문화예술시설 건립
- ③ 예술활동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한 아카이브 건립
- ④ 예술의 산업화와 시장화, 국제교류 등을 추진할 컨베이션센터 및 아츠마켓 건립

1-2. 시민문화권론 입장

■ 기본입장

○ 시민문화권 입장에서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중시하는 입장

- 접근성에 대한 강조

<표 4-21> 생태론적 입장과 시민문화권론 입장에서 본 문화시설 설치기준

	생태론적 입장	시민문화권론 입장
시설설치기준	문화예술 자생력을 형성하기 위한 생태계 구성	시민들의 향수권과 참여권 보장
요구하는 시설	창작촌, 창작스튜디오, 공연연습실 등 기반시설 예술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위한 시설	문화교육시설 영화관 등 대중문화관련 시설
필수적인 시설	전문문화예술시설 시장화·산업화를 위한 시설	문화복지관련시설 지역문화관련 커뮤니티 시설
시설의 규모	거점시설, 핵심시설	지역별 소규모 시설
시설설치기준	광역권(부도심)	생활권(자치구 및 지역단위)

◦ 생활권 단위의 중·소규모 문화시설 설치

◦ 장애인·저소득층·노인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서비스 제공

- 다양성에 대한 강조

◦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20) 본 보고서 <표 3-18> 참고

○ 이러한 입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입장

- 시민문화권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서울의 경우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 시설설치를 완료, 사업이 종료된 상태
-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강좌실(문화의 집 등)이나 공연장/전시장(문화예술회관 및 구민회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태(<서울시민 문화욕구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결과> 참조)
- 시설의 개선 및 문화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시설 건립 필요

■ 시설설치 방향

○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시설 설치

- 위에서 살펴보듯, 대부분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활동(감상 등)은 교통거리에 관계없이 거점 시설 및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임
 - 따라서 지역 내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과 생활 속에서 예술을 체험하는 시설설립 필요
- 또한 문화예술활동 창출에 있어서는 경험과 체험이 중요²¹⁾
 - 때문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건립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 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예술가의 참여 필요
 - 앞의 통계자료에서 보듯,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지역문화시설에서 강의하고 있는 예술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
 - 이에 따라 예술가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을 교육하는 예술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일본의 경우, 통합적인 차원에서 AIR(Artists In Residence)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들을 통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실시
 - 작가에겐 작업공간을, 시민들에겐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다른 한편 생활 속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소규모의 문화예술시설 건립 필요

- 현재의 문화예술시설은 대부분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시설

21) 예술은 일정한 기호가 형성(acquired taste)될 때에야 비로소 소비가 시작되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임상오, '공연예술의 경제학', "문화경제학만나기", 김영사, 2001, p.66)

- 시설구성 내용 또한 전시장/공연장 등 발표/전시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문제
- 현재와 같은 발표/전시공간보다는 예술적 성과품을 보존·전시하는 생활형 예술시설 설치 필요
- 또한 생활권 내 주민이 참여하는 ‘프리마켓형’ 예술시설 설치 필요
 - 생활 속 예술품의 거래 및 생활예술교육 실시

2.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 입지형태 검토

2-1. 균형배치론 입장

■ 기본관점

- 시민문화권 입장에서 지역별로 문화시설을 균등하게 배치시켜, 지역에 따른 접근성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설을 배치하자는 입장. 이들은 접근성과 균형성의 문제를 강조하며,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특징

<표 4-22> 균형배치론 입장의 문화시설 확충관점

항목	내용
관심사항	문화적 균등성과 시민문화권 신장
정책목표	지역별 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계획구역	생활권(자치구) 및 권역
주요정책	각 지역 내 필요한 문화시설 설치 지역별 특화를 통한 균형달성 각 지역별 거점문화시설 설치
확충정책	지역별 거점문화시설의 설치(생활권 문화시설 네트워크 중심 구성) 생활권별 문화시설 확충

- 때문에 큰 시설보다는 작은 시설을 중시하며, 광역권 시설보다는 생활권 시설을, 보편적 문화예술시설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특화시설을 중시
 - 각 지역별로 시설을 특화시키는 한편, 특화된 시설로 지역의 역사성이나 현재성을 보존하자는 것이 이들의 입장
- 다른 한편, 이들은 공공문화시설은 상업적 시설이 아닌 만큼 공익적 입장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간 균등배치가 아니라 소외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로 다양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

- 서울시의 경우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민간문화시설이 취약한 서남권과 서북권을 중심으로 공공문화시설 확충에 주력, 그 결과 일정부분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의 균형을 맞춘 상태
-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균형성을 강조할 뿐, 예술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시설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함

<표 4-23> 서울시 권역별 민간문화시설 대비 공공문화시설 설치현황

권역	민간문화시설	공공문화시설
도심권	271	36
동북권	144	28
서북권	44	35
서남권	32	39
동남권	35	14

※ 대학시설은 민간문화시설에 포함하였음

■ 현황과 실태

○ 수의 만족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운영상태

- 주요하게 설치된 공공문화시설은 시설 수만 만족시켰을 뿐, 운영을 만족시킨 것은 아님
 - 대부분의 시설이 의무적 혹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운영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상태. 운영부실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역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예술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종합적 혹은 전문적인 문화예술시설에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한 만큼, 지역 내 시설에서 발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 문화시설은 설치목적에 충족시키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음

○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표준화된 시설

- 지역 간 균형배치론의 가장 큰 입장 중 하나는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에 적합한 문화적 형태와 시설을 개발하자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은 1 자치구 1 문화시설이란 입장에서 표준화된 시설로 설계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태의 시설개발

을 오히려 저해함. 즉 표준문화시설로서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구민체육센터 등을 지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개발을 저해하였다는 것이 현재 반성의 추세

- 결국 현재의 시설은 수적으로는 지역간 균형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지역간 특화와 특화에 바탕을 둔 균형성의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임
- 향후에 있어 지역별 특화를 구현하는 형태의 시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은 상태

■ 시설설치의 방향

○ 지역별 접근성을 강조하는 시설의 개발

-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족시설을 발굴하고 이에 맞게 새로운 시설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지역시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만큼, 운영부실화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어 설치단계에서부터 설치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목적에 맞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형태에서부터 운영프로그램, 운영진을 기획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시설은 방치된 시설로 남겨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 지역별 특화에 기초한 시설의 개발

- 지역균형론의 가장 커다란 입장은 지역평등론이 아닌 특화를 통해 지역간 균형성을 맞추자는 것. 따라서 지역별 특화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지역특화의 입장에서 시설을 기획하는 한편, 그에 적합한 형태로 시설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시민문화 공동공간으로서의 문화시설

- 지역별 시설의 가장 큰 의미는 고급의 예술을 발표/전시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과 주민의 문화생활, 지역 내 역사의 보존·전시 등 지역 공동체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된 것임. 이에 따라 시설의 형태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발표/전시실보다는 교육과 체험실로, 보편적 예술보다는 특수한 지역의 예술과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과도한 시설보다는 운영가능한 시설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공동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2-2. 밀집배치론 입장

■ 기본관점

○ 예술은 이미지의 산물이자 이미지 그 자체

- 따라서 예술이 소비될 수 있는 구조가 중요. 예술소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장소가 갖는 이미지. 따라서 모든 지역보다는 특정한 이미지를 갖춘 장소에서 예술이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
 - 예컨대 <예술의 전당>에서 소비되는 예술과 <지역문화예술회관>에서 소비되는 예술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 이들은 예술생산의 선도성(수월성 excellence)을 강조하며, 특정한 장르의 우수한 예술 작품 생산을 통해 시장의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 이에 따라 선도적인 예술 작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들이 발표/전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이들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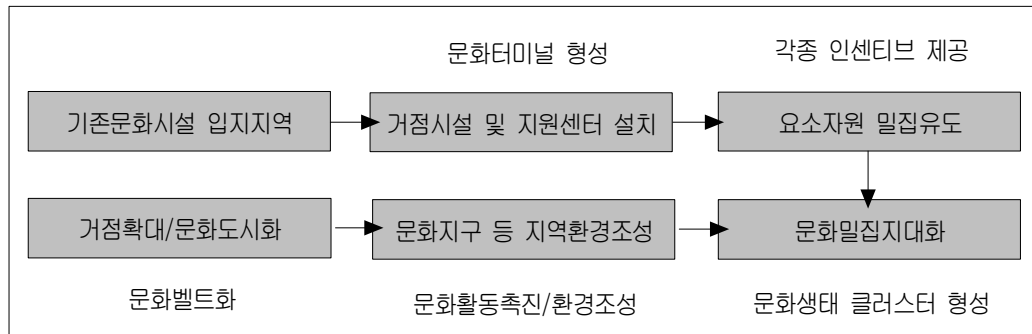
<표 4-24> 밀집지대론 입장의 문화시설 확충관점

항목	내용
관심사항	문화생태계 형성을 통한 시민문화향수권 신장
정책목표	문화적 클러스터와 생태계 구성을 통한 문화예술 시장형성
계획구역	광역권
주요정책	요소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의 보존과 육성(문화지구 정책) 거점시설을 이용한 문화자원의 밀집 장소적 이미지 구성과 랜드마크의 구성
확충정책	도심이나 문화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 설치 전문문화예술시설이나 기반시설 설치 우선

-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거점시설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클러스터를 통해 예술이 생산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한편, 예술의 소비와 시장환경을 갖추자는 것이 이들의 입장
- 밀집경제론을 강조. 문화는 응집요소를 갖춘 특정 장소에 밀집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 따라서 그 어떤 지역보다 밀집지역을 중시하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문화시설을 설립하여 예술의 생태성과 시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²²⁾

-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① 문화예술시설이 입지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변에 유사한 문화예술시설이 다수 입지해 있는가 하는 점
 - 다수의 문화예술시설이 입지해 있을 경우, 특정한 장소적 이미지를 구성하여 수요인구(관객 등) 확보가 용이할뿐더러²³⁾,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획득이 용이하며, 문화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이 커 끊임없는 지역혁신과 문화예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²⁴⁾
- ②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지역에 자원을 밀집하는 것
 - 지금까지의 문화시설 확충정책은 평면적인 측면에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하였기 때문에 지역구심을 만들기 힘들었고, 따라서 문화활동은 자생적인 시장을 갖추지 못한 채 의존적 시장으로 전락



<그림 4-11> 문화밀집지역 형성과 정책과정

- 때문에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밀집지구를 중심으로 예술시설을 집중배치하고, 이를 연결하여 문화벨트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시장을 구성하는 한편 문화적인 도시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음²⁵⁾
- ③ 이러한 지역거점을 만들 수 있는 선도적 시설은 거점시설, 지원센터
 - 거점시설은 지역 내 콘텐츠가 집적되고 유통·소비되는 창구역할을 하는 한편, 랜드마크로서 지역 이미지를 구성, 지역을 예술지구로 조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22)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시 문화예술시설의 입지형태를 조사한 이영경(1991)의 '서울시 문화예술공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연구', 민간공연시설 입지특성을 연구한 강재훈(1998)의 '민간 공연시설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자원의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욱 박사의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 활성화 전략" 등이 있음

23) 3차산업에서 다루는 산업의 입지는 대체로 균질한 지역을 상정하고 있는데, 공연예술에서는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중요시됨. 즉, 문화예술이 발달한 장소는 다른 장소와 다르게 인식이 되어 동일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수요자가 그 지역에 많이 찾아오게 되는 특성을 가짐(강재훈, '민간 공연시설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연극 소극장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21)

24) 이영경, '서울시 문화예술공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109

25) 전영욱 "도시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요약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03, pp.29~30

- 지원센터는 각 요소를 결합하고 네트워킹하여 지역을 혁신하는 한편, 끊임없는 예술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 따라서 거점시설과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터미널로서 지역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예술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²⁶⁾

■ 현황과 실태

- 이러한 밀집배치론은 문화의 시장성과 산업성, 지역 혁신성이 강조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함
 - 특히 연간 14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뉴욕의 브로드웨이²⁷⁾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한 각국이 산업적 차원에서 클러스터 형성에 주력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
- 서울 또한 다양한 지역에 예술이 밀집되는 현상을 나타내면서, 밀집지역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상태

26) 전영옥,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27) McKinsey & Alliance for the Arts, “Cultural Capital: Investing in New York's Economic and Social Health”, 2002. 3

<표 4-25> 서울시 내 문화예술시설 밀집지역

밀집요소	지역	거점 및 공공시설	밀집현황	개발정책
공연예술	대학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소극장	- 공연장 56개 입지 - 공연관련 각 대학교 학과 입지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시각예술 (미술관)	인사동/사간동 광화문 지역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세종문화회관 서울역사박물관 및 시립박물관	- 삼청동길을 중심으로 개인미술관 및 화랑 입지 - 광화문을 중심으로 각 기업미술관 입 지	인사동 문화지구지정
시각예술 (화랑)	청담동지역	없음 (고소득 소비계층)	- 갤러리 입지(대학로와 인사동 지역에 서 이전하여 밀집)	청담예술제
다원예술 독립예술	홍대지역 강서지역	홍익대학교 강서공공영상센터	- 다수의 화실입지 - 클럽(댄스클럽, 라이브클럽)입지 - 프린지네트워크, 프리마켓 등 다수의 문화활동 입지	홍대/신촌 문화지구 지정추진
영화예술	충무로지역	전통적인 영화관 입지 충무로 영상센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전통적인 제작 및 배급사 입지 - 현재는 강남지역으로 다수 이동 중	청계문화벨트
	강남역 주변	멀티플렉스 입지 서울벤처타운 입지	- 신흥 제작 및 배급사 입지	
영상/미디 어 예술	목동지역	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센터 예술회관(건립중)	- 다수의 방송시설 입지 - 여의도 중심에서 제작부문 이동 중(강 서구 및 양천구 목동지역)	상암DMC추진 구로디지털 산업단지

<표 4-26> 밀집지구 중심의 국가 문화정책 변화과정

	1980년대까지	1990년대	2000년대
정책중심	문예기반확충정책	문화복지정책	밀집지구조성정책
정책초점	상징적 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문화시설 확충	밀집지구에 대한 지원과 문화지구 조성
정책사례	국립문화시설 건립	지역문화시설 건립 지원	문화지구 조성 문화중심도시 건설
정책목표	이데올로기적 실천	문화복지적 문화서비스 제공	예술의 창작성과 성장기반 조성
관련정책	창작지원사업 실시	문화산업에 대한 중시	창작기반 조성

- 대학로 지역은 이미 문화지구로 지정(2004. 5)되었으며, 홍대지역 또한 밀집지구로서 문화지구 지정이 예정된 상태
- 인사동과 사간동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청담동을 중심으로 한 갤러리,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상예술 등 각 지역별로 밀집된 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특화된 형태의 지역혁신체계를 만들려는 것이 최근의 움직임
- 국가 정책 또한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점차 밀집지구를 정책으로 이 전해 오고 있는 상태. 매 시기별 국가가 취한 문화예술정책의 중심을 살펴보면 <표 4-26> 과 같음

■ 시설확충 방향

-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문문화예술시설 및 지원센터 건립, 지역별 특화와 균형성 달성
 - 각 지역별로 특화된 유형의 밀집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 특히 대학로, 인사동/사간동, 청담 지역, 홍대지역, 강서지역, 충무로 지역, 강남역 주변, 목동 지역 등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전문문화예술시설 및 지원센터 등 예술시장 창출과 지역이미지 형성을 목적으로 한 문화시설 설치 필요
- 밀집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예술축(art axis)의 형성
 - 각각의 밀집지역이 상호연계를 갖고 형성되는 만큼, 밀집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축 상에서 관련 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예술축 형성
 - 예술축을 중심으로 문화의 시장성과 생태계를 형성하는 한편, 각종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문화적인 도시 이미지 형성
 -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마케팅의 실현과 문화적인 도시경쟁력 확충

3.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개발방안

3-1. 시설형태와 규모

- 시설의 형태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술의 시장성을 강조하는 전문화·특성화·상징화 된 시설의 건립을 주장하는 시장형성론 입장과 시민문화권 입장에서 접근성을 선호하는 복합화·융합화의 기반시설론 입장으로 대별
 - 전자의 입장은 밀집지대에 광역권 형태의 시설을 중시하는 반면, 후자의 입장은 생활권 형태의 소규모 시설 선호.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장형성론 입장

○ 시장형성론 입장은 문화예술의 시장성과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 강조

- 문화예술은 공공재화(public goods)의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점차 경제재화(economy goods)화 되어가는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 이들은 ‘품질’을 떠나 ‘품격’을 중시하는 시대에 있어 문화예술은 단지 소비되는 것이 아닌 생산적인 활동을 창출하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주장
 - 삼성경제연구소는 “산업화로 접어든 공연예술”이란 보고서 통해, ‘오페라의 유령’ 성공 이후 한껏 상승된 공연예술의 산업화 바람을 고찰하며 이제 막 맹아적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공연예술 산업을 위해선 전용극장의 건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²⁸⁾

<표 4-27> 서울의 거점문화시설 및 전문문화예술시설

구분	설립주체	시설규모 및 구성	성격 및 운영형태
거점 시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대극장 3075석, 소극장 442석	- 서울시교향악단, 서울시국악단, 서울시극단, 서울시뮤지컬단, 서울시합창단, 서울시무용단, 서울시오페라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의 전속단체를 보유 - 1999년 민영화
	예술의 전당	정부 (문화 관광부) 콘서트홀 2600석, 토월극장 710석, 자유소극장 300~600석(가변식) 리사이틀홀 400석	-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으로 출범 -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코리아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입주기관 - 상시 고용인원은 100여명, 아웃소싱한 계약직은 2~300여명
	국립극장	정부 (문화 관광부) 해오름극장 1,522석, 달오름극장 454석, 별오름극장 100석(가변식), 하늘극장 600석(야외무대)	-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4개의 전속단체를 보유 - 75명의 정규직원과 220여명의 계약직 단원 -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2000년 1월에 책임운영기관화 됨
전문 예술 시설	LG아트센터	민간 1,103석	-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를 초청 공연 - 국내 예술단체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레파토리 개발과 국내 공연작품에 대한 관객 확대 노력
	한전아트센터	민간 999석	- 문화예술공연의 보편화, 고급화, 글로벌화를 지향
	정동극장	민간 400석	- 전통예술의 발전과 보급, 생활속의 문화운동 전개, 청소년 문화의 육성을 지표로 하여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28) 고정민, “산업화에 접어든 공연예술”,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시장 거점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대규모 거점시설 설치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유형의 거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이르기까지 국가의 다목적 행사용으로 건립된 시설로서 가치 없는 시설
 - 지금은 예술적 관점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국제적인 문화활동을 교류할 수 있는 형태의 거점시설 설치 필요
 - 더구나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이므로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시설 설치가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거점이자 세계문화의 교류지(portal city)가 될 수 있는 문화의 시장환경 창출 필요

■ 기반문화론

- 시장기반의 형성은 거대한 예술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다양한 향수계층에서 나오는 것. 따라서 대규모 예술시설보다는 소규모의 다양한 유형의 시설설치가 필요
 - 문화란 생활세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일상성과 삶 속에서 문화가 나와야 하며, 이로부터 문화를 소비하고 향수하는 욕구가 나올 때 진정한 문화의 생산기반, 시장여건이 갖추어 진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 따라서 거대규모의 시설설치보다는 생활권 단위의 군소형 시설설치를 중시
- 시설의 형태는 복합화·융합화, 다기능화된 형태로
 - 시민의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서비스 제공과 문화활동 창출이 필요
 - 따라서 문화시설은 복합화·융합화된 형태로 건립되어야 하며, 창작기능과 교육기능, 전시기능, 지역문화 보존 및 전달 기능을 갖춘 형태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의견
- 창작기능과 교육기능의 융합을 통한 지역문화기반 조성 및 커뮤니티 형성 필요
 - 지금껏 지역별 시설이 잘못 운영된 것은 문화기반 형성이란 관점이 아닌 지역별 시설확충이란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
 - 따라서 지역문화기반 조성이란 차원에서 창작기능과 교육기능을 융합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기반형성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여 두 입장을 비교분석하면 <표 4-28> 과 같음

<표 4-28> 문화가치론 차원에서 바라본 문화시설에 대한 관점

구분	시장형성론	기반문화론
기본관점	문화의 시장형성 경제재화로서 문화의 시장적 가치 실현	문화의 생활화 공공재화로서 문화의 일상화·지역화·공간화
주요시설	거점시설 전문문화예술시설	커뮤니티 시설 지역문화교육 시설
시설입지	중심지	각 생활권
시설구성	전문문화시설의 복합공간화 주변지역 클러스터 형성	공공시설의 복합화 요소를 결합한 복합시설
대표시설	예술의 전당 등 국립시설 뮤지컬 전용극장 등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시설 창작촌과 교육시설의 융합 등

3-2. 시설건립 주체

■ 공공책임론

- 문화예술은 공공재화라는 입장에서 문화가 공공재화인 만큼, 공공에서 책임지고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민간에 의존할 경우, 지역간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의 경우 민간에서 설치하기란 요원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 이에 따라 직접 건립하든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문화시설 건립을 독려하든 공공이 나서서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 민간동원론

- 공공이 모든 시설을 건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없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오늘날 문화는 단지 공공적인 재화가 아니라, 산업화·상업화의 대상으로서 산업적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 기본입장. 즉 과거의 문화적 지원이 ‘메세나’적 성격(기증과 기부)을 띠었다면, 오늘날에 있어 문화적 지원은 ‘투자’(investment)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 문화시설은 산업적 생산성이나 목표를 가지고 운영(경영 management)되어야 하는데, 공공에서 건립할 경우 보편적 서비스 입장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

<표 4-29> 시설건립주체에 대한 입장차이

구분	공공책임론 입장	민간동원론 입장
기본관점	- 공공재화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	- 경제재화로서 민간이 건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
장점	- 다양한 문화예술 창구로서 기능 = 문화적 종 다양성 실현 - 저렴한 문화예술가격 설정 = 문화에 대한 접근성 제고	- 효율적인 시설운영 -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객확대
단점	- 문화시설에 대한 비효율적 운영 및 관리 - 관객참여 저조 - 과다한 재정비용 발생	-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상업적 활용 - 저소득 계층 및 비주류 문화에 대한 접근성 차단 = 문화의 종다양성 상실 - 편향적 시설확충
대표시설	- 국공립시설 - 기반시설	- 전문문화예술시설 - 대중문화예술시설

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 따라서 공공적 차원의 문화시설 건립보다는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설령 공공에서 건립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자원이 투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
 - 공공적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건립보다는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3-3. 건립방식

■ 복합화·융합화 방식 - 센터형 건립방식

-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주민접근성을 위해서는 복합화·융합화 설치가 바람직
 - 그러나 복합화·융합화의 경우, 시설 간 성격 차에 따라 운영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을 제기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각 유형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공시설과 융합화 방안

- 가장 일반적인 추세이나 이는 관리의 편의성만 제공할 뿐, 문화시설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는 비교적 권장할 수 없는 형태

- 공공시설 내 방문자와 문화시설 내 방문자 사이에는 방문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관리의 성격상 엄숙주의를 표방하는 공공시설과 활력을 강조하는 문화시설은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융합화 설계 시 신중한 검토 필요

○ 문화시설 간 융합방안

- 문화시설 간 관련요소를 융합하는 방식
-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공연장과 전시장, 교육시설 등을 융합하는 장르 간 융합방식은 각 장르 간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어 경계해야 할 대상
- 오히려 문화시설 간 융합방식은 요소융합방식으로 창작시설과 교육시설, 발표/전시시설, 보존/전수 시설 등을 수직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바람직

○ 상업시설과 융합방식

- 업무용 시설이나 상업시설 내에 문화시설을 입주시키는 방식
-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예술을 창출시킨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방식
- 그러나 시설설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

○ 생활 속 융합방식

- 주거지 내 주택 등에 문화시설을 입주시키는 방식
- 생활 속 예술을 창조하는 특성은 있으나 시설규모가 지나치게 작을 수밖에 없어 운영프로그램이나 엄밀한 계획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시설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시설의 확보 - 리모델링 방식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문화시설 건립방식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식
- 리모델링의 장점은 ▷시설설치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흉물을 명물로 바꾸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소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고, ▷지역 재생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임
- 그러나 이는 선진국의 예로, 우리나라의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

예술의 다리 (Le Viaduc des Arts) 사례

- 프랑스의 경우, 구(舊)건축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화시설 개발
 - 국립영상센터(CNBDI)의 경우 술공장을, 파리시 오르세이 (Musee d'Orsay) 미술관의 경우 철도역사를, 라 빌레트(Lavillette)의 경우 도살장을, 베르시공원(Parc de Bercy)의 경우 철도역사와 화물창고를 리모델링한 사례임
 - 이중 고가철교 하부를 이용해 예술공간을 개발한 '예술의 다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859년에 파리 바스티유에서 파리 외곽의 뱅센느(Vincennes)를 연결하는 철로를 위해 조성된 고가다리를 리모델링하여 예술공간으로 활용
- 1859년에 건설된 '예술의 다리'(당시 이름 : 파리 고가교)는 전체 길이가 4.5Km에 달하는 고가다리로 1969년부터 활용되지 않아 도심 흉물로 존재
 - 1988년부터 몇몇 전문가에 의해 활용에 대한 논의 시작
- 파리시청은 이 다리를 창작과 예술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노력
 - 장인과 예술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상판 아래 부분의 교각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 각 기둥사이의 아치부분의 시공은 세마스트(SEMAST) 사무소에서, 건축은 파트릭 베르제(Patrick Berger)가 담당하여 설계
 - 주홍색 벽돌과 석조를 사용하고, 전체 전면에 유리과 목재로 장식하여 전체적인 통일감 부여
- 오늘날에 있어서는 파리의 명물로 등장
 - 도시흉물을 명물로 바꾼 대표적 사례



아틀리에 평면



아틀리에 모습

<표 4-30>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 확충사례

기본입장		- 신축설치보다는 기존의 건물이나 공장, 다리, 교통시설 등을 활용
장점		- 저렴한 건축비용으로 효율적인 문화시설 확충 가능 - 기존 건축물의 정비와 주변지역 정비효과 - 저렴한 임대료를 통한 비주류 및 보호가 필요한 문화시설 입주 가능
단점		- 건축물 안정성에 대한 진단필요 - 재개발 시 이전으로 인한 시설유지의 불안정성 발생
사례	해외	-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발틱 미술관 - 프랑스의 국립영상센터 - 미국의 켈시지역 화랑 및 미술품 경매장
	국내	- 1990년대 후반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설치
가능시설		- 공장 및 발전소, 다리의 교각 사이, 역과 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등
대상사이트		- 마포 화력발전소, 구로공단 지역 내 공장건물, 홍대 주차장도로 내 건축물, 철거대상인 고가도로, 청량리역 등 역사 및 터미널
시사점		- 예술시설은 깨끗한 것보다 활용가능한 시설을 선호한다. -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능한 시설물을 확보하라. - 철거 시 존치지역 내 시설물을 활용하라. (구형 주택을 활용한 문화시설 설치) - 이전 시 남는 시설물을 활용하라. (미 8군 기지를 활용한 창작촌 및 스튜디오 활용, 행정수도 이전 시 광화문 내 주요 정부시설물 활용) - 고가도로 등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라. (예술가로의 조성) - 역과 터미널 등 시민밀집지역 내 가용공간에 주목하라. (대중문화시설의 설치)

4. 소결 : 관점의 종합과 확충 방향 설정

4-1. 관점의 종합

■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방식에는 크게 예술시장론과 문화기반론으로 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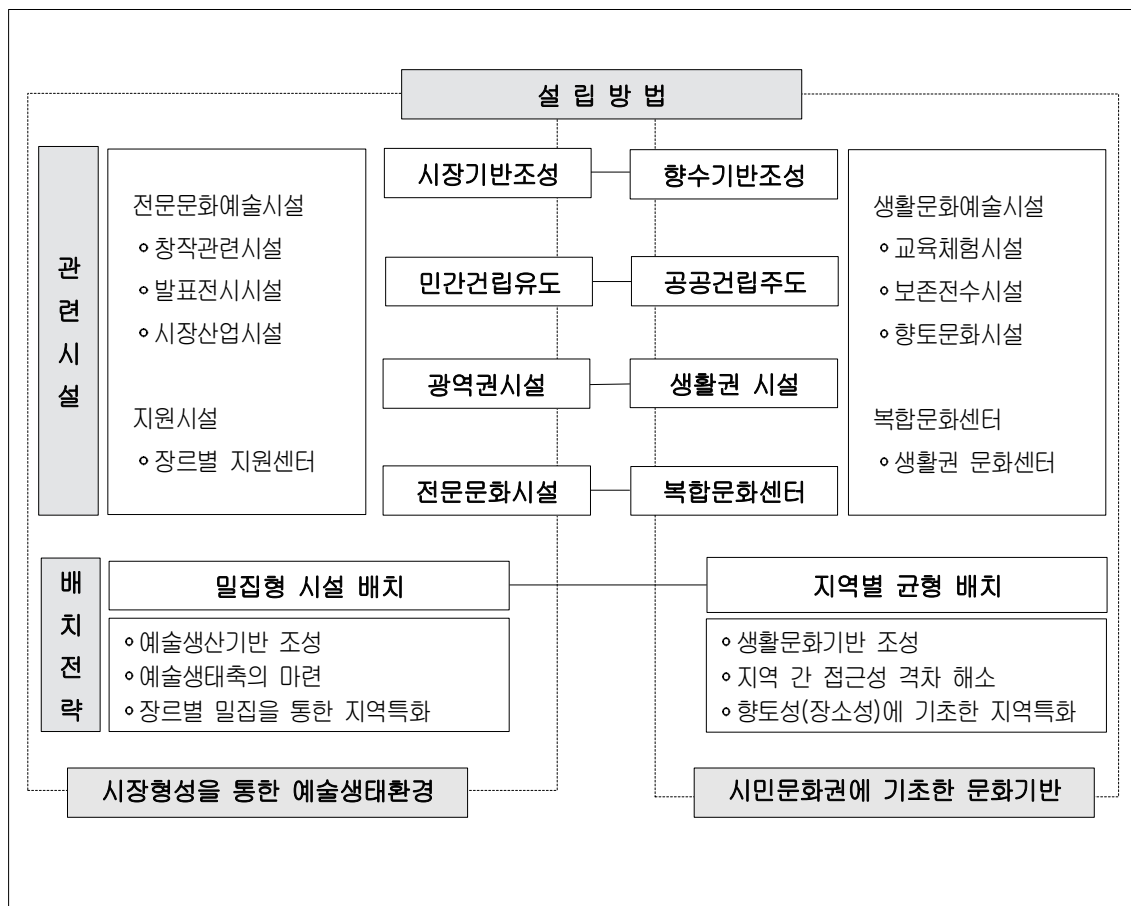
○ 예술시장론은 예술의 생태성과 시장성, 중심지로의 밀집성을 강조

- 주요관점으로는 예술이 자연스럽게 생산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유통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 지역별 분산설치보다는 중심지대이론에 기초하여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예술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 밀집지대형성, 예술축의 구성,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예술시장 네트워크 구성 등을 강조
- 도시의 역할은 예술이 특정 지역에 밀집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혁신 및 예술창작지구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입장 견지

○ 문화기반론은 예술의 시장형성은 다수의 문화향수계층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

- 문화기반 창출을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라서 거점지역보다는 생활권별 시설 건립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
 - 지역별 접근성을 강조하며, 시민문화권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견지
 - 고급의 예술교육을 위해 생활권별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창작과 교육을 연결함으로써



<그림 4-12> 문화기반시설 확충전략 (각 입장 종합)

실질적인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다른 한편, 지역별 장소성과 역사성에 기초한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을 특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별 특화된 문화권을 형성, 지역간 균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따라서 장소성에 기초한 특화된 형태의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며, 이 경우 문화시설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시설형태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법(리모델링 포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림 4-12> 와 같음

4-2. 확충방향 설정

■ 시설의 종류 설정

- 예술생태론 입장에서 창작기반시설과 전문문화예술시설, 지원센터 등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시설설치
 - 공연장, 전시장 등 발표시설보다는 생산과 유통, 소비, 보존의 선순환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 필요. 특히 예술창작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예술이 자연스럽게 생산될 수 있는 환경 창출 필요
- 다른 한편 생활권 문화시설은 문화교육과 체험,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특수한 형태의 시설로 건립
 - 생활권 문화시설은 현재와 같이 발표중심 시설로 건립되어선 안 되며, 생활권의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교육과 체험시설로 건립
 -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예술교육을 위해 창작시설과 융합한 형태의 시설로 건립
 - 다양한 지역예술프로젝트 추진

■ 시설입지 설정

- 밀집지역 중심으로는 예술전문시설 설치, 생활권을 중심으로 창작시설 및 교육시설 입지
- 밀집지역과 생활권을 네트워크화하는 축(axis) 개발
 - 관련축 상에 있는 문화예술시설을 생활권 내로 유치하여 생활권 시설을 강화하는 한

- 편, 생활권 시설을 특성화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로 활용
- 예술과 교육이 공존하는 시스템 마련

■ 개발방식 설정

- 밀집지역은 시장성을 중심으로, 생활권은 기반성을 중심으로 설치
 - 전문문화예술시설은 민간자원을 동원하거나 민간의 건립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생활권 문화시설은 공공적 건립방식에 민간운영방식을 접목하는 형태로 개발
 -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시설의 형태는 요소를 통합한 형태의 복합화·융합화된 시설로 개발
 - 문화시설에는 요소의 밀집이 중요, 장르별 통합은 지양하고, 요소를 통합하는 형태의 시설 건립

<표 4-31> 주요문화시설물의 설치방법

구분	대상시설	주요시설
확충시설	문화기반시설	- 창작촌, 스튜디오, 연습실, 지원센터, 보관소 등
	전문문화예술시설	- 전용공연장, 전문전시장, 장르별 아카이브 등
	시장화·산업화 관련시설	- 컨벤션 센터, 아츠 마켓, 박람회 장 등
	생활권 문화시설	- 문화교육시설, 향토문화보존 및 전수시설 등
시설배치	지역균형시설	- 커뮤니티 관련 생활권 시설, 영화관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대중문화시설
	밀집지역시설	- 거점 및 상징문화시설, 전문문화예술시설, 공연기획사·화랑·지원센터 등 권장사업 및 공공용도 시설
설치주체	공공책임설치	- 거점 및 상징문화시설 - 상업적으로 운영이 곤란한 전용상영관 등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시설 - 지역 커뮤니티 관련시설
	민간자원활용	- 상업적·대중적 용도의 문화예술시설(전용공연장) - 영화관 등 대중문화관련 시설
개발방식	전문화	- 전문문화예술시설
	복합화	- 창작시설과 지역시설의 융합 - 요소 간 융합을 통한 시설 내 요소자원 밀집 유도
	민간시설 활용	- 현재 민간문화시설의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시설확충 - 공공에서 건립한 후, 예술전문가들에게 운영 위탁
	지역상징성의 창출	- 장소성이 창출될만한 시설로 건립(외관은 상징적, 내부는 BlackBox로) - 가능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재활용하는 장소성 개발전략 필요

○ 새로운 장소성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개발

- 문화시설은 그 자체로서의 내부편익뿐만 아니라, 지역과 장소를 개발하는 외부편익을 지니고 있는 시설물. 이에 따라 장소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 다양한 형태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외관은 상징적으로, 내부는 모든 유형의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설립(BlackBox형)하는 것이 바람직

제5장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

제5장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

제1절 기본방향 구상

1. 방향설정

■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의 기본적 검토요건은 예술시장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위치와 도시정부로서 서울시 역할

○ 예술시장에 있어 중심지대 형성

-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으로서, 거의 모든 문화자원이 밀집되는 지역. ‘지역문화육성’이 정책의 테마가 될 정도로 서울과 지방은 인프라와 예술인, 문화행사 및 활동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
 - 예술분야에 속하는 미술, 양악, 연극, 무용 등 전체 문화예술행사의 45.5%가 서울에 밀집
 -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건립해야 함

○ 지방정부로서 서울시 역할

- 서울시는 지방정부이므로 행정상의 위계에 따라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 원칙
 - 서울시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표 5-1> 문화예술행사의 서울집중률

구 분		서울(a)	전국(b)	a/b(%)
행사	미술	3,299	6,388	51.6
	국악	789	2,076	38.0
	양악	2,251	4,957	45.4
	연극	556	1,658	33.5
	무용	297	742	40.0
	총계	7,192	15,821	45.5

자료 : “2002 문예진흥연감”, “2002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부록” 등 참조

<표 5-2> 시설건립에 있어 서울시의 위상과 역할체계

설립주체	사업중심	추진방향	추진역할
중앙정부	전문문화예술시설 건립	장르별 균형 확충 노력	설치주도
	중·대규모 거점시설 건립	예술시장 기반 조성 노력	
서울시 (광역)	거점시설 및 전문시설 건립	도시계획적 차원의 시설입지 선정 시설설치를 위한 제반조치 협력(건립비 보조)	종합계획 수립
	생활권별 문화시설 건립	시설건립비용 지원	설치협력
자치구 (기초)	생활권 문화시설 건립	지역별 문화기반 및 지역문화환경 조성 - 서울시와 협력	설치주도
민간	전문문화예술시설 건립	상업적 예술시설 건립·운영 - 관련기관과 협력	설치주도

- 서울시의 역할범위 내에서 각 기관(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목표체계의 구성

- 이상의 위계와 역할에 따라 목표체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간 격차의 해소

- 현재 서울시 문화시설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각 지역 간 다양한 격차 - 문화시설 총 수/ 실질적인 문화활동의 중심역할을 하는 전문문화예술시설 수 - 가 발생하는 만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시설확충 정책 마련

<표 5-3> 권역별 전문문화예술시설 개소수

권역	전체 시설수	전문문화예술시설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화랑 포함)
도심권	593	23	82	141
동남권	326	19	23	86
동북권	149	8	12	4
서남권	133	12	7	3
서북권	91	6	5	11
계		68	129	245

○ 예술시장기반 마련

- 어떤 이유에서거나 서울은 전국을 포괄하는 문화중심지이자 세계와 교류하는 창구로서 역할
- 문화중심지로서 예술이 창작되고 생산될 수 있는 예술시장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형태의 시설 확충 필요
 -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양식에 맞는 예술시설 확충 필요

○ 문화권의 확대와 삶의 질 기반 향상

- 행정체계상 서울은 지방정부이니만큼, 지역적 차원에서 시민의 문화권을 향상하는 데 주력
- 각 지역별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예술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 확충

○ 지역문화의 보존과 전수

- 지방정부로서 각 지역별로 특화된 형태의 문화현상을 보존하는 한편, 이를 중심으로 지역이 장소적 이미지를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 지역별로 특화된 형태의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의 보존·전수에 노력

2. 전략구상

■ 시설배치구상

○ 지역별 특화를 통한 균형목표의 달성 및 예술시장 형성 노력

- 문화시설확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 지역별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시설을 배치하는 것. 그러나 단순히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치하는 것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²⁹⁾. 중요한 것은 지역간 균등한 배치가 아니라, 지역간 특화를 통한 균등한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 즉, 낙후된 이미지 없이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문화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 그와 같은 차원에서 막연한 시설확충보다는 다음과 같은 전략 하에서 시설을 입지시키는 정책 필요

29) 제4장 제1절의 각종조사결과 참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의 향수의 제약요인은 접근성의 문제보다는 ▷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의 문제(문화자본)에 깊게 자리잡고 있고, ▷프로그램의 질과 비용의 문제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4> 지역간 균형지표

지표	지표설정	측정방법
절대지표	해당지역에 얼마나 많은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인구대비 시설 (수/면적/좌석수/장서수) 면적대비 시설 (수/면적/좌석수/장서수 등)
다양성지표	해당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각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율
특화지표	해당지역에 얼마나 특화된 특정한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가?	밀집에 따른 특화정도 문화적 이미지 구성정도

▷ 밀집지역에 대한 배려 : 각 장르별로 특정한 지역에 밀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을 보존·유지·확대하는 관련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이 특화되도록 유도

▷ 특정 장소에 대한 배려 : 지역 간 특성을 나타내는 장소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문화를 보존·육성할 수 있는 형태의 특화된 시설 배치

-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각 지역이 특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편에서는 균형목표 달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예술시장 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예술축(cultural axis) 구성을 통한 장르별 연관네트워크 구성

- 각 장르별로 하나의 축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을 축으로 연결하여 장르별 지역연관네트워크 구성

◦ 각 축상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간 흐름 속에서 자연스런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설배치

- 다양한 예술축을 바탕으로 권역별 문화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예술과 지역이 결합하는 문화도시 건설

○ 발표전시는 밀집지역으로, 창작과 교육은 생활권으로

- 현재까지의 전략은 각 지역별로 발표/전시시설을 확충하는 전략. 이와 같은 전략은 문화예술 자체에 접근이 어려운 지방(수도권 외 지역)에는 가능한 방식이지만, 도시교통체계에 의해 손쉽게 접근 가능한 서울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방식

◦ 서울시민의 경우, 이미 나름대로 문화예술행사(발표/전시)를 관람한 경험이 있어 지역 문화시설에서 발표/전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가 낯설 수 밖에 없으며,

◦ 공연이나 전시단체 또한 중심지(밀집지역 등)에 사용가능한 시설이 있어 작품의 이미

지와 품격 관리상 지역문화시설에 발표/전시를 꺼리는 입장

- 문화예술은 그 성격상 시장수요를 따라 지역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각 지역문화시설보다는 밀집지대 혹은 중심지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따라 발표/전시시설은 밀집지역에 배치하고, 창작과 교육시설은 생활권에 위치시키는 배치방법이 필요
- 생활권 내 시설에 창작과 교육시설을 위치시킴으로써, 생활권 시설의 프로그램 질을 제고하고, 관련 문화예술인의 부족한 창작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필요

■ 시설개발구상

○ 장르별 특화와 전문성 제고

- 종합공연장 형태의 다목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 각 시설이 전문적 장르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 또한 ‘예술의 전당’ 등과 같은 복합타운 형태보다는 생활 속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소규모의 전문예술시설로 개발
 - 복합타운 개발 시, 현재처럼 공공이 모든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보다는 거점시설은 공공이 확보하되 민간시설 및 관련 자원요소(유기적 연관산업 및 상업활동)가 주변지역에 밀집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 요소간 복합화·융합화의 추진

- 현재와 같이 상이한 부문(발표와 전시)을 통합하는 형태의 복합시설보다는 하나의 장르 내 각 요소(창작~발표/전시~교육/체험~커뮤니티 등)가 통합된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개발. 즉 부문통합방식에서 요소통합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필요
 - 이를 통해 하나의 시설에서 하나의 장르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필요
- 문화예술교육이란 여러 장르 간 체험이 아니라, 하나의 장르라 할지라도 예술적 욕구와 기호를 느낄 정도로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데서 출발. 따라서 창작에서부터 발표/전시, 교육, 커뮤니티 등을 융합시킴으로써,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영역으로서 문화시설 개발 필요

■ 확충방식구상

○ 공공과 민간의 협력

- 공공적 차원에서 모든 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민간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여건 및 환경 조성
 - 지역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수용하는 방식이나 인센티브 제공방식, 토지 등을 공공이 제공하고 민간이 시설을 건립하는 파트너십 방식 등 다양한 방식 제고 필요
 - 가능한 민간이 시설을 개발하되,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개발 및 지원체계 구성

○ 지나치게 많은 시설보다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충

- 지나치게 많은 시설은 운영부실화를 낳을 수밖에 없음
 -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문화시설 - 지방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문화의 집 등
 - 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시설관리를 지자체가 담당하는 관리운영체계상 문제도 있지만, 운영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확충에도 문제가 있음
 - 시설운영을 위한 기획자의 양성, 예술프로그램의 육성, 프로그램 참여 예술가들의 육성 및 그에 상응하는 보수체계의 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운영정상화가 어려움
- 이에 따라 운영가능한 여건 내에서 시설을 확충해가는 방식이 바람직
 - 운영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개발하여 각 커뮤니티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식 또한 고려 필요

제2절 계획여건 검토

1. 상위계획 검토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 계획³⁰⁾

1-1. 사업개요 및 개발방식

■ 개요

- 서울의 균형발전 및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총 15곳의 뉴타운사업과 5곳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추진(총 20곳)
 - 향후 10곳을 뉴타운으로 새롭게 지정(2차 뉴타운)하여 총 3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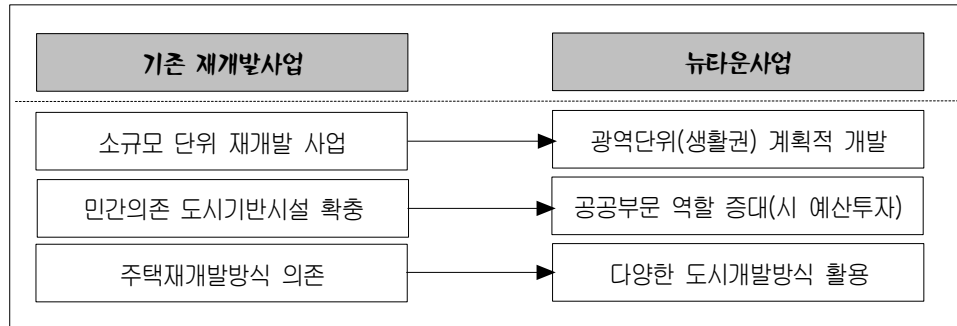
30) 본 계획은 서울시가 발행한 “강북뉴타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한 것임(서울시, “강북뉴타운 어떻게 할 것인가”, 2004)

<표 5-5>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대상지 현황

사업명	대상지	지정사유
균형발전 촉진지구	미아지역중심	- 서울 최대의 낙후지역 -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적 정비 절실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상업·업무기능 신속대응
	청량리부도심	- 민자역사 건립을 계기로 집중개발 필요 -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에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
	홍제지구중심	- 지역 정비 및 배후시설 개발 - 서북권 교통요충지인 홍은사거리 개선차원에서 적극 고려
	합정지구중심	- 상암지역 DMC개발 및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 압력에 효율적 대응
	가리봉지구중심	- IT 신산업단지로서 산업적 전환 - 배후기능 확보 필요성

<표 5-6> 뉴타운사업 대상지 현황

사업명	사업성격	대상지	지정 사유	
뉴타운	시범사업	길음	보행중심의 녹색타운 건설	기본계획 수립완료
		은평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	
		왕십리	청계천 복원과 연계하는 도심형 커뮤니티 조성	
	2차 지정	종로구 평동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도심형
		용산구 이태원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중심형
		동대문 전농동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중심형
		중랑구 중화동	중랑천변 상습침수지역	주거중심형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이 진행중인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중심형
		서대문 남가좌동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기반시설 취약지역	주거중심형
		마포구 아현동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기반시설 취약지역	주거중심형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 밀집지역	주거중심형
		양천구 신정동	철거민 이주단지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중심형
		강서구 방화동	재해위험지역	주거중심형
		동작구 노량진동	기반시설 열악 및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중심형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세공장 및 재래시장 입지 지역	도심형



<그림 5-1> 기존 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 개발방식

○ 종합적 도시계획 방식으로 추진

- 동일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으로 대상 지역을 하나의 개발지구로 묶어 도시를 개발
- 기존 도시개발 방식과는 달리, 통합적이고, 계획적이며, 총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차이. 새로운 도시여건에 맞춰 도시기반시설 재정비
- 이에 따라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개발된 도시여건에 따라 그에 적합한 문화시설 설치가 필요해진 상황
 - 각 대상지별로 어떤 문화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제기됨

1-2. 뉴타운사업과 문화시설확충

■ 계획추진 현황

○ 각 뉴타운별로 현재 대상지별 문화시설 설치 계획

- 각 뉴타운별로 기본구상단계에서 최소 1개~최대 4개의 문화시설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
 - 그러나 각 문화시설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되지 않은 상태
- 따라서 시설개발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 고려가 없는 상태로, 이대로 추진될 경우 올바른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 이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문화시설 설치방안 모색 필요

<표 5-7> 뉴타운 계획내용

이름	위치	면적(㎡)	계획의 목표	개발의 방향	인구계획 (주택공급)	문화관련계획	사업방식
길음	성북구 길음동 624, 장릉동 192번지 일대	950,000 (약 287,000 평)	보행중심의 녹색타운	- 참여복지실현을 향한 주거중 심 뉴타운 - 도시환경관리 및 자연환경 복 원을 향한 뉴타운 - 도시공공서비스 기능을 갖춘 자족형 뉴타운	- 세대수 : 14,100호	- 생활권 단위별로 필요한, 공공성 이 강한 시설을 배치 - 정보도서관, 소극장, 다목적홀, 문 화강좌실 등 신설계획	-
은평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일대	3,593,000 (약 1,087,000 평)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	- 리조트형 전원생태도시 조성 -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니티 조성 - 주거 수준의 질적 제고	- 세대수 : 14,000호 내외	- 기존의 은평노인복지회관과 인덕 원 종합복지관 존치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4개소 계획 - 복합화를 통한 자족적 도시편의성 제공	-
왕십리	성동구 왕십리동 440번지 일대	337,200	창계천 복원과 연계하는 도심형 커뮤니티	- 도시의 역사적 의미와 주변과 의 맥락유지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쾌 적한 주거환경	-	-	-
교남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215,000 (65,037평)	인왕산 숲길에서 만나는 역사·문화 도심 뉴타운	- 인왕산 숲을 도심 주거 생활 안으로 - 서울 도심 역사문화 환경자 산 확충, 시민의 접근성 확보 - 보행중심 도심주거거점 조성	- 세대수 : 2,600호 - 인구수 : 7,000인	- 서울성곽복원 - 서대문(돈의문)복원 - 정동문화벨트 - 역사문화축과 주거 및 상업의 연 계 - 문화광장 : 경화궁, 정동문화벨트 와 성곽북원의 연결점으로서 기존 문화시설과 교류	-
한남	용산구 보광·한남 ·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1,095,800	더불어 사는 風·水景의 녹색문화도시	- 언덕 위의 풍경도시 - 아국의 정취가 있는 문화도시 - 만남과 휴식이 있는 문화도시 -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있 는 교류도시 - 더불어 사는 감성도시	-	- 국제적인 축제의 거리 조성 - 다양한 국제문화의 관광지원화 및 지역 연계 강화 - 사이버 문화공간의 제공 - 걷고싶은거리 조성으로 문화·상징 공간 제공	-
방화	강서구 방화동 609-201 번지 일대	627,500 (189,819 평)	에어포트 타운 - 서울의 서측관문 - 전통속에 피어나는 국제감각	- 공항복합타운 : 김포공항과 마곡지구의 배후기능,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 - 관광타운 : 지역문화를 관광 요소로 특화,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 건강문화타운 : 테마가 있는 주거단지, 재해위험요소를 해소 한 주거단지	- 세대수 : 8,500호 - 인구수 : 21,500인	- 생활권 따라 배분된 공공문화시설 의 복합화 ◦공원 내 문화시설(1개소) : 도서 관, 실내체육시설, 문화체험시설, 컴퓨 터 네트워크(건강마당) ◦광장주변 문화시설(1개소) : 도서 관, 중앙광장과 연계된 공간 전시 공 간	도시 개발 사 업
영등포	영등포구 영등포동 5, 6, 7가 일대	260,162 (약 78,699평)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 부도심 “아날로지탈 타 운 (Analogital Town)	- 여의도 업무수요 유치 - 시장기능의 활성화 - 신개념 도심형 주거단지	- 세대수 : 약 2,500호 - 인구수 : 약 7,000인	- 문화광장 : 정보문화센터, 전시장 - 문화시설(1개소) : 문화광장과 연 계한 공간 전시시설 복합화	도시 환경 정 비사업

<표 5-7> 뉴타운 계획내용 (계속)

이름	위치	면적 (㎡)	계획의 목표	개발의 방향	인구 계획 (주택공급)	문화관련 계획	사업방식
한내	중랑구 중화동, 목동 일대	510,517 (154,431 평) (추가편입 제안)	한내와 함께하는 물과 젊음의 미래도시	- 한내의 혜택을 누리는 수해 (水害)없는 수혜(水惠) 도시 -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젊은 뉴타운 - 생활이 즐겁고 편한 녹색의 뉴타운	- 세대수 : 약 18,000 호 - 인구수 : 약 43,600 인	- 문화시설 1개소 - 사회복지시설 1개소(학교와 복합 화) - 생활가로와 행정문화여가축의 결절점에 문화시설 계획 - 전사·공연기능과 생활가로의 커뮤니티 기능 연계	도시개발법/ 도정법 중 검토
미아	강북구 미아6동, 7동 일대	916,752	행복마을 미아뉴타운	- Upgrade-mia - Green-mia - Welfare-mia	- 가구수 : 17,400호 - 인구수 : 42,000인	- 문화시설(4개소) ◦ 광역거점 공공도서관 설치 ◦ 자립형 사립고 및 송천초교 복합 화(체육관) - 커뮤니티센터 내 복합화 설치(문 화센터) 2개소	주택재개발 사업
가좌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번지 일대	1,649,885 (약 500,000 평)	미래의 지구촌과 대화하는 푸른마을	- 교육생태도시 - 자연형 녹색도시 - 첨단산업 지원도시	- 세대수 : 약 33,200 호 - 인구수 : 약 76,400 인	- 교육·문화·공공시설 축(e-belt) 조 성 ◦ 문화공원 : 문화시설이 위치, 예술 공원(조각정원 분수정원 아와공연 장) ◦ 문화시설(1개소) : 문화센터, 공연 시설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 - e-business(small DMC : 소규모 문화콘텐츠 생산	- 문화공원 : 주택재개발 사업 - sDMC : 도시 개발 사 업
이천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1,156,000 (349,690 평)	사람, 자연, 문화 가 공존하는 도 시 미래를 담는 “복 합생활문화타운” 조성	-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 친화적 타운 - 자연을 소중히 하는 환경 친 화적 타운 - 문화생활과 함께하는 문화 친 화적 타운	- 세대수 : 약 19,000 호 - 인구수 : 약 50,000 인	- 문화생활과 함께하는 ‘문화친화적’ 타운 ◦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반영한 다양 한 문화콘텐츠 개발 ◦ 생활권 체계를 고려한 복합 문화 시설 계획 ◦ 공공,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 시켜 복합화 추진 - 기존 문화센터 수용, 중앙부 하늘 마당 내부에 문화시설(정보도서관 등) 계획 - 역사성(아소정터) 활용 검토 : 동 도중고교 내 아소정터 복원 검토 - 생활예술 개념 : 활발한 생활예술 이 벌어지는 공간으로서의 newtown 공간계획 - 생활예술과 관련하여 활동 및 공 간 특화(공원 및 community 공간, 각종 문화 및 생활 편의시설 등)	하늘마당 : 주택재개발 사업
천호	강동구 천호동 362-60 번지 일대	421,000 (약 127,352 평)	서울의 창, 천호, 천호 paradise 서울에서 제일 먼저 헤드는 강 동 서울 동쪽의 진 입 관문 역할담당	- 보행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하 고 쾌적한 공간 조성 - 한강 수변녹지축과 연계한 생 태녹지가로 - 도시형 청정산업입지공간 조 성	-	- IT도심문화밸리 구축 - 천호근린공원 사업화 (주차장 + 문화복지시설)	-

<표 5-7> 뉴타운 계획내용 (계속)

이름	위치	면적(㎡)	계획의 목표	개발의 방향	인구계획 (주택공급)	문화관련계획	사업방식
신월· 신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700,700 (212,000 평)	‘해누리’ 영상문화타운	- 적정밀도를 통한 쾌적성 확보 - 영역과 조화 및 화합을 상징하는 선적 eco-ring 공원 조성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infra 확충과 자족적 도시기능의 도입 - 만호지(萬戶地) identity 정립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 뉴타운	- 세대수 : 10,500호 - 인구수 : 33,000인	- 영상문화 집적단지 조성 (신정네거리역) ◦영상문화센터 : 콘텐츠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및 연구개발, 교육, 관람 전시시설 유치 ◦영상테크노센터 : 방송 및 영상관련 제품 생산시설 유치 ◦영상문화센터와 영상테크노센터를 연결하는 media-street 조성 - 신정네거리역 주변은 영상문화관련 전사·공연·전시시설 및 판매시설 도입 - 열너문을 인근 공원으로 이전하여 복원 - 생활권별로 학교 및 기존시설과 신규도입시설을 복합화하여 문화센터 설치 ◦해누리 문화센터 : 청소년 문화센터 + 종합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 전사·공연·관람시설 ◦신월 문화센터 : 동사무소 + 경로당 + 보육시설 + 주민자치센터 ◦산남 문화센터 : 동사무소 + 전사·관람시설 + 청소년도서관 - 해누리 문화의 거리 : 멋의 거리, 향기의 거리, 미디어의 거리, 놀이의 거리, 맛의 거리(이벤트무대, 조각전시장, 야외공연장, 전시벽, 문화센터 등)	- 영상문화센터, 영상테크노센터 : 도시개발사업 - 신정네거리역 주변 : 도시개발사업 - 해누리 문화의거리 : 거리조성사업
전농 답십리	동대문구 전농동 400번지, 답십리동 일대	903,967 (273,450 평)	평생을 통해 생활문화의 풍요로움을 향유하는 도시	- 21C 교육문화도시 - 글로벌 교육도시 : 교육지원 클러스터 조성 - 보행 경관도시 : 청계천과 연계되는 지역순환 가로공원 - 생활 문화도시 : 지역산업을 지역문화로 발전/특화(고미술상가/황물시장)	- 세대수 : 13,600호	- 고미술 상가 및 황물시장의 특성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eastco valley) - 교육·문화·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 교육문화센터 : 국제교육원 + 공연문화원(공연, 전시장, 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교육방송 등) + 야외공연장	- 순환재개발 방식 - 교육문화센터 : 주택재개발/재건축 - 황물시장 : 도시개발사업
노량진	동작구 노량진동 270-2 번지 일대	762,160 (230,550 평)	자족기능을 갖춘 직주근접형 복합기능의 뉴타운	- 도시환경 infra의 재생과 창조 - 동작구의 자족성과 경쟁력 확보 - 생활문화와 복지가 충족된 커뮤니티 형성	- 세대수 : 12,500호 - 인구수 : 32,000인	- 문화교류기능 : 영화관, 문화센터, 전시장, 공연장, 회의시설,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 유치 - 대방생활권 : 문화체육센터 - 노량진 생활권 : 독서실 - 노량진2생활권 :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연전시시설	타운센터 내 문화 섹터 : 주택재개발사업

■ 뉴타운 내 문화시설 확충 필요성

- 뉴타운은 현재의 지역여건을 개선하고 21세기 주거커뮤니티 환경에 걸맞는 고품격 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 21세기가 문화와 정보, 환경의 시대이니만큼, 21세기형 고품격 주거타운은 문화와 복지, 환경타운일 것임
 - 따라서 21세기에 걸맞는 문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계획과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문화시설 설치 필요
- 강남·강북을 비롯한 지역 간 격차의 해소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은 모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계획
 - 사업대상지 또한 도심권에 2곳, 동북권에 7곳, 서북권에 5곳, 서남권에 5곳, 동남권에 1곳 등 주로 낙후성이 심한 외곽지역 및 강북지역에 분포
 - 각 대상지 내에 문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강남·북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활용

-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 각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이 도시 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만큼, 각 지역을 활용하여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 특히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뉴타운 내에는 생활권 문화시설을, 중심상업지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는 관련지역과 연관된 전문문화예술시설을 입주시킴으로써 생활권 문화시설의 부족과 예술시설의 부족을 해소

<표 5-8>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권역별 분포현황

권역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심권	교남, 한남 등 2곳	-
동북권	길음, 왕십리, 전농, 한대, 미아 등 6곳	미아, 청량리 등 2곳
동남권	천호	-
서북권	은평, 가좌, 이현 등 3곳	홍제, 합정 등 2곳
서남권	신월·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등 4곳	가리봉 등 1곳

<표 5-9>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개발방향

구분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목표	고품격 주거타운 조성	중심상업지(부도심)로 복원
	방식	주거지역으로 개발	상업지역으로 개발
문화 시설 설치	종류	생활권 문화시설	전문문화예술시설
	내용	교육 및 체험시설 지역특화시설	발표 및 전시시설 상업적 기능을 갖춘 시설
	형태	문화요소 간 융합 및 복합화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과 복합화
	주체	공공에서 설치	민간입지 유도

○ 지역커뮤니티 거점 개발

- 각 지역별로 필요한 문화시설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마련
 - 뉴타운 - 생활문화거점 마련
 - 균형발전촉진지구 - 선도시설로서 지역이미지 조성 및 지역개발 유도시설로 활용
- 이를 통해 균형있는 서울시 발전방안 모색

<표 5-10> 문화시설 확충 시 조사해야 할 항목

고려요소	고려 및 작성내용	주력할 점
개발목표	- 대상지 개발 필요성 - 개발방향 및 목표 - 개발방식 및 전략	개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 - 낙후성 요인분석 - 개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
지역여건	- 지역의 역사와 현황 - 특징적인 장소와 문화적 활동 - 지역 내외 주변 지역(반경 10km)에 설치된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의 종류와 운영프로그램 내용	개발방향과의 정합성 -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 반영정도 - 지역특화성 활용정도
주민수요	- 각 사업대상지별 인구계획 - 계층 및 세대 구성계획 - 현 주민(반경 10km)의 이동경로 및 라이프사이클 - 주민 문화향수 실태 - 주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종류 및 프로그램	주민실태와 욕구의 반영 - 주민의 현실태의 문제점 파악 - 주민욕구 반영 - 욕구를 반영한 시설건립
특화정도	- 특화지역 현황 - 지역민이 주로 모이는 장소 및 각 행위목적별 이동경로 - 특화된 주민 간 프로그램 여부 및 프로그램 유형	주민 및 지역특화성 반영 - 접근성 조사 - 부족시설에 대한 보완
개발형태	- 문화시설 설치장소 - 부지와 면적 - 개발방식(건축형태, 시설내용, 운영프로그램 등)	개발의 타당성 조사 - 방식의 타당성 - 형태의 타당성

- 문화도시화 및 문화활동 촉진

■ 문제와 방향

- 현재는 문화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향후 지역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설치방안 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조사 필요
 - 예상인구 규모 및 라이프 스타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실시
 - 주변부 문화자원 및 지역 내 문화자원 현황에 대한 파악
 - 입지 대상지 여건 및 개발 여건(부지와 면적)을 고려한 시설개발
 - 운영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진 구성

2. 선행계획 검토

2-1. 서울시 추진계획 - 문화도시 서울을 향한 정책구상

■ 2003년 8월 서울시는 <문화도시 서울을 향한 정책구상> 발표

- 발표내용에는 소규모 공공도서관 100개소를 확충하고, 공연인프라 및 민간단체 연습장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포괄하고 있음
- 당시 계획 속에서 검토되었던 개발 대상지는 총 10곳으로,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대상지를 활용한 문화시설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있음(<표 5-11> 참고)

2-2. 문화관광부 추진계획

■ <당인리발전소> 문화공간화 추진

- 현재 발전소 및 지역난방, 변전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당인리동 1번지, 속칭 ‘당인리발전소’를 개발하여 문화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계획
- 2004년 현재 『당인리화력발전소문화공간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표 5-11> 2003년도 문화시설 확충 검토대상지(서울시 문화국)

건립부지(위치)	시설배치	배치사유 및 건립내용
뚝섬부지 (성동구 성수동 일대)	전용공연장 (대중음악 상설공연)	서울 숲 조성, 청소년 캠퍼스 등과 연계한 대중, 청소년 공연시설 건립
창동부지 (도봉구 창동 1-8번지)	전용공연장 (대중음악 상설공연)	창동 역세권 상업지역 내 전용 상설 대중음악, 청소년 콘서트장 건립
보라매공원부지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복합문화공간 (대중음악콘서트장, 전시장 등)	대중음악 수요층인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이 편리하므로 대중음악 콘서트장으로 건립
동대문운동장 부지 (중구 을지로7가 1번지)	복합문화공간 (오페라·뮤지컬 및 패션쇼 등)	대학로 문화공간 및 동대문 의류상권과 문화벨트 연결
올림픽 공원 내 미술관 부지 (송파구 방이동 88-3번지)	전용공연장 (오페라·뮤지컬)	올림픽 공원 내 신축미술관(건립중), 박물관, 체육시설과 연계한 오페라전용공연장 건립
어린이대공원 대자연 체험관 건물 (광진구 능동)	전용공연장 (어린이 전용극장)	어린이 공원 내 어린이 전용시설로 특화
구 한남면허시험장 부지 (용산구 한남동 727-56)	전용공연장 (국악상설공연)	이태원 외국인 관광특구와 연계한 전통문화공연장 건립
석유비축기지 부지 (마포구 성산동 시설녹지)	첨단 텐트극장	새로운 시민여가 명소로 부상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공원, 난지도 생태공원과 시너지 효과 가능
서초동 정보사 부지 (서초구 서초동 1005)	문화시설 예비지 (추후검토)	국방부 정보사가 2005년 말까지 이전 완료예정이므로 추후 검토
국립보건원 부지 (은평구 녹번동 일대)	문화시설 예비지 (추후검토)	국립보건원 이전이 2006년이므로 추후 검토

개발추진 모색 중

- 2005년 1차 현황 조사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문화공간화 방안

- 2006년도부터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예정됨에 따라 이전전지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이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방부와 환경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등이 각각 별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현재 <국립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이 열악하여 줄곧 문제가 된 과천 <현대미술관>을 이전하고, 미군기지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 추진

제3절 확충계획 수립

1. 계획목적

■ 창조적 도시문화환경 조성

- 문화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라는 도시발전의 비전과 목표
 - 지금까지 서울은 중앙정부의 보조체로서, 특별한 정책목표 없이 중앙정부의 시설확충 정책에 보조를 맞춰 시설을 확충해온 상태
 - 그러나 현재의 계획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도시(재)개발 사업상에서 나오는 부지를 활용한 시설확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뚜렷한 정책목표와 방향이 없을 경우 시설의 난립만 유도할 뿐, 부족시설이나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형태의 시설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어 계획목표 설정이 필요
- 창조적 도시는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창조적 장소와 사람, 활동이 밀집된 도시를 말함
 - 창의성을 강조한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에 따르면, 도시의 핵심자원은 사람이며, 그 도시 내 사람들의 창조성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주장³¹⁾
 - 창조적 인구 육성을 위해서는 창의성에 기초한 도시여건 형성이 중요
 -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창출하는 한편, 도시기반차원에서는 어메니티를 강조하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인적자원이 밀집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³²⁾
 - 이를 위해 이들은 신경제적 흐름에 맞춰,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컨벤션 센터, 식당지구, 스포츠시설, 페스티벌 및 상업 물 개발을 주장하는 한편, 공연예술센터, 박물관 등 도시의 예술과 여가, 오락관련 시설의 설치를 주장

31) C. Landry, "The Creative City :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Comedia, 2000

32) 플로리다는 각 도시의 창조성을 체크할 수 있는 창조성 지수로, >노동인구에서 창조적 계급이 차지하는 비율, >1인당 특허로 측정되는 혁신, >폭넓게 용인되는, 밀겐 연구소의 테크 폴 지수를 활용한 하이테크 산업, >색다를 종류의 사람과 생각에 대한 지역의 개방성을 체크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인 게이 지수에 의해 가능되는 다양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도시의 창조적 인구유입과 혁신, 하이테크, 다양성을 위한 창조적 도시개발 사업으로 ①24시간 활력 넘치는 도시개발 ②사이버 산업지구(cyber district) 육성, ③도시 어메니티의 강조, ④들러가는 장소가 아닌 머무는 장소로서의 도시개발(Creating Destinations), ⑤기존 기업의 업그레이드, ⑥클러스터의 활용, ⑦네트워크의 강화, ⑧첨단산업의 투자유치, ⑨신경제 파급효과 확대, ⑩인적차원에 대한 투자 등을 강조

○ 창조적 도시는 이처럼 신경제의 흐름에 맞춰 서울을 창의적 인구가 밀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자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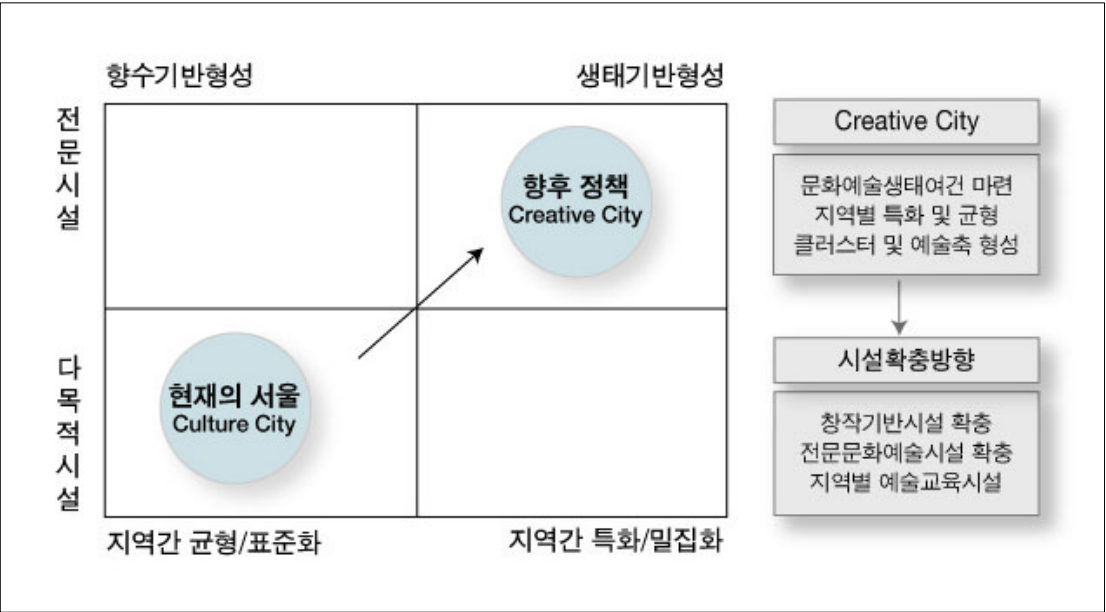
- 우선 창조적 인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문화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창조기반을 강화(창작여건 및 발표/전시, 새로운 기회의 개발 및 여건제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 내 거주민의 창조성을 높인다는 정책 방안

◦ 지금까지 서울의 목표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문화도시’(cultural city)였다면, 문화도시로서 가능한 여건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한류’와 ‘정보통신’의 거점으로서 서울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창조인구가 밀집하는 ‘창조도시’(creative city)로서의 발전 가능성 모색

○ 이에 따라 창조도시 형성을 목표로 <그림 5-3>과 같이 문화시설확충정책 추진

<표 5-12> 문화도시와 창조도시의 비교

구분	문화도시(cultural city)	창조도시(creative city)
발의자	- 멜리나 메리쿠리(Melina Mericuri) - 그리스 장관(영화배우)	-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 카네기 멜론대학 교수(지역개발학자)
발의시기	- 1985년 - 유럽도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기	- 2002년 - 신경제체제에 의한 하이테크산업 변환기
주요 적용국가	- 유럽 - 공업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활용	- 미국, 호주, 일본 등 - 하이테크 중심의 도시개발 프로젝트 활용
개념	- 문화적인 도시환경 창출 ◦ 문화적인 도시환경의 창출	- 창조적인 인구유입이 가능한 지역개발 ◦ 창조성을 창출할 수 있는 인구와 활동, 장소의 개발
주요정책	- 문화적인 도시기반 환경의 정비 ◦ 역사문화의 보존 ◦ 도시환경의 미관화·미학화 ◦ 예술활동의 활성화	- 창조산업의 유치 및 도시매력 창출 ◦ 오락, 여가, 예술 활동 강조 ◦ 도시 내 다양성 육성 ◦ 산업적 클러스터의 형성
산업육성	- 도시의 문화적 재생 -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 하이테크산업 육성 - 정보통신-사이버산업지구 조성
서울의 적용가능성	- 도시개발상 역사문화의 훼손 - 도시미관 정비의 어려움 - 순수예술 인프라 형성 어려움	- 한류의 발달 - 경쟁력 있는 문화의 형성 - 정보통신 발달 - 세계 최고의 사이버도시 - 지역별 다양성지수 확대와 클러스터 형성



<그림 5-2> 서울시 문화시설확충계획의 기본목표 구성

계획의 목표	문화예술의 생태환경 마련	창조적 도시 발전
시설확충의 방향	전문문화예술시설의 확충	창작성 및 시장성 제고
	지역별 클러스터의 형성	밀집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예술축 구성	지역 간 특화와 균형성 제고
시설의 배치	권역별 분포현황 및 균형상태 분석	생활권별 문화여건 마련
	밀집지역 현황 및 클러스터 분석	클러스터 및 예술축 구성
	권역별 특화와 균형있는 도시발전	특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구

<그림 5-3> 문화시설 확충의 계획과 목표체계의 구성

2. 설치대상 시설의 선정

2-1. 문화기반시설(예술시설)

■ 공연예술분야 관련 시설

○ 대상분야와 시설구성

- 공연분야는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국악 포함) 등 현장에서 실연을 통해 연기활동을 하는 예술장르(performing art) 포괄
- 현장의 실연을 통해 예술활동을 하는 만큼, 연습과 예술활동에 적합한 형태의 발표시설 필요
 - 창작과 관련하여 항상적으로 실연을 연습할 수 있는 공연연습실과 적합한 무대형태를 지닌 전용공연장의 건립이 요구됨
 - 특히 같은 공연예술이라 할지라도 각 장르별로 무대형태 및 음향·조명·장치 등이 달라 이에 적합한 형태의 시설을 갖춘 발표시설 필요
- 또한 현장 연극인을 중심으로 공연자원을 보존·전시할 수 있는 형태의 공연박물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

○ 현황과 실태

- 현재 서울에는 다목적 형태의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대부분. 최근 들어 특수목적이나 콘텐츠스를 가지고 개발된 공연장이 들어서고 있음
 - 난타극장 : ‘난타’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장 개발
 - LG아트센터·한전아트센터 : 뮤지컬을 전용으로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개발
- 연극의 경우, 대학로 소극장을 중심으로 공연
 - 현재 총 57개 소공연장(300석 이하)이 있으나,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여 문화관광부의 주도 하에 시설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
 - 연습실은 대부분 개인이 건물의 지하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부이며, 그 대부분은 대학로와 인접 혜화동, 그리고 삼선교 지역에 밀집해 있는 실정
 -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여, 공공차원에서 5~7개 정도의 연습실을 운영하는 것이 절실한 상태
- 뮤지컬의 경우, 대부분 중규모의 민간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상태
 - 연강홀, 정동극장, 팝콘하우스, 문화일보홀, LG아트센터, 한전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토

월극장 등 300석에서 1000석 규모의 도시 내 공연장과 대학로에 있는 일부 공연장에서 공연

- 전용공연장은 없으며, 뮤지컬의 발전을 위해 전용공연장 건립의 요구가 많은 상태
- 무용의 경우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문예회관 대극장 외에 마땅한 공연장이 없는 상태
 - 줄곧 전용공연장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악의 경우, 또한 국립국악원 외에 전용공연장이 없는 상태
 - 전통음악이 발전된 도심 내(국악로 및 한옥마을, 국립극장 주변) 전용공연장 설립 요구
- 음악의 경우, 홍대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 라이브클럽이나 댄스클럽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설여건이 열악한 상태
 - 라이브 전용공연장 설치 필요

○ 설치대상 시설

- 창작관련시설 : 공연연습실 및 지원센터
 - 5~7개 정도의 연습실이 복합화된 형태의 복합관 설치 필요
 - 지원센터는 공동 장비(조명, 음향 등)를 구입하여 임대하는 시설로 활용
- 발표관련시설 : 연극 외 각 장르(뮤지컬, 무용, 국악 등)별 전용공연장
 - 장르의 여건에 적합한 발표시설 및 연습실 등으로 구성된 전문문화예술시설
- 보존관련시설 : 공연박물관
 - 공연의 역사를 보존·전시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

○ 설치장소

- 현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한 거점지역은 대학로와 홍대지역, 광화문, 강남 일대지역
 - 거점시설로는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등이 존재
- 창작의 바탕은 대학로와 홍대, 강남지역
 - 대학로는 연극, 홍대는 음악·영상, 강남은 뮤지컬 및 현대무용을 중심으로 발전
 - 대학로와 홍대를 중심으로 공연창작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 지역의 축을 연결하는 형태의 전용공연장 설치 필요

<표 5-13> 공연예술분야 필요시설 및 설치대상 지역검토

분야	필요시설	시설형태	설치대상 검토지역	비고
연극	전용공연장	300석 규모의 공공공연장	- 대학로 및 삼선교 - 삼선교 지역 미아균형발전축 진지구 내 <공연예술센터> 설치 (복합센터로 건립)	폐교된 혜화초등학교 활용방안 검토 필요
	공연연습실	5~7개의 연습실로 구성		
	제작지원센터	무대 및 조명, 음향 장비 보관 및 대여시설		
무용	전용공연장	공연장 및 연습실, 극단사무실	국립극장 주변	장충체육관 활용방안 검토 필요
국악	전용공연장	공연장 및 연습실, 극단사무실	국립극장 주변이나 국악로 주변	자유센터 활용방안 검토 필요
				국악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음악	전용공연장	라이브공연장	- 홍대지역 - 합정균형발전축진지구 내 설치(홍대의 창의적 예술을 포용하는 창의예술센터로 건립)	당인리발전소 활용방안 모색 필요
	제작지원센터	음반제작 및 발표지원, 연습시설 공동 설치		
공통	공연박물관	공연역사의 보존 및 전시	대학로 내 설치	

- ▷ 대학로 및 주변지역(삼선교) : 전용공연장 및 공연연습실, 제작지원센터 설치
- ▷ 홍대지역 : 라이브 공연장 및 제작지원센터 설치
- ▷ 도심권 내 : 국악로지역이나 국립극장 주변을 중심으로 국악 및 무용전용극장 설립

■ 시각예술분야 관련시설

○ 대상분야와 시설구성

- 시각예술분야는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종류의 미술관련 장르와 사진 등 시각적 소구를 통해 접근하는 예술장르
- 기본적인 생태환경은 창작스튜디오(창작시설)와 미술관(전시시설), 화랑 및 경매소(유통시설) 등으로 구성

○ 각 시설별 현황과 실태

- ▷ 창작스튜디오 : 예술가가 일정기간(최소 3개월~최대 3년) 거주(작업실 제공)하며, 창작

과정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 국제레지던스예술센터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Residential Arts Centres)에 등록된 스튜디오만 해도 52개국 208개가 존재하며,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스튜디오를 합칠 경우 400여 개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공차원으로 운영하는 <창동스튜디오>와 경기도 고양의 <고양스튜디오>가 존재. 민간의 경우, (주)쌈지가 운영하는 ‘쌈지스페이스’와 영인미술관이 운영하는 ‘경안스튜디오’ 존재

▷ 미술관 :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술감상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의 <덕수궁미술관>을 제외하고는, 공공에서 설치한 미술관이 없고 대부분 민간이 설립한 미술관으로 운영
 - 기업이 설치한 미술관 : 일주아트센터, 가나아트센터, 쌈지아트공방, 아트센터 나비, 삼성미술관 등
 - 개인미술관 : 삼청동길을 중심으로 사간동, 삼청동, 인사동 내 설치(대학로 내 일부)
- 이에 따라 공공용도의 미술관 설치 필요

▷ 화랑 : 보편적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판매를 목적으로 미술품을 전시하는 시설. 주로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상 주로 특정 지역에 밀집

- 홍대지역 : 홍대 미대를 중심으로 젊은 예술가들의 공방으로 운영
- 청담지역 : 지역 내 고소득 인구층과 지역이미지를 활용,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갤러리 밀집

▷ 경매소 : 우리나라에는 현재 (주)서울옥션이라는 경매소 1곳이 운영 중인 상태

○ 시설설치방향

▷ 창작스튜디오 설치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개발 추진. 그러나 폐교의 경우, 지나치게 산간오지에 있어 예술가들이 실질적인 이용을 회피,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스튜디오가 운영중인 상태

<표 5-14> 창작스튜디오 운영프로그램 사례

운영프로그램		주요운영프로그램	대표사례
지역예술 프로그램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술가가 교육하거나 각종 주민활동에 예술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교토아트센터 Maryland Hall
	도시디자인 프로그램	예술가로 하여금 지역 전체를 예술적 환경으로 조성토록 하는 프로그램	Norcal Waste System 창작스튜디오
환경예술 프로그램	환경·생태 프로그램	지역 내 쓰레기나 특화된 장소, 시설물 등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프로그램	미네소타 텔타예술단체

재미있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사례

■ 샌프란시스코 Norcal Waste System - 쓰레기 등 지역문제를 예술로 재생산하기 위해 스튜디오 운영



조각품 공원에 전시된 재활용 작품

(http://auburnplacer.com/artist_in_residence.htm)

○ 샌프란시스코의 청소업체에서 주관하여 설립·운영하는 스튜디오

- 시민의 재활용과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활용품을 이용해 예술을 창작하는 스튜디오로 운영
 - 지역예술가들(1990년대 이후 약 50명)을 대상으로 운영 / 학생·주민등과 더불어 작업, 예술교육효과 발생
- 이들 작품을 sculpture garden이라는 전시장에 전시함으로써 지역상징물로 조성. 지역 사회 전체를 예술공간화하고 있음

○ 시사점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이용해 예술품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추진 필요
- 또한 21세기 품격에 맞는 도시를 조성하는 만큼, 사업대상지 내 도시의 시설물을 예술화하는 도시미관 프로젝트(Urban Design Project) 추진 필요

- 서울 : 창동스튜디오(국립현대미술관), 뿔지스튜디오(주식회사 뿔지)
- 경기 : 고양스튜디오(국립현대미술관), 경안스튜디오(영인미술관)
- 이에 따라 각 생활권을 중심으로 창작스튜디오 운영 필요
 -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예술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전세계적으로 각 도시는 창작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예술가가 참여하여 지역민에게 예술을 교육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 지역 전체를 예술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도시디자인프로그램>, 지역 내 쓰레기나 특화된 장소, 환경 등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환경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술관 및 공공갤러리 건립

- 공공적 차원의 미술관이 <서울시립미술관> 및 <덕수궁미술관> 외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미술관 및 갤러리 건립이 필요한 실정
- 특히 도심부 내에 우리나라 시각예술을 전시할 수 있는 국가적인 상징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화문 지역이나 도심부 내에 국가상징적인 미술관 건립 필요
 - ※ 현재 <문화관광부>는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 이전대상지로는 용산에 건립중인 <국립박물관> 주변을 고려하고 있으나, 국가의 상징성을 고려할 경우 광화문지역 내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 이에 <문화관광부>와 협력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도심부 내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다른 한편, 공공적 차원에서 생활 속의 예술품을 생산하고 이를 전시함은 물론, 판매·유통할 수 있는 형태의 공공갤러리(생활공방) 설치 필요
 - 현재 생활공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홍대지역에서 매주 토요일 개최되는 ‘프리마켓’이 유일
 - ‘프리마켓’의 경우, 별도의 시설 없이 홍대 앞 ‘어린이 놀이터’에 장터형태로 개최되고 있는 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생활공방 형태의 공공갤러리 설치 필요

○ 설치대상 지역

▷ 창작스튜디오와 공공갤러리(생활공방)

-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각 뉴타운이나 생활권 내 설치될 예정인 ‘문화센터’ 내에 스튜디오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치
 - 지역예술센터 및 교육시설,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

<표 5-15> 시각예술분야 필요시설 및 설치대상 지역검토

시설	시설형태	설치대상 검토지역	비고
창작스튜디오	각 생활권 문화센터 내 건립 -작업실과 교육실로 구성	뉴타운 등 새롭게 조성되 는 주거지역	예술교육프로그램 도시디자인프로그램 환경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교육센터	통합적 형태의 문화교육센터 -창작실 및 미술관 운영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내	통합적인 서울시 내 AIR프로그램 운영
미술관	국가상징미술관	광화문지역 내 위치 필요	현대미술관 이전 시 광화문 내 입지토록 유도
	공공미술관	교남뉴타운 내 위치	도심권 미술관 네트워크 구성
공공갤러리 (생활공방)	각 생활권 내 예술품 창작 및 교환, 판매장소	각 뉴타운 내 선택적 입지	창작스튜디오와 공동운영

▷ 문화교육센터의 설치

-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해 통합적 형태의 <문화교육센터> 설치 필요
 - 위상과 역할 : 서울시 전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통합적 형태의 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 설치위치 : 다원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홍대지역과 창의인구가 밀집되는 경기서북부의 여건을 감안,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거점시설로 설치
- 동북권은 공연예술타운으로, 서북권은 시각예술타운으로 조성
 - 시설내용 : 기획·운영실(각 장르별 코디네이터 운영), 창작실(스튜디오 20실), 발표실(미술관 2개) 등

■ 영상예술분야 관련 시설

○ 대상분야와 시설구성

-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미디어(디지털 및 아날로그) 도구를 활용하여 시청각적 소구를 통해 접근하는 예술장르
- 기초적인 요소는 제작실(스튜디오 및 제작지원센터), 발표장(영화관 및 각 장르별 전용상영관), 전시·보존시설(영화/영상박물관 및 자료관), 체험·교육시설(테마파크, 지역미디어센터) 등으로 구성

<표 5-16> 영상·영화관련 문화시설 유형 및 주요현황

요소	시설	설치목적	주요 설치시설
제작	스튜디오	영상의 제작(촬영)	- 각 방송국 스튜디오 - 경기도 양평 내 <서울종합촬영소>
	지원센터	- 편집 등 영상화 작업 지원시설 - 장비의 대여	- 대부분 사설 개인편집실로 운영 (여의도일대) - 공공 : 광화문 내 공공영상센터 <미디어액트> 설치 운영(한국영화진흥위원회)
발표	영화관	영화의 관람과 소비	- 배급사 중심의 멀티플렉스 구성 (CGV 및 메가박스, 기타 지역별 멀티플렉스)
	전용상영관	특정 장르영화의 전용상영	- 동숭아트센터 - 예술영화전용 - 씨네마 테크 - 독립영화/단편영화
보존	박물관	영화자료의 보관 및 전시	- 충무로 역사 내 설치
	자료관	영화자료 연구실	- 예술의 전당 내 <영상자료원>
체험	테마파크	영화에 대한 체험시설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 국내에 없음 - 일본 오사카시 내 <유니버설스튜디오> 설치 운영
	지역미디어센터	각 지역별 미디어 교육시설	- 강서미디어센터 - 충무로영상센터

○ 설치대상 시설

▷ 지역미디어센터

- 미디어의 시대인 21세기는 영상이 지배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예측. 이에 따라 영상을 이해하고 영상으로 말하며 영상을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 해독률(Media Literacy)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형태의 영상교육 및 제작·감상시설 설치 필요
 - <한국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독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미디어센터 건립 주장
 - 현재는 광화문에 공공영상센터인 <미디어액트>, 충무로에 <활력연구소>, 강서에 <미디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에는 전주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부산에는 <방송위원회>의 지원으로 <시청자센터>가 들어설 예정
- 미디어 해독률 증대 차원에서 향후 21세기형 도서관 및 정보센터 형태로 지역미디어센터 건립
 - 지역 미디어교육 및 지원센터로 운영

▷ 영화테마파크

- 영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 형태의 테마파크 개발

◦ 필요성 : 한류의 원천으로서 한국영화의 붐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촬영지를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³³⁾

※ 허리우드와 플로리다, 스페인, 일본 오사카 등에 영화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사는 중국 상해에 추가로 스튜디오를 개관할 예정. 중국에 영화스튜디오가 개장될 경우, 대부분 체험인구는 일본과 중국으로 빠져나가 우리나라는 테마파크의 소재만 제공하는 나라로 전락할 전망. 이에 따라 테마파크 설립이 필요

<표 5-17> 영화테마파크

순위	회사	체인수	입장객(만명)
1	Walt Disney Attraction	11	9,470
2	Premier Parks/Six Flags	38	5,120
3	Universal Studios	5	3,120

자료 : 고정민·김진혁, “영화관광의 부상과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2004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

- 오사카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니버설스튜디오 전략적 유치
 - 지역기업들이 총 사업비 1,700억엔을 투자
 - 숙박 및 상업지구 조성, 항만 정보 및 JR 철도 연결
- 스튜디오 건립과 더불어 첫해 1,100만명 입장객 기록
 - 삼화총합연구소에 따르면, 스튜디오 건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서지역 4,198억엔, 이외 지역 1,703억 엔으로 추정
 - 직접적 효과는 테마파크 1,393억엔, 호텔 584억엔, 운송업 511억엔 등

(마이니치신문, 2002.3.

고정민·김진혁, “영화관광의 부상과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2004 에서 재인용)

- 이에 따라 한국영화산업의 현재를 보여주고, 영화 속 장면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테마파크 조성 필요

33) 고정민·김진혁, “영화관광의 부상과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2004

2-2. 지역 및 생활문화기반시설

■ 지역의 역사성 및 장소성 보존(특화)시설

○ 대상시설과 설치여건

- 지역의 역사와 장소를 보존하고 이를 전수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을 특화하는 시설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관, (지역)테마박물관 등이 존재
- 그러나 현재 각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이 설치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설치가 불가능(설치는 가능하나 지원은 이루어질 수 없음)
-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보다는, 각 지역별 향토사를 연구·보존·전수하는 동시에 지역의 역사 및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형태의 향토사료관 및 테마박물관 설치 필요

○ 향토사료관

- 향토사의 보존 및 연구·교육을 위해 설치한 시설
 - 일반적으로 전시관보다는 연구실과 자료실 중심으로 운영
- 각 지역별로 향토사자료관을 설치하여 지역의 향토사를 연구·보존·교육토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설치대상 지역 : 역사적 장소성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중심
 - 기타 지역의 경우, 설치 필요 없음

○ 테마박물관

- 오늘날에 있어 박물관 건립의 추세는 대규모 박물관보다는 중·소규모의 생활형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³⁴⁾
 - 오사카 시립자연사박물관, 요코쓰가시 자연·인물박물관, 카오자키시 청소년과학관 등이 그 대표적 사례
- 이들 박물관은 시민과 함께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박물관을 운영함
 - 절대 큰 규모로 만들지 않고, 테마를 가지고 시민과 함께 전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교육과 체험을 중시하는 것이 주요한 운영원칙
- 이에 따라 전시할 테마가 있거나 박물관 건립 의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규모의 박물관 건립 필요

34) 伊藤 壽朗, “시민 속 박물관(市民のなかの博物館)”, 吉川弘文館, 1997

일본 교토의 향토사료관 운영사례

○ 일본 교토시의 <교토시사료관>

- 일본 교토시의 경우 헤이안 시대(8~12세기)의 일본 수도답게 다양한 역사문화 보존
 - 사찰 4,000개, 신사 15,000개 보유
 - 교토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시립박물관 및 사료관 운영
 - 국립교토박물관 별도 운영
 - 교토시립박물관 운영(15만점의 교토문화유물 보유)
- 사료관의 경우, 주로 교토시의 역사를 연구하고 정리하여 <교토시사> 편찬 - 매년 발간
 - 지역사 연구가 주요한 업무 : 교토의 역사에서부터 오늘날 발생하는 일에 대한 기록
 - 총 4명의 연구진이 사료관에서 교토시사 연구
- 역사의 기록·보존 외에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 주로 교토의 시사(市史)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 전시장은 1층에 20평 규모로 운영
 - 전시보다 중요한 것은 교토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업으로, 2층 전체를 사료정리실과 도서관으로 운영
 - 5만 여 권의 교토시관련 문헌 소장



교토시 사료관의 전경 및 내부 시설 모습

○ 국내사례

- 지방자치체 중심의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추진
 -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박물관 형태로 건립 - 총 48개 설립
 - 사료관을 설치한 지자체는 4곳 : 서울특별시(서울교육사료관), 대전광역시(대전시향토사료관), 여주군(여주향토사료관), 남해군(남해향토사료관)
- 시설의 대부분은 전시실로 운영
 - 지자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사료형태로 발간하는 사료관은 없어
 - 향토사 및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지방문화원이 담당

<표 5-18> 각 시대별 박물관의 발전 (제1세대에서 제3세대로의 발전)

	제1세대 박물관	제2세대 박물관	제3세대 박물관
시기	60년대 말 이전	60년대 말~90년대 초	90년대 중반 이후
주요컨셉	국보, 자연기념물 등 희소가치를 가진 자료를 보존·전시하는 고전적 박물관	자료가치가 다양화되면서 중소규모의 다양한 전문박물관 건립	- 사회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자료를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박물관 - 시민이 참여하여 체험하고 운영하는 박물관
운영목적	관광마케팅 등 비일상적인 이용의 장	- 특색있는 상설전시 - 조사와 연구, 수집, 보관, 공개 교육 등 광범위한 활동 전개	-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시민의 지적 탐구심과 경험을 키워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
주요기능	보존과 전시 중심	연구와 조사 중심	교육과 시민참여 중심
주요특징	상징시설로 건립	- 학예사 등장 - 시가지 주변 설치	일상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
이용형태	- 특별한 기회에 관람 - 관람 외 활동 없어	- 특별전시시간에 관람 - 일과성 견학시설	- 학습과 지역·자기발견의 장소로서 활용 - 개인학습 및 일상공간으로 활용
규모	대규모(중심지/관광지)	중규모(시가지 주변)	소규모(일상공간)
시설형태	- 권위 중심 - 별도 설립 - 전시공간 중심으로 건립	- 외부미관 강조 - 별도 설립 - 간단한 휴게공간 중심 설치	- 기능중시 - 기존 건물 리모델링 - 휴게 및 교육공간 중심 건립
운영형태	- 명예직 관장 - 전시중심 - 종합전시(다양한 콘텐츠)	- 행정·관리직 관장 - 보존·처리·연구중심 - 테마전시(기획 중심)	- 전문직 관장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중심 - 연출전시(학습과 체험 중심)

■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화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

- 대표적인 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등이 있음
- 서울의 경우, 현재 대부분 지역구에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인 설치 불필요
 - 다만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뉴타운의 경우 추가적인 설치 필요

○ 건립방법

- 지금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센터는 부족한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공연장 및 전시장 중심으로 건립
 -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은 현실적으로 공연이나 전시의 공간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실정

지역예술센터 사례 : 교토아트센터

■ 개발 및 운영컨셉 : “주민과 예술가가 만나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의 아트센터”

○ 1995년 교토시 내에 있던 명륜소학교(초등학교)가 폐교되자 이를 아트센터로 건립

- 초등학교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스튜디오를 건립

○ 주민의 문화교육 및 세계예술과의 교류를 위해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Artists-in-Residence Program) 운영

- 세계적인 작가를 입주시켜 창작활동에 전념토록 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이들을 통해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튜디오 개발

◦ 3~6개월 간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비 지원

◦ 대신 의무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펼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공연이나 전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 작가의 선발은 국적, 나이, 장르에 관계없이 오로지 ‘교토에 당신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가 기준

- 지원서 자체에 국적난이 없음

- 단지 계획서를 통해 ▷교토의 주민에게 어떤 예술체험의 기회를 주는가와 ▷교토의 자원을 어떻게 문화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로 결정

○ 이를 위해 총 8명의 코디네이터 선발(행정인력은 파견공무원 2인, (재)교토예술문화협회 4명 등으로 구성)

- 모든 것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운영(행정은 단지 보조역할)

○ 현재 이와 같은 운영을 통해, 5명(팀) 선발에 40여명(팀)이 응모하는 세계적인 예술센터로 성장함



교토 아트센터의 모습

○ 시사점

- 주민과 예술가의 창구로서 센터활용

- 지역예술과 세계예술의 교류창구로서 센터건립

◦ 우리의 경우 또한 각 지역별로 예술가가 입주하여, 예술가와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자 지역과 보편적 예술 이 만나는 창구로서 지역문화센터를 건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융합한 형태의 시설 건립
- 기본적으로 예술가와 주민이 만나는 커뮤니케이션 센터로서 지역문화센터 설립 필요

○ 시설융합방식

- 창작스튜디오와 지역미디어센터 등과 같이 제작과 교육기능을 갖춘 시설로 개발
 - 시설내용 : 자료와 연구실, 교육실, 체험실, 예술가 창작공간, BlackBox형 발표장, 개인 감상실 등
- 지역별 특성 장르를 중심으로 시설융합
 - 주변에 밀집된 여건을 활용하여, 활용가능한 자원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
 - 예) 대학로 주변지역 - 지역공연예술센터
 홍대지역 - 지역생활공방센터
 강서지역 - 지역영상센터
- 예술가가 입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시설운영 효율화 도모
 - 예술가가 직접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지역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의 효용가치 극대화 필요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차원의 통합적인 AIR(Arist Residence Program)운영 필요³⁵⁾

<표 5-19> 생활권 문화시설 개발

구분	설치대상시설	시설종류	비고
대상시설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 보존 및 전수, 교육을 위한 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의 경우 설치완료
		향토사료관	필요시 향토사료관 건립필요
		테마박물관	생활형 박물관으로 건립
	주민문화교육 및 예술센터	주민문화센터	- 복합시설로 통합적 형태로 개발 - 예술가와 주민이 만나는 창구로서 활용 - 지역과 예술이 만나는 창구로서 활용
		미디어센터	
		공방형 공공갤러리	
		도서관	
설치방법	작지만 강한 시설로 건립	- 시설건립비용보다는 운영을 고려한 중·소규모 시설개발 - 시설건립에 앞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우선 기획 필요 - 예술가 및 전문가 참여 개발	
설치장소	뉴타운 등 새로운 주거타운	주변 지역 밀집자원을 고려한 연관된 형태의 분야나 장르 선택	

35) 일본의 경우, Japan foundation(<http://www.inf.go.jp/air>)을 통해 통합적인 AIR프로그램 운영. 1995년부터 세계의 주요한 AIR프로그램을 연구한 끝에 만들어진 일본 AIR프로그램은 현재 총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예술의 세계화 및 세계예술과의 교류의 창구로서 활용하고 있음

3. 설치방법

3-1. 지역별 배치전략

■ 지역별 균형과 특화

○ 기본전략

- 밀집지구를 중심으로 예술시설을 설치하고, 기타 주거지역 등에 생활권 문화시설(문화예술 교육 및 향토문화교육시설) 설치
- 기본적인 배치방안은 <표 5-20>과 같음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차별적 적용

-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성격 및 대상지성격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뉴타운 내에는 생활권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는 예술전문시설을 설치

<표 5-20> 분산과 밀집대상 유형별 문화시설의 형태

구분	분산(균형)우선	밀집(특화)우선
개념	지역별 분산	특정지역 내 밀집
위치	생활권 내 문화서비스 제공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문화생태계 구성
유형	생활권문화시설 및 문화서비스 제공시설 지역특화 및 역사성 보존시설	전문예술시설, 지원센터, 테마파크 등
시설 종류	생활권문화시설 - 복합문화센터, 공공갤러리 등 지역특화 및 보존시설 - 향토사료관 등 문화서비스 제공시설 - 영화관, 도서관 등	전문예술시설 - 전용공연장, 공공미술관 등 지원센터 - 각 장르별 제작지원센터 테마파크 - 영화테마파크 등
시설 형태	주민과 예술이 만나는 창구로서 개발 복합화·융합화 형태로 건립 큰 규모보다 중·소규모의 시설로 건립 건립보다는 운영을 중심으로 건립·기획	각 장르별 특성에 맞게 시설설계 중규모 이상의 규모로 시설설계 국가적 상징에 걸맞은 형태로 개발
입지 선택	생활권 주거지역 (뉴타운 지역)	도심 및 부도심 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

<표 5-21>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대상 차이

구분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성격	생활환경 개선	기성상업지 관리
문화시설	공공 문화시설	민간 상업문화시설
시설성격	생활권문화시설·지역문화시설	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전문문화예술시설
기능형태	생활권 문화서비스를 고려한 문화교육 및 예술체험 시설	예술생태계 및 밀집지역을 고려한 각 장르별·부문별 문화시설
대표시설	생활문화센터(창작자와 예술가가 만나는 창구) 향토사료관·도서관 등 생활문화서비스 시설	각 장르별 전용공연장 지역밀집요소 관련 특화시설(라이브공연장 등)
설치주체 개발방식	공공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민간 용도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식

- 뉴타운의 경우, 앞서 지정한 지역·생활문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균형발전촉진 지구는 각 지역별 밀집정도 및 밀집유형·장르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형태의 문화시설 설치

○ 지역별 특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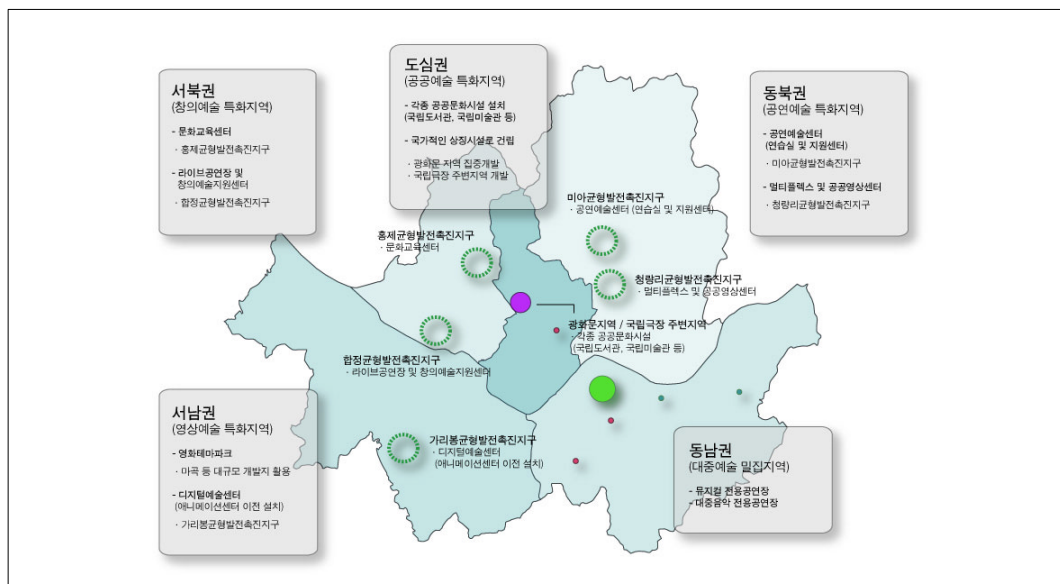
- 각 지역별 밀집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표 5-22>와 같음

<표 5-22> 서울시 지역별 밀집자원 현황

권역	밀집자원	자원형태
도심권	공공문화예술	- 다수의 공공문화예술시설분포 -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 인사동·사간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분포 - 종로와 중구를 중심으로 한 영화관 분포
동북권	공연예술자원	- 공연예술전용극장 및 소공연장·극단 분포 - 창동지역 천막극장(Big Top)운영 - 혜화동 및 삼선교를 중심으로 연습실 등 기반시설이 동북권으로 이동중
서북권	시각예술자원	-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시각예술자원 분포 - 클럽 등 다원적인 자생예술(독립예술) 분포 - 경기 서북권을 중심으로 창의적 자원 밀집중(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예술촌, 출판산업단지, 고양시 고양창작스튜디오 등)
서남권	영상예술자원	- 여의도와 목동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미디어 기업 분포 -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관련업체 입지 - 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회관, 예술회관 등 위치
동남권	영화 및 대중예술자원	- 다수의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 분포(영화제작 및 유통의 거점) - 잠실메인스타디움 등 대중스포츠시설 분포(대중공연장으로 활용)

-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특화방안 마련

- ▷ 도심권 : 국가적 상징성과 도심의 거점성을 고려한 「공공예술특화지역」으로 조성
 - 각종 공공문화시설의 설치
 - 국가적인 상징시설과 거점시설 설치
- ▷ 동북권 : 공연밀집지구인 대학로와 혜화동·삼선교의 자원을 활용한 「공연예술특화지역」으로 조성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공연연습실 및 지원센터가 결합된 <공연예술센터> 설치
 -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멀티플렉스> 및 <공공영상센터> 설치(영상·영화특구로 발전)
- ▷ 서북권 : 시각예술과 다원예술, 자생예술을 결합한 「창의예술특화지역」으로 조성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교육센터> 설치
 -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라이브공연장> 및 <공연지원센터> 설치
- ▷ 서남권 : 여의도·목동의 방송자원 및 구로지역의 애니메이션산업을 연결하는 「영상예술특화지역」으로 조성
 -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디지털예술센터> 설치(애니메이션센터 이전설치 및 멀티미디어센터 설치)
 - 마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를 활용한 <영화 테마파크> 조성



<그림 5-4> 지역별 특화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계획

<표 5-23> 지역별 특화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방안

구분	지역발전구상(특화전략)	주요확충시설	주요사이트 및 대상지역
도심권	공공예술특화지역	- 각종 공공문화시설 설치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등) - 국가적인 상징시설로 건립	- 광화문지역 집중개발 - 국립극장 주변지역 개발
동북권	공연예술특화지역	공연예술센터(연습실 및 지원센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멀티플렉스 및 공공영상센터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서북권	창의예술특화지역	문화교육센터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라이브공연장 및 창의예술지원센터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서남권	영상예술특화지역	영화테마파크	마곡 등 대규모 개발지 활용
		디지털예술센터 (애니메이션센터 이전 설치)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동남권	대중예술지역	- 뮤지컬 전용공연장 -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 동남권 : 대중문화와 소비예술을 결합한 형태의 「대중예술특화지역」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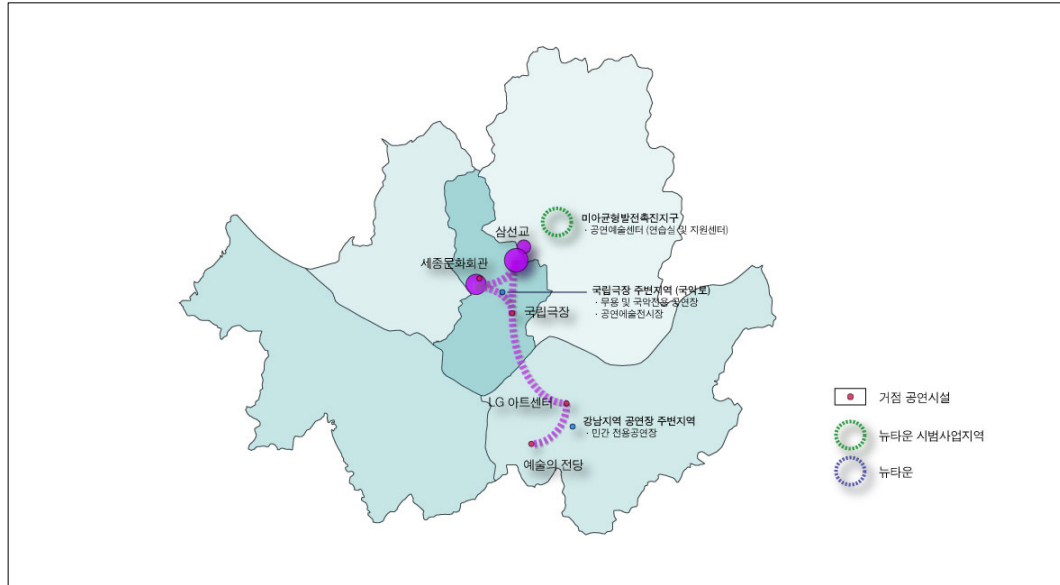
- 경쟁력있는 문화예술시설 설치(뮤지컬 전용극장, 대중가수 전용공연장 등)

■ 예술축의 구성

-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문화예술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 공연예술네트워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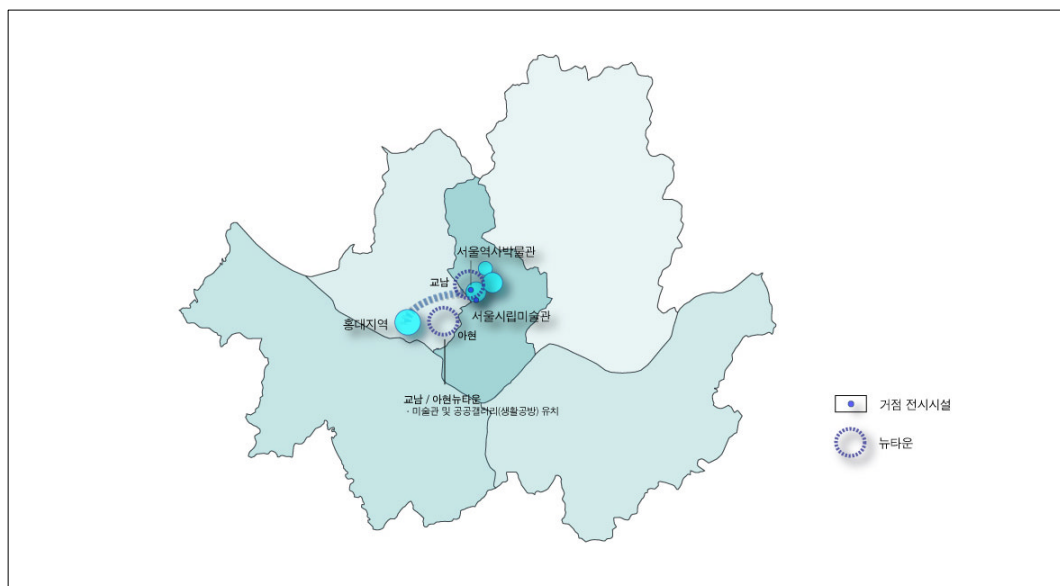
- 대학로를 중심으로 도심부의 공공공연장과 동남권 지역(강남지역)을 연결하는 공연예술네트워크 구성
 - 삼선교 인접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공연예술센터>를 건립 - 대학로와 삼선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작기반 조성
 -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무용 및 국악전용 공연장(국악로 입지방안 검토 필요)을 건립 - 도심부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전시장 조성
 - LG아트센터와 한전아트센터, 예술의 전당을 연결하는 강남지역 공연장주변 지역에 민간 전용공연장 설립 유도 - 대중성과 상업성을 갖춘 공연산업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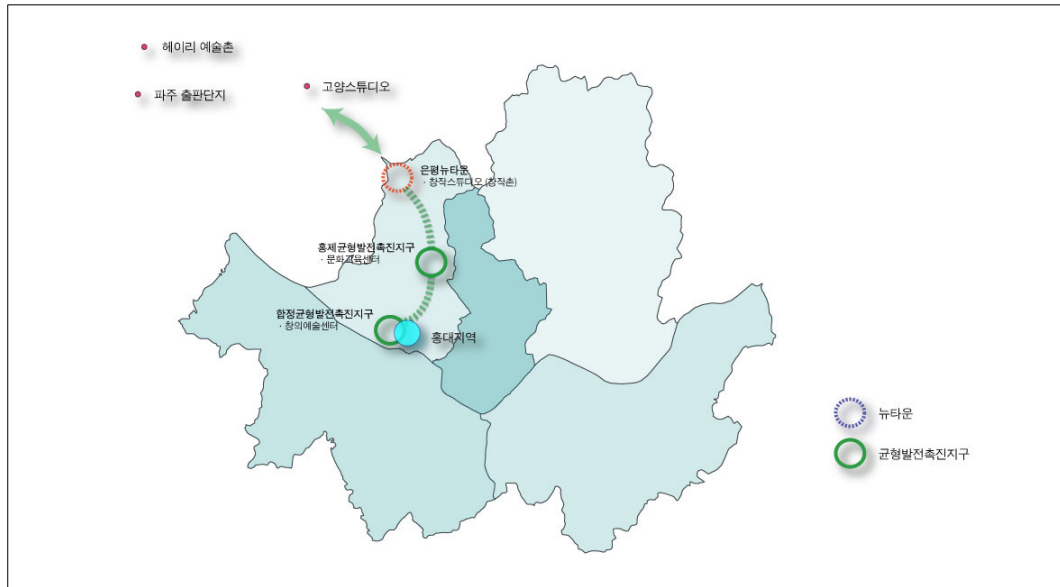
<그림 5-5> 공연예술네트워크 구성

○ 시각예술네트워크 구성

- 현재 사간동과 삼청동, 인사동, 광화문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하여 있는 시각예술을 홍익대 학교 주변지역과 연결하여 시각예술네트워크 구성
 - 인접한 교남뉴타운 및 아현뉴타운 등에 미술관 및 공공갤러리(생활공방) 등을 유치하



<그림 5-6> 시각예술네트워크 구성



<그림 5-7> 창의예술네트워크 구성

여, 도심권과 홍대지역 연결, 시각예술축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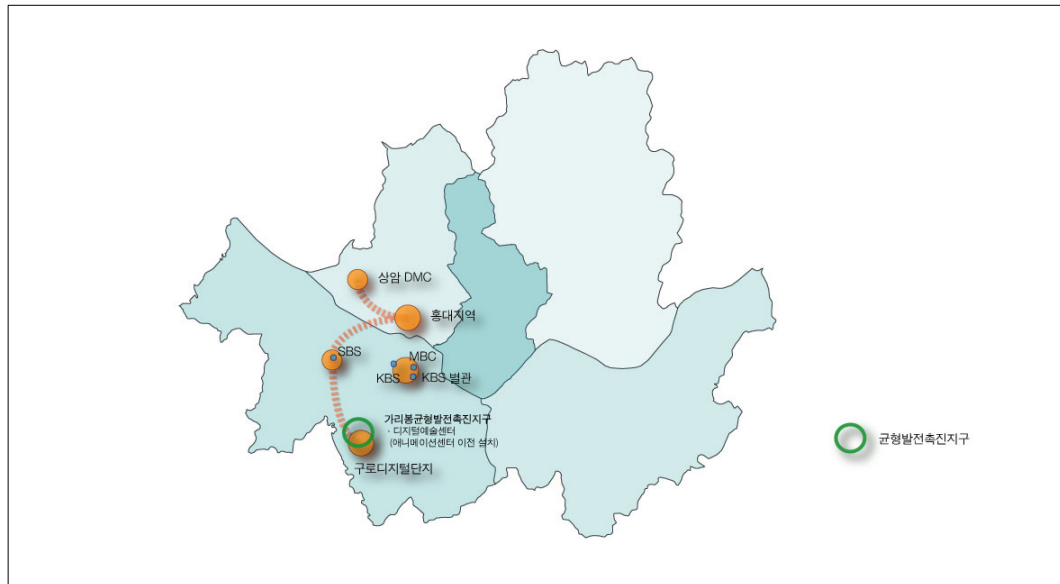
○ 창의예술네트워크 구성

-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창의적 인구(영상과 시각, 음악 등이 복합화된 다원예술과 자생예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서북권을 중심으로 한 창의예술네트워크 구성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육센터>를 건립 - 서울서북권과 경기서북권 창작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창의예술 거점시설로 개발
- ※ 은평뉴타운의 경우, 북한산을 배경으로 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등을 활용, 뉴타운 지역 내에 미관과 내구도가 뛰어난 단독주택을 존치시켜 창작스튜디오 및 개인미술관 등을 개발할 예정
-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라이브공연장 및 홍대주변 창의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창의예술지원센터 건립 - 창의인구 밀집지역으로 육성

○ 영상예술네트워크

- 홍익대 주변의 자생적 영상예술과 상암 DMC의 디지털 예술, 여의도와 강서지역의 방송영상예술, 구로의 애니메이션 및 디지털 산업을 연결하는 영상예술네트워크 구성
 - 마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를 활용한 <영화테마파크> 조성 - 아시아 영상/영화예술의 체험 및 한류마케팅 거점으로 활용
 -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디지털문화센터> 건립 - 디지털 산업단지 배후시설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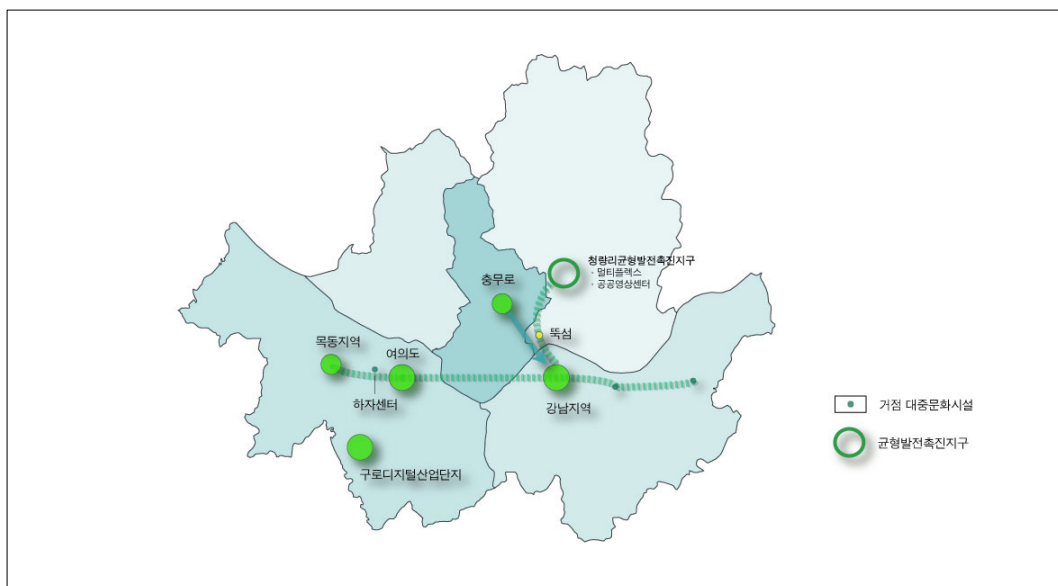
서울형 경쟁산업으로서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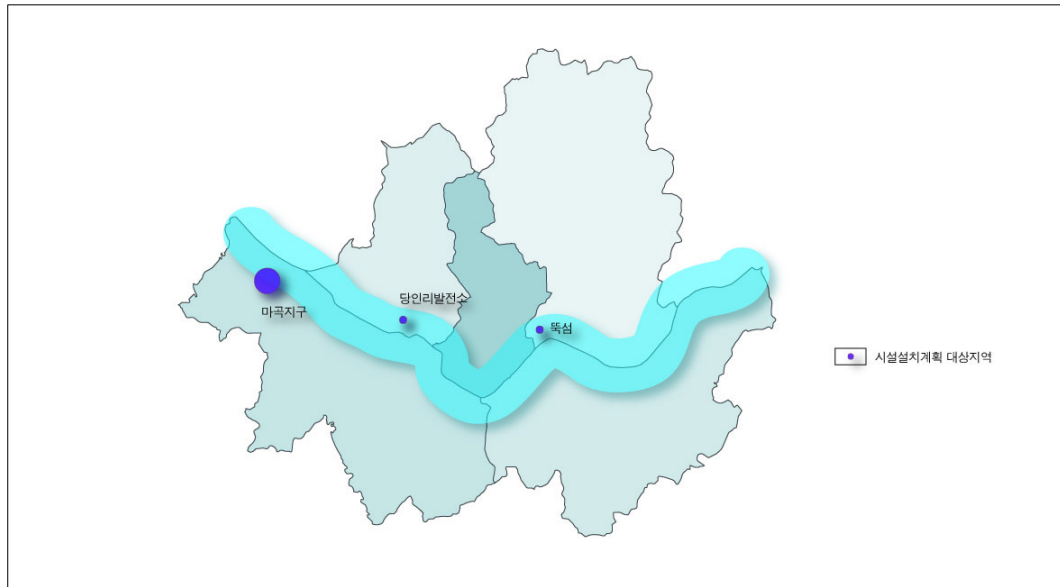
<그림 5-8> 영상예술네트워크 구성

○ 대중예술네트워크

- 서남권 디지털 예술에서 동남권 대중예술·상업예술을 포괄하는 형태의 대중예술네트워크 구성. 동북권의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멀티플렉스 및 공공영상센터)를 연결하여 디지털과 대중음악, 공연산업, 영상산업을 연결하는 문화산업축 구성



<그림 5-9> 대중예술네트워크 구성



<그림 5-10> 한강예술네트워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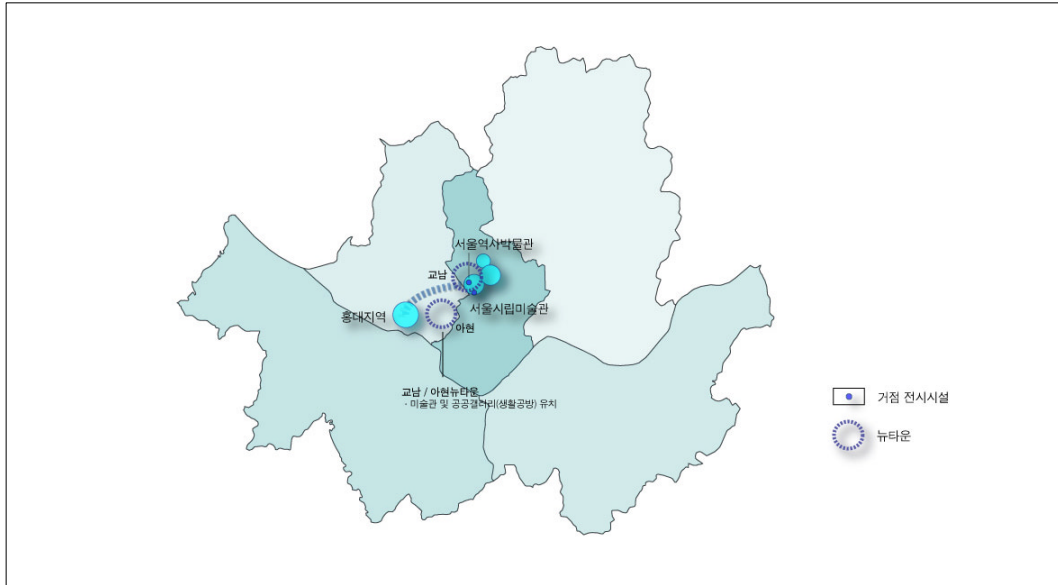
- 강남지역 내 뮤지컬 등 상업적으로 자생력이 강한 전용공연장 건립 유도
- 뚝섬 등 개발 가능한 지역을 활용하여 대중음악 전용공연장(오페라 하우스) 건립

○ 한강예술네트워크

-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상징하고 문화적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상징적 문화시설 건립
 - 뚝섬 내 대중음악을 공연하는 오페라하우스 형태의 대중음악공연장 건립
 - 당인리발전소를 활용한 테마시설 건립
 - 마곡지구 내 테마파크 건립

○ 도심공공예술네트워크

- 도심부 내에 국가를 상징할만한 다양한 공공문화시설 건립을 유도하여, 국가적인 상징이자 문화적 거점공간으로 발전 육성
 - 광화문프로젝트 - 광화문 주변지역 향후 개발 시 국가적인 문화적 상징성을 보여 줄 만한 공공문화시설 건립(국립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이전 혹은 건립을 추진하여 세종문화회관과 연결하는 광화문 공공예술네트워크 구성)



<그림 5-11> 도심공공예술네트워크 구성

- 국악로프로젝트 - 현재 별다른 시설 없이 관련시설만 밀집되어 있는 국악로를 개발하여, 국악전용공연장 등 전통문화관련 문화시설 설치(전통문화공간으로 조성)
- 남산프로젝트 -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남산한옥마을 등을 연결하는 전용공연장(무용 등) 건립

○ 생활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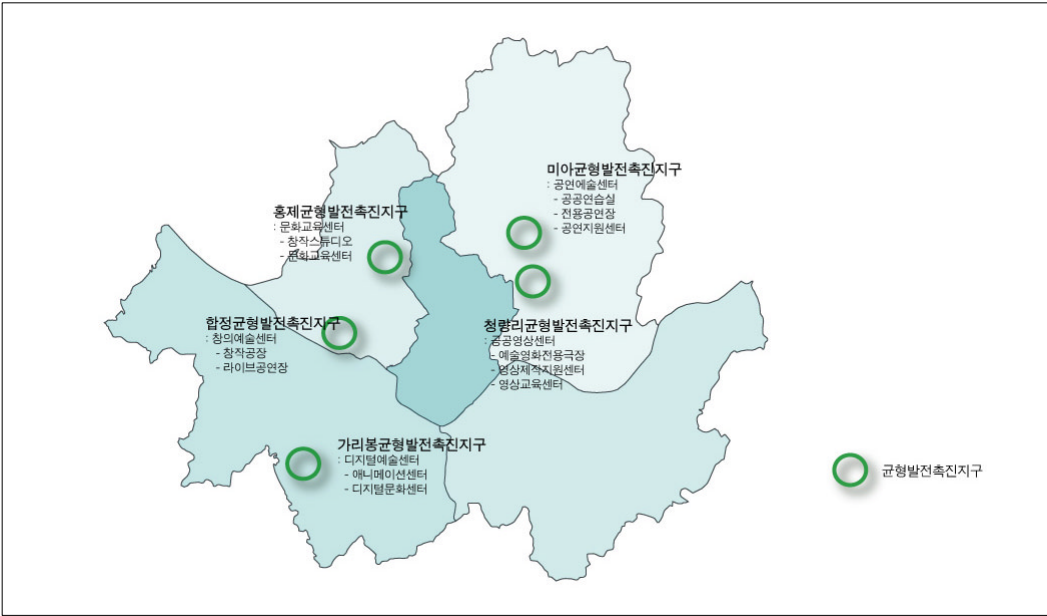
- 각 뉴타운별 생활권 문화시설 설치를 통한 생활권네트워크 형성
 - AIR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운영,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창구로서 역할 하도록 시설구성
 - 중·소규모 형태의 생활공방 및 공공갤러리, 개인미술관 및 박물관 등을 개발하여, 생활권 주변에서 언제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
 - 주변지역의 자원과 연계하는 특화된 형태의 시설개발(지원역할 및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 유도)
 - 각 지역별 특화를 통해 특성있는 시설개발 유도

■ 시설의 배치

○ 균형발전축진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

- 각 지역별 밀집자원 현황 및 예술축을 중심으로 관련요소 및 장르를 포괄하는 전문문화시

설 설치



<그림 5-12>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구상

<표 5-24>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

대상지	주변지역 자원	설치대상 권장시설	시설내용	권장사유	비고
미아	대학로 공연예술자원	공연예술센터	공연연습실 전용공연장 공연지원센터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 및 공연시장 기반 형성	공연연습실 이용료 및 공연장 대관료로 운영
청량리	-	공공영상센터	예술영화전용극장 영상제작지원센터 영상교육센터	청량리를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개발	민간 극장 개발 시 영 상센터를 포함하여 개 발토록 유도
홍제	도심부 공공예술과 서북부 창의예술의 연결축	문화교육센터	창작스튜디오 문화교육센터	통일로를 연결하여 도심과 일산/고양 을 연결하는 창의 예술축 마련	국립보건원 이전 부지 활용 필요
합정	홍대지역 다원예술자원	창의예술센터	창작공간 라이브공연장	홍대지역 창의성과 다원성 기반 마련	당인리발전소 활용방 안 검토
가리봉	디지털 산업단지 애니메이션 산업	디지털센터	애니메이션센터 디지털문화센터	구로 지역에 밀집 하고 있는 애니메 이션 산업 및 컨텐 츠산업 지원육성	남산애니메이션 센터 의 지원기능 이전

○ 뉴타운 내 문화시설 설치

- 생활권 문화시설로 설치하되, 각 타운별 여건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특화된 문화시설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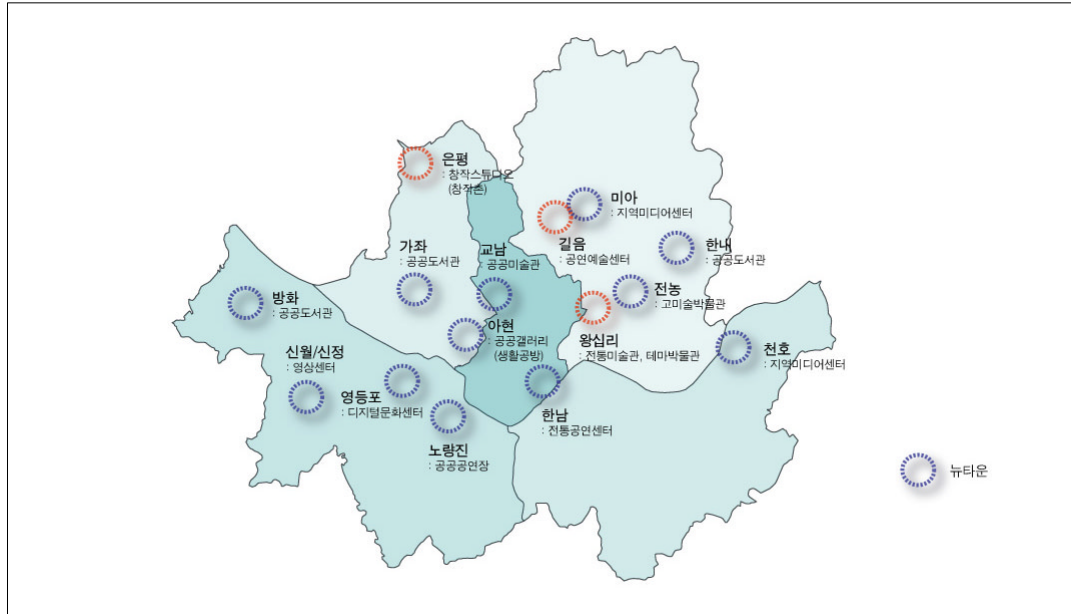
<표 5-25> 뉴타운 내 생활권문화시설 설치방안 (특성화 전략)

권역	타운명	계획구상(기본구상 자료)	주변지역 밀집자원	권장시설	권장사유
도심권	교남	문화시설 1개소 건립 (특성화계획 없음)	도심 미술관	공공미술관	도심권 시각예술네트워크 연결
	한남	문화시설 1개소 건립 (특성화계획 없음)	- 공연예술축선상에 위치 - 남산예술네트워크 (전통예술)	전통공연센터	공연예술축 연결
동북권	미아	문화시설 4개소 건립	-	지역미디어센터	동북생활권 미디어교육
	길음	정보도서관, 소극장, 다목적홀, 문화강좌실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 대학로 공연예술 -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공연예술센터	주변지역 공연자원활용 및 공연예술기반 지원
	왕십리	문화시설 건립 (특성화계획 없음)	- 골동품 등 전통예술 - 충무아트센터(중구문화예술회관)	전통미술관 테마박물관	지역 내 황학동 특성화 유도
	전농	고미술박물관	- 학교시설 밀집 -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고미술박물관	계획반영
	한내	전시공연이 가능한 문화시설 1개소	중랑천 주변(상습침수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관 접근성 해소
동남권	천호	IT도심문화밸리 구축	-	지역미디어센터	개발계획 특성 수용
서북권	은평	문화시설 4개소 건립	- 경기북부지역 창작시설 - 헤이리예술촌, 고양스튜디오	창작스튜디오 (창작촌)	- 경기북부 창작네트워크 연결 - 자연경관 활용
	가좌	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시설 등	-	공공도서관	서북권 도서관 부족 해소
	아현	생활예술타운 건설	- 홍대/신촌지역 창의예술 - 도심권 시각예술	공공갤러리 (생활공방)	도심과 홍대를 연결하는 시각 예술축 연결
서남권	신월	영상문화센터/도서관, 문화센터 건립	목동~강서 영상예술	영상센터	계획반영
	방화	기존학교를 리모델링한 문화센터 건립	강서미디어센터	공공도서관	- 서남권 도서관 부족 해소 - 강서미디어센터 존재 고려
	노량진	영화관, 문화센터, 전시장,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	공공공연장	한강예술네트워크 구성
	영등포	아날로지탈 타운 공연장/전시장 건립	- 하자센터 입지 - 청소년인구 밀집지역	디지털문화센터	아날로지탈 타운 개발컨셉 반영

※ 각 시설은 권장시설을 중심으로 복합센터형 문화시설로 건립

※ 시설성격은 주민과 예술가가 만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건립

※ 주변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다음의 시설은 기본적으로 설치 : 열람실, 자료실, 강의실, 건강·스포츠센터 등



<그림 5-13> 뉴타운 내 문화시설 설치구상

3-2. 확충방법 - 재원마련 방안

■ 개발이익금의 활용

- 대부분의 문화시설 설치대상지역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향후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임
- 각각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용도지역 조정 등에 따른 용적률 및 고도제한의 완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개발이익 발생 예상
 - 이에 따라 각각의 사업대상자가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시설개발
- 또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문화시설 설치 필요
 - 문화시설은 기본적으로 21세기 문화중심시대에 걸맞은 지역 서비스 시설
 - 이에 따라 문화시설 설치여부는 지역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 지역 내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커뮤니티의 문화터미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무조건적인 개발이익금 충당은 개발수익을 떨어뜨려 지역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공공미술과 도시환경 개선차원에서 도입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

문화터미널

- 종착역이란 의미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원이 밀집하는 공간이자 출발하는 창구
 -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
 - 문화자원(행사 및 활동, 인력 등)을 집적(도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출발)을 운영하는 공간
-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옥 연구원은 지역문화 개발의 새로운 개념으로 '문화콘텐츠', '전달플랫폼', '문화터미널', '문화클러스터'를 제시
 - 문화콘텐츠가 전달플랫폼을 타고 터미널로 집적하여, 지역이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된다는 주장
 - 이에 따라 문화터미널은 콘텐츠 생산의 거점이자 클러스터 형성의 출발점으로 위치
 - 문화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점 문화시설은 ▷지역을 혁신하고 개발하는 출발점으로 위치하고, ▷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중심으로 자리하며, ▷지역을 결집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위치
 - 이처럼 지역개발의 핵심으로서 위치하는 만큼, 문화터미널은 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전영옥,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식'(제11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 규정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비용 중 일정비율(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 등 환경장식물 설치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3조)
- 개정에 대한 요구
 - 현재 미술계 등을 중심으로 환경장식물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공미술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개정방향
 - 각 건축물별로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해당 비용을 공공기금으로 조성, 특정 지역에 테마를 갖춘 환경조형물로 장식
- 활용방안
 - 법 개정요구에 맞춰, 도시재개발 및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이를 통합적인 기금으로 조성하여, 통합적 환경조형물 설치나 문화예술시설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유도

<표 5-26> 미술장식품제도 개선방안

구분	현행	전환
설치지역	건축물당 설치	지역 내지 도시 전체를 대상
설치대상	미술장식물	간판, 도로포장, 시설물 등 포괄적 시설영역
작품구입	건축주 부담	기금조성 후 공공부담
참여방식	지자체 심의	공공예술위원회 구성

자료 : 박찬국, “공공미술위원회의 역할과 활동과제”, 2003

“미술인 회의, 무엇을 어떻게?(가칭 미술인회의의 준비모임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 8. 18

- 개정효과

- 통합적인 환경조형물 설치나 문화예술시설 설치로 대체할 경우, 도시미관 정비에 환경조형물 적용 및 효율적인 문화예술시설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민간개발 유도

- 모든 문화시설을 공공이 건립하거나 개발이익금을 충당해서 건립하기란 불가능. 또한 공공이 건립하거나 개발사업자가 이익금을 충당하여 건립할 경우, 이에 따른 운영대책이 없어 효율적 이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정
 - 이에 따라 민간(기업, 개인, 법인 등)이 주도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특히 전문적인 문화예술시설이나 영화관 등과 같은 대중적 문화시설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이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 고려 필요. 주요한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표 5-27>과 같음

<표 5-27>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한 민간문화시설 유치

수단	주요전략	효과
용도지정방식	- 계획 단계에서부터 문화시설 부지 지정(용도지정) - 지정용도에 맞게 관련 문화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요소 밀집을 통한 클러스터 형성
토지제공방식	- 문화시설 용도의 부지를 수용한 다음, 조성원가로 민간에게 분양 ◦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문화시설을 건립하도록 유도	민간문화시설 입주촉진 (상업용도 문화시설)
인센티브방식	- 문화시설 입주에 따른 용적률 및 건폐율, 높이 완화 ◦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피해보상	문화시설과 결합한 건축 촉진
기부채납방식	- 부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이 문화시설을 건립하도록 한 다음, 일정기간 이후 공공이 수용하는 방식	민간자원을 동원한 공공문화시설 확충

제 6장

종합계획 및 정책사항

제6장 종합계획 및 정책사항

제1절 계획의 종합

■ 계획의 목적

- 창조적 도시 만들기(CCC Seoul; Creating Creative City Seoul)

■ 계획의 목표

- 문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활동력 제고
- 지역간 특화를 통한 문화적 이미지를 갖춘 균형있는 도시발전
- 생활권 문화기반 및 서비스체계 구성을 통한 시민 창조성 제고

■ 계획의 전략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의 설치
 - 뉴타운은 각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생활권 문화기반시설’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주변 지역 밀집현황을 고려한 ‘문화예술 기반시설’로 설치
- 장르별 예술축과 지역별 문화축을 고려한 문화시설 배치
 - 종합적인 생태환경 마련과 예술의 시장여건 마련
- 창작과 교육, 체험, 향수, 보존이 결합된 형태의 생활권 문화네트워크 구성
 - 현재와 같은 발표/전시장 중심의 관리시설이 아닌,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는 공간으로서 문화시설 개발

■ 확충방법

- 개발이익금을 통한 시설개발 환경조형물 관련 법 개정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 도시계획 요건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한 민간개발 유도

■ 지역별 배치구상

<표 6-1> 지역별 배치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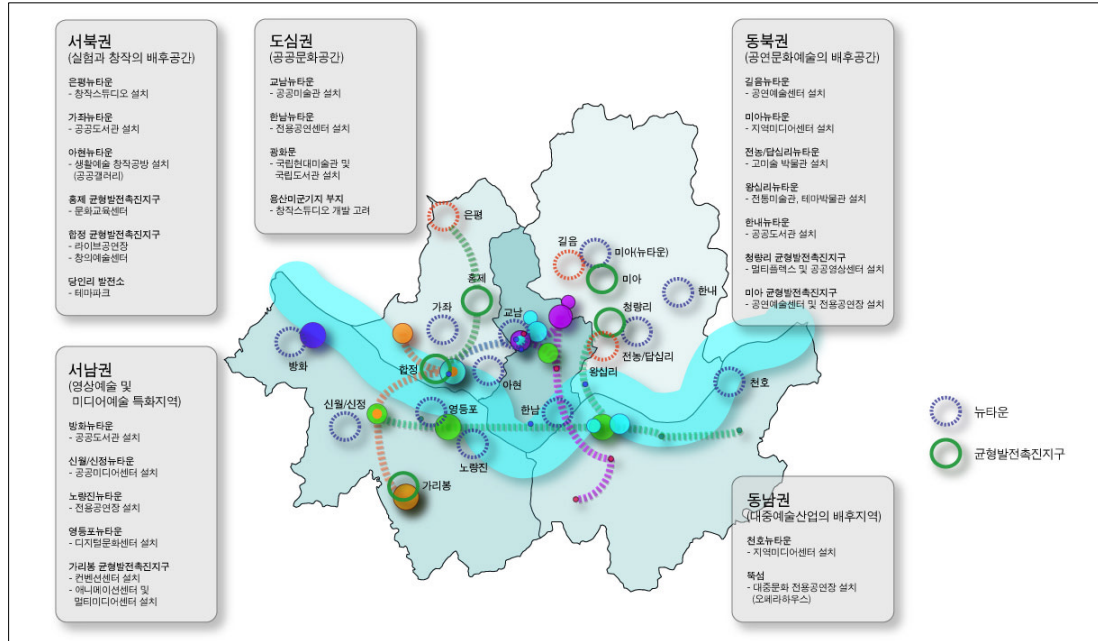
권역	권역현황 및 발전구상	대상지	설치대상시설	설치사유	시설형태 및 규모	비고
도심권	- 공공문화시설 밀집 - 상점/가점문화시설 밀집 ▷ 공공문화공간으로 발전유도	교남	공공미술관	도심 미술관 네트워크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공공미술공간화
		한남	전용공연센터	공연예술축 연결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외국인 대상 전통마케팅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상징성 제고	국가상징시설 대규모	용산 국립박물관 옆 이전 추진
			국립도서관	국가상징성 제고	국가상징시설 대규모	-
		용산 미군 기지	창작스튜디오 개발 고려 필요	이전 후 새로운 활용방안 수립 이전에 창작스튜디오로 임시 활용	임시시설	도시창작센터로 활용
동북권	- 공연문화예술시설 밀집 - 영화관/도서관 등 지역균형시설부족 ▷ 공연문화예술의 배후공간화 유도	미아	지역미디어센터	동북생활권 미디어 교육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왕십리	전통미술관 테마박물관	황화동 특성화 유도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충무아트센터 건립 (공연장 해소)
		길음	공연예술센터	대학로를 활용한 연극기반 문화서비스 제공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공연연습실과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한네	공공도서관	동북권 내 동남생활권 도서관 접근성 해소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도서관 중심의 생활권시설의 복합화
		전농	고미술 박물관	지역 내 고미술 상가 및 황물시장 특성화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계획반영
		미아 (균형)	공연예술센터 및 전용공연장	동북권 공연예술기반 마련 ◦창작실 공연장 등으로 설립	전문문화예술시설 대규모	민간개발 유도 ◦창작실 이용료 및 관람료로 운영
		청량리 (균형)	멀티플렉스 및 공공영상센터	영화/영상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	전문문화예술시설 지역가점시설 대규모	민간개발 및 공공개발

<표 6-1> 지역별 배치구상 (계속)

권역	권역현황 및 발전구상	대상지	설치대상시설	설치사유	시설형태 및 규모	비고
동남권	- 영화 및 대중예술의 생산과 소비의 창구 - 국제적인 문화 감각과 선진적인 소비문화의 장소 ▷대중예술산업의 배후 공간으로 조성	천호	지역미디어센터	IT밸리로 개발하는 개발계획 특성 반영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뚝섬	대중문화 전용공연장 (오페라하우스)	동남권 대중문화공연 동북권 영화/영상과 연결 (충무로 및 청량리 지역)	전문문화예술시설 대규모	-
서북권	- 시각예술시설 밀집 - 다원예술 및 실험예술 밀집지역 - 도서관 등 지역균형시설 부족 ▷실험과 창작의 배후공간으로 발전유도	은평	창작스튜디오	경기북부 창작네트워크 연결 빼어난 자연경관 활용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가좌	공공도서관	서북권 도서관 해소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예정
		이현	생활예술 창작공방 (공공갤러리)	도심의 시각예술과 홍대 지역의 창조성 연결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홍제 (균형)	문화교육센터	서북권 창의성 제고	전문문화예술시설 창작시설 대규모	공공건립 추진 국립보건원 내 개발 가능성 검토 필요
		합정 (균형)	라이브공연장 창의예술센터	홍대지역 공연예술지원 다원·자생예술지원	전문문화예술시설 대규모	민간개발 유도
		당인리 발전소	테마파크	홍대지역의 창의성과 한류 문화의 연결창구 역할	전문문화예술시설 시민오락시설 대규모	현재 문광부 검토 중 마곡지구 내 개발 가능성 검토 필요
서남권	- 영상예술 및 애니메이션 산업 집중 - 디지털 예술분야 발전 - 생활권 문화시설 부족 ▷영상 및 미디어 예술 특화 지역으로 조성	신월	공공미디어센터	목동지역과 강서지역을 연결하는 영상예술의 배후시설로 활용	생활권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방화	공공도서관	강서지역 내 도서관 점진성 해소	생활권편의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노량진	전용공연장	한강공연예술네트워크 구성(강변문화공간화)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생활권시설과 복합화
		영등포	디지털문화센터	아날로지탈(analogital)개념의 뉴타운성격 특화	지역특화시설 중규모	청소년 시설과 연결하여 개발
		가리봉 (균형)	애니메이션 및 멀티미디어센터 (컨벤션센터)	디지털 단지 지원 구로애니메이션 지원 지역이미지개선 및 혁신	전문문화예술시설 지원시설 대규모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이전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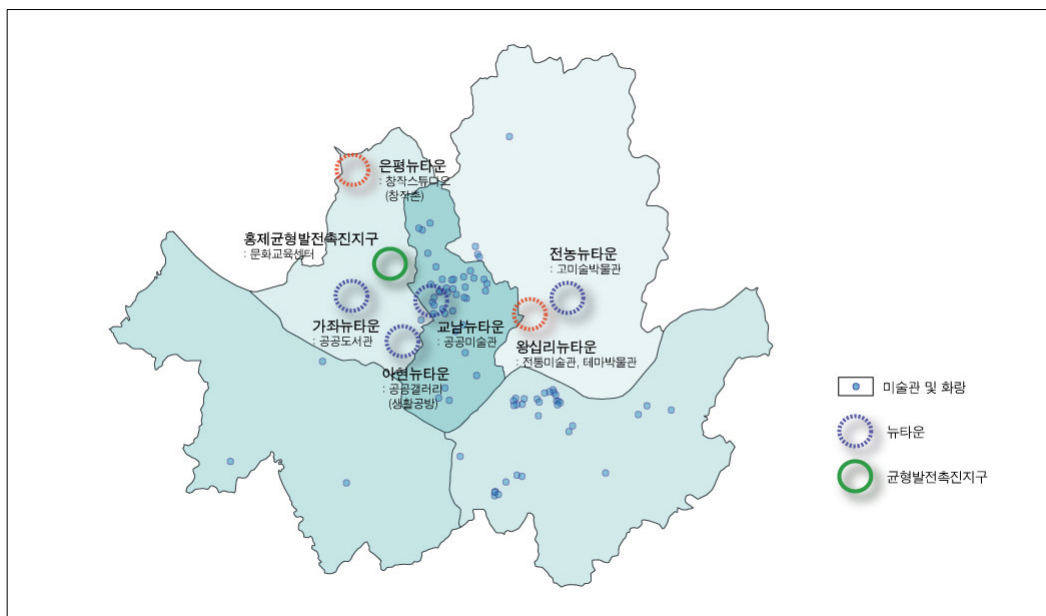
※ 시설분류

- 지역특화시설 :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한 시설
- 생활권특화/편의시설 : 생활권 문화기반시설
- 전문문화예술시설 : 문화예술장르에 속하는 문화기반시설(예술시설)
- 국가상징시설 : 국가적 상징차원에서 건립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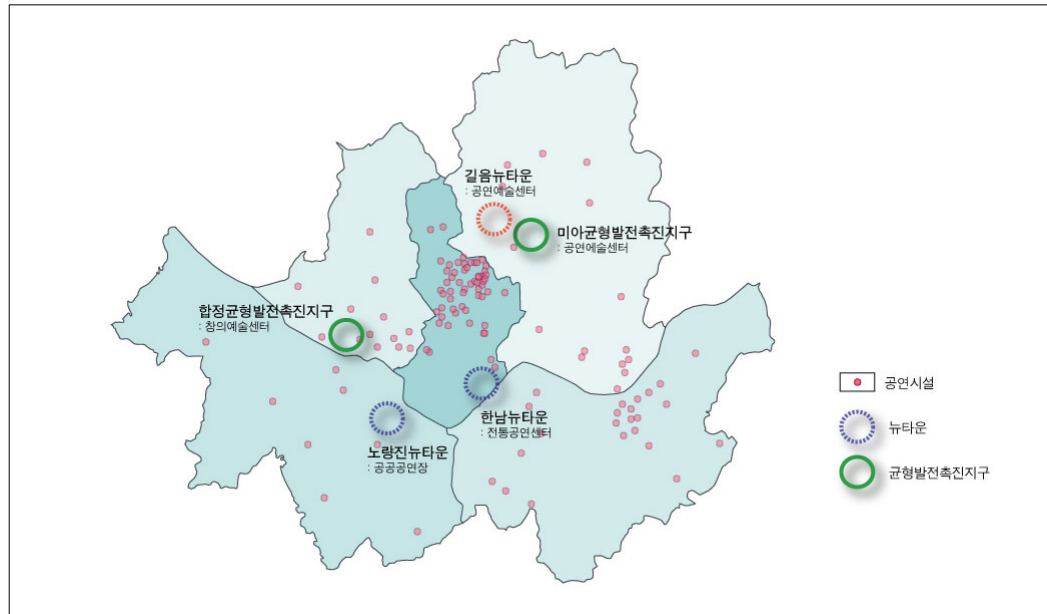


<그림 6-1> 지역별 배치구상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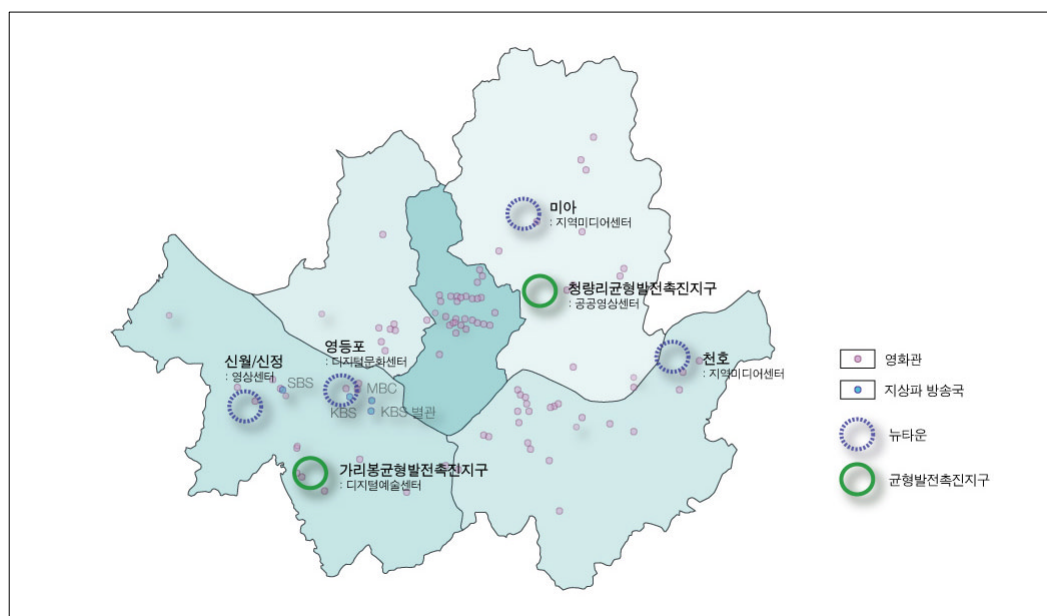
■ 부문별 배치구상



<그림 6-2>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시각예술



<그림 6-3>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공연예술



<그림 6-4>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영상 및 미디어예술



<그림 6-5> 부문별 문화시설 설치구상 - 도서관

제2절 정책사항

1. 시설개발관련 정책사항

1-1. 문화환경진단 및 문화영향평가제의 도입

■ 올바른 문화시설 설치의 지역 문화환경진단에서부터 출발. 따라서 개발 이전에 문화환경진단 및 개발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각 지역별 예술위원회나 지역위원회(민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상태 및 개발여건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구상한 다음, 도시계획가로 하여금 도시를 개발하도록 의뢰

- 가까운 헤이리예술촌의 경우에도, 예술가의 구상을 바탕으로 건축 및 도시계획 설계

- 그러나 우리의 경우,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를 MA(Master Architecture)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각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

◦ 도시의 문화와 환경, 도시민의 라이프 사이클과 스타일, 지역적 특성과 특화를 고려하

지 않은 채, 디자인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할 우려 발생

-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환경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가운데,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우선 고려한 다음, 도시계획가로 하여금 전략적 방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형태로 도시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문화환경진단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

1-2.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 분류체계의 개선

■ 현재의 문화예술시설 분류체계(문화예술진흥법 별표1)는 장르와 요소를 구별하지 않는 분류체계. 다양한 유형의 시설개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시설분류체계 개선 필요

○ 장르별 분류체계에서 요소별 분류체계로 개선필요

- 각 시설을 요소별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창작시설, 발표시설, 보존시설, 교육시설, 지역문화시설 등으로 분류 필요
- 각 분류영역에 해당 장르시설을 수직축으로 연결하여, 장르별 시설 개발

■ 또한 도시계획관련 법률(건축법, 도시개발법, 국토법 등) 개정 필요

- 현재 도시계획관련 법률에는 대부분 문화시설로 공연장, 전시장 등이 제시되어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공연장과 전시장 만을 고려하는 사태 발생
- 문화예술법상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각 관련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개발되어 시민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 필요

1-3. 환경조형물 관련 법안의 개정

■ 현행 각 건물에 미술품을 장식하도록 한 환경조형물관련법률(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을 개정하여, 도시개발 시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한편, 통합적 형태의 도시미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현행 환경물 조형제도는 예술가와 건축물의 1:1 관계로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어, 각 건물별로 통합되지 않은 형태의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미술계를 중심으로, 각 건물별 설치비용을 공공기금으로 조성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중
- 이에 법안 개정 시, 조성기금을 통해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 추진 필요
 - 법 개정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모자본(seed money)이 조성될 수 있어 문화시설 설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2. 시설운영관련 정책사항

2-1. 생활권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AIR 프로그램의 개발

■ 생활권 문화시설은 발표나 전시공간보다는 교육과 체험의 공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강의방식이 아닌, 예술가가 참여하는 교육방식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의 주요도시는 자기 도시의 여건에 맞게 적당한 형태의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Artists in Residence) 프로그램 운영

- AIR 프로그램은 예술가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집중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프로그램
- 각 도시는 예술가의 유치 및 예술의 생산성 제고, 자기 도시의 예술이미지화 및 주민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AIR 프로그램 운영
- 대부분 운영원칙은 자기 도시에 무엇을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설정
 - 교토아트센터의 경우, 교토 문화자원의 세계화 및 주민교육을 위해 운영
 - 메릴랜드아트센터는 주민교육을 위해 운영
 - 텔타예술센터는 지역 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운영(습지생태계의 보존 및 에코프로젝트 추진)
 - 샌프란시스코 Norcal Waste System의 창작스튜디오는 지역 내 환경쓰레기의 미학화를 위해 운영

○ AIR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스튜디오별 운영방식과 통합적 운영방식으로 대별

- 국가나 개인 등이 설치한 스튜디오의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
 - 그러나 시나 주(광역단체)의 경우, 각 기관이 설립한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
 - 시설별 운영에 따른 부담절감 및 프로그램의 통합성 제고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통합적으로 2개의 시설운영
 - 창동스튜디오와 고양스튜디오 내 AIR 프로그램
-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운영할 경우 많은 비용부담과 프로그램 난립 우려. 또한 구별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이 부재. 이에 따라 통합적인 차원에서 AIR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경우, 서울이라는 장소적 매력과 밀집된 인구, 국제성 등으로 인해 많은 예술가들이 밀집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서울문화재단이나 서울시 내에 별도의 AIR 운영팀을 조직하여 AIR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예술가 유치 및 각종 예술프로그램 개발 - 주민문화교육, 지역디자인설계, 지역특화 및 장소의 개발 등
 - 각 지역별 문화센터 내 예술가의 배치 및 관련 프로그램 통합운영

■ AIR 프로그램 운영필요성 및 운영방향

○ 운영목적

- 각 지역별로 설치될 생활문화센터(주민대상 복합문화센터) 내 문화교육 및 지역개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운영방식

-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동안 각 지역별 생활문화센터에 배치하여 거주여건 제공(실적에 따라 3년까지 연장 가능)
-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작품창작비용 제공
- 거주기간동안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사업, 장소개발 및 특화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 ... 주민대상 고품질 문화서비스 제공

○ 작가선발

- 정책사항

- ## 2-2. 통합적 시설네트워크의 구성

-
- 황해균형발전촉진지구**
- 문화교육센터
 - AIR 프로그램
 - 각 뉴타운 내 문화센터에 예술프로그램 공급
- 균형발전촉진지구
○ 뉴타운

200

○ 지역총량 조사 및 문화인력 자원개발

- 문화시설의 성공적 운영여부는 ‘누가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 이에 따라 지역 내 관련 문화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참여시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이를 위해 지역 내에 있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조사하고, 지역 내 관련 문화인력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또한 관련 문화인력을 교육하는 ‘시설운영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설운영의 매뉴얼 및 평가시스템의 개발

- 지역별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 운영프로그램 및 운영매뉴얼, 평가시스템 개발이 필요
- 각 시설별 프로그램을 기본프로그램(의무)과 권장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각 시설별로 차등하는 정책적 방안을 통해 시설운영 제고
 - 기본프로그램 -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
 - 권장프로그램 - 예술가 입주프로그램 및 지역디자인 프로그램
 - 특화프로그램 - 지역별 역사 및 특별한 장소의 개발, 특정한 장르의 예술발전 등 특화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제3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한계

■ 뉴타운 및 균형발전지구의 조성과 더불어 문화시설 설치 필요

-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광범위한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21세기 도시에 걸맞는 문화시설 설치 필요
- 본 연구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과 더불어 필요한 문화시설을 개발하고, 지역 간 균형성에 걸맞게 각 지역별로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 그에 따라 각 지역별 문화여건 및 부문별 문화여건을 검토하고, 이에 걸맞게 시설을 배치하는 종합계획 마련

■ 서울전반에 걸쳐 어디에 어떤 문화시설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가 본 연구의 과제

○ 기본적인 축은 부문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예술축과 생활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 부문별 현황 및 각 지역별 현황에 대한 분석

◦ 부문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부문간·장르별 설치현황을 분석하고, 주요하게 분포되어 있는 현황과 실태를 파악 - 생태요소(생산과 유통, 소비, 보존 등)를 고려한 부족시설 현황 추출

◦ 지역별 현황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 밀집현황과 문화서비스 도달정도를 파악. 각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부족시설 현황 도출

-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추출하고, 지역별 여건을 바탕으로 각 시설을 배치

◦ 밀집지역 지원 - 밀집지역의 요소현황을 파악하고, 주변지역 내 개발대상지를 활용하여 가능한 예술시설 설치

◦ 생활권 네트워크 구성 - 주변지역 밀집지역을 연결하는 한편, 생활권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부족한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문화시설 배치

◦ 예술축의 연결 - 각 장르별 밀집지역과 생활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연결축을 마련, 종합적인 서울시 예술네트워크 마련

■ 뉴타운 내에는 생활권 문화시설(지역문화기반시설)을,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개발가능한 기타 대상지에는 전문문화예술시설(문화기반시설)을 배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핵화된 거점지역 창출 및 생활권 네트워크 강화

○ 배치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 적용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에 따라 특화된 문화시설 설치계획이 있는가 여부

◦ 전농 : 고미술박물관, 신월·신정 :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아현 : 생활예술타운 건설, 천호 : IT도심문화벨리 구축, 방화 : 기존학교를 리모델링한 문화센터 건립 등

- 주변 지역에 밀집된 문화자원이 있는가 여부

◦ 도심권 : 공공예술, 동북권 : 대학로 공연예술, 서북권 : 홍대 창의예술, 서남권 : 영상예술, 동남권 : 대중예술

◦ 각 권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현황과 예술축을 바탕으로 주요한 시설배치

- 보편적인 문화서비스의 제공 여부

◦ 생활편익과 문화향수·참여의 기회 확대라는 시민문화권 차원에서 보편적인 문화서비

스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여부

-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뉴타운에는 생활권 문화시설을,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는 전문문화예술시설 배치
- 뉴타운의 생활권 문화네트워크 구성에 주력
 - 가능한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을 연결하는 생활예술네트워크 거점으로서 설치될 수 있도록 구성
 -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창작과 교육을 결합한 형태의 시설개발
-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설치를 통한 특성화된 서울의 문화적 균형축 마련
 - 미아 : 공연예술센터, 청량리 : 영상/영화 육성을 위한 공공미디어센터, 홍제 : 문화교육센터, 합정 : 라이브공연장 및 창의예술지원센터, 가리봉 : 애니메이션 및 멀티미디어센터
 - 각 지구 내 특화된 유형의 시설설치를 통해, 각 지역이 특화된 이미지를 갖고 서울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앞서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상지에 대한 관찰방식이 아닌 서울시 전체의 분포성을 고려한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접근방식
-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한 정도의 연구로서, 본 연구는 향후 시설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생활권 문화시설의 기초적 유형과 형태를 제시하고, 전문문화예술시설의 종류와 형태 제시에 주력
- 종합적인 분포성을 고려한 데 가치가 있을 뿐, 실제 시설설치 시에는 각 대상지별 특성 및 주민수요,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배려 필요
- 각 시설을 모두 1로 계산하는 방식에 기초한 연구
 - 시설운영의 내용이나 형태,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이 있으면 서비스가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
 - 때문에 지역에 따라 현실적으로 느끼는 감이 다를 수밖에 없음
 - 시설 개발 시에는 각 지역별 여건과 시설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 기타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각 지역별 시설개발 방향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설유형을 제시하는 한편, 문화시설의 유형과 형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만족
- 후속으로 각 장르별 생태여건과 문화시설 형태, 각 지역별 문화시설 여건과 개발형태 등을 연구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2002
- 광주광역시, 「문화수도 육성 기본방안」, 2002
- 권영덕, 「기성시가지내 정비사업의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 라도삼 외,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 실태 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라도삼,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라도삼, 「서울시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현황 - 광주」, 2004
-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년도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연구」, 2001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3
- 복득규 외, 「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 지원 연구단, 「월드컵 전략지역 장소 마케팅 - 흥대지역 문화활성화 방안」, 2000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2002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004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커뮤니티 존 실천 매뉴얼」, 2003
- 서울특별시, 「도시비교통계」, 2003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1세기 도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1997
- 신경희, 「잠재적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 임상오, 「공연예술의 경제학」, 김영사, 2001
- 임학순 외,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 - 문화시설의 설치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 이병민,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지역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2
- 이희정·김광중,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개선방향 연구 - 지구단위계획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 장영희 외,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 정근식·이종점, 「문화도시 만들기 이론과 구상」, 경인문화사, 2001
- 한국도시설계학회, 「강북뉴타운 어떻게 할 것인가?」, 2003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방안」, 1996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의 집 모델 및 운영방안에 관한 외국 사례 조사연구」, 1996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윙통성 : 1990년대 영국의 아트센터」, 1998
- 삼성경제연구소, “도시 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 「Issue Paper」, 2003
- 삼성경제연구소,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Issue Paper」, 2004
- 삼성경제연구소, “산업화에 접어든 공연예술”, 「Issue Paper」, 2003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대도시에서의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요약본」, 2001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환경 연구 - 제1차 중간보고」, 2004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문화정책 포럼 자료집」, 2004
- 김용, “인구구조 특성을 이용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입지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유미, “한국음반산업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희진, “서울시 화랑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노인래, “사회복지관의 입지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박도영, “생활권 청소년 수련관의 입지유형별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유석양, “서울시 공원의 입지 및 서비스 권역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선미, “홍익대 주변지역 특징적 기능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종용, “인터넷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창근, “패션쇼핑몰의 입지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동대문 밀리오레와 남대문 메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태원, “서울시 산업·업무지역의 공간분석 및 입지이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규섭, “상업시설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 압구정지역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한유선, “공공도서관 입지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윤수 외,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충청북도의 중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8권 제2호, 2003
- 신동호, “체화된 네트워크 : 미국 실리콘 벨리의 성공요인”, 「국토계획」 제34권 제4호, 1999
- 신동호·박은병, “독일 Dortmund 市の 지역혁신체제”, 「국토계획」 제38권 제2호, 2003
- 이선주·김영, “중소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 이성근·박상철·이관률,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테크노파크의 역할”, 「국토계획」 제39권 제2호, 2004
- 이훈길·이주형, “서울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 이흥재, “도시문화정책의 방향”, 「국토」 통권 235호, 2001
- 이희연,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7호 3호, 2002
- 전경구·서찬수·이정주, “지역혁신구조의 실증적 분석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8권 제 7호, 2003
- 주미진, “클러스터와 지역경제와의 관계-클리블랜드 - 애크론 CMSA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 차상률, “일본의 첨단기술산업지역 관련정책 및 제도적 흐름에 관한 고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 황우익, “벤처기업의 집적지 입지요인과 기술혁신 성과”, 「국토계획」 제37권 7호, 2002

- 伊藤 壽朗, 「시민 속 박물관(市民のなかの博物館)」, 吉川弘文館, 1997

- A. Zehr & J. S. Burros, 「A Survey of Chicago's Cultural Landscape」, City of Chicag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2002
- C. Landry, 「The Creative City :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Comedia, 2000

- Graeme Evans, 「Cultural Planning : An urban renaissance?」, Routledge, 2001
- McKinsey & Alliance for the Arts, 「Cultural Capital; Investing in New York's Economic and Social Health」, 2002. 3
- J. Mark Schuster, "Sub-national Cultural Policy-where the action is : Mapping State 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002 Vol.8 (2), pp181~196」, 2002
- <http://www.jpf.go.jp/air/>

[부록]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워크숍

일시 / 2004. 11. 18 (목) 14:00~18:30 (관련 협회)

2004. 11. 19 (금) 14:00~18:30 (전문가)

장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중회의실

주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태호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사무국장

<서울시 문화시설 설치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원고 -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서울은 최소한 국내에서는 양과 질에 있어 최고의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예컨대 지역의 경우 문예회관이 공연장의 전부이고 그를 중심으로 공연과 관람, 체험이 이루어지지만 서울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공연관람과 체험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거지역의 공연예술과 전문 공연예술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의 말머리를 잡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란 대학로 등 특정문화지구나 거점 시설 등 도심권을 제외한 지역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① 현재 문화시설 분포 상태와 설치운영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최소한 연극에 있어서는 대학로라는 강력한 해계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공연예술지구(地區)가 있다. 각 지역에는 문예회관 혹은 구민회관의 이름으로 대부분 중극장 규모의 프로 시니움을 갖추고 있다. 이들의 경우 산발적 공연과 아동극 중심의 단기 공연으로 인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연예술이 아닌 참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공공공연장 혹은 문화시설로서 활성화되고 본연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걸맞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학로 및 거점시설을 따라가려 하기보다 변별력 있는 운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예회관 혹은 구민회관 등은 거점시설과 비교하나 서로를 비교하나 전혀 변별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외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연장 형태가 비슷하며 공연물의 성격이나 운영방식 역시 무슨 행정 지침이 있는 양 비슷하기만 하다.

우선 인구밀집지역이 형성되면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장지역, 학원가, 대규모 상가, 공원의 설립과도 연결된다. 특히 구로구 - 동작구, 강북구 - 도봉구 등은 특성 있는 밀집지역이며 연결된 지자체임에도 공연장은 물론 다른 문화시설이 극소수라는 점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문화정책까지도 의심하게 된다.

반면 공연장 개소수는 해외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에도 인구대비에서 취약함을 드러낸 자료는 오히려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극장이 적은 것이 아니라 서울이 기형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요컨대 공연시설의 경우 대학로, 홍대 등 밀집 문화지구와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 그 밖의 근린 여타의 시설을 확충, 운영함에 있어 두 개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지역 구민회관의 경우 거점시설의 수준과 방식을 따라가려는 것이 문제이며, 각기 전혀 변별력 없이 운영되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인구밀집지역에 최소한의 문화 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주변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다.

② 서울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문화시설은 무엇인가?

공연예술을 향유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활동이며, 둘째가 동아리(아마추어 연극)활동 등 체험활동이며, 셋째가 연극치료나 연극놀이 등 교육활동이다. 물론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체육을 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으로 나누는 방식을 도입하였을 때 위와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연예술시설 역시 이러한 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의 시설에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절대 아니다. 각 시설마다 그 중심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로 및 거점시설의 경우 첫 번째 관객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는 둘째와 셋째 기능을 중심에 둔 시설을 고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시설을 대학로 및 거점시설의 경우와 지역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학로 및 거점시설의 경우

현재의 시설에서 부족한 부분은 공연장의 다양화이다. 대학로 공연장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극장이,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공연장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프로시니움 무대라는 것이다. 서울시에 있는 127개의 공연장 중 프로시니움 무대가 아닌 공연장은 한손으로도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국립극장 하늘극장,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정도이다. 예술 발전의 해악이 관성과 표절이라면 공연예술을 담는 그릇인 공연장 역시 천편일률의 해악일 수 있다.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여 다양한 예술을 담을 수 있는 가변형 무대는 때문에 절실하다. 예컨대 명동국립극장은 패션의 거리답게 패션쇼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야 한다. 대학로에 새로 건립되는 극장은 여타의 소극장보다 좋은 시설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시설로 건립되는 것을 자랑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서울에 건립되는 모든 공공공연장은 반드시 가변형으로 만들자는 조례가 제정되어도 넘침이 없다.

■ 지역 시설의 경우

시설의 크기(객석수) 경쟁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체험기능과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의 ‘문화의집’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250석 규모의 가변형(!) 강당이 있고 소모임이 가능한 세미나실을 갖춘 동사무소 크기의 독립 공간을 이룬다. 공연장에서는 아마추어 모임의 발표회도 가능하며 전문 극단의 아동극 공연도 가능하다.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작품도 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미나실에서는 각종 강좌와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요컨대 대학로 및 거점시설 수준의 공연장의 경우 가변형 형태로 건립되어야 하며 지역 시설의 경우 주민의 밀접한 참여가 가능한 ‘문화의집’ 형태로 건립되어야 한다.

③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나의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수요도와 교통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전문공연을 중심으로 한 공연장의 경우 현재 건립계획이 있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대학로지구의 경우 방송통신대를 이전하고 멀티플렉스형 극장을 짓고자 하는 것은 서울지역 연극인들의 소망이며 이미 타당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건물은 반드시 가변형의 다양한 공간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로는 이미 포화상태이다. 공연장이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극장 대관료는 오히려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연계성 원리에 의해 다른 곳에 전문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대학로를 옮기는 일은 행정수도를 옮기는 일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학로에서 한발 벗어난 성북구의 사설공연장들이 운영에 난항을 겪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이다. 이 때문에 서남권에 새로운 공연예술 클러스터 개발을 제안한다. 서울특별시답게 동양 최대 객석의 공연장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생활친화형 소공연장을 멀티플렉스형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 시설은 공연예술단체의 연습실과 사무실을 임대하고 다양한 공연장을 구비하면서 체험활동과 교육활동을 가능케 한다면 새로운 형식의 문화지구가 건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구민회관이 거점시설이나 전문시설처럼 공연예술을 수용하려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시장연계성이라 보여진다. 찬거리 하나도 대형마트에서 사는 세상이다. 대학로나 거점시설에 비해 구민회관은 구매력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새로운 밀집형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으로 이미 건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동 예술인회관을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공공 공연예술타워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서북

권의 당인리발전소를 서울문화재단 차원에서 인수, 리모델링하여 문화발전소를 건립하는 안도 좋을듯하다. 여기에는 기존 예술과 함께 대안예술, 다원예술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공간의 경우 지리적 분포보다 인구밀도와 교통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서남권 구로-금천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문화시설 확충이 절실한 곳을 우선 선택하여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수요도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부지 또한 대형 구민회관 건설의 경우 큰 난항이다. 90년대 건립된 지방 문예회관의 경우 대지문제로 인해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다. 때문에 ‘문화의 집’ 형태의 소형 복합관 건립이 꽤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시골에는 폐교가 있듯이 이 지역에는 폐공장이 있다. 이를 리모델링한다면 또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금천구민회관의 경우 옥심네팔만한 중형 극장 하나 없는 소규모 복합관으로 조성하여 650여 평으로 건설하였다.

굳이 대상지를 검토하자면 구로, 금천 지구와 강북, 도봉지구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

④ 설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전문공연장 시설의 경우 시장연계성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목동예술인회관과 당인리문화발전소 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이정도 규모의 시설에서는 자생적 대규모 시장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목동예술인회관의 경우 예술단체의 사무실과 창작 스튜디오를 만들고 중형, 소형 멀티플렉스형 공연장을 함께 건립한다면 상시적 공연과 함께 생동감 있는 예술타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부대시설을 임대하여 최소한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면서 주변 정화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대학로가 포화상태가 된 원인 중에는 공연장이 아니라 술집의 증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객들을 위한 체험활동과 교육활동을 동시에 연결할 통로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목동예술인회관의 규모는 알지 못하지만 예컨대 50여 개의 예술단체가 입주할 수 있다면 최소 300여 명의 공연예술인들이 상주하는 것이다.

당인리발전소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력발전소라는 산업화시기의 상징물을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공연예술 발전소로 바꾼다는 상상은 꽤나 상징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외관은 오히려 그대로 둔 채 내관을 정비하여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예술발전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지역의 모델로 제시된 ‘문화의 집’ 형태는 철저히 시민자치시설로 바라봐야 한다. 주민이 원하는 공연을 초청하는 것에서부터 요구되는 문화 강좌와 동아리활동 지원까지 담당하여

야 한다. 또한 현재의 문화계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취향에 맞는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까지 요구되어진다. 때문에 앞서 제안했듯이 250석 규모의 공연장과 창작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이 포함되길 바란다. 단, 많은 문화센터들의 실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체육시설과는 분리되어 활용되길 바란다. 운영 주체의 경우 지역의 시민단체와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경영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⑤ 기타 의견

소위 예술인 상주제도(Artists in Residence)라는 프로그램이 구민회관 혹은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이 되어 있으나 얼마나 실효를 거두는지 의구심이 든다. 예술단체는 구민회관에서 공연할 마음이 없고 의무적인 공연을 치르기엔 출혈이 적지 않다. 예술단체는 제 몇회 정기공연을 구로구민회관에서 올릴 리 없으며 의무적 공연 정도는 지금도 진행 중인 수준이다. 사무공간과 연습실 임대료를 절감할 목적이지만 조건이 까다롭기만 하다. 구민회관의 경우 이들을 받아들인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활성화보다는 관리, 보존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연극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그 깔끔한 구민회관을 내준다는 것은 내가 봐도 쉽지 않다. 오히려 지역의 '문화의집' 형태의 복합관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공연의 부담이 아닌 체험과 교육활동의 의무를 주고, 공연공간이 아닌 창작공간을 임대한다면 서로가 가능할 것이다.

박준홍

대중음악 비평웹진 ‘가슴’ 편집장, 민족음악인협회 회원

① 현재 문화시설 분포 상태와 설치운영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현재로서는 ‘분포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분포상태를 따질 만큼 문화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수도하고 비교를 해도 ‘인구’대비 문화시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의 경우를 보면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의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시설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근린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벤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문화산업, 문화예술교육을 논할 때 적절한 문화시설 확충 계획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구마다 ‘평균적’으로 그 수를 늘리는 방식은 좋지 않을 것이다.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은 한군데 모여 있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한 구씩 ‘순서’를 정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생각이다.

그리고 생활문화시설(구민회관,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수도 부족하지만, 정작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별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또한 운영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기호와 맞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관계자들의 노력과 고민이 얼마나 수반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공연시설’의 개념으로 관람석(의자)이 있는 기존 음악, 연극 공연장만을 보는데, 이제는 ‘라이브클럽’을 공연시설 개념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이브클럽은 90년대 말 이후로 비주류(인디) 뮤지션들의 거의 유일한 활동 공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계에서 음악적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보루이다. 일본의 경우 전국 3000여 개의 라이브클럽이 음반산업(시장규모 5조원)을 키우는 동력이면서 문화향유 역할까지 함을 생각한다면, 라이브클럽은 분명 현재 음악공연장의 기능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 서울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문화시설은 무엇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주류(인디) 뮤지션들의 거의 유일한 활동 공간’이면서 대중음악계에서 ‘음악적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보루인 라이브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

인다.

라이브클럽은 현재 대안적인 음악공연장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문화향유 기능, 관광명소 기능까지 가질 가능성이 크다.

라이브클럽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중요하다.

(1) 뮤지션들이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공간

라이브클럽은 뮤지션들이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장소이고, 인디뮤지션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500~1,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2,000~3,000석 규모 이상의 대형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언더그라운드/인디 뮤지션들에게 200~300석 규모(스탠딩 기준)의 라이브클럽은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다.

(2) 인디뮤지션들에게는 유일하게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라이브클럽은 상업적인 음반을 발표하지 않은 뮤지션들이 현실적으로 팬들(수용자들)과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3) 인디뮤지션들의 수입원 역할을 하는 공간

라이브클럽은 인디뮤지션들에게 창작물을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연 개런티'를 받는 곳이다.

(4) 인디뮤지션들의 음반 발매/판매에 도움을 주는 공간

인디뮤지션이 라이브클럽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홍보 수단이다. 한국처럼 인디뮤지션들의 음악이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거의 나오지 않고, 신문매체에서는 잘 다루어 주지 않고, 한국대중음악 전문지가 없고, 유일하게 인터넷에서만 몇몇 음악전문 웹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공연은 강력한 홍보 방법이다.

(5) '다수의 다양한' 뮤지션들이 활동하는 공간

라이브클럽은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다수의 다양한' 뮤지션들이 활동 가능한 공간이다. 음반산업이 성장하려면 시장에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가진 뮤지션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 이런 유형의 뮤지션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포진한 공간이 바로 라이브클럽이다.

③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밀집형과 분산형 문화시설 개념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둘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이지 따로따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화의 민주화’를 생각한다면 분산형이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고립된 위치에 문화시설 하나 덩그러니 있다면 운영면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규모 문화시설로 시설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구비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문화의 집 수준의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로는 고립적으로 존재할 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한 구씩 ‘순서’를 정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생각이다.

그리고 라이브클럽만 얘기한다면, 일단 홍대지역의 산개된 라이브클럽들을 한군데 밀집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산개된’ 형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이용이 불편한 형태이다. 이게 낙후된 시설과 함께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라이브클럽들이 대학로 연극소공연장들처럼 한군데 밀집해서 운영되고, 시설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된다면 기존 음악매니아들뿐만 아니라 그 간 대중음악에 관심을 접은 일반인들도 많이 찾을 것이란 생각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라이브클럽들이 더욱 많이 생길 것이고, 이는 분명 새로운 ‘불거리’가 될 것이다. 서울의 관광명소로서도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④ 설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운영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 부재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을 만들 때 심사숙고할 내용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다.

먼저 인력운영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빈듯한 건물 만들고 ‘일률적으로’ 기자재 구입하는 데 돈 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능력 있는 운영자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운영자를 뽑을 때의 관점인데, 행정에 능한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에 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문화적인 마인드가 풍부하고, 현장경험(문화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이 있고, 일에 애정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전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운영프로그램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안승원

한국무용협회 사무국장

1. 각 구에 있는 구민회관은 시설면에서는 무용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공연장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간단한 행사(예 : 재롱잔치, 학예발표회, 민방위교육 등)를 치루기에만 적합하도록 설계·운영되기 때문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2. 무용공연을 위해서는 장르 특성상 종합예술이기에 조명장치·음향시설 등의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조명기기나 무대장치의 활용면에서도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도 있다.

3. 이러한 문제점은 공연전문가가 참여치 않고 건축가 등이 설계 후 건축한 극장은 활용면에서 재공사를 하거나 추가 작업으로 인하여 인력과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극장에 구멍을 낼 경우 각도가 안 맞아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4. 현재 서울 전역에 무용공연에 가장 적합한 공연장으로는 대학로에 있는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이 그나마 적합한 공연장으로 꼽힌다.

그 외의 극장들은 공연장이 없어 무용공연을 그 극장에 맞춰 안무자가 본인 의도와 다르게 재안무를 해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5. 타 장르에 비해 현재 무용전용극장은 없다.

이미 연극이나 음악 등은 전용극장이 많이 지어졌고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용은 중극장 형태의 극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향후 문예진흥원에서 대학로(구 한국화약 주차장)에 건축중인 오피스텔 일부를 매입하여 중극장을 짓는다고 하니 그 장소를 무용전용극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무용전용극장은 이미 무용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스텝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된 가운데 설계가 이루어져야 차후 이러한 모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1. 서울시 공공영상문화관련 시설 주요 현황

시설명	집행 기관	운영단체	위치	주요 사업	비고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팩트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독립영화 협회	종로구	미디어교육/장비 대여 후반작업실 제작지원/정책개발	-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강서구시설관리 공단	강서구	미디어 교육 장비 대여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지원
아리랑 미디어센터	성북구	성북구도시관리 공단	종로구	미디어 교육 장비 대여	-
구 활력연구소	서울시 문화국	서울영상위원회	중구	미디어 교육 비디오 관립실 소극장 운영	-
서울아트시네마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	종로구	시네마테크	-
시사실 봄	한국영상자료원	-	서초구	시네마테크	-
아리랑 시네센터	성북구	성북구도시관리 공단	성북구	상업영화관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시	서울산업진흥 재단	중구	극장 후반작업실	서울시 산업경제국 사업
서울만화의집	서울시	서울산업진흥 재단	중구	전시 도서관	서울시 산업경제국 사업

2. 현재 문화시설 설치 현황과 운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1) 거시적 문화정책에 근거한 서울시 지원의 문화시설 부재

- 서울시의 문화사업 차원에서 설치된 공공영상문화시설은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는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구 활력연구소 뿐이며, 대부분의 공공 문화기반시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치되었음

- 서울시의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서울 만화의 집은 서울형 신 산업 지원에 의해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중임
- 현재 서울시에 필요한 필름아카이브, 시네마테크, 영상미디어센터 등은 문화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설치 운영중임

(2) 서울시와 구 단위 지자체의 문화정책 네트워크 부재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의 사업은 서울시 문화정책과 상관없이 단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중구와 성북구는 서울시 문화정책과 관계없이 영화와 관련된 사업 추진 중
- 강서구 역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미디어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3) 중장기적인 공공영상 문화정책 부재

- 영상문화 정책에 있어 서울시 관련공무원의 이해도 부족으로 실제 영상문화 단체들과 갈등 초래,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구 활력연구소 위탁운영 문제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와 서울시는 큰 갈등을 빚었음
-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은 산업적 관심에 치중되어 있음
 - 서울의 애니메이션 진흥사업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추진, 관련 사업 및 정책은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영역으로만 사고되고 있음
 - 영상정책 역시 상업영화의 로케이션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영상위원회 지원뿐임

3. 서울시 공공영상문화 지원정책 마련 시 고려해야할 사항

(1) 중앙 정부의 지원과 서울시의 지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낼 것인가?

- 정부의 문화정책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과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속에서 지원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가 시행해야 될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중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으나, 시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구 단위의 실행에는 지원해야 함
- 대규모의 시설 설치보다는 구 단위 지자체를 통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 필요함

(2) 서울시와 지역자치구 간의 문화정책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자치구의 문화정책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정책 방향이 마련될 필요 있음
- 공공영상문화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자치구를 통해 진행될 필요 있음. 지역자치구 간 지원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정책 방향 설정될 필요 있음

(3) 영상미디어단체 및 지역 영상미디어활동가들과 어떻게 관계맺음을 할 것인가?

- 공공영상문화 지원정책은 단위시설 확충 형태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됨
-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영상미디어활동가들을 통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접근방법 필요
- 단기적인 이벤트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4) 서울시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애니메이션진흥정책 등에 있어 산업진흥정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해당부서 간 업무조정 필요

이기훈

한국국악협회 총무

① 현재 문화시설 분포 상태와 설치운영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 각 지역에 있는 서울시 관련 문화시설은 현재 서로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구별 구민회관이나 문화공간을 특화하여 예술장르별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예를 들어 종로구는 종로구민회관을 국악전용 행사장으로, 영화의 거리가 있는 성북구에는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서초구의 서초구민회관은 클래식연주 전용관, 양천구민회관은 뮤지컬 등으로 전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② 서울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문화시설은 무엇인가?

- 특성화시킨 지역별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는 음향, 조명, 기타 구조 변경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봄

③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 예술장르의 특성화는 서울시와 해당 구청이 협의하여 지역적 특성과 예술장르의 연고성,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 지정하는 것이 좋겠음

이명복

민족미술인협회

① 문화시설 분포 상태와 설치운영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공연시설과 공연단체 위주로 정책이 입안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대중의 문화적 경험을 확대하고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운영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공간으로 다가갈 때 공공 공연문화시설은 문화 민주주의와 사회적 문화적 역량 확대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 1) 대부분 문화시설이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타 지역과의 문화향유권의 불균형 초래와 소외 현상
- 2) 일부 대형 공공문화시설(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기능과 역할이 떨어짐
- 3) 공공문화시설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대부분의 공공문화시설이 비전문 인력인 공무원에 의해 조직,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의 독립성도 매우 낮음
- 4) 예산 부족, 기획력의 부족 등으로 공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5) 특히 구민회관, 문예회관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외형에만 치중해 있으며 활용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내부시설이 매우 조악한 경우가 많음
- 6)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

②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문화시설

전시, 공연, 도서관, 과학관 등이 함께 어우러진 멀티형 문화복합공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소외지역에서의 독립문화공간은 형식적인 공간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으며 다수의 시민이 외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화복합공간은 단순히 관객에게 전시와 공연을 보여주는 역할 외에도 각종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과 가치관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도 단순히 건물과 책만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책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상상과 창조의 정신과 실험이 가득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야말로 주민자치, 지역자치를 위한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이 그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공연과 프로그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망을 구축하고 공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1)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에 기본적인 공공문화시설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지역과 관계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복합문화공간과 함께 특성이 분명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지역문화 발전에 매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시민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의 공원이나 지하철역 부근에 문화공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점차 대형빌딩의 일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나고야시의 경우 아이치현 문화예술센터는 중심가의 빌딩 꼭대기층에 마련되어 있으며 나고야보스톤미술관도 지하철 역사 앞 대형빌딩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빌딩을 생동감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고야의 시라카와 공원에는 시립미술관, 나고야시 과학관이 공원 내 자리잡고 있어 언제든지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실내야구장인 나고야 돐 옆에는 히가시 도

서관과 스포츠센터, 시민갤러리 야다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갤러리 시설도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대형 작품도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었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 들었다.

동경의 우에노 공원은 국립미술관이며 박물관 그리고 과학박물관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도쿄예술대학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미술관과 음악당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공연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④ 설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1) 시민과 문화공간과의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 2) 대부분 권위적인 건축보다는 친근한 구조의 형태가 바람직
- 3) 주차장시설의 확보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선정

이제 우리는 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문화시설 사업은 잘못하면 획일적인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없지 않으나,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을 게을리 한다면 속 빈 강정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① 현재 문화시설 분포 상태와 설치운영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 서울시 중장기 도시개발계획과 개별 문화시설 설치운영간의 통합적인 접근 부재

- 현재 서울시의 문화시설은 일반적으로 서울시 문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 해당 지역의 문화환경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개별적, 고립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의 맥락 속에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정책의 일관성 속에서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개발주의와 문화 공공성이 상호 충돌함으로써 개별 문화시설의 의미가 훼손되는 경향이 강함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문화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각 구청간의 실질적인 협의체계 부재와 행정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문화시설의 중복 투자(특히 문화산업 관련 시설) 및 부적절한 시설 건립이 반복되고 있음

■ 신규 문화시설 설치 과정의 전문성 부족

- 신규 문화시설 건립 과정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부족
- 서울시의 신규 문화시설 설치 과정을 보면 대부분 객관적인 연구조사 및 사전계획 수립 등이 부족한 채 개별적인 아이디어와 운영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지원 사례가 많음
- 신규 문화시설 설치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이용자층인 일반 시민이나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소수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기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신규 문화시설이 해당지역 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신규 문화시설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선정이 해당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적절성보다는 행정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강함
- 신규 문화시설 계획 수립에 있어 전문가 참여의 범위 역시 지나치게 제한적임.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신규 문화시설 건립비용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 연구조사 및 평가(R&D)

관련 예산 및 투자가 매우 적음

■ 설치된 문화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보완 부족

- 그간 서울시 문화시설의 운영 실태를 보면 초기 계획에 비해 지속적인 운영평가 및 보완 사업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복투자, 하드웨어 중심의 운영, 시설 간 연계성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투자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기존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및 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함
- 특히 평가사업을 서울시 담당부서 및 시설 운영주체들이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인센티브제도 도입(지원예산 증액, 리모델링 등 추가 투자 여부), 지역 내 문화시설간의 연계성 강화 등 적극적인 운영활성화제도로 활용해야 함

② 향후 문화시설 확충방향 및 건립방향

■ 서울시의 “도시개발 - 공간환경 - 문화시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 필요

- 서울시의 대규모 도시개발계획 및 공간재구조화사업에 있어 문화적 관점의 강화 필요
- 기무사 부지, 광화문, 용산, 청계천, 상암, 강북 뉴타운 등 대규모 공간의 재조정에 있어 문화시설의 체계적인 확충계획 수립 필요
- 서울시 내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있어 문화적 시설의 중요성 강화

■ 새로운 문화시설 확충방향 수립 필요.

- 중앙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개별 구청간의 특성화 및 역할분담 필요 : 서울(서울 시민의 생활문화)의 정체성 및 지역문화기반시설로서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필요
- 문화시설 내 “창작지원시설(예술인)/문화복지시설(일반시민)”간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델의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필요 : 문화부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창작자에 대한 직접 지원시설보다는 지역문화 내 시민의 문화권리나 문화복지, 평생교육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개발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있어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전략 필요
- 공개적인 절차와 전문성을 중심에 둔 운영주체 선정 : 단기적인 시설 운영 중심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설 간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지역문화 내 운영 능력을 우선에

돈 운영주체 선정 필요

- 신규 문화시설 건립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 서울시 내 “문화시설 간”, “문화시설과 문화전문가(예술인) 간”, “문화시설과 지역시민사회 간” 등 유기적인 네트워킹 적극 모색 : 네트워킹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추진

■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노인, 빈민 등)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 확대

- 특정 형태의 소수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소수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신규 건립
-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세부제안

- 아래의 내용은 연구조사, 의견수렴 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전제로 한 제안임

◦ (가칭) 대안문화지원센터(또는 독립문화지원센터)

- 취지 : 대안문화독립문화의 안정적인 지원, 그리고 관련 시설·주체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허브 공간으로써 대안문화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음
- 주요 내용 : 대안(독립)문화 생산자 및 네트워킹 지원, 대안(독립)문화 관련 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 쇼케이스전시워크숍 등 대안(독립)문화관련 유통인프라 지원, 어린이·청소년 관련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천 대상지역 : 홍대지역 부근

◦ (가칭) 문화교육지원센터

- 취지 :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화교육(또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원 및 지역문화(지역주민의 문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적합한 지역문화교육모델 및 평생교육모델 개발
- 주요 내용 : 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문화교육 아카이브, 문화교육관련 시민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관련 창작지원센터, 청소년 체험활동 및 커뮤니티활동 공간 지원, 문화교육을 통한 상담 심리치료 활동
- 추천 대상지역 : 은평구 국립보건원 이전 부지

◦ (가칭) 청계천 관련 천변 문화시설 확충

- 취지 : 청계천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련 시설에

대한 계획 및 대안은 매우 부재한 상황. 특히 청계천사업의 본래 취지인 “생태복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함

- 주요 시설 : 전태일노동문화센터, 서울근대생활박물관(또는 청계천생활박물관), 소수자문화지원센터(도시빈민문화권리지원센터) 등

• 기타

- 도심 내 노후시설 및 공간을 적극적으로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예) 청계천3·1아파트, 당인리발전소, 혜화초등학교 등
- 서울시 문화교류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서 “(가칭)서울아트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스형태의 “서울문화 인포메이션센터” 설립 및 운영 활성화
- 서울시내 “문화의 집”(문화부)과 “주민자치센터”(행정자치부)간의 연계 방안 모색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전제 :

- 1) 문화시설 가운데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우선 분포도나 시설 수치 현황에서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미술관의 경우 사립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차후 미술관의 분포나 운영에서의 목표 등을 얼마나 주도력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3) 그리고 전시활동을 박물관·미술관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시활동이 가능한 여타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프로그램 공유를 지향하면 박물관·미술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동북권과 서남권, 서북권의 열악한 현실을 그나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 4)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연구가 목표하는 바를 단순히 ‘향후 서울시에서 문화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것 말고도, 내용적으로 문화시설을 통해 문화도시적 면모를 이룬다는 목표를 놓고, 서울시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유연성과 연계성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문화기반시설의 활동을 통한 영향력으로 논의를 몰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시설의 수적 확충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을 통한 문화적 영향력에 목표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① 현재 서울시 문화시설의 분포상태와 설치운영상의 문제점 - 박물관·미술관

- 1) 일단 분포상태를 보면 미술관은 도심과 강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전히 미술관이 고급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미술관 자체의 프로그램과 운영에서의 전문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술관은 분산되어 있기 보다는 일정하게 모여 있는 편이 더 나은 조건이라는 점에서 종로구로 몰리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겠다.

하지만 미술관 분포도 이전에 서울의 미술관 자체가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울시립미술관(중구)과 마로니에미술관(종로구),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서초구) 외에는 공립 미술관은 없는 형편이고, 대부분 사립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내용적으로 분포도를 설명해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각 미술관의 문화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최소한 이용자 통계 정도를 제시하여 미술관 이용률을 타 문화기반시설에 비교하여 그 문화적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정작 미술관이 많은 종로구 구민의 미술관 이용률도 고려해볼만 하다.

- 2) 서울의 미술관 분포도를 고려해 미술관을 새롭게 설치한다고 할 경우, 사립미술관의 지 위로는 미술관이 분포해 있지 않은 지역에 설립하기를 기대하기는 거의 어렵다. 국공립의 형태로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투자를 하지 않고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을 기무사 부지로 이전한다 할지라도, 도심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문예회관이나 문화원 등에서의 전시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관건이어서, 이같은 여건만 충족된다면, 그나마 부족한 전시시설이 보충될 것이고, 또한 구민들에게도 미술문화 향유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3) 박물관의 경우 대학박물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학박물관을 분류하여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교수

① 문화시설 분포상태와 설치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 시설분포의 편중성과 접근성의 문제

- 서울 전역의 문화시설 분포 상황이 도심권과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의 형태 및 내용도 다양하지 못함
-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의 분포에 따라 시설이 건립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장르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발전되기 어려움
- 고급예술기반의 문화시설과 대중예술기반의 문화시설이 정책목적과 지역특성, 대중수요 여부에 따라 설치되지 못했다는 점
- 대표적인 문화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교통이나 지리적인 특성상 대중적인 접근이 어렵고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등) 독립시설로 존재해, 주요 거점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

■ 시설내용의 일반화에 따른 전문성과 다양성 부재

- 대부분의 시설은 공연장과 전시장으로서 각 장르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이거나, 더불어 공연장과 전시장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 특정한 시기나 장르를 전시하는 전문미술관(현대미술관 등)이나, 특정 장르를 공연하는 전문공연장(뮤지컬극장 등), 테마를 갖춘 전문박물관의 부재
- 문화예술의 장르와 내용이 다양화되고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담아낼 그릇이 없다는 점. 또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창조되는 신기술분야의 예술작품 활성화를 위한 창작 및 발표공간이 부재
- 전통문화예술, 고급예술, 대중예술, 상업예술, 문화산업, 대안예술, 아마추어를 위한 시설 등의 창작기반과 시장기능의 부재

② 향후 문화시설의 확충방향 및 건립 방안

■ 문화예술시장기능의 활성화 차원

- 문화와 예술의 진흥은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음. 문화예술의 공급자, 매개자, 수요자가 함께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
- 문화예술의 창작 및 공급과 관련하여 장르별 연습실, 스튜디오, 아카이브, 자료관, 창작공간, 아트스튜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 지원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 문화예술의 매개 및 시장형성기능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세미나, 강연실, 실습실을 갖춘 문화예술교육센터, 시장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관련 회사 및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지원센터,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소구될 수 있는 환경조성(문화예술 시설이 밀집한 문화예술의 거리와 지역단위의 밀집장소,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등)의 필요성
- 문화예술작품의 발표를 위한 문화예술시설의 다양화와 전문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함

■ 문화예술 활동의 전문성 강화 방안

- 고급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발표의 장을 마련. 전문공연장과 전문미술관, 장르별 특성화된 시설이 필요함(멀티미디어작품 전용시설, 예술영화상영관 등)
- 문화예술 전문 자료관이나 특수목적의 전문교육시설 등을 갖춘 서울시에 적합한 형태의 소규모 아트센터 구상
- 도심형 문화예술시설의 신규 설립 시 독립부지보다는 고층건물이나 대형건물 내에 입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함

■ 문화수요자의 확산과 관객개발의 측면

- 문화소외지역에는 전문공연장이나 전문미술관의 형태보다는 예술교육과 아마추어 창작활동 등을 기반으로 한 뉴타운의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커뮤니티센터 도입
- 소규모 박물관이나 지역의 문화자원에 기반한 테마박물관 형태의 시설을 설치.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사립박물관들에 대한 예산이나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꾀함. 기존 유흥시설의 문화공간 전용 등

■ 장소의 선택과 시설내용

- 장소성에 기반한 문화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며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나 지표설정이 전제되어야 함
- 강남권과 도심권에는 엘리트예술(고급예술)의 전문성과 국제성을 감안한 시설이 전제되어

야 하며 주변지역으로 갈수록 인접지역과 연계한 다중구조의 문화집중시설이 분포되어야 함 (예를 들어 서울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한 경기도권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하거나 다양한 주제나 개성화된 장르를 집중 육성하여 다핵화된 문화거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 오페라하우스 등이 거론되는 바, 오페라하우스같은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시설은 접근성, 인접예술과의 연계, 국제교류의 거점화 가능성, 문화향수에 대한 기초조사 등이 전제되어야 함. 특정지역 등 자연자원적인 지역의 특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형태도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함
- 뉴타운 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므로 주민이나 지역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개발되어야 함. 지역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나 문화센터의 설치 운영

③ 기타의견

- 현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집중과 배분에 따른 수위조절에 있다고 사료됨
- 기존 문화예술이 밀집된 지역인 도심부(중구, 명동, 인사동, 대학로, 홍대, 사간동, 장충동 지역 등)와 강남권(예술의 전당 주변부, 역세권, 청담동)의 경우에는 문화예술발표의 장을 밀집시키되 그 배후로 창작에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보완하여야 하며, 강북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홍대, 신촌, 당인리, 상암으로 이어지는 21세기형 문화시설의 도입을 통해 문화벨트를 설립
- 뉴타운 지역에는 특성화된 장르를 개발하거나 기존 문화거점의 배후지역으로 활용하여 창작기반시설을 밀집시키거나 소규모 단위의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 소규모 테마박물관의 밀집, 공원지역 내에 입지한 에코박물관 등
- 창작촌이나 아트스튜디오 등을 지역생활문화권에 기반하여 조성, 특성화된 장르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함. 공예, 디자인, 조각, 생활용품 전문공방 등
- 모든 지역 내에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이 고루 배포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서울시 전역에 핵심거점시설, 중핵단위, 소핵단위의 문화시설 등 전반적인 문화지도를 그릴 필요가 있음. 즉 핵심적인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장르별, 형태별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
- 시설건립에 앞서 운영에 대한 주체와 운영방향 등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책정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① 현재 문화시설 분포 상태와 설치운영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1. 자료를 보면서 서울 안에 서울과 지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 ‘문화의 집’이나 ‘구민회관’ ‘도서관’ 등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소위 생활권 문화시설)이 양호한 지역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소위 문화거점공간. 여기에 준하는 LG아트센터와 정동극장, 호암아트홀 등 공연장을 추가하면 더욱 뚜렷한 벨트를 형성할 것이다)이 밀집한 지역이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다.
2. 서울은 너무 큰 도시다. 그러므로 서울 안에 특성에 따라 특화구역을 둔다고 하더라도 서울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본은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이다.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은 같은 종류의 다른 공간과의 차별성보다는 지역의 니즈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가가 관건이다. 영화관도 마찬가지다. 영화관의 영화는 다 같은 복사본이니까.
3. 그러므로 두 개의 단위는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다. 즉 지역밀착형 공간과 서울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공간(이것을 거점공간이라고 불러도 될까) 쪽으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종류에 따라 지역별 거점을 마련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본다(그만큼 서울은 큰 도시다). 같은 공연을 서울 3,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것이 한 예이다. 현실적으로 적어도 강남과 강북의 관객은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된다.
4. 정량적 분석의 문제점을 상기하고 싶다. 대체 예술(또는 문화)에 있어서 산출량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당연히 공간의 단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나마 공연장은 좌석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전시공간은 이마저도 무시된다. 심지어 이것들을 모두 모아 개수를 비교하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연장만을 보면 각 공간들의 소위 브랜드 파워의 양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공간의 활용내용과 활용도 그리고 만족도로 나타난다. 대형할인점이나 멀티플렉스의 수를 비교할 때와는 다르다.
5. 세계 주요도시와 서울의 문화공간을 비교한 부분은 어리둥절하다. 인구나 면적대비 그리

고 절대수에서 뉴욕보다 ‘연극 공연장’이 월등히 낮다니! ‘연극공연장’의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6. 서울의 주요 거점문화공간의 서술에 한말씀. 예술의 전당은 공연시설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예관, 미술관, 디자인미술관, 자료관, 교육시설 등 공연장 기능 외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출발부터 공연, 전시, 축제, 정보, 교육, 놀이 등 6개의 복합기능을 설정한 바 있다. 새 국립박물관의 공연공간이나 세종문화회관의 전시공간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즉 현대적인 대형 문화공간들은, 특히 그것이 공연장이 들어 있는 경우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연장이 ‘밤의 공간’이라는 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도를 높이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② 향후 문화시설 확충방향 및 건립방향

1. 앞에서 이미 언급하고 말았다. 두 가지 방향으로 각각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커뮤니티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화예술적 니즈를 충족할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전제다. 문화예술을 복지와 삶의 질과 연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된다. 이 공간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센터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아마추어활동과 동아리활동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두 번째는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창작과 유통, 소비의 문제이다. 이는 집중과 분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즉 대학로나 광화문 등과 같은 클러스터(집적 지역)의 형태로 높은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형태는 더욱 촉진하면서도 장르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분산하여 공연하는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전자의 클러스터에 유통과 소비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자의 네트워크가 이를 더욱 확산하는 기능을 맡으므로 양자는 갈등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3. 분산에 의해 네트워크된 공간들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예술역량이 분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 추가되는 거점 공간들이 시장에 처음 진입하거나 차별성 있는 젊은 예술가집단을 상주예술단체로 맞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문예회관의 아이디어 중의 하나는 무대표준화를 통해 공연의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온전한 상태의 공연상품을 지역에서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연시장에서 중요한 기대이다. 한편으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네트워킹과 공동제작은 하나의 트렌드이다. 개별 문화 공간의 역량만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해질 것이다.

5. 한편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공연부문에 적용해보면 여전히 극장이다. 극장이 작업실이고 관객과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별도로 창작을 위한 기반시설을 위의 커뮤니티 센터와 거점공간에 더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공간은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입안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런 당위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7. 이 과정에서 각 공간들은 나름대로의 미션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 생기는 지역 문화공간들이 모두 기존의 거점문화공간들과 경쟁적인 위치에 포지셔닝하려는 경향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 중에는 기존의 거점문화공간들과 네트워크를 이룰 공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미션은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8. 공연시장에서 인프라에 대한 니즈는 역시 첫째는 전문공연장이다. 사업성 부족을 전용공연장에 돌릴 만큼 절실하게 요구하는 뮤지컬부터 오래 전부터 단 하나의 전용공연장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무용까지 기존의 인프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둘은 실제 시장에서 가지는 성격이 다르다. 뮤지컬 전용극장의 경우는 민간채원을 유도할 수 있지만 춤전용극장은 공공극장으로 건립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9. 두 번째 니즈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주체이다. 소위 휴먼웨어나 네트워크, 프로그램, 정보 등의 면에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감당할 물적 기반과 조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하자면 종합적인 공연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을 설립하여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10. 세 번째는 최근 논의가 한참인 공연박물관이다. 가능하면 공연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겸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 공연시장은 공공부문(비영리)과 영리부문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그러므로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민간부문(영리를 포함하여)과의 제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운영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는 전통적 방법부터 위탁운영, 합작운영, 투자유치, 기부채납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장에 긴장감과 활기를 채울 필요가 있다.

이용관

안양문화예술회관 관장

① 현재 문화시설 분포 상태와 설치운영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 시설 수나 분포현황

- 거점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이 종로, 중구(도심권), 강남, 서초구(동남권) 등에 밀집되어 기타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시설로의 접근성이나 문화향수권 신장에 있어 절대 불리하고
- 이들을 제외한 지역에는 문화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 해소에도 결정적 한계
- 저소득/저개발 지역일수록 문화복지를 위한 시설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인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음
- 도심권, 동남권의 경우는 대규모 랜드마크(거점시설, 대규모 시설 등)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뮤니티형 소규모 복합시설이 부족하여 문화교육/직접참여 등 기본적인 문화생활 미흡

■ 시설형태 및 시설운영

-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장의 경우 밀집지역에 위치한 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명, 음향, 무대 등 내부 시설들이 공연에 부적합한 것들이어서 공연장의 역할에 한계, 일반 행사장으로 전락된 지 오래임
- 또 이들 대부분의 시설에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운영도 불가능하여 대관위주의 행사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밀집지역 공연장의 경우 티켓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주 관람하기에 불리(공공공연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 커뮤니티형 시설(문화의 집/지방문화원/주민자치센터 등)도 차별성 없는 강좌식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이어서 일부 인기 강좌를 제외하고는 이용률 미흡
- 우선 기존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전문인력, 운영예산, 적정 프로그램 확보 등 운영의 활성화 시급

② 향후 문화시설 확충방향 및 건립방향

■ 시설형태

- 기존 시설인 구민회관의 경우 구마다 1개씩 골고루 있는 만큼 시설 보완, 리모델링, 혹은 개축으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화하여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 검토(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것들은 지구별 계획에 맞게 개조)
- 기존 7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시설의 보완과 예산확보, 운영의 전문화를 기하되 다른 지역에 같은 형태의 시설 신축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미구비된 지역(구)은 인구규모 등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적절한 규모와 목적의 시설을 건립하되 뉴타운 내에 위치토록 추진
 - 커뮤니티형/생활밀착형 복합문화기반시설이 보다 바람직
 - 예) 공연/전시/정보도서관/문화의 집/소규모 영화관/문화교육/창작시설 등
- 주요 지역(5개의 균형발전촉진지구)에는 전용극장의 건립과 운영(뮤지컬/무용/음악 등) 검토
- 영화관 등 문화산업관련 시설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 단 복합 문화시설에는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 영상시설 등은 들어갈 필요가 있음
- 대학 문화시설의 보완 활용
 - 지역 문화발전에 의지가 있는 대학의 시설/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 국민대 등

■ 장소의 선택

- 밀집형과 분산형 그리고 그 장소의 선택은 더욱 면밀한 자료조사와 판단이 필요. 즉, 지역별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세밀히 조사하고, 또한 지역민들의 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 시설내용

- 프로그램의 계층별 포트폴리오 개념을 수용하는 시설 설치

- 공연시설의 경우 :
 - 어린이 공연 → 어린이용 소극장(의자 형태/무대 높이 등 어린이에 맞게) 설치
 -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 → 공원 등에 소규모 야외 공연장 설치
 - 성인/청소년 공연 → 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유치 가능한 복합 무대
 - 다양한 실험용 공연 → 공연에 따라 변화무쌍한 BlackBox Theater
- 예술교육이 중심이 되는 시설의 설치
 - 대규모 시설보다 다양한 참여/발표 중심의 소규모 시설 → 문화교실/멀티미디어 교실/어린이 도서관/문화카페/다양한 규모의 빈 공간 등
- 학교의 시설과 인적참여 장려
 - 연습/제작/향유/교육 협력과 활동장소로 제공
- 시민참여형 문화시설 및 내용
 - 향후 예견되는 전문인력의 충원과 막대한 운영예산 지원의 난제 해결
 - 소수의 기본적인 전문인력 외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스스로 기획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 바람직
 - 이런 시설은 커뮤니티형 소규모 복합시설이 바람직
 - 운영 주체로서 공신력 있는 기획사/예술단체의 상주 등도 고려해 볼만
- 대학로 등 시설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개보수 지원과 임대료 등의 안정화 지원이 우선 되어야
- 특히 대학로는 수준 높은 문화의 모판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은 여타 지역의 문화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

③ 기타 의견

■ 보다 장기적인 기초 검토 필요

- 국가별 인구, 도시환경, 행정수도 이전 후의 인구변화, 문화향유 수준, 취향, 경제능력, 지원능력, 재정환경의 변화 등등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이에 맞는 것들을 결정하고
- 적정 수준의 문화시설 수, 구성, 프로그램 방식 등을 연구해야
-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와 유사한 많은 문제 발생할 것

전효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① 현재 문화시설 분포상태와 설치운영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서울의 문화시설 일반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았지만, 전체적인 개요에 해당하다보니 구체적으로 짚을 지점이 그리 많지 않다. 공연장, 미술관 등에 관해서는 다른 발제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 발제에서는 한두 가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해보겠다.

현재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지 문화시설의 부족이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환경 자체의 부재가 아닐까 싶다. 부족한 시설마저 시설운영이 부진한 상황은 공간확대정책과 아울러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프로그램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시설 확충을 사고하고,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운영을 재검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타의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 특성이 라든지, 사람들의 욕구에 거의 잘 반응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제약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기반시설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과 실천적 프로젝트 개발이 없이는 개선은 쉽지 않다. 많은 문화관련 학과 졸업생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인력이 없는 문제는 앞으로 설치될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급히 짚어져야 할 지점이다. 말하자면 인력정책을 핵심으로 해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결시켜내는 접근이 필요한데, 서울이라는 지역에만 한정하더라도 대학이나 대학원과정 등에 프로젝트형 수업을 개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시설의 분포가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문화시설의 특성화가 미진하다는 점도 짚어져야 한다. 구 단위로 보면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중첩되고 대상도 구별되지 않는다. 청소년수련관은 커뮤니티시설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고, 문화시설 등이 PC방 비슷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특성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프로그램으로 특성화되는 공간이나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이라는 식의 정체성 확보를 통하지 않고서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새로운 문화시설 설치안은 나름의 정체성과 특성화를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아직도 문화기반시설을 보는 일반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예를 들자면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visit center,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

친 문화정보 유통공간 등 여러 가지 문화공간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다.

② 향후 문화시설 확충방안 및 건립방안

항목을 나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간, 형태, 내용 등을 종합해서 문제제기를 해보도록 한다.

문제 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계획을 나름대로 읽다보면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리고 나름의 네이밍 등에서 특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읽히기는 하는데, 뭔가 문제 진단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지 않아서 어쨌면 비슷한 기능의 공간이 이름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들기도 한다. 문화관련 계획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역으로 도시설계 차원이 강조되어 있어 문화공간의 구체성을 짐작하기는 아주 힘들다. 불평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뉴타운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펼쳐 나가려면 건축 관련한 MA제도 외에 문화관련 총괄기획자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든다.

문화공간은 주로 공연장, 전시공간, 구민회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특수기능의 공간 등이 주 대상이 된다. 뉴타운 계획에서 여러 다양한 시도들이나 네이밍이 동원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시설 설치의 관점에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기존 문화예술인 중심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문화공간의 부족을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공공문화정책의 정체성을 좀더 분명히 하고 문화시설 설치 논의와 운영개선 등의 문제가 짙어졌으면 한다. 사실 문화예술인들의 공간부족 문제와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의 문화참여활동은 시장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시설에 아마추어들이 활동하고 발표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시설 공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시민들을 위한 비시장(non-market) 영역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최근 강조되고 있듯이 문화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로 제기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향수 기회를 넘어서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구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도시문화, 일상문화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접근권을 새롭게 정의하는 시도에서 문화시설 설치가 논의되었으면 한다. 특히 이런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조사는 대단히 부분적이라는 생각이며, 문화공간과 시설이 전문가 중심의 논의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논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인다. 시민을 막연한 수혜 대상으로 놓고 문화예술진흥을 논의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예술성을 발현하기 위한 기초 조건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참여형 공간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시설 운영의 현황으로 가면 실제로는 공간 대여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문화시설들이 많다. 공간 대여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문화 창작과 제작, 발표 과정이 가능하고, 이를 지원할 인적 자원 및 물적 기초 자산 등의 구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운영 관행을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지원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으므로 소략하기로 한다.

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시설과 시민 활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문화 진작을 위한 대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자율적 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되는 시설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안, 또한 시민들의 상호학습이 가능한 자원봉사 및 문화통화 개념 등이 운영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설형태는 커뮤니티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많았으면 한다. 다음의 경우만 하더라도 300만개의 카페가 있고, 이 중에서 10대가 운영자인 경우도 100만개에 달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문화적 활동과 관계되어 있는데, 모임 등을 위한 지불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세팅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즉 커뮤니티활동이 공공문화시설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형태가 주어져야 한다.

좀 더 확장해보면 커뮤니티활동 역시도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동호인 모임부터 마니아 집단까지 그 폭이 넓어 시설 내용에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한 축으로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단계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 많은 커뮤니티들이 자기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도 많고, 상업적인 모임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공공문화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추가로 언급하자면 공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뉴타운에서는 전체적인 공간정책이 있었으면 한다. 서울에서 겪는 불편함 중의 하나는 한강에 나가보려고 해도 강변도로 등이 동선을 다 끊어놓고 있는데, 공간접근도나 공간설계 등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문화시설의 경우 활성화 문제는 그 느낌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분절적인 방식의 설계가 아니라 지역 내 시설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애니메이션 및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세 가지의 시설을 제시하였으며, 이 시설들은 상암DMC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거나 서울소재 대학캠퍼스에 병행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

1. 애니메이션 HD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인턴십 인력양성스튜디오

1) 사업 배경

■ 대외적 배경

- 21세기 영상산업은 기술과 비즈니스라는 환경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영상기술환경의 변화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로 인한 제작시스템의 효율적인 통합화와 IT, CT산업과 연계한 유비쿼터스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환경의 변화가 경영 환경 변화를 유발시킴
- 해외 영상산업은 거대 미디어그룹을 중심으로 한 세계시장 확대, 영향력 강화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간당 콘텐츠 생산성을 높이고,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One-Source, Multi Use가 가능한 블록버스터 중심의 고품질 콘텐츠로 세계 영상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고품질의 HD콘텐츠 제작을 통한 국가 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절실 - WorldWide컨셉의 고품질 콘텐츠만이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

■ 대내적 배경

- 다채널, 다매체화에 따른 "HD"기반의 디지털콘텐츠 수요가 급속히 증가
 - 국내 HD위성방송의 실시, DMB 실시, 케이블TV의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영상 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는 국내 제작자, 배급자의 기술 개발과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하게 만들고 있음
- 국내 HD 제작기반의 열악한 환경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 국내 HD 영상시장은 지상파의 지배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한 제작사와 프러덕션 등은 재정 문제, 기술적 요인들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이며 이는 지속적인 산

업경쟁력 약화를 유발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2) 목적 및 역할

■ 기본 목적

- HD국제공동제작 인턴십 인력양성스튜디오는 HD영상콘텐츠의 기획, 교육, 제작, 유통을 포함하여 HD영상콘텐츠와 관련한 전 가치 사슬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One-Stop Full Service를 제공하며 제작지원, 교육지원, 유통지원 등의 기능을 인턴십으로 수행하는 “New Creation Power”의 종합미디어센터 역할을 수행함

■ 역할

- HD국제공동제작 인턴십 인력양성스튜디오는 국내 최고의 HD콘텐츠 제작을 위한 종합적인 제작시설을 지원하여 HD콘텐츠 관련 비즈니스 참여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인턴십 교육의 장을 보장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충원 및 재교육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 제작, 생산된 HD콘텐츠를 기반으로 VFX사업과 CGI를 연계한 아시아 문화콘텐츠 산업의 HUB로써 세계 HD콘텐츠시장 진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 HD콘텐츠 제작 및 기술 선도를 위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HD영상 제작을 위한 실전적 기술과 제작환경을 제공함
- HD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HD 제작기법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시장 개척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 마케팅, 컨설팅 역할을 수행함

국내 최고의 HD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유통 클러스터의 중심적 역할 수행

-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 등 관련 기업의 HD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링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작 및 배급, 기술력 조기 확보

HD콘텐츠 제작,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기존 영상제작 인프라를 활용하여 HD콘텐츠의 국제 견본시를 개최로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 HD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실전적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HD제작지원센터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기지화

- HD로 제작되어지는 디지털콘텐츠는 방송, 광고, 영화는 물론 유무선 기반의 네트워크, DVD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 가능 재제작 환경을 제공
- 해외의 HD방송사(HD-Net, Discovery 등) 및 배급사는 물론 IT, NT, CT 사업자와의 수출입 마케팅을 위한 기지화

2. 디지털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센터

1) 디지털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센터 조성 배경

■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환경 변화

21세기를 맞이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은 기술과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인은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변화의 양상은 급격하고도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콘텐츠 제작기술환경의 변화는 디지털기술로 인한 효율적인 제작시스템의 통합화와 IT산업의 연계로 요약할 수 있다. 각종 정보기술은 디지털콘텐츠 제작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배급 통로로서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콘텐츠 제작기술환경의 변화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영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다채널, 다매체로 대변되는 디지털콘텐츠 시대의 경영환경의 변화는 크게 국내외 경쟁체제의 격화와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국제화로 요약된다. 다채널, 다매체 환경 하에서는 급격한 영상콘텐츠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생산이 요구된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최근 영상콘텐츠 제작의 국제적 분업화로 인한 다국적 공동제작방식의 도입과 동일문화권역별 국제유통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다.

즉 디지털 전환은 이미 목전에 닥친 시대적 현실이고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적 사활이 걸린 필수 해결과제라는 점에서 특히 디지털콘텐츠 제작의 양적, 질적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다.

■ 디지털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센터 시설구축의 필요성

기술한 바와 같은 디지털콘텐츠 제작기술환경의 변화와 디지털콘텐츠산업 경영환경의 변화라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위성방송, 케이블, 공중파 등 전 매체 부분의 디지털화가 확산되어가고 있고 제작에서 수신 등 전 가치 부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콘텐츠제작사는 재정적, 기술적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디지털콘텐츠의 부족은 소비자의 디지털TV에 대한 소극적 구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디지털 제작 동인을 훼손시키는 부정적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제작설비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한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사들의 영세성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취약한 체질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악순환은 산업계만의 자발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순환의 발화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디지털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센터의 비전 및 역할

■ 비전

디지털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센터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에서부터 유통까지 디지털콘텐츠의 전 가치 사슬을 지원하는 원스톱 Full Service 제공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여 제작지원, 교육지원, 유통지원 등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센터와 자금자족형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센터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인력과 기술과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 센터는 디지털콘텐츠 제작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인력과 기술과 자본을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방송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센터를 지향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술, 사무공간, 영상물 아카이브 제공과 같은 제작지원기능과 국내외 마케팅, 저작권 관리, 수출 및 수입지원, 영상물 거래시스템지원 등 유통지원기능, 디지털방송 신규인력 양성, 기존인력 재교육, 산학연계, 첨단 디지털콘텐츠기술 연구개발(R&D)등 교육지원기능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 역할

첫째, 디지털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센터는 향후 급증하고 다양화하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수요를 충족시키는 종합적 제작시설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장르별, 분야별, 제작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 제작시설과 기술적 해결책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적절한 기술 인

력과 숙련된 제작 스태프의 지원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디지털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센터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디지털콘텐츠채널 사용사업자,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등 방송 비즈니스 분야의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창출하는 역동적 시장을 제공한다. 이는 이 센터와 같이 집적화된 시설단지 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공간적 유대에 의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는 이들의 공동작업, 공동프로젝트 추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디지털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센터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필요한 제작 및 기술 인력들의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책을 제공한다. 이는 크게 신규인력 양성 역할과 기존인력 재교육 역할로 나뉘는데 기존 디지털콘텐츠 유관 교육기관들의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교육 내용의 질적 특성화와 차별화를 추구하게 된다.

넷째, 디지털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센터는 제작된 프로그램의 사후지원 차원에서 유통 다각화를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를 지원하는 종합 마케팅지원책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독립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제작 단계에서의 기획 컨설팅 및 경영, 재정전략 자문 등의 역할 확대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센터가 기술한 역할들을 적절히 수행한다면 국가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아직 세계적으로 디지털 방송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디지털콘텐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3.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백업센터

1) 사업추진 배경

■ 사업추진 필요성

지난 2000년 9월 모 증권회사의 침수 사건으로 인해 업계에서 대책 마련에 대한 공론이 있었지만 실제로 재해복구센터의 구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후 1년 뒤 미국 9.11 사태로 인해 재해에 대한 위기감이 표출되면서 기업 및 업계에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 이러한 테러 및 각종 재난(화재, 수해, 전원장애, 시스템장애, 해킹, 운영자 실수 등)으로 인한 IT 방송제작, 송출 시스템 및 망에 대한 장애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백업 대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현재 40여 군데의 금융기관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했거나 조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이나 제조업체 등에서 20여개 사가 구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러한 재해복구센터는 엄청난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및 회선비용 등으로 인해 구축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대단하고 디지털미디어와 같은 문화콘텐츠 등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 디지털미디어콘텐츠를 아카이빙하기 위한 스토리지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영상 데이터와 같은 메타데이터들의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해 엄청난 운영경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백업을 해 놓아야만 할 것이다.
- 그 동안의 백업은 개인용 PC에서부터 각종 서버 및 메인프레임급 서버들의 데이터 백업까지 동일 건물 내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백업과 테입 백업 후 일정 기간동안 원격지에 보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중요 데이터를 백업 보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번 테러와 같이 동일 건물 파손에 따른 데이터 완전손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과 원격지에 국가적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백업센터를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 현재 지방방송국 내의 미디어 백업센터 구축은 미약한 상태이며 각 지방의 문화콘텐츠 개발 및 이에 따른 디지털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이 필요하며 미디어백업센터와의 연동을 통해 관리의 용이성과 더불어 불의의 재해에 따른 자료 보존을 영구히 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 이러한 각 센터 간의 네트워크 연동 및 관리 방식은 각 지방간의 문화콘텐츠 교류 등의 활성화를 통해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업체의 경기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2) 관련 현황

■ 미디어 백업 운영 현황

- 그 동안 수많은 채널들이 생겼지만 메이저 방송을 제외한 방송국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체계적인 방송영상의 자료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 창달의 목적을 두고 설립된 지역민방들은 영상물의 디지털 데이터화는 송출부분에서 되고 있으나 저장공간의 문제·경영상의 문제로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민영방송 10개사, PP(Program Provider) 189개사

■ 관련 기술 현황

- 재해 복구 시장의 경우, 기존의 스토리지 시장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기업의 IT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존 스토리지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던 대형 스토리지 시스템보다는 중소형 스토리지 시스템이 더욱 큰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 기존 DAS 수요 역시 상당한 하락을 보이는 반면 SAN과 NAS와 같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데이터의 폭증으로 인해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또한 스토리지 자원이 모두 네트워킹되면서 이기종 환경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관리환경은 더욱 분산화되고 복잡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리의 표준과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인 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SNIA, Fibre Alliance 등의 표준화 기구에 참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부분의 제휴, API 공유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스토리지사업의 활성화 및 고객에서 위치, 시간, 장소, 대상자 등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술은 직간접적으로 문화콘텐츠의 보존 저장 및 관리를 위한 기반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3) 세부 추진 내용

■ 사업 목표

본 사업의 기술 목표는 테러 및 각종 재난(화재, 수해, 전원장애, 시스템장애, 해킹, 운영자 실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의 문화유산인 문화콘텐츠의 축적 및 보존 관리를 위한 KMBC(Korea Media Backup Center)를 최종 목표로 한다.

1,500Terabyte의 저장공간을 확보하여 SD, HD급 방송용 품질 미디어를 십오만 이상 백업할 수 있는 시설과 원격지 광통신 설비를 완비하기 위한 제반 하드웨어 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축을 말한다.

■ 기술적 구현 목표

본 기술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혼합한 형태의 디지털콘텐츠 보존 관리 기술을 제공하며, 원격지 및 로컬의 혼합된 형태의 접근 액세스를 통한 자료 관리기술을 지원하는 통합 원격지 디지털 백업센터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자료 보존 관리 기술 형태는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버시스템의 도입 및 관리자가 장소, 시간에 구애 없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을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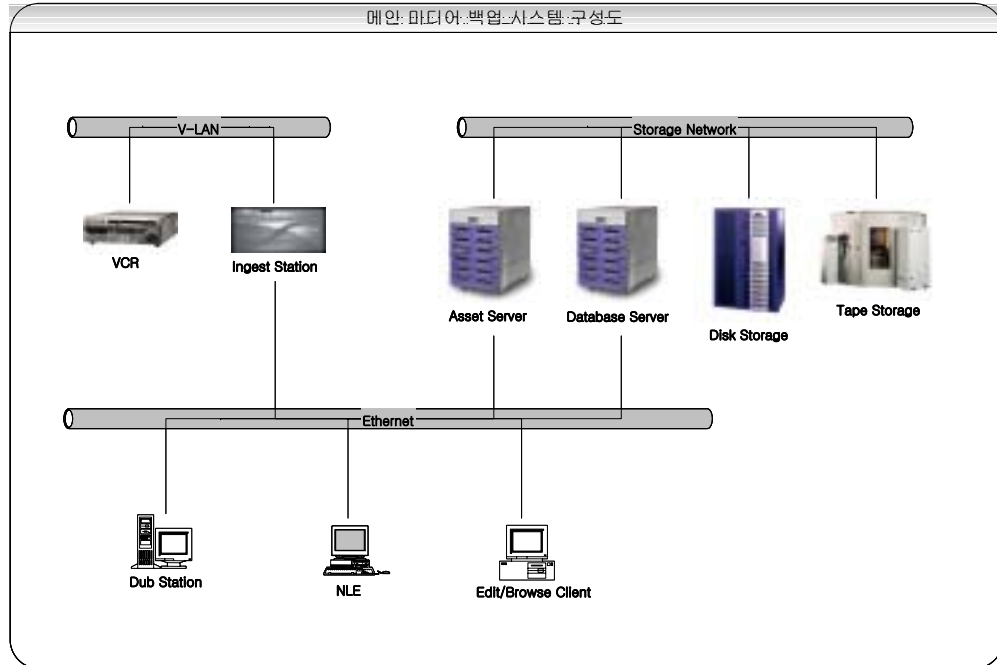
본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핵심 사항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VPN을 통한 중앙의 원격 미디어센터 및 각 지방의 미디어센터를 연동하는 네트워크 구성 및 구축
-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원격 콘텐츠 관리 보존 기술
 - 원격 접속 및 시스템 유지 관리 클라이언트 시스템 개발
 - 원격 미디어 모니터링 서버(Remote Media Monitoring Server) 시스템 개발
 - 방송 아카이브에 대한 XML 표준 제시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로컬 콘텐츠 관리 보존 기술
 -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Indexing 데이터의 Mirroring 기술 적용
 - 테이프 등과 같은 백업장치 도입
- 방송 디지털 미디어 아카이빙 기술
 - 인제스트(MPEG Encoding & Cataloging)
 - 내용기반 인덱싱 및 검색 기법 개발
 - 통합 디지털 문화콘텐츠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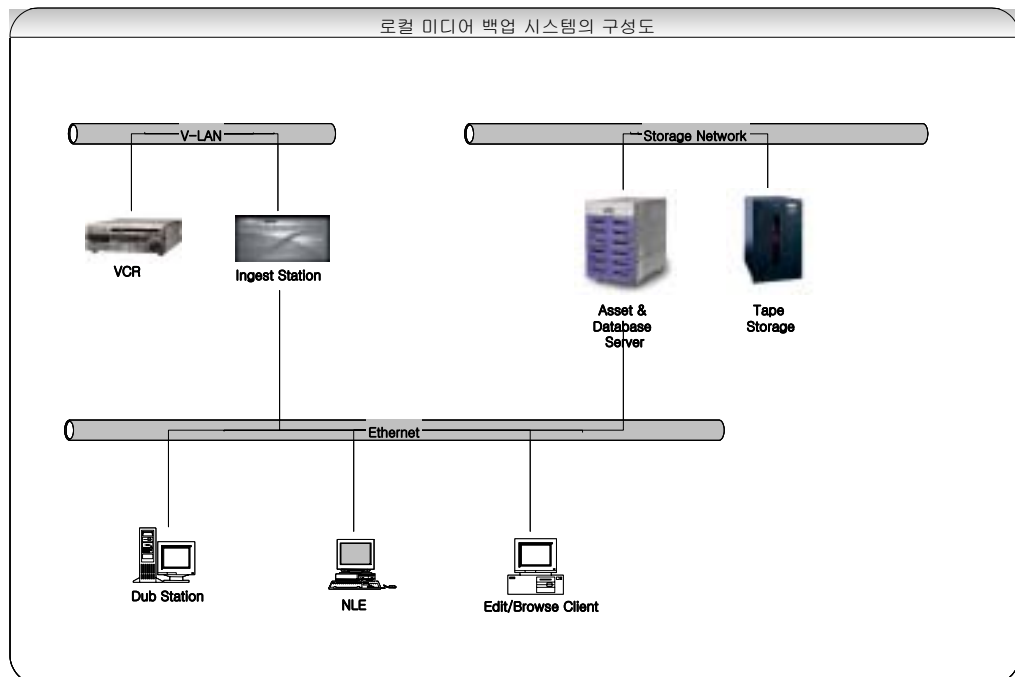
■ 과제 개념도

다음은 통합 미디어 백업 센터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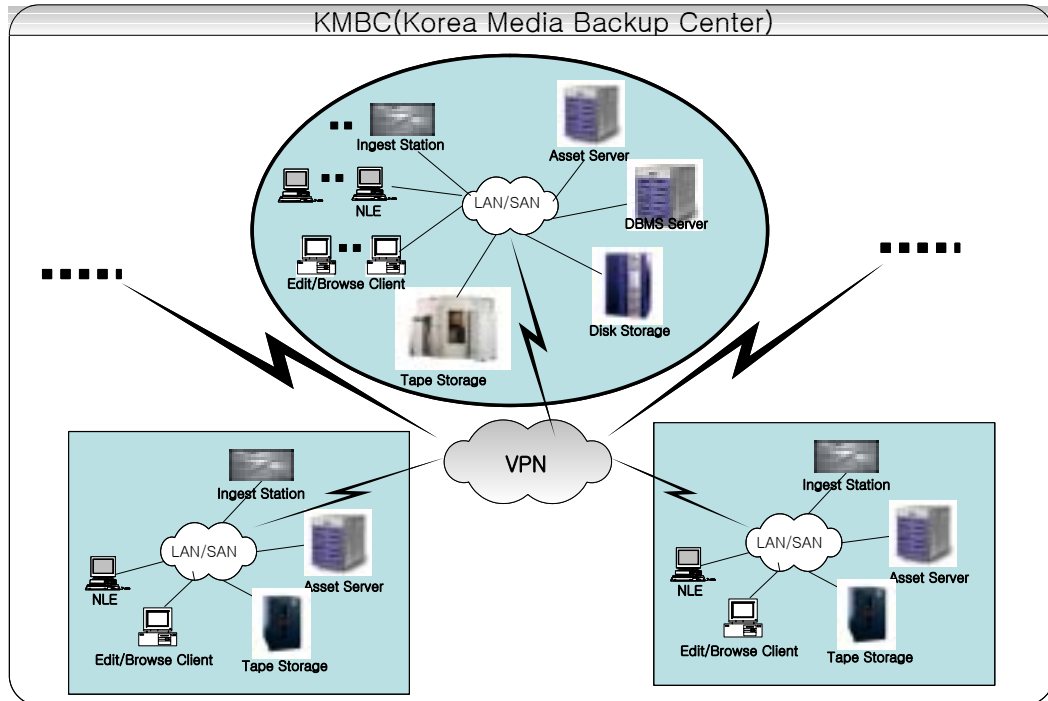
- 중앙의 통합 미디어센터와 각 지방의 중소규모 미디어 백업센터의 연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며 저렴한 통신비용을 유지한다.
- 통합 미디어 백업센터는 각 지방 방송국에 존재하는 미디어 백업 서브시스템에 미디어 백업을 위한 기초적인 시스템 구축만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하드웨어의 구성은 센터에 두어 원격에서 관리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으로 확장이 용이하며, 당장의 서브시스템에 백업시스템 구축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 구축된 네트워크 통로를 통해 중앙의 시스템과 서브시스템간의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각각의 서브시스템(각 지방 방송국의 미디어 백업센터)은 독립적으로 운영가능하며 분산 시스템의 하나의 컴포넌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시스템의 구축 및 연동 또는 삭제가 매우 유연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1〉 중앙 센터용 메인 미디어 백업 시스템 개념도



〈그림 2〉 각 지방방송국의 중소규모 로컬 미디어 백업 시스템 개념도



〈그림 3〉 통합 미디어 백업 센터 개념도

The study on the expansion plan of Seoul's cultural facilities

<u>Project Number</u>	<u>SDI 2004-R-37</u>
<u>Research Staff</u>	<u>Do-Sam Ra (in Charge)</u> <u>Seul-Ki Shin</u>

Seoul is a megalopolis which is not only a physically far-flung city but also has shown a diversity of lifestyle. However, the urban structure of Seoul is imbalanced by economic standards and social and populational composition. Accordingly, regional disparity within the city, product of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1960s, is one of the challenging problems Seoul City needs to solve in order to be a global city with capability for sustainable grow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committed to gradually reducing the regional imbalance in terms of the local economy, educational environment, housing, and finance. This study purpose that the plan for expansion of cultural facilities in newly-developed areas, 'New Town', is developed according to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lan. Ultimately, it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and urban environment in Seoul.

This study includes:

-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cultural facilities in Seoul
- Analysis of necessary cultural facilities in Seoul
- Arrangement of plan for each 'New Town's' cultural facilities
- Establishment of total plan for expanding cultural facilities

This study suggests two results within cultural facilities in Seoul in terms of current situation and expansion pla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strived for establishment of cultural facilities such as performance hall, exhibition hall and local culture and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eoul within 'Comparative Statistics of Major Cities,'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is absolutely deficient in comparison with population. Yet, this problem is brought about by overpopulation, which means prolonged one. More seriously, the imbalance between cultural facilities exists. Among those, almost are exhibition facilities which are for performance and

exhibition. In contrast, it is lack that cultural facilities are for infrastructure of creating, related with entrepreneur, conservation and local identities. In this reason, cultural facilities related to above are supplied in priority.

For balancing each 'New Town's' cultural standards, this study divides the fields of Arts into performance, exhibition, media and library. According this classification, there are four structural axes which are East-North and East-South areas with performing art, West-North area with cultural creating and visual art, West-South area with media and image art, and East-South area with mass media art network. This plan regards cultural facilities' situation as both internal and external range. Also, living cultural facilities is built in 'New Town' focusing improvement of residential condition and professional cultural facilities is built i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focusing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Living cultural facilities are planned for specification of residents' cultural service within each local identities and condition through creating and education. Professional cultural facilities are planned for qualification of professional performance and exhibition respecting each field of arts. These contribute to developing sustainable surviving of arts and to providing diverse cultural service.

Table of Contents

Chapter I. Introduction

Chapter II Categories of Cultural Facilities and Expansion Policy

1. Urban Cultural Environment and Public Facilities
2. Category System of Cultural Facilities
3. Historical Expansions of Cultural Facilities

Chapter III. Current Situation and the Analyses of Problems

1. Distribution of Cultural Facilities in Seoul
2. Implications

Chapter IV. Planning and the Direction of Expansion in Seoul

1. Discussion about Direction of Expansion
2. Discussion about Planning

Chapter V. Establishing the Expansion Plan about Cultural Facilities

1. Basic Guideline
2. Examination of Conditions for Planning
3. the Plan for Expansion of Cultural Facilities

Chapter VI. Conclusion : Policy Recommendations

• *References*

• *Appendices*

시정연 2004-R-37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발 행 인 백 용 호

발 행 일 2004년 12월 31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57 팩스: (02)2149-1289

값 12,000원

ISBN 89-8052-352-1-9333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